

2017 사업보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기에 대한 설명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뿔으로써 금속 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비철 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的美를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뜻함.
 3. 원 :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함을 나타내고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속노련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고 힘차게)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림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뭉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물 을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불 고 뜨 거 - 워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머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박 이 편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무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정 의 의 사 회 퍼 갈 금 속 노 — 련
인 류 의 의 평 화 지 킬 금 속 노 — 련
복 지 를 다 저 가 는 금 속 노 — 련

위원장



김만재

지도위원



박인상



유재섭



이병균



장석춘



변재환



강영섭



김장선



최웅길

임원



수석부위원장 정일진



사무처장 김준영

부위원장



강국모



권동섭



김광호



김길섭



김동의



김동준



김수환



김영국



김태완



김해광



남재환



류재선



박상규



박철규



방운제



배상호



배준호



석승희



신석곤



오인상

부위원장



윤동현



윤복현



윤자심



이남철



이상철



이준덕



이해관



장재성



정덕순



정상준



정진용



천정근



최정열



최해경



한명선



한창욱



허정우



황대선

회계감사



강호석



김나리



김삼두



이재성



황성원

사무처



조직본부장 김성수



정책본부장 김영미



노사대택실장 전종덕



총무실장 박선자



정책국장 최장운



조직부장 최재원



정책부장 곽상욱



조직부장 정태교



노사대책부장 나병호



홍보부장 박강원

목 차

선언,강령, 연혁 및 간부명단	21
총 론	35
정책기획활동	87
조사통계활동	155
총무활동	183
조직활동	217
국제연대활동	273
법규활동	283
산업안전보건활동	293
홍보선전활동	313
여성문화활동	387

2017 사진으로보는 금속노련!



2017 정기대의원대회



- ▶ 2016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 (2017.5.23.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양대노총 제조연대활동



▶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2017.6.28.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제조산업발전법 발의 기자회견
(2017.9.13. 국회 정론관)



▶ 양대노총 제조연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2018.1.29.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



▶ 양대노총 제조연대 근기법개악 및 최저임금법개악저지, 제조산업발전특별법추구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2018.2.1. 여의도 국회 앞)

회의 및 행사



▶ 제18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2017년 정기대의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결의 (2017.5.16.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제18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2018년 임금인상 요구율 및 투쟁방향 심의 의결 (2018.2.27. 한국노총 13층)



▶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16개 지역본부와 진행함)



▶ 금속노련 56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 (2017.8.25. 여의도 백화점)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체육대회



▶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2017.9.7.~8.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제8회 금속노련 노동문화 경연대회



▶ 제8회 금속노련 노동문화경연대회(2017.9.7.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힘찬 투쟁활동



▶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2017.7.4. 국회 정론관)



▶ 엘링크링거노조 천막투쟁
(2017.6월. 구미 엘링크링거 앞)



▶ SK하이닉스이천노조 천막투쟁
(2017.6월. SK하이닉스이천 본사 앞)



▶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상경투쟁
(2017.6.19. 서울 한남동 본사 앞)



▶ 농협사료노조 상경투쟁
(2017.8.12. 서울 성내동 본사 앞)▶

힘찬 투쟁활동



▶ 성암산업노조 상경투쟁(2017.12.20. 서울 대치동 본사 앞)



▶ 엠이엠씨코리아 노동조합
2017 임단투승리 결의대회(2017.8.17.)



▶ 성암산업노조 포스코앞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2018.1.25. 전남 광양 포스코 앞)



▶ 삼영전자노조 출근투쟁 집회
(2018.2.9. 성남 본사 앞)



▶ LS엠트론노조 상경집회
(2018.3.8. LS엠트론 안양공장 앞)

힘찬 투쟁활동



▶ 켄코어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 고용생존권 대책촉구 기자회견(2017.6.15 국회 정론관)



▶ 서울남부지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2017.8.07. 서울남부지검 앞)



▶ 켄코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 및 최규선 경영 일선 축출 촉구 결의대회(2017.8.09.)



▶ 켄코어노조 수요집회(2017.9.13.)



▶ 켄코어노조 수요집회(2017.9.20.)



▶ 켄코어노조 수요집회(2017.11.01.)



▶ 한국노총전국노동자대회 켄코어노조 모금운동(2017.11.18. 서울역 광장)



▶ 켄코어노조 산업은행 앞 출근투쟁 (2017.11.29.)

☞ 금속노련은 투기자본에 의해 망가진 켄코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2017년 초부터 2018년 현재까지 1년 간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연대활동



▶ 노동존중사회 건설! 정책협약관철! 2017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2017.11.18. 서울역 광장)



▶ 김만재 위원장, 한국노총-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 참석(2017.6.20. 정부서울청사)



▶ 최저임금 1만원쟁취! 세종시 한국노총집회 (2017.6.29.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



▶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국회토론회(2017.7.24.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 김만재 위원장, 청와대 노동계초청 오찬 간담회 참석(2018.1.19. 청와대)



▶ 제110주년 여성의 날 기념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2018.3.7. 세종문화회관 앞)



▶ 제110주년 여성의 날 행사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대회(2018.3.8.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

국제 교류활동



▶ 인더스트리올 집행위원회 및 여성위원회
(2017.04.26-28. 스위스)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JCM대표단 초청
(2017.5.23.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ROCMU대표단 초청(2017.5.23.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2017.6.19.~23. 베트남)



▶ 대만 ROCMU 교육세미나
(2017.9.11.~12. 대만)



▶ 한일 금속노조 교류회의
(2017.11.14.~16, 일본)

교육활동



▶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2017년 4월 3일~5일)



▶ 금속노련 노조간부 기본교육
(2017년 6월 14일~16일)



▶ 금속노련 여성간부 역량강화 교육
(2017년 7월 5일~7일)



▶ 제조연대 제1차 산업안전 보건교육
(2017년 8월 21일~23일)



▶ 금속노련 여성노동자 건강권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2017년 10월 24일)

교육활동



▶ 제조연대 교섭위원 1차 교육(2018년 3월 19일~21일)



▶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2017년 10월 26일~27일)



▶ 금속노련 '노동조합 전산실무 교육'
(2017년 11월 20일~22일)



▶ 제조연대 노동조합 법률실무 역량강화 교육
(2017년 11월 29일~12월 1일)



▶ 제조연대 경영분석교육
(2018년 3월 12일~14일)



▶ 금속노련 글쓰기 교육(2018년 3월 15일)



▶ 금속노련 노동문화 교육
(2018년 3월 28일~30일)

선 언

역사 발전의 주역이며,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깃
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고 미래 지향적
인 노동운동을 통해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
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불평등한 사회
제도 개혁에 앞장서는 사회중심 세력으로서 인간
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참된 민주·평등·복
지·평화 통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강 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하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중심이 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 평화 통일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에 입각한 통일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4. 우리는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확보, 모성보호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남녀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적극 앞장선다.
5.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며,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동조합운동의 대통합을 실현한다.
6. 우리는 노사 대등의 원칙 아래 경영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현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투쟁한다.
7.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를 강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횡포와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이룩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 혁

서기 1959년 3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부산지구 철공노동조합을 주체로 하여 탄생하였으나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여 오던 중 서기 1960년 10월 대한조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여 사실상 제2 노조로 등장하게 되어 긴요한 총단결 과제는 혼미 상태에 이르게 되어 당시노련에서는 또다시 서기 1960년 10월에 인천중공업회사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전국철강노동조합연맹 결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 노조가 등장하는 과정에 처하여 오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인하여 노동단체가 해체되고 동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 672 호에 의하여 단일 산업별 체제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 결성되었다. 그러나 1980 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1년 2월 23일 개최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거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으로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혁 일람표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59. 3. .	유익배	한승용,이원석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결성대회	60.10. .	임한식		김사옥	
전국철강노동조합	60.10. .		준비위원회:임한식 준비부위원회:송영준,김재범		
전국금속노동조합 결성대회	61. 8.25	지연일 (인천중공업)	김재범(대한중기),이수영(삼양산업),이령(금천철 공)	박종현 (삼성기계)	609
제2차대의원대회	62. 7. 2				
제3차대의원대회 (임시대회)(선출)	63. 4.12	박종현 (삼성기계)	유귀형(한국전력기계),이수영(삼양산업),권종오 (한국기계)	김득성 (기아산업)	5,034
제4차대의원대회	64. 4.30		유귀형(한국전력기계),박세천(한국기계)		8,455
제5차대의원대회	65. 4.30		최종규(금성사),이명구(인천강업)	이건성 (인천중공업)	9,110
제6차대의원대회 (임기)	66. 1. 8	박세천 (한국기계)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업),박종선(한국공 업)	허만성 (인천중공업)	9,984
제7차대의원대회	67. 4.27		최종규(금성사),김병용(기아산업),이의용(인천중 공업)	홍순모 (일진기계)	14,038
제8차대의원대회	68. 4.30				15,223
임시대회의원대회 (보선)	68. 9.20	김병용 (기아산업)	최종규(금성사),이성학(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 기),이규운(봉신주철),강준석(한국베어링)	이택용 (인천중공업)	17,947
제9차대의원대회	69. 4.29		문익모(이천전기),이규운(봉신주물),강준모(한국 베어링),허재엽(조선공사)(보선),강기태(금성사) 보선	이현구 (한국기계) -보선	23,960
제10차대의원대회 (임기)	70. 4.30	김병용 (기아산업)	강기태(금성사),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이 우년(한국기계)	최종규 (금성사)	25,217
제11차대의원대회	71. 1.16	김병용 (기아산업)	정남수(조선),하준(조선기업),문익모(이천전기) (보선)	최종규 (금성사)	27,306
제12차대의원대회	72. 4.28				
제13차대의원대회 (임기)	73. 4.25	김병용 (기아산업)	문익모(이천전기),강준석(한국베어링),정부경(금 성사),한달수(대한전선),팽종출(조선공사),김정 배(대한중기)	최종규 (금성사)	27,246
제14차대의원대회	74. 4.30				43,856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15차대의원대회	75. 4.23				53,293
제16차대의원대회 (임기)	76. 4.21		강준석(한국베어링), 정부경(금성사), 하준(승리기 계), 한달수(대한전선)		72,809
제17차대의원대회	77. 4.27				92,756
제18차대의원대회	78. 5.20				112,891
제19차대의원대회 (임기)	79. 5.11	김병용 (기아산업)	하준(경북지부), 정남수(부산지부), 이현구(대우중 공업), 팽종출(조선공사), 이중석(남서울지부), 정 낙균(금성전선)	최종규 (금성사)	138,668
제20차대의원대회	80. 6.17				126,140
제21차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 합연맹결성임시대 의원대회, 정기대 의원대회같은)(보 선)	81. 2.23	팽종출 (조선공사) -보선	최종규(금성사), 민정식(금성사), 박인상(조기), 이 준(화천), 한창석(인천제철), 김장선(대한전선), 이 상숙(금성통신), 권수태(대림자동차)	김성문 (대한전선)	108,846
제22차대의원대회 (임기) (1983, 1984년은 중앙위원회로같은)	82. 5. 7	팽종출 (조선공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민정식(금성 사), 김장선(대우전자), 한창석(인천제철), 조태식 (효성중공업), 최정원(대선조선), 이성균(새한자동 차), 허성원(금성전선)	김성문 (대한전선)	99,594
제23차대의원대회 (임기)	85. 5.30	민정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 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 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 아자동차), 유철규(평화크랫치)	한창석 (인천제철)	19,636
제24차대의원대회	86. 5.23	민정식 (금성사)	권수태(대림자동차), 박인상(조기), 김세민(기아산 업), 김장선(대우전자), 최경환(금성알프스), 강창 령(동부제강), 최규문(국제종합기계)김장화(아세 아자동차), 유철규(평화크랫치)	한창석 (인천제철)	119,445
제25차대의원대회	87. 5.22				138,990
제26차대의원대회 (임기)	88. 5.27	박인상 (조기)	김세민(기아산업), 김장선(대우전자), 유철규(평화 크랫치) 강영섭(금성사), 임창기(대한중기), 박기식(연합철 강), 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 이금수(크 라운전자), 양동생(대우조선),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김성문 (대한전선)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89. 5.26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이영복(현대자동차),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 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90. 5.11	박인상 (조기)	김장선(대우전자) 강영섭(금성사), 박기식(연합철강), 정기춘(화천),	김성문 (대한전선)	389,06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박병윤(대우통신), 이성균(대우자동차), 차경준(한국중공업)		
제29차대의원대회 (임기)	91. 5.15	박인상 (조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력기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최웅길 (동양강철)	272,078
제30차대의원대회	92. 5.13	박인상 (조기)		최웅길 (동양강철)	262,078
제31차대의원대회	93. 5.20	박인상 (조기)	수석:김장선(대우전자)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동해전장), 염성태(대우중공업), 양재석(동부제강),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력기금속), 전덕진(현대전자), 허관무(기아자동차), 김영철(현대전자), 김관태(기아자동차)	정창영 (금성전선)	
제32차대의원대회 (임기)	94. 5.17	박인상 (조기)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씨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김동교(인천제철),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력기금속), 하영일(금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정창영 (금성전선)	243,271
제33차대의원대회	95. 5.12	박인상 (조기)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유재섭(금성사),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박천석(기아씨비스), 전재환(대우중공업), 정기춘(화천),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김동교(인천제철),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구(력기금속), 하영일(금성전선), 박한주(코리아스파이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정창영 (금성전선)	183,200
제34차대의원대회 (보선)	96. 5.15	유재섭 (LG전자) -보선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최웅길(동양강철) 정학균(대동조선), 안영환(동부제강)김영철(현대전자), 정기춘(화천), 오봉출(한진섬유기계), 박영	정창영 (LG전선)	160,327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구(력키금속), 하영일(LG전선),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윤주(범양냉방), 백종부(부산파이프), 이병균(대우전자), 장지태(경창산업)		
제35차대의원대회 (임기)	97. 5.16	유재섭	상임: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나찬경(LG전자),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강석수(창원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김운주(범양냉방),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박영구(LG금속)	이병균 (대우전자)	169,628
제36차대의원대회	98. 5.20	유재섭 (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정기춘(화천), 김경조(쌍용중공업), 김영철(현대전자), 하영일(LG전선), 강익화(대한전선), 강창영(동부제강), 백종부(세아제강), 황창배(대우전자), 김복천(정일공업),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강한우(삼신), 강진호(연합철강), 김상수(동아건설), 지수식(삼영전자), 이정석(기아특수강), 김만재(현대전자), 이병균(대우전자), 박병용(대창단조), 김수도(대우전자)	이병균 (대우전자)	138,858
제37차대의원대회	99. 5.20	유재섭 (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 장석춘(LG전자), 허원(칩팩코리아), 도정복(LG전선), 김두형(대성공업), 신성균(한화구로), 박병도(LG정밀), 신향철(대한전선), 문광주(세진전자), 강영철(현대반도체), 변재환(LG필립스)	이병균 (대우전자)	124,097
제38차대의원대회 (임기)	00. 5.24	유재섭 (LG전자)	상임:정창영(LG전선), 김순호(삼양중기-파견), 문광주(세진전자), 김만재(현대전자) 장석춘(LG전자), 강창영(동부제강), 김상수(동아건설), 김수도(대우전자), 서갑순(한국특수공구), 하영일(LG전선), 김영철(현대전자), 지수식(삼영전자), 도정복(LG전선), 허원(칩팩코리아), 황창배(대우전자), 손종흥(대한제당), 이병욱(태양금속), 강한우(삼신), 김무호(한국파워트레인), 김경조(쌍용중공업대구), 김두형(대성공업), 강진호(연합철강)박병용(대창단조), LG필립스(변재환), 강영철(현대반도체), 박병도(LG이노텍), 배동한(한국철강), 이정석(기아특수강)	이병균 (대우전자)	106,126
제39차대의원대회	01. 5.25.	유재섭 (LG전자)	보선-정상영(하이닉스반도체), 조병철(대한전선), 김인배(LGPhilipsDisplays)	이병균 (대우전자)	102,770
제40차대의원대회 (보선)	02. 5.10	이병균 (대우전자)	보선-김한모(칩팩코리아), 김준수(하이닉스반도체청주), 김한성(충북본부), 신태기(울산본부), 정일진(LG전자), 김길주(기아특수강), 김광호(안산	김만재 (하이닉스반도체)	101,985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시흥본부), 이문호(경남본부), 김도론(포항본부)		
제41차대의원대회 (임기)	03. 5.22	이병균 (대우일렉 트로닉스)	상임-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 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황창배. 손종홍. 이병 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선택기. 손은진. 김 경조. 김무호.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김길 주	김만재 (하이닉스 반도체)	100,850
제42차대의원대회	04. 5.20.	이병균 (대우일렉 트로닉스)	상임-정창영. 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서갑순. 최경호. 김순호. 하영일. 지수식. 도 정복. 정상영. 조병철. 김한모. 허원. 이복교. 황창배.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강창영. 김 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강진호. 권동재. 선택 기. 손은진. 김경조. 김무호. 이복교.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중	이정석 (세아베스 틸)	100,942
제43차대의원대회	05. 5.25	이병균 (대우일렉 트로닉스)	상임-문광주. 정일진. 김만재. 장석춘. 서갑순. 최경호. 지수식. 도정복. 정상영. 조 병철. 허원. 손종홍. 이병욱. 김광호. 김두형. 강한우. 김한성. 김준수. 이문호. 최해경. 권동재. 선택기. 손 은진. 김경조. 이복교. 변재환. 강영철. 김인배. 강학 중	이정석 (세아베스 틸)	105,445
제44차대의원대회 (임기)	06. 5. 3	장석춘 (LG전자)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허원. 정상영. 윤동현. 변재환. 지수식. 노남 섭. 정종철. 유은식. 김재업. 백승탁. 김정근. 손창두. 강영석. 김광호. 이병욱. 김두형. 배승천. 장재성. 고 석희. 왕용호. 김한성. 김준수. 박정민. 박병용. 주해 식. 황대선. 김희근. 권동재. 박한봉. 장준영. 박준수. 정진용. 이상협. 김순창. 이복교. 정한근. 신석곤. 강 영철. 김인배. 김병수. 강학중. 최정열. 하헌준. 김흥 배	손종홍 (대한제당)	114,919
제45차대의원대회	07. 5.22	장석춘 (LG전자)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허원. 정상영. 윤동현. 변재환. 지수식. 노남 섭. 정종철. 유은식. 김재업. 백승탁. 김정근. 강영석. 김광호. 이병욱. 김두형. 배승천. 장재성. 고석희. 왕 용호. 김한성. 김준수. 박정민. 박병용. 주해식. 황대 선. 김희근. 권동재. 박한봉. 장준영. 박준수. 정진용. 이상협. 김순창. 이복교. 정한근. 신석곤. 강영철. 김 인배. 김병수. 강학중. 최정열. 하헌준	손종홍 (대한제당)	108,206
제46차대의원대회 (보선)	08. 5.22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 정일진 서갑순. 박준수. 조병철. 김정근. 허원. 정상영. 윤동 현. 지수식. 노남섭. 정종철. 유은식. 문광주. 김재업. 백승탁. 손창두. 손종홍. 강영석. 김광호. 이병욱. 김 두형. 오기순. 배승천. 장재성. 고석희. 박정용. 왕용 호. 김한성. 김준수. 박정민. 조경주. 박병용. 황대선.	김성수 (OTIS 엘 리베이터)	103,429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김희근.권동재.이상철.장준영.최해경.정진용.이상협.김찬중.김순창.정한근.신석곤.김동준.강영철.김인배.김동의.김병수.강학중.최정열.하현준.석승희		
제47차대의원대회 (임기)	09. 5. 7.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허원.김길 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종철.문광주.노남섭. 김덕수.백승탁.박상규.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 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용 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권동재.황대선. 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주해식.이상철.최 해경.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김순창.김동 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 김동의.조성륜.김병수.정상준.이동철.장복이.하 현준.최정열.석승희	김성수 (OTIS엘 리베이터)	106,897
제48차대의원대회	10. 5. 4.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김성수. 서갑순.박준수.김정근.조병철.오용환.허원.김길 섭.윤동현.박종현.박덕규.정종철.문광주.노남섭. 김덕수.박태석.백승탁.박상규.오인상.강영석.김 광호.김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 순.왕용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권동재. 황대선.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주해식.이 상철.최해경.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김수 환.김동준.윤승오.김채민.신석곤.나영섭.강영철. 김인배.김동의.이상덕.김병수.정상준.이동철.장 복이.김찬중.하현준.최정열.석승희	김성수 (OTIS엘 리베이터)	106,804
제49차대의원대회	11. 5.18.	변재환 (LG Display)	상임-김만재.정일진.김성수. 서갑순.배상호.김기태.허원.윤동현.김길섭.박종 현.박덕규.정종철.박태석.김덕수.문광주.노남섭. 이기동.박상규.김정근.오인상.강영석.김광호.김 형기.오기순.배승천.박정용.고석희.정덕순.왕용 호.이승현.김준수.조경주.윤종남.황대선.주해식. 박병용.조용석.김희근.전광언.이상철.최해경.배 동한.박한봉.장준영.정진용.박한배.정상욱.이동 철.장복이.김찬중.김수환.김동준.윤승오.김채민. 신석곤.나영섭.강영철.김인배.김동의.이상덕.석 호진.김병수.정상준.최정열.하현준.설승욱.석승 희	김성수 (OTIS엘 리베이터)	108,178
제50차대의원대회 (임기)	12. 5.10.	김만재 (SK하이닉 스)	상임-김만재.석호진정일진.김성수 서갑순.김길섭.김영국.강영석.오기순.정덕순.왕 용호.황대선.이상철.이동철.김수환.서성목.정상 준.최정열.설승욱.석승희.배상호.김기태.박태석. 윤동현.이기동.문광주.윤자심.박은미.이영자.박 상규.김광호.한명선.정금선.김준수.조경주.전광 언.정상욱.장준영.김봉영.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 (OTIS엘 리베이터)	126,690

대 회 명	개최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조합원수
제51차대의원대회	13. 5.1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 석호진(수석)정일진.(상임).김성수(상임).서갑순.김길섭.김영국.윤석진.오기순.정덕순.김광희황대선.이상철.이동철.김수환.서성목.정상준.최정열.석승희.배상호.박태석.윤동현.윤자심.박은미.윤복현.박상규.김광호.한명선.김준수.조경주.정상욱.장준영.김봉영.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 (OTIS 엘리베이터)	127,383
제52차대의원대회	14. 5.2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 석호진(수석)정일진.(상임).김성수(상임).장세종.김길섭.김영국.윤석진.오기순.정덕순.김광희황대선.이상철.이상협.김수환.서성목.정상준.최정열.석승희.배상호.박태석.윤동현.윤자심.박은미.윤복현.박상규.김광호.한명선.김준수.조경주.정상욱.장준영.김봉영.김동준.신석곤.한창욱	김성수 (OTIS 엘리베이터)	128,582
제53차대의원대회 (임기)	15. 5.20.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정일진.(수석).김성수(상임).장세종.김길섭.오인상.윤석진.오기순.정덕순.김광희.황대선.이상철.이상협.김수환.서성목.김영곤.최정열.석승희.김태완.배상호.박태석.윤동현.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김광호.한명선.장재성.김준수.조경주.정상욱.최해경.정진용.김봉영.김찬중.김동준.박철규.한창욱.김동의.정상준	김성수 (OTIS 엘리베이터)	128,905
제54차대의원대회	16. 5.17.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정일진.(수석).김성수(상임).장세종.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서민호.최정열.석승희.김태완.배상호.허정우.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윤동현.김광호.한명선.장재성.김준수.조경주.정상욱.최해경.정진용.김봉영.김찬중.김동준.박철규.신석곤.한창욱.김동의.정상준	김성수 (OTIS 엘리베이터)	129,163
제55차대의원대회	17. 5.23.	김만재 (SK하이닉스)	상임-김만재.정일진.(수석).김해광.김길섭.오인상.방운제.이남철.정덕순.이해관.황대선.이상철.남재환.김수환.배준호.천정근.최정열.석승희.김태완.배상호.허정우.권동섭.윤복현.윤자심.김영국.박상규.윤동현.김광호.한명선.장재성.강국모.류재선.최해경.정진용.이준덕.김동준.박철규.신석곤.한창욱.김동의.정상준	김준영 (부천지역)	127,447

○ 임 원 (2017. 5. 23)

직 책	성 명	소 속 조 합 명	직 책	성 명	소 속 조 합 명
위 원 장	김만재	Sk하이닉스이천	수석부위원장	정일진	LG전자
사무처장	김준영	부천지역	부위원장	김해광	서울지역본부
부위원장	김길섭	에이엔피	부위원장	윤자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오인상	삼성공업	부위원장	김영국	머큐리
부위원장	방운제	일진전기반월	부위원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이남철	진합	부위원장	박상규	동국제강
부위원장	정덕순	두원공조	부위원장	김광호	대덕GDS
부위원장	이해관	LS산전	부위원장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부위원장	황대선	대선조선	부위원장	장재성	새론오토모티브
부위원장	이상철	세아창원특수강	부위원장	강국모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남재환	울산알루미늄	부위원장	류재선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김수환	카פק발레오	부위원장	최해경	한국중천
부위원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부위원장	정진용	두원중공업
부위원장	천정근	동화기업	부위원장	이준덕	풍산
부위원장	최정열	대우전자민주	부위원장	김동준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김태완	세아베스틸	부위원장	박칠규	에스엘
부위원장	석승희	한일전기	부위원장	신석곤	평화산업
부위원장	배상호	LG전자	부위원장	한창욱	LG실트론
부위원장	허정우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동의	LG이노텍
부위원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부위원장	정상준	TCC한진
부위원장	윤복현	세진전자			

○ 지도위원

박 인 상	유 재 섭	이 병 균	장 석 춘
변 재 환	강 영 섭	김 장 선	최 웅 길

○ 회계감사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 호 석	대신기계	이 재 성	희성금속
김 삼 두	SL라이텍	황 성 원	대철
김 나 리	LG디스플레이		

○ 중앙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상걸	LG전자	강현민	한라스택폴
최귀연	LG전자	이상용	한국보그워너T/S
이병규	롯데알미늄	김귀녀	한국보그워너T/S
김송훈	신한일전기	윤각열	대한제강
채근욱	LGDisplay	박대엽	YK스틸
손수지	LGDisplay	안병철	부산주공
허 원	스태츠칩팩코리아	손승일	세방전지
심일순	이젠텍	장세명	STX중공업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김은겸	경남본부
김수호	동부인천스틸	박성걸	LS니꼬동제련
강영석	삼보오토	이상윤	평화오일셀
장영기	PN풍년	김해용	화신
김진업	서진산업	허도영	평화정공
양시준	동양철관	김기표	경창정공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창수	에디언트코리아	장복이	영신정공
강진연	대한전선	박순덕	세아특수강
정난홍	두올아산	김학송	대유글로벌
박태우	현대모비스		
중앙위원 예비			
전상근	KC코트렐	조유환	센트랄
원철식	에이엔피	문부근	동국실업
양승조	우일정밀	방상훈	대리정밀
강상욱	비츠로테크	정동민	노틸러스효성
윤익병	남선기공	김동일	현대종합금속
최중진	인팩	정 관	대유에이텍
이종필	우지막코리아	왕윤상	LS엠트론
정광호	태광	권재수	오토리브

○ 중앙집행위원 2018. 3. 31 기준

직 책	성 명	소속조합명	직 책	성 명	소속조합명
조직강화본부장	김성수	본노련	정책기획본부장	김영미	본노련
총무실장	박선자	본노련	노사대책실장	전종덕	본노련
정책국장	최장윤	본노련	정책2기획국장	김용안	대우서비스
조사통계국장	정진영	LG디스플레이	대외협력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조직2국장	허일욱	대덕전자	정치국장	안교신	삼 동
통일사업국장	하두호	태광SCT	노사대책2국장	김성수	세원셀론텍
홍보선전국장	이인용	SK하이닉스이천	법규국장	윤재욱	AST
문화국장	김영삼	SK하이닉스청주	산업안전국장	진선일	선화이엔지

총론

1. 2017년 정세 전망	37
가. 정치	37
나. 경제	38
다. 고용여건 악화	39
라. 노동 및 사회	39
2. 2017년 금속산업 전망	43
가. 12대 주력산업 전망과 특징	43
나. 2017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48
3. 2017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과제	60
가. 금속노련 2017년 3대 목표	60
나. 2017년 금속노련 임단투 요구	61
다. 제조공투본 대국회 입법요구안-제조업발전특별법	66
라. 제조공투본 대국회 입법요구안-재벌개혁 입법과제	73

1. 2017년 정세 전망

가. 정치

1) 탄핵정국과 현재 탄핵 결정

- 2017년은 ‘정치개혁의 적기’로서 정권교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달성해야 함.
- 올해 정국 전망 키워드 : △특검수사 및 현재 판결(시기, 결과) △대선 시기 △제3지대 형성과 정계 개편 △개헌 △경제위기 가시화 등
- 현재 탄핵은 촛불민심이 반영되어 인용 가능성이 높고, 3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개헌정국

-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탄핵, 대선과 함께 올해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정경유착-박정희모델’ 타파와 ‘87년 체제’ 극복이 촛불민심이라고 봤을 때 시민혁명의 한가운데 위치한 정국 하에서 ‘개헌’은 상수가 될 것임. 그러나 개헌 시기는 대선 전보다는 대선 후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개헌방향 중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임제 △의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개헌내용은 권력구조와 함께 헌법 전문과 조문에 노동존중과 평등사회 건설에 대한 상을 구체화¹⁾하는 문제로 ‘노동친화적 개헌 검토’와 대통령에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중요함.
- 특히,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으로 참정권 강화 등이 주요과제임.

3) 조기대선

- 헌법 제68조 2항(대통령이 궐위된 때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19대 대선 시기는 현재가 결정하는 모양새이나, 현재 인용결정이 ‘3월초~중순’일

1) 헌법 개정 주요내용 : 권력구조,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화, 사회적 대화, 이익균점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평생교육, 지방분권+ 노동기본권 강화 등

때 대선은 ‘5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여야는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조기 대선 준비로 전환 중 : △야권은 조기 정권 교체를 목표로 대선 예비주자를 중심으로 선명성 경쟁 돌입과 제3지대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여권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당 이후 대항마 마련에 고심 중

나. 경제

1) 내수 불황 지속, 2016년보다 경제성장률 하락

- 정치리스크 발생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특히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부동산대책 시행, 신규 분양 감소로 건설경기 급속히 둔화, 설비투자는 불확실성 확대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5%	2.6%	2.5%	2.2%	2.3%

* 2016. 11~2017. 1 전망치

2) 수출 부진 지속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속에서 우리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조건임(보호주의 흐름으로 통상환경 악화, 정치 불안이 확산되는 유로존으로부터 수입 수요 둔화)
-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비관세장벽 강화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3)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 저유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실질국민소득의 성장세가 저하되고, 유가가 반등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또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도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
-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채를 통한 소비확대 여력 낮춤

-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효과 감소

4) 물가상승률 압력

-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상승률(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제외)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총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음.
- 농산물 가격 정상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라 국내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 고용여건 악화

-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규모 인력 감축 예상
-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와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경기 둔화로 건설 및 서비스 부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데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되어 높은 청년실업률은 지속될 전망

라. 노동 및 사회

1) 노사관계

○ 2017년 노사관계는 불안정, 노사갈등 요인도 커질 것이란 전망 우세

- 한국노동연구원 :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브렉시트, 조선을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 등 대내외적 경제요인과 대선국면에서의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정치적 요구의 분출을 불안요인으로 뽑고 있음.
- 경총 : 주요 회원사 235개사 대상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응답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해지거나(43.3%)’, ‘훨씬 불안해질 것(24.8%)’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정국 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로 뽑음.
- 경제적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 내수 침체, 조선해운산업에서 비롯된 구조조정 여파 확산, 유가 상승,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면서 1997년~1998년에 버금

가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2017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산업에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사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 관련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공공·금융기관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 추세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임.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의 중복 할증’ 관련 대법원 판결과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도 노사관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또다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명분하에 실제 장시간 노동 고착화 법률인 근로기준법 개정논의를 필두로 해고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악 입법논의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2) 고용

- 박근혜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과 대선 등의 불확실성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구조조정 여파는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가시화 △내수경기 부진, 제조업부문 부진으로 재고율 증가 등 고용창출 여력 잠식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불안 가중과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
- 올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며, 2016년보다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48.6%로 나타남. 특히 50대는 58.6%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은 조기 은퇴가 일반화된 것으로 풀이됨(내일신문, 성가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 2017년 신년 여론조사).
- 2017년 실업률은 3.9%로 2016년 3.7%보다 높으며, 이는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고용률은 60.5%로 상반기 60.0%에서 하반기 61.0%로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 전망’)

<2017년 고용 지표 전망>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E)	연간(E)
실업률	3.6%	4.1%	3.4%	3.7%	4.2%	3.6%	3.9%

*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은행은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노동시장 미스매치(불일치) 확대가 이어지면 실업률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함(한국은행 ‘고용상태 전환을 시산(試算)을 통한 최근 노동시장 상황평가’ 보고서).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위축, 내수부진, 저성장 고착화, 대중국 수출 난항 등 대내외 환경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산업위험도가 높아짐. 2017년 대내외 영향에 따른 41개 산업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분류된 업종은 단 하나도 없이, 은행업·증권업 등 금융업과 함께 조선업·해상운송업·철강업·해외건설업·부동산신탁업 등 14개 산업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진단됨(나이스신용평가).
-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예상됨.
- 4차 산업혁명으로 ‘내 일자리가 감소’ 응답은 44.7%, ‘기술적 변화요인 때문에 현재 업무의 약 1/4 정도가 대체될 수 있다’는 응답이 53.4% 등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10년 내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 위협을 받을 것임. 특히, 기술진보로 일자리 잠식이 단순노무직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025년에는 국내 취업자의 61.3%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고용정보원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2016)
- 한국노총은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변화와 대응을 위한 연구와 각 산업차원의 특화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1차로 임단투 지침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을 포함시키고 연내 중앙차원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정책자문단 지원 요청).

3) 사회

-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적폐 청산’에 대한 시민의 의지가 높음. ‘적폐’의 대상은 △재벌(정경유착) △검찰 및 언론(불공정) △외교통일정책(역사교과서, 사드, 개성

공단) 등으로 집중화되고 있음.

- ‘적폐 청산’ 여론은 탄핵 및 조기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으나, 차기 정권에 대한 평가 여론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2. 2017년 금속산업 전망

가. 12대 주력산업 전망과 특징

1) 선진권 및 개도권 소폭 성장으로 교역량 증가 예상

- 2017년 세계 실물 경기는 선진권과 개도권의 성장률이 소폭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세계 교역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높아 12대 주력산업에 부담으로 작용 예상
 - 과거 방어막 역할을 하던 중국 등 신흥시장의 저성장 체제 지속이 예상
 -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불확실성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 장벽 강화 등도 국내산업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글로벌 공급과잉은 2017년에도 조선,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철강은 신흥국 설비증설 지속, 중국 수급불균형 심화 등으로, 조선은 설비과잉과 선복과잉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
 - 가전, 정보통신기기, 정유는 중국 업체간 경쟁 격화 및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
 - 반도체는 생산량 조절,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여건 변화가 12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공급과잉	세계 수요 변화	해외생산 확대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 당선	종합평가
자동차	□	×	×	×	×	×
조선	×	×	-	×	×	×
일반기계	□	□	○	×	□	×
철강	×	×	-	xx	×	×
석유화학	×	□	-	□	□	□
정유	×	⊙	-	×	□	□
섬유	×	○	×	□	×	□
가전	×	×	xx	-	×	×
정보통신기기	×	○	×	×	×	×
디스플레이	○	×	×	-	□	□
반도체	○	○	×	-	○	○
음식료	□	⊙	×	□	□	○

주 :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x 매우 부정적.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 한편, 2017년 정유, 섬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음식료 등은 글로벌 수요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 반도체는 4차 혁명을 주도하는 AI, IoT, 스마트카 등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분야가 성장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조선, 철강, 가전 등은 글로벌 공급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침체도 예상되면서 2017년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 예상

○ 국내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는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주력산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자동차, 일반기계, 섬유, 음식료, IT산업군(가전,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생산요소 비용증가와 현지시장 적극 대응 등의 요인으로 해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침체가 이어질 전망
- 다만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등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제품 수요 증가로 긍정적 영향이 예상

-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2017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FTA 재협상과 자국 산업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국내 주력 산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
- 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압력을 겪은 철강과 교역 위축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축으로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조선은 보호무역 강화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 중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쟁관계 심화

- 글로벌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부진 속에 중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경쟁 심화로 이어져 12대 주력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12대 주력산업 모두 2017년 글로벌 경쟁 관계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국시장을 기반으로 회복하였으나 최근 수출부진은 시장 수요 감소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까지 더해져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업체들과의 경쟁 관계 심화가 예상
- 미국 업체의 경쟁우위가 있는 자동차, 철강, 정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에서 미국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예상

〈12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관계 변화 전망〉

	경쟁대상국				종합평가
	중국	일본	미국	기타	
자동차	□	○	○	-	○
조선	○	○	□	-	○
일반기계	⊗	×	□	-	○
철강	⊗	○	○	-	⊗
석유화학	○	×	□	○(중동)	○
정유	⊗	○	○	-	○
섬유	⊗	○	□	⊗(베트남)	⊗
가전	⊗	×	□	○(유럽)	○
정보통신기기	⊗	□	⊗	-	⊗
디스플레이	⊗	×	□	□(대만)	⊗
반도체	⊗	○	○	-	⊗
음식료	⊗	○	□	○(대만)	⊗

주 : ⊗ 현재보다 매우 심화, ○ 약간 심화, □ 현재수준 유지, × 경쟁 악화.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3) 최종재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예상

- 2017년 주력산업 수출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출단가의 변화 추
이로 최종재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
 - 조선은 침체 장세에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가하락 지속이 예상
 -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인하 압력 등으로 수출
단가 하락이 예상
 - 의류는 모바일, 인터넷 등 온라인 거래 확대로 대형 오프라인 바이어들의 수주단
가 인하 압력이 예상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수출단가 상승 예상
- 반면 부품소재산업은 수출단가 상승 예상
 - 국제유가 동조성이 높은 석유화학과 정유는 원유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이 예상
되어 수출금액 증가에 긍정적 영향 전망
 - 공급과잉이 다소 해소되면서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수출단가 상승이 예상
- 음식료와 자동차와 같은 소비재산업은 수출 제품 구성이 변화되면서 수출단
가 변동이 예상됨
 - 음식료는 유기농 등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단가 상
승, 자동차는 소형 SUV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부진 품목 전망〉

	수출 호조 품목(부품)	수출 부진 품목(부품)
자동차	- 소형SUV, -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중형승용차 - 새시 관련 부품
조선	- LNG선/극초대형 컨테이너선/원유운반선 - FPSO/드릴십	- 선박용 엔진/벌크선
일반기계	- 공해방지 설비 - 식품가공포장기계	- 범용 NC공작기계, 저가 금형
철강	- 에너지용 강관 - 대형 형강, 경강선재	- 선재, 후판 - 냉연, 열연
석유화학	- PX - ABS, PP homo, SM, PP copol, EVA, SAP	- TPA
정유	- 휘발유, 경유, 벙커C유, 나프타, 항공유, LPG, 아스팔트, 부생연료유	- 윤활유, 경질중유, 용제
섬유	- 아세테이트섬유 - 코트 및 재킷, 블라우스/스웨터/언더셔츠, 남성셔츠, 유아용 의류	- 편직물, 폴리에스터직물 및 섬유 - 면사 - 의류부속품
가전	- OLED TV - 소형가전(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 TV부품, 세탁기부품
정보통신 기기	- 휴대폰부품, SSD 보조기억장치, 웨어러블 기기, 무선중계기 등	- 데스크톱PC, 유선통신장비 등
디스플레이	- 모바일용 OLED, 초고화질 LCD	- 중저급형 LCD, 모바일용 LCD
반도체	- D램, 3D 낸드플래시 - AP(Application Processor), CIS(CMOS Image Sensor) - DD(Display Driver IC-디스플레이 구동칩)	- 패키징
음식료	- 유제품, 베이커리, 커피조제품, 과자류	- 당류, 유지류, 소스류 등 중간 식재료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4) IT산업을 중심으로 신기술 기반 제품 수출 증가 전망

- 2017년 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품들의 수출 증가도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IT산업군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가전에서 국내 업체가 글로벌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OLED TV가, 정보통신 기기는 SSD와 웨어러블(wearable)기기 수출 증가가 예상
 - 디스플레이는 Post-LCD로 성장하고 있는 OLED수출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3D 낸드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화
- 자동차는 대부분 차종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소형 SUV,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의 수출 호조는 2016년 투입된 신모델의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재산업의 경우 국내제품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 등으로 수출 품목 변화가 예상
 - 음식료는 고급화, 개인화, 고기능성화가 진행된 한국 음식료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중간 식재료에서 유제품, 베이커리, 커피조제품, 과자 등 가공식품으로 변화 예상
 - 섬유는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상승으로 직물 제품에서 코, 재킷, 셔츠, 유아복 등 의류 제품 수출 확대 전망

나. 2017년 12대 주력산업 전망

1) 수출은 소재산업군, IT산업군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 예상

- 2017년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은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유가상승이 예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 전망
 - 그러나 보호 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 경기성장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12대 주력산업 중 자동차, 조선, 가전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증가세가 예상
- (기계산업군) 일반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모두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3.1% 하락 전망
 - 자동차는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시장 경기침체 지속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시장 할부판매 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 전망

〈2017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



자료 : 1)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안은 2017년 총수출 대비 점유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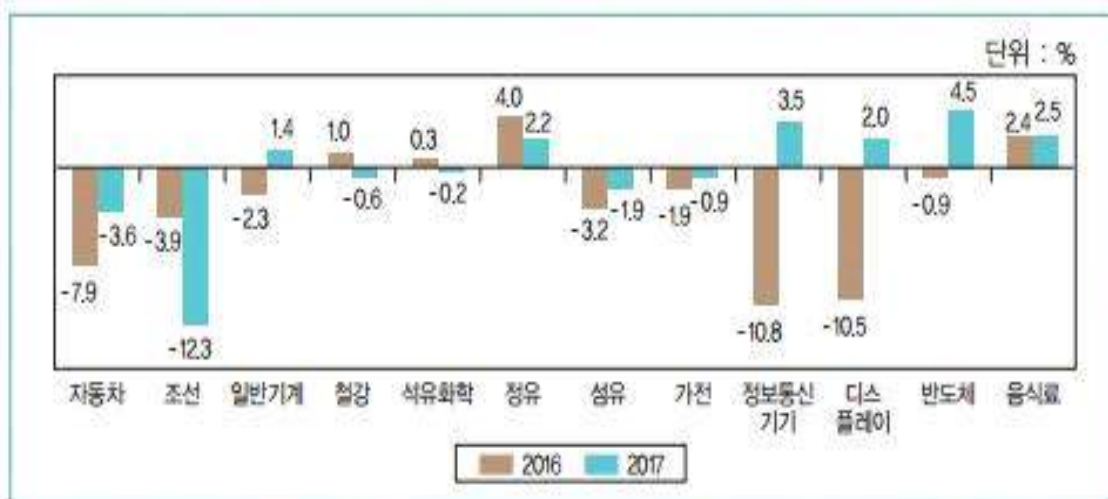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 조선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건조 물량 취소와 해양 프로젝트 인도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인해 13.1%의 높은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
- 일반기계는 유가상승에 따른 자원 수출국 투자수요 회복,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예상
- (소재산업군) 모든 산업이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상승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 정유의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 예상
- 철강은 국제 가격과 미국의 수요 회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보호무역의 강화와 중국 시장 축소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칠 전망
- 석유화학은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회복과 다자간 양자간 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어 수출품목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5.5%의 비교적 높은 증가 전망
- 정유는 국제 유가 회복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과 중국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고품질 석유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7%의 높은 증가 예상

- 섬유는 한류기반 의류수출 증가와 선진국 및 개도국 성장을 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중국 수요 둔화, 대형 바이어들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증가세는 소폭(0.5%)에 머물 전망
- (IT산업군) 가전을 제외한 산업에서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 증가 예상
 - 가전은 베트남 등 해외생산 확대에 의한 수출대체, 중국 업체들의 브랜드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갤럭시 노트 발화로 인한 판매중단 사태의 부정적 영향 해소, 인도 등 신흥시장의 4G 서비스 확산 등으로 전년 대비 4.5%증가 예상
 - 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 축소, 고가인 OLED 수요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D램 단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수요산업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 예상
- 음식료는 수출 품목 다양화, 한류 이미지 지속에 따른 국내제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4.4%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수출 증가 추세가 정체되면서 주력상품 및 신규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점

〈2017년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2) 생산은 조선, 자동차 등 대표산업 부진 예상

- 2017년 12대 주력산업 생산은 대부분 산업에서 글로벌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나 연관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조선, 자동차 등은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3.6%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할 전망
 - 조선은 2년 이상 선박수주 감소와 2016년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수주 잔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년 대비 12.3%의 큰 폭의 감소 전망
 - 일반기계는 조선, 해운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폭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4% 증가 예상
- (소재산업군) 철강은 재고조정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수요 부진과 구조조정 압력 등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감소 예상
 - 석유화학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투자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가 예상
 - 정유는 저유가 기조로 인한 가격효과 및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가 생산을 견인하면서 전년 대비 2.2% 상승 예상
 - 섬유는 내수 부진, 수입확대 지속, 국내 생산설비 축소 및 해외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 전망
- (IT산업군) 가전은 내수 회복세가 미미한 가운데 수출이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3.5%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용 휴대폰 부품 및 SSD 등이 생산 증가를 견인
 - 디스플레이는 수출 부진 완화, 대형 TV의 수요 발생, 대형화에 따른 면적 기준 출하량의 증대, OLED 생산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 예상
 - 반도체는 세계 최고수준의 미세 공정을 개발하여 빠르게 양산함에 따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내 신규공장이 예정되어 있어 전년대비 4.5%증가 전망

- 음식료는 신제품 출시와 이에 따른 판매 호조 및 연구개발 활동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 예상

3) 내수는 IT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부진

- 주력 산업 내수는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IT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진할 것으로 전망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대기수요 실현과 가계부채 증가, 고용불안 등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 예상
 - 조선은 구조조정 여파와 한진해운 영향이 현실화되는 등 산업전반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2.9% 감소할 전망
 - 일반기계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따른 관련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설비투자 수요 위축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 예상
- (소재산업군) 철강은 내수 성장을 견인해오던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와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 부진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할 전망

〈2017년 주요 산업별 내수증가율 전망〉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 석유화학은 주요 다운스트림 산업의 부진으로 중간재 및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0% 감소할 전망
- 정유는 저유가 기조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석유제품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며 경유, 휘발유, 항공유 등 수송용 석유제품이 내수를 견인할 예상
- 섬유는 지속되는 실물경기 부진 및 소비 위축으로 전년 대비 1.1%감소 전망
- (IT산업군) 가전은 UHD 방송에 따른 UHD TV 수요 확대, 에너지 고효율 가전으로의 교체,
 - 수요 증가, IoT가전 시장 형성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1%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 게임과 VR 수요 확대 등에 따른 P C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 증가 예상
 - 디스플레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구매력의 약세와 TV와 PC 등 수요산업의 성숙화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수요 모멘텀 부족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 전망
 - 반도체는 가정용, 사무용 PC 시장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SSD, IoT, 웨어러블기기 등의 신규 수요산업 성장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예상
- 음식료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외식 감소와 간편식 소비증가 추세와 더불어 식품안전, 건강 등의 경향에 따른 고부가가치 및 고기능성 식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0%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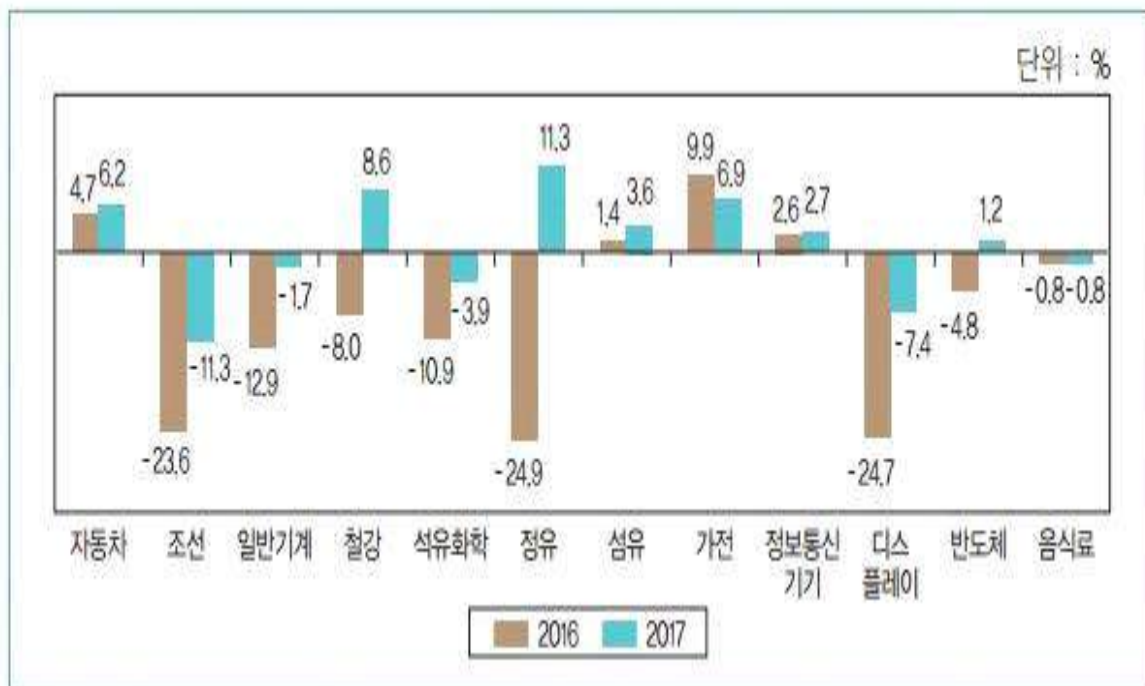
4) 수입은 소비재산업 중심으로 증가 예상

- 12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 예상
 -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속에서도 소비재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3.5%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양극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기인
- (기계산업군) 자동차는 수입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AS부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 전망
 - 조선은 편익치적 선박의 반입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해양플랜트용 기자재, 친환경 선박용 가스터빈 등의 수요가 줄면서 전년 대비 11.3% 감소예상
 - 일반기계는 내수경기 침체 지속, 첨단설비 및 부품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1.7% 감

소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은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급 불균형에 의해 봉형 강류 등 일부 제품 수입수요로 전년 대비 8.6% 증가 예상
 - 석유·화학은 다운스트림 수요부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3.9% 감소 예상
 - 정유는 나프타 및 LPG의 수요확대로 전년 대비 11.3% 높은 증가 예상
 - 섬유는 중국 등 역수입 증가, 저가 섬유소재 수요 증가, 해외직구 등 수입 창구 다양화 및 접근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 예상

〈2017년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자료 : 1) 달러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 (IT산업군) 가전은 구매여력 부족으로 중저가 제품 선호가 늘어나고 중국기업의 국내진출 확대 및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로 6.9%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소폭이지만 내수가 회복되고 신제품과 완제품 제조용 부품의 수입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7% 증가 예상

〈2017년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정유	☀☀	☁	☁	☀☀
	섬유	☁	☂	☂	☁
IT 제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음식료		☁	☁	☁	☂

주 : 1)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 디스플레이는 범용 LCD 패널에 대한 내수 둔화, 수출용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 전망
- 반도체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2% 증가 전망
- 음식료는 생산 확대 기조에 따라 그 감소추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 0.8% 감소 전망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71,344 (-5.6)	32,700 (-10.9)	32,077 (-7.4)	64,777 (-9.2)	32,028 (-2.1)	32,209 (0.4)	64,237 (-0.8)
조선	40,107 (0.6)	18,523 (-17.3)	16,834 (-5.0)	35,357 (-11.8)	17,050 (-8.0)	13,690 (-18.7)	30,740 (-13.1)
일반기계	42,598 (-3.0)	20,647 (-7.6)	20,418 (0.8)	41,065 (-3.6)	21,005 (1.7)	20,882 (2.3)	41,887 (2.0)
철강	30,201 (-15.0)	14,548 (-9.9)	13,449 (-4.4)	27,997 (-7.3)	14,000 (-3.8)	14,200 (5.6)	28,200 (0.7)
석유화학	37,791 (-21.7)	17,238 (-11.3)	18,331 (-1.0)	35,569 (-5.9)	18,655 (8.2)	18,881 (3.0)	37,536 (5.5)
정유	32,002 (-37.0)	12,103 (-27.2)	13,097 (-14.8)	25,200 (-21.3)	12,749 (5.3)	15,144 (15.6)	27,893 (10.7)
섬유	14,304 (-10.2)	6,723 (-6.6)	6,735 (-5.2)	13,458 (-5.9)	6,650 (-1.1)	6,874 (2.1)	13,524 (0.5)
가전	12,475 (-16.0)	5,362 (-12.7)	5,796 (-8.5)	11,158 (-10.6)	5,050 (-5.8)	5,550 (-4.2)	10,600 (-5.0)
정보통신기기	38,834 (6.3)	17,540 (-4.6)	16,534 (-19.2)	34,074 (-12.3)	17,449 (-0.5)	18,145 (9.7)	35,594 (4.5)
디스플레이	29,657 (-8.2)	11,424 (-26.2)	13,712 (-3.3)	25,136 (-15.2)	11,862 (3.8)	13,890 (1.3)	25,752 (2.5)
반도체	62,916 (0.4)	28,686 (-7.5)	33,489 (4.9)	62,175 (-1.2)	30,820 (7.4)	34,050 (1.7)	64,870 (4.3)
음식료	4,087 (-2.4)	2,094 (3.5)	2,221 (7.6)	4,315 (5.6)	2,229 (6.4)	2,277 (2.5)	4,506 (4.4)
12대 합계	416,316 (-9.6)	187,588 (-12.3)	192,693 (-4.8)	380,281 (-8.7)	189,547 (1.0)	195,792 (1.6)	385,339 (1.3)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4,556 (0.7)	2,196 (-5.4)	1,999 (-10.5)	4,195 (-7.9)	1,988 (-9.5)	2,055 (2.8)	4,043 (-3.6)
조선 (만CGT)	1,270 (5.0)	650 (-1.5)	570 (-6.6)	1,220 (-3.9)	580 (-10.8)	490 (-14.1)	1,070 (-12.3)
일반기계 (십억원)	103,701 (1.3)	49,775 (-4.4)	51,525 (-0.3)	101,300 (-2.3)	50,846 (2.2)	51,859 (0.6)	102,705 (1.4)
철강 (천톤)	73,102 (0.5)	35,835 (-0.6)	38,003 (2.5)	73,838 (1.0)	36,870 (2.9)	36,500 (-4.0)	73,370 (-0.6)
석유화학 (천톤)	21,028 (-2.0)	10,533 (-0.5)	10,560 (1.1)	21,093 (0.3)	10,525 (-0.1)	10,527 (-0.3)	21,052 (-0.2)
정유 (십만배럴)	11,170 (8.4)	5,729 (4.7)	5,891 (3.4)	11,620 (4.0)	5,871 (2.5)	6,010 (2.0)	11,881 (2.2)
섬유 (십억원)	74,654 (-3.0)	38,568 (-2.4)	33,697 (-4.1)	72,265 (-3.2)	37,190 (-3.6)	33,702 (-0.0)	70,892 (-1.9)
가전 (십억원)	32,244 (-3.4)	15,959 (0.8)	15,661 (-4.6)	31,620 (-1.9)	15,718 (-1.5)	15,619 (-0.3)	31,337 (-0.9)
정보통신기기 (십억원)	70,308 (0.4)	31,028 (-8.6)	31,681 (-12.9)	62,709 (-10.8)	31,480 (1.5)	33,431 (5.5)	64,911 (3.5)
디스플레이 (십억원)	38,934 (-2.8)	16,825 (-16.2)	18,026 (-4.5)	34,851 (-10.5)	17,213 (2.3)	18,346 (1.8)	35,559 (2.0)
반도체 (십억원)	74,635 (-0.6)	37,039 (0.5)	36,995 (-1.6)	74,034 (-0.9)	38,135 (3.0)	39,173 (6.0)	77,308 (4.5)
음식료 (십억원)	81,604 (2.1)	40,945 (3.5)	42,617 (1.4)	83,562 (2.4)	42,215 (3.1)	43,426 (1.9)	85,641 (2.5)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대)	1,834 (1.6)	938 (9.2)	860 (-11.8)	1,798 (-2.0)	857 (-8.5)	900 (4.7)	1,757 (-2.2)
조선 (만CGT)	114 (3.8)	54 (-3.6)	51 (-5.4)	105 (-7.8)	52 (-3.7)	50 (-2.0)	102 (-2.9)
일반기계 (십억원)	86,540 (-1.0)	39,832 (-6.4)	41,688 (-5.2)	81,520 (-5.8)	40,053 (0.6)	41,390 (-0.7)	81,443 (-0.1)
철강 (백만톤)	55,487 (0.4)	28,055 (2.9)	29,795 (5.6)	57,850 (4.3)	29,000 (3.4)	28,500 (-4.3)	57,500 (-0.6)
석유화학 (천톤)	10,529 (-2.3)	5,224 (-1.6)	5,333 (2.1)	10,557 (0.3)	5,178 (-0.9)	5,166 (-3.1)	10,344 (-2.0)
정유 (십만배럴)	8,562 (4.2)	4,518 (8.2)	4,655 (6.1)	9,173 (7.1)	4,726 (4.6)	4,836 (3.9)	9,562 (4.3)
섬유 (십억원)	74,832 (-1.0)	38,319 (-1.0)	35,330 (-2.2)	73,649 (-1.6)	37,288 (-2.7)	35,530 (0.6)	72,818 (-1.1)
가전 (십억원)	24,029 (2.8)	12,858 (8.6)	12,383 (1.6)	25,241 (5.0)	13,250 (3.0)	12,782 (3.2)	26,032 (3.1)
정보통신기기 (십억원)	51,875 (-2.1)	23,041 (-9.7)	26,414 (0.3)	49,455 (-4.7)	23,907 (3.8)	26,665 (1.0)	50,572 (2.3)
디스플레이 (십억원)	9,826 (-7.2)	5,020 (-3.0)	4,302 (-7.5)	9,322 (-5.1)	4,827 (-3.8)	4,149 (-3.5)	8,977 (-3.7)
반도체 (십억원)	45,879 (-3.4)	24,643 (2.9)	19,313 (-0.5)	43,956 (-4.2)	23,317 (-5.4)	21,309 (10.3)	44,626 (1.5)
음식료 (십억원)	89,184 (2.2)	44,741 (3.1)	46,192 (0.9)	90,933 (2.0)	45,858 (2.5)	46,852 (1.4)	92,710 (2.0)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2017년 12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5,078 (8.0)	8,125 (8.5)	7,664 (1.0)	15,789 (4.7)	8,129 (0.0)	8,641 (12.7)	16,770 (6.2)
조선	4,399 (10.8)	1,706 (-19.8)	1,654 (-27.2)	3,360 (-23.6)	1,608 (-5.7)	1,372 (-17.0)	2,980 (-11.3)
일반기계	27,425 (-7.6)	12,248 (-12.4)	11,642 (-13.4)	23,890 (-12.9)	11,819 (-3.5)	11,657 (0.1)	23,476 (-1.7)
철강	22,319 (-25.2)	9,645 (-18.6)	10,887 (4.0)	20,532 (-8.0)	11,000 (14.0)	11,300 (3.8)	22,300 (8.6)
석유화학	13,339 (-18.9)	5,886 (-16.3)	5,996 (3.3)	11,882 (-10.9)	5,736 (-2.5)	5,686 (-5.2)	11,422 (-3.9)
정유	15,348 (-49.1)	5,592 (-28.0)	5,933 (-21.7)	11,525 (-24.9)	5,877 (5.1)	6,951 (17.2)	12,828 (11.3)
섬유	14,461 (-1.3)	6,507 (0.6)	8,153 (2.0)	14,660 (1.4)	6,735 (3.5)	8,457 (3.7)	15,192 (3.6)
가전	5,109 (-4.3)	2,743 (9.3)	2,871 (10.5)	5,614 (9.9)	2,950 (7.5)	3,050 (6.2)	6,000 (6.9)
정보통신기기	22,001 (8.1)	10,793 (1.2)	11,769 (3.8)	22,562 (2.6)	11,004 (2.0)	12,175 (3.4)	23,179 (2.7)
디스플레이	3,880 (-1.8)	1,452 (-24.7)	1,468 (-24.8)	2,920 (-24.7)	1,321 (-9.0)	1,382 (-5.9)	2,703 (-7.4)
반도체	38,278 (5.0)	18,076 (-1.7)	18,357 (-7.8)	36,433 (-4.8)	18,125 (0.3)	18,731 (2.0)	36,856 (1.2)
음식료	10,795 (-6.6)	5,298 (-3.4)	5,410 (1.9)	10,708 (-0.8)	5,330 (0.6)	5,295 (-2.1)	10,625 (-0.8)
12대 합계	192,432 (-10.8)	88,071 (-7.9)	91,804 (-5.1)	179,875 (-6.5)	89,634 (1.8)	94,697 (3.2)	184,331 (2.5)

주 :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자료출처: 산업연구원(2016.11.28.) 「2017년 12대 주력산업전망」

3. 2017 금속노련 임단투 목표와 과제

2017 희망과 도전! 제조노동자 답게!

2017년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로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2대지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확보로 노동존중사회 건설로 전진하자!!

가. 금속노련 2017년 3대 목표

○ 새로운 대한민국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 2017년 조기 대선승리 및 정권교체 실현
- 이명박근혜 9년의 반노동 적폐청산
- 노동존중사회 건설

○ 경제민주화를 통한 노동자의 삶 개선

- 연맹 임금인상 요구율 7.7% 확보
- 장시간노동 철폐! 2020년, 1800시간대 진입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제조산업 발전법 제정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재벌개혁

○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역량 강화

- 제조연대 및 제조공투본 활동 강화
- 현장과 소통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
- 노조의 미래는 간부 역량 강화
- 체계적인 조직 확대 사업 강화

나. 2017년 금속노련 임단투 요구

1) 표준생계비에 기초한 목표임금 쟁취

-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조합원 가구원수와 물가인상 예상치, 도시근로자(2인 이상)가구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을 기초로 2017년 금속노동자의 생계비를 산정하고, 생계비 충족률 94%, 기본급 대비 7.7% (140,561원)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확정함.
- 가맹노조는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소속 조합원의 가구원수,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정상태, 조합원의 요구수준등 주·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 실정에 따라 임금인상 요구율과 요구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가맹노조는 금속노련의 임금인상 요구지침과 조직실정에 기초한 임금인상 요구율을 관철함으로써 생계비에 기초한 목표임금을 쟁취

2) 2대 불법지침 청산

- 박근혜 정권의 2대 불법지침(‘쉬운 해고’ 지침, ‘취업규칙 일방변경’지침)은 ‘통상 해고’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업에게 ‘쉬운해고 방안’을 안내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를 형해화 시키며, ‘취업규칙 일방변경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미명하에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라는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위법한 발상일 뿐임.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정부 2대 지침에 관련하여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 지침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근로의 권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 금속노련은 업무능력 부족, 성과부진을 해고사유에 포함시키거나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사측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련 제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제도철폐 및 노조의 개입력 강화를 위한 교섭 전개할 것임.
-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제·개정시 노동조합 동의” 규정 명확화를 통하여 성과주의 인사체계 또는 임금체계의 변경을 저지할 것이며, 단체협약에 의한 인사(배치전환, 전보 등) 및 인사평가, 징계(복무규율, 징계사유 등), 교육훈련, 임금체계 제·개

정시 노조 참여 및 노사합의 구조를 확립할 것임.

[요구]

단체협약상 '취업규칙 제·개정 시 노동조합 동의' 규정 명확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등의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

단체협약상 배치전환·전보 등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절차 마련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의 사유와 절차 등' 관련 규정 강화

'개별 노동자를 상대로 한 취업규칙 변경 동의 강요행위 금지

3) 실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 한국의 실근로시간은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2,273 시간으로 나타남. 이는 OECD 가입국가 중 장시간노동 1위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40시간 제한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 시 12시간 한도로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금속노련의 가맹노조 다수는 아직도 주 52시간이 넘는 불법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주야 맞교대, 심야 휴일근로의 형태로 현장에 만연해 있음.
- 장시간 근로와 심야근로를 동반하는 교대제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가족관계 형성과 사회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임. 또한 장시간 노동은 낮은 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의 약화요인일 뿐임.
- 금속노련은 장시간노동체제의 근절을 위해 2010년 노사정 합의(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800시간대로 단축)를 존중하며,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시켜 최대한도 주52시간제를 관철할 것임.
- 또한 정부와 경영계가 들먹이는 단계적시행과 특별연장근로(연장근로12+특별연장근로8) 논의를 분쇄하여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이끌어 낼 것임.

[요구]

교대제개편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대근무자 보호 단체협약을 통한 교대제개편

교대제 개편 시 시·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실노동시간 상한제 및 추가채용 의무 부가

소정노동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시간당·주당·월) 저하 금지

4) 통상임금 정상화 및 범위확대

-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뚜렷이 밝히면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법적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복리후생적 급여 등의 고정성 판단에 있어 앞서 수차례 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어온 각종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기업에 초래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법정 기준이하로 미지급된 각종 법정수당 등에 대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노사합의를 사실상 용인하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범성을 무시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하여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만 있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는 식의 무리한 확대해석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통상임금’ 부분에는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신설하되, 통상임금 제외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재직자요건 등의 다툼이 있는 통상임금성 부분을 제외코자하는 의도를 드러냄.
- 금속노련은 정기상여금이 일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성을 부정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임.

[요구]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확보를 위한 단협 체결

각 종 제 수당의 통상임금성 확보를 위한 단협 체결

총액임금 변동 없는 상여금 및 수당 기본급 전환 (사업장 현황 고려가 필요)

5) 임금피크제 환원, 임금손실 없는 정년보장

- 한국사회가 고령화의 길로 접어들고 조합원들의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근속년수가 높은 조합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직이 어렵고 자녀교육과 주거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년연장의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정년 60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진 문제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현장의 요구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실은 정년60세 법제화와 맞물려 임금피크제 도입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신규채용과 고용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임금피크제가 신규고용창출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들어나고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음. 이에 금속노련은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거부하며 기 체결된 임금피크제 또한 이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함.

[요구]

사측의 임금피크제 요구 거부 및 정년연장 요구

기 체결된 임금피크제의 환원 요구

6) 공휴일 및 대체휴일제 확대 시행

- 한국에는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없음. 단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관공서 이외의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서는 관행상 앞의 규정을 준용해서 휴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단체협약 등으로 미리 정해 놓지 않는 한, 민간부문에서 쉬어야 할 법적 의무나 권리가 없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휴일 사용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휴일휴가 일수를 늘리려면, 국민 전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받을 수 있는 있어야 함.
- 단체협약에서 특단의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 (설날, 어린이날, 추석에만 대체휴일제 적용)
- 조합원의 유급휴가 확대를 위해 관련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요구.

[요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단협에 명시 유급휴일로 요구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 될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요구

7) 고용안정

- 2017년 1월 25일. 정부는 ‘2017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히고 대형 조선 3사에서만 직영인력을 1만 4천명을 감축하고 필수생산 설비 외 나머지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을 팔기로 결정했음. 또한 구조조정의 범위도 철강·석유화학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음. 2017년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과 같은 상시적 구조조정이 조합원들의 고용위기를 야기할 수 있음. 경영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람 찢르기식의 구조조정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 고용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위원회의 구성과 고용안정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대두됨.

[요구]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고용안정협약 체결

다. 제조공투본 대국회 입법요구안-제조업발전특별법

제조업발전특별법(안) 해설

1) 국내 제조업의 위기²⁾

가) 한국 제조업의 실적 악화 및 경쟁력 약화

-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전후하여(1999~2007/2008~2013) 한국경제의 주요 수치를 비교해보면, 소비, 투자, 고용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소비증가율 5.6% → 2.9%, 투자증가율 5.6% → 2.0%, 고용증가율 3.0% → 2.1%, 경제성장률 4.9% → 3.2%>.
- 특히 2015년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가전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수출증가율이 -7.9%를 기록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기록이 불과 5년 만에 다시 붕괴된 것이다.
- 최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첫째,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그 격차가 전 산업보다도 훨씬 커서 총자산 증가율이 2010년 11.8%에서 2014년 4.3%로 감소하였고, 매출액 증가율은 동기간 18.5%에서 -1.6%로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수익성 지표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동기간 6.7%에서 4.2%로, 세전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이처럼 제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수출주도성장이라는 한국식 성장모델이 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나)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

(1)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지난 40년간 환율조정과 단가인하를 통해 유지해 온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그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우리의 수출실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2014년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 제조산업의 변화와 제조업발전특별법(김성혁, 조성복, 장석우) 부분 발췌

1990년대 중반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던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2013년에는 18.8조원(실질 GDP 대비 1.4%)의 무역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은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2013년에는 실질 GDP의 0.9% 수준인 12.5조원에 달했으나, 여전히 실질무역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노동을 배제하는 경영

한국에서 노동배제의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유럽의 선진국들과 달리 노사 공동결정제나 사회적 합의기구가 부재하고, 또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노조의 의사가 경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때, 노동자와 노조가 인력개발에 기여하며 작업과정에도 책임 있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3) 상시적 고용불안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의 내용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예방적인 정리해고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저성과자 일반해고 등 쉬운 해고와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확대 등의 정책은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노동을 배제시키는 경영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노동자의 창의성을 약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외자기업의 기술유출 및 자본철수

하이디스와 쌍용자동차에서는 기술유출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였고, 일본 자본인 한국산연은 현재 공장폐쇄 및 전 조합원 정리해고를 통보한 상태이다. 한국 GM은 매각이후 연구개발 기능을 미국 본사에 빼앗겼고, 쉐보레 브랜드차의 한국생산 중단 이후 부평 2공장, 군산공장 등은 1년째 물량이 없어 주 2~3일만 근무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값비싼 르노-닛산의 부품비중 확대와 로열티,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르노본사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을 통한 국내기술유출 및 무분

별한 자본철수로 인한 국내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제조업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해설

가) 필요성

제조산업에 대한 기본법인「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유럽의 선진국들과 달리 모든 시책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주도하도록 하여 노사 공동결정제나 사회적 합의기구가 부재함으로 인해 노동현장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정책집행에서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조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로서 지속가능한 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 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을 조정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사나 생계의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자본의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외투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 감독을 통해 국내기술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하되, 기본법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제조산업 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고용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기금 및 세제지원, 외투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에 대하여는 제조업발전특별법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1)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회 구성

제조산업협의회는 제조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활동을 위한 상부로서의 협의체이며, 각 부문별 업종협의회는 자동차, 철강, 기계금속, 조선, 전자, 전기, 석유화학, 항공 등 업종 단위의 협의체로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산업정책에 대한 활동을 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하여 제조산업에 대한 주요 사업정책 방향을 논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게 된다. 제조산업협의회는 국내투자확대 및 고용보호, 고용창출을 위해 국내투자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임금·고용·소득보장을 위한 경영여건조성방안, 실노동시간 단축방안, 제조산업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제조산업 연구개발 촉진방안, 지역 제조업 육성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방안, 기업의 구조조정 시 근로자의 고용보호방안, 구조조정 시 생계유지 및 구직 프로그램 지원방안, 실업자·노인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방안, 제조업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안, 그 밖에 국내투자확대 및 고용보호, 고용창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부문별 업종협의회는 해당 업종과 관련한 산업발전 및 고용보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의·토론, 공동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변화, 자원부족, 경제의 디지털화, 인구변화 등을 독일산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2015년 3월 ‘산업의 미래(Future of Industry)’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체는 연방경제장관, 독일산업연맹(BDI) 회장, 독일금속노조(IG Metall) 위원장을 발기인으로 하여 구성되었고, 8개의 사용자단체와 3개의 노조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조산업협의회는 협의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처를 두고, 안건의 사전 심의와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1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둔다. 정책과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제조산업협의회, 업종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담부서를 두어 제조산업협의회 및 업종협의체를 보조하도록 한다.

협의체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

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제조산업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에 응하도록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별 제조산업협의체 및 부문별 업종협의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조산업협의체 및 부문별 업종협의체는 심의·의결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 등은 개선의견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조산업협의체 및 부문별 업종협의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조산업협의체는 제조산업과 관련된 법령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을 관련 국가기관에 제시하여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대규모 구조조정 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 의무화

제조산업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상시 근로자 99명 이하의 경우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1,000명 이상인 경우 100명 이상)의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시여부 및 방법, 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해고회피의 노력을 자산의 매각, 임원의 급여 삭감, 신규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업무조정 등으로 구체화하여 해고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한다.

대규모 정리해고 시에 사용자는 협의기구 구성원들에게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해고대상자의 수와 종류, 선정기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고일 100일 전에 사회적 협의기구 주체들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협의 중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협의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정리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촉진시킨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가 적법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계획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의 지원, 우선재고용계획 등 재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도록 한다.

(3) 제조산업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

정부는 제조업발전, 고용보호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을 국내총생산의 3% 가량(약 40~50조원 가량)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을 만들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약 8,000억 달러(약 8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10년 동안 2019년까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및 보존 등에 투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 이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집행되었다. 이 예산규모는 미국 GDP의 5.5%에 달했다.³⁾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형태로 보건, 노동, 교육, 주거, 교통, 에너지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었으며, 그 규모는 약 5,000억 달러로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1/3은 노동자 및 기업에 대한 감세,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에 대한 혜택 제공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이 예산의 규모는 조정을 통해 2011년 8,40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이 경기부양책은 약 4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회계예산국은 2009년 4분기에 약 210만 개, 2010년 1분기에 약 2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분석하였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2009년 5월에 작성한 평가보고서에서 경기부양책에 따른 전체 고용창출효과는 약 6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개요〉

- 2009년 2월 제정
- 예산규모: 7,879억 달러
- 주요목표: 일자리 보존 및 창출, 경기회복 증대
- 효과: 약 490만개 일자리 창출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4, 주요 선진국의 고용영향평가 사례조사연구

이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9월 긴급하게 ‘미국 일자리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약 4,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동자 및 중소기업의 사회보장세를 인하(6.2% → 3.1%), 경찰, 소방관 등 고용보장 및 신규창출과 학교,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구직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하자,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안을 통한 우회적 방식으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고 있다.

3) 이하 제조산업의 변화와 제조업발전특별법(김성혁, 조성복, 장석우) 부분 발췌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s) 개요〉

- 2011년 발의
- 예산규모: 4,470억 달러
- 주요목표: 노동자 및 중소기업의 사회보장제 인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구직 프로그램 지원 등

자료: 김종민(2011), 미국일자리 법안 AJA, 그리고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확대, 고용창출과 고용보호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활동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등 제반 자금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제조산업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촉진시키고,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의 재취업 현황, 가계경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생계의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기금을 통한 근로자의 생계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4) 외국인 투자심사절차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일부 투자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및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에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 하이디스, 한국산연 등 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외자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유출, 생산물량 축소, 연구개발기능 해외 이전, 공장폐쇄,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노동기본권 실현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엑스폴리오법(Exon-Florio Amendment) 등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자국 경제보호를 이유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외국인투자 제한사유로 추가 규정하고 외국자본의 유입단계에서 각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제조산업협의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투자단계에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산업협회의 심의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제조공투본 대국회 입법요구안-재벌개혁 입법과제

재벌개혁 입법과제 해설

더 이상 재벌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

국회는 재벌개혁입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재벌권력이 끈끈하게 유착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농락한 것에 있다.

재벌은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거나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냈다. 반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비참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정치권력은 99%의 노동자민중을 위해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1%의 재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였다.

사법권력은 99%의 노동자민중은 탄압하면서, 1%의 재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였다.

한국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정경유착의 역사는 지금처럼 반복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재벌개혁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아래와 같은 입법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재벌체제의 종식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1) 재벌총수의 그룹지배력 축소

가) 순환출자 완전 철폐

(1) 배경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 및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

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공정거래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순환출자에 관련한 법령 해석에도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하여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개정법안

공정거래법 제9조의 2에 이어 9조의 3을 신설하여 ①, ②로 기존순환출자(2014. 7. 24. 이전에 형성한 순환출자)를 3년 이내에 해소할 것을 규정한다. ③은 3년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같은 법 제9조의 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중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나) 지주회사의 요건 강화

(1) 배경

우리나라에서 1999년 지주회사를 최초로 허용했을 때는,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규제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해 부채비율 상한 100% 규제
-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을 비상장 50%이상, 상장 자회사 30% 이상으로 규제 및 손회사 지배금지의 규제

그러나 재벌그룹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 흐름 하에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은 몇 차례 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대폭 완화되었다.

- 1999.2 도입당시의 주요 행위제한: (i) 부채비율 상한 100%, (ii) 비상장 50%, 상장 30%의 자회사 지분을 하한, (iii) 손자회사 금지 (예외 : 사업관련성)
- 2004.12의 행위제한 완화: (i) 비상장 50%, 상장 30%의 손자회사 지분을 하한, (ii) 100% 부채비율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1년 → 2년)
- 2007.4의 행위제한 완화: (i) 200% 부채비율 상한, (ii) 비상장 40%, 상장 20%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보유율 하한 완화
- 2007.8의 행위제한 완화: (i)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ii) 증손자회사 허용 (100% 지분율 요건 전제)

이로써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던 지주회사제도는 지나치게 요건이 완화되어, 증손회사까지 지배하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애초의 취지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지주회사 요건 강화를 위해 기업들 빚을 내서 계열사를 늘리는 행위를 제한하게 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여 경제력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2) 개정법안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2를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스라엘 수준으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은 비상장 회사 50%, 상장회사 30%로 높이고, 손자회사는 금지하며, 부채비율은 100%로 환원되어야 한다.

다) 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명령제

(1) 배경

역사적으로 대기업집단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으로 독점가격을 형성하여 담합 등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질서가 파괴된다.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독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재벌의 하청업체, 가맹점, 대리점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구조는 원하청 공급사슬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상화시켜,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전체 순이익에서는 22%만을 분배받게 된다. 이로써 중소·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가 78%의 점유율 그리고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5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KT, SK, LGT 3사는 100% 점유율로 가격을 담합하여 통신요금이 세계적으로 높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신규진입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 합병해 70%의 점유율을 가지는 독점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트러스트(수평적), 콘체른(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국민경제 피해가 너무 크자 미국 등에서는 반트러스트법, 기업분리명령제 등을 도입하여 대기업집단 해체를 실행하였다. 미국 독점 통신회사 AT&T는 무선과 유선, 단거리와 장거리, 지역별 등 8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철강과 석유 독점업체들도 분리된 바 있다.

(2) 개정법안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기업결합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기업결합 해소를 위해 구조적 조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 기업결합 추정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제7조 ④에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고 있다.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하지만 동조 ④의 1 경우에는 각목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중소기업의 활동영역까지 기업결합을 통해 대규모회사가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 제1호 각목의 사유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또한 동조 ④의 2에 이어 3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점유율의 2/3를 차지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지정된 분야에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진

출하는 경우도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구조적 조치 우선적용 원칙의 확립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정거래법 제16조에 있는데 크게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구분됨, 구조적 조치는 ① 당해 행위의 중지, ②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③ 영업의 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자산이나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등 처분을 명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행태적 조치란 ①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이나, ② 기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경영활동의 조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의 2(순환출자의 금지),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제16조 ①에서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주식처분,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사업자(기업결합의 경우 결합된 당해 기업)로 하여금 주식을 처분하게 하거나 영업양도 등을 하게 하는 시정조치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임원사임 등을 하게 하는 시정조치는 구조적 조치로 사실상 계열(또는 기업)분리명령의 효과를 가진다. 문제는 동법 제16조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치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시정조치의 일반원칙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하여야 한다. 즉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자체가 시장구조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치유책도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구조적 조치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시정조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다수의 법원 판결과 경쟁당국의 사건처리를 통해 기업결합심사의 원칙으로 정착되어 있다.

라)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은 원래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업의 출연 시 세금도 면제받는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공익재단이 보유한 자산은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벌소속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에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재벌총수와 그 특수관계자들이 지배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도록 한다.(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항 신설)

마) 신설회사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재벌그룹이 소속 회사를 분할·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신설회사가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 대하여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대주주인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함.(박용진 의원안 2000837)

2) 재벌총수일가의 범죄수익 환수

가) 배경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중대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싶은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범죄수익 환수는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법치국가의 기본 징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범죄자의 사망, 해외도주,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형사범죄의 부가형인 몰수·추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던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의 재산 1,054억을 추징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형사소추와 범죄수익 환수가 추진되었으나, 유병언이 사망한 것으로 판명나면서 관련 재산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 전두환, 최태민, 최순실 등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문제도 공소시효 등 관련 제도의 미비로 시행하기 어렵다.

유사하게 재벌총수일가가 과거 편법적인 승계 또는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SDS와 그 밖에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한 후, 삼성그룹이 해당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주식가치를 올려 주식상장을 하여 그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주식지분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2015년 현재 8조 2,500억원의 재산을 모았으나, 이러한 불법이득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부가형인 형사적 몰수·추징 제도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부가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적으로 유죄판결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므로, 이를 근거로 범죄적인 수익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형사몰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형사몰수제도 외에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체계적인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나) 대안

우리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형사몰수의 대안으로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UN 부패방지협약 제54조 제1항 C호(사망, 도주 또는 부채를 이유로 기소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적절한 경우 유죄판결 없이도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도 2003년 개정 권고안 제3항에서 민사몰수제도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2년 권고안에서는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로 권고되고 있는 민사몰수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이미 2002년 형사절차법 개정(Proceeds of Crime Act 2002)에서 제5장에 민사몰수(Civil Forfeiture)를 확대한 민사환수(Civil Recovery)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들은 영국식의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에 기초하여 형사몰수제도 외에도 민사몰수, 행정몰수 등 다양한 몰수·추징 제도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의 환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고, 독일은 물건에 대한 몰수와 이익박탈 제도로 구분하고, 박탈과 몰수를 형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전절차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 제정 법안

- “중대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 이 법은 중대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 하고, 중대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 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범죄수익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 “중대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 “중대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중대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중대범 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중대범죄수 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 “중대범죄수익등”이란 중대범죄수익, 중대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 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 “환수”란 국가가 중대범죄수익등을 가진 자를 상대로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의 당사자소송으로서 중대범죄수익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 결에 따라 중대범죄수익등의 반환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중대범죄수익등의 조사 및 환수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하에 중대범죄수익 조사위원회를 두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환수한 재산은 피해자구 제기금등에 사용한다.

3) 기업 내부에서의 재벌 견제

가) 노동자 대표의 사외이사 추천권 및 회사의 선임의무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제도가 필요하다. 경영진의 의무위반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구조조정, 복지 축소 등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고 회사 구성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이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노동조합(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방법도 없다.

- 따라서 상법 제542조에 6항을 신설하여, 상장회사는 노동조합(또는 근로자대표)

이 추천한 1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 또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상법 제 403조 제1항)

나) 주주, 노동조합 등에 대표소송 원고적격 부여

회사의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주주 1인, 노동조합이 회사를 대표하여 그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강화 및 교섭권 보장

경제민주화는 납품업체,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대자본에 대하여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때 실현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등의 권리를 위해 노동3권이 주어지고, 중소납품업체들도 원청회사와 납품단가 협상권이 주어지고,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동결정제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가) 중소기업의 집단교섭권 확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비용을 전가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는 대기업의 수익성을 높이지만 중소기업은 투자재원과 임금지불 능력이 떨어져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확대시킨다.

상생법에서 성과이익공유제 등이 있으나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래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을 높여 집단자치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19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부당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가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사실상 대기업 등과의 합리적인 거래조건의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한 거래상 약자들이 대기업과의 집단교

섭을 통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요구하여 분쟁의 집단적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거래조건의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납품단가 협상을 하거나 성과공유 및 초과이익공유를 위한 협의 등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집단교섭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초과이익 공유제

(1) 배경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은 수익률은 좋아져도 협력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과 납품가격 인하로 인해 수익률이 악화되고, 결국 기발개발투자의 여력이 줄어들어 경쟁력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하도급구조의 중층화로 인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효과는 2, 3차 하청업체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40여개에 그치고 재정적 지원 또한 250여억 원 규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여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게 성과공유제와 마찬가지로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경우,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시행할 경우 입찰에 유리하거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하며, 이익공유제 실시 유인효과를 위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상생협력법 제8조)로, 대기업의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원가절감 등)를 사전에 정해진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제도다.

2012년 금속노조와 노회찬 의원이 주최한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홍장표 교수(부경대 경제학부)는 상생협력법 제8조에 이익공유제를 추가하면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하였고, 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주노총·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을 협력사와 나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성과공유제가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생산과정이 끝난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개정법안

심상정 의원이 2016. 7. 5.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673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5) 노동 3권 강화를 통한 재벌기업 견제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사용자’도 포함되도록 함

- 사내하도급의 경우 ‘도급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함
-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동종업종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확대함
- 사용자의 정의 규정 후단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가 아니라 해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사내하도급 도급사업주의 사용자 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단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한다(제 2조 제1호 단서 신설)

다) 산별노조 교섭권 보장

(1) 배경

2015년 말 산별 또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수는 1,099,020명으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2005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업노조 수도 200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 또는 초기업노조 조합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교섭체계가 각 기업별로 지나치게 분권화 되어 있고 산별 또는 초기업노조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산업 또는 초기업노조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며, 기업 간 격차로 인한 노동자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있어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사용자단체 범위를 법령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관, 규약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사용자가 초기업단위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 침해와 산별교섭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사관계 측면에서 산별 또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협효력확장제도 신설로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사용자단체의 정의 규정 후단에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확대한다(제2조 제3호 단서 신설)
-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초기업단위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제29조의 2 신설)

라) 부당노동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

-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그에 맞추어 정비될 필요가 있다.
- 복수노조 하에서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노동조합 간 차별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 별도로 명시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및 갱신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함
-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함
- 누구든지 도급, 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함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1) 배경

현재 검찰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에게 수사 및 공소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덮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그간 우리시민사회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비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되었다.

따라서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검찰로부터 독립된 기구에게 별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거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분배·축소하고, 수사기관이 서로

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예를 들면 2014년 불거진 정윤희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면, 박근혜 정권에 비선실세가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각종 불법 행위와 헌정질서 위반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오늘날의 비정상적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을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검찰총장으로, 서울지검 3차장은 창원지검 검사장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각각 승진했다.

이와 같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놓여 있는 판사,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해서 수사할 수 있는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조직은 그 어떤 조직보다 직무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관급 이상의 고위관료, 판검사, 고위경찰 등이 모두 고비처의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또한 그들의 범죄와 연관된 공범들도 포함된다. 사업가나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모두 수사대상이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이 수사하면 늘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다. 그런데 고비처가 신설되면 그런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해야 정치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도 부담을 더는 격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관련된 범죄수사도 검찰 특수수사부서에서 독점해왔는데 그런 독점이 깨지게 되는 거다.

(2) 제정법안

-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운영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 고위공직자 범위 :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군판사 및 군검찰관 포함), 교육감,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대통령실 비서관과 경호처 처장급 이상 공무원
- 가족 범위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진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조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고 처장은 정무직,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또한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그 외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정책기획활동

(2017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89
2. 노동현안 대응활동	91
가. 최저임금관련	91
나. 지역순회 간담회(2017년 하반기)	99
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110
3. 양대노총 제조연대 활동 보고	117
가. 양대노총 제조연대 개요	117
나. 제조발전 특별법 입법발의 결과	123
다. 제조연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128
라. 양대노총 제조연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개최	130
4. 대외협력활동	133
가. 대선 정책질의	133
나. 금속노련 대선의제 제출	137
다. 금속노련 통일위원회 구성	139
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토론회 참석	142
5. 기타 정책 활동	146
가. 사회적대화 참여활동	146
나. 노사정위원회 개편 관련	149

1. 정책기획 활동 평가

가. 성과

○ 노동현안 대응

-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금속현장의 목소리를 총연맹, 고용노동부, 국회에 전달
- 연 2회에 걸친 지역순회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변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및 교육을 통해 연맹의 대응방안 설명

○ 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투쟁사업, 대외협력사업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성과를 계승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부활과 발전을 위한 상설연대체로 발전적 해체
-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 노동조합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보장을 위한 제조산업협의체 구성,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외국투자 기업의 먹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조업발전특별법 발의
- 국회 산자위, 환노위, 정무위 등 제조업 발전과 제조업 노동현안과 관련된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 개최

나. 문제점 및 한계

○ 노동현안에 대한 대응

-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제도개선 논의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모양새로 전개
- 금속노련의 의견이 노총과 국회, 정부에 전달은 되었지만 정책결정과정과 법 개정 과정에서 만족할 만큼 반영되지 못함
-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변화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강조

○ 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투쟁사업, 대외협력사업

-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양대노총 제조연대 차원의 공통된 실천투쟁 부재
-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조직 내부와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 미비
-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사업추진 미흡

다.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 한국노총 제조연대, 양대노총 제조연대 활동의 통일성 보장

- 양대노총의 제조업 노동조합을 포괄하고 있는 양 제조연대가 파괴력 있는 공동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이후 제조업 현안에 대한 질서 있고 통일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

○ 남북 제조노동자의 교류사업 추진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추진 경과에 따라 활발한 남북교류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속노련의 강령에 따라 남북 제조노동자의 특색 있는 교류사업 전개 필요

2. 노동현안 대응활동

가. 최저임금관련

1) 최저임금법개정 양대노총 요구안

양대노총은 ILO 국제기준, 헌법과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시함.

1.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2.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3.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5. 도급인의 책임강화
6.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7.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8.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9.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10.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11.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12.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13.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

가) 제안이유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고(헌법 제 32조 제1항),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1조).
- 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만 골몰한 나머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저임금 노동자 괴롭히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급급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감대를 이룬 ① 가 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②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관한 방안 등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음.
- 새 정부 들어 집권 여당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개악 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꼼수’, ‘조삼모사’식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
- 이에 양대노총은 ILO 국제기준, 헌법과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시함.
- 한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있음.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갑’의 횡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임.
- 문제의 본질인 ‘갑’의 횡포를 은폐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괴롭혀 ‘을’끼리 싸움을 부추기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임. 이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함께 제시하여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촉구

함.

나) 주요내용

- 가.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안 제3조 제1항)
- 나.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안 제4조 제1항)
- 다.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 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안 제5조의2)
- 마.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안 제6조 제5항 후단 신설)
- 바. 도급인 책임 강화(안 제6조 제7항, 제8항 제3, 4호 신설)
- 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안 제6조 제10항)
- 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안 제6조의3 신설)
- 자.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안 제7조)
- 차.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안 제7조의2 신설)
- 카.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안 제11조의2 신설)
- 타.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29조 신설)
- 파.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부칙 제2조, 2018. 8. 31.까지 국회 보고, 하반기 국회 입법화)

(1) 가사(家事)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개정안 :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배제 규정 삭제(안 제3조 제1항).
- 취지 :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가사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함. 이에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함.

(2)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 개정안 :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바로 잡음(안 제4조 제1항).
- 취지 : 이미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에서 다양한 가구생계비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권고. ILO 협약(제131호)도 최저임금 결정 시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바로 잡음.

(3) 수습 노동자 감액규정 삭제

- 개정안 : 수습 사용인(3개월 이내)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 취지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수습노동자 중 상당수는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로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임금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4)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 개정안 : 시행령 제5조에 있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산 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5조의2).
- 취지 : 현재 대법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과 관련 산정임금(분자)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환산시간(분모)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의 모순(분모와 분자의 모순), 행정해석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5) 택시업종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개정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되게 할 수 없도록 명시(안 제6조 제5항 후단 신설)
- 취지 : 택시업종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달리 소정근로시간만 현저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실노동시간의 측정과 파악이 얼마든지 가능함.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시간단축분 임금을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함.

(6) 도급인 책임 강화

- 개정안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기(안 제6조 제7항).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에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6조 제8항 제3호, 제4호 신설).
- 취지 : 하도급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 보호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 명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포함시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을 보호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도 같은 취지로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7)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간주

- 개정안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안 제6조 제10항 신설)

- 취지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가산임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 확인

- 개정안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임금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안 제6조의3 신설)
- 취지 : 원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의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9)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 개정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 최저임금의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안 제7조).
- 취지 :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 권리임.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 이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함.

(10) 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의 지급

- 개정안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를 대신하

여 지급하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대위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 취지 :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더라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민법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있고, 사업주 처벌도 미약하여 큰 효과가 없음. 이에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11)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작성·교부의무

- 개정안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에게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작성·교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11조 제2항 신설 및 제31조 제4호 신설)
- 취지 : 최저임금 준수를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임.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도 같은 취지로 권고.

(12) 최저임금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 개정안 : 사용자가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손해의 3배 이상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 부과(안 제29조 신설).
- 취지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함.

(13) 최저임금제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부처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18년 8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

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취지 :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프랜차이즈 갑질’과 ‘건물주 갑질’,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외면’에 문제의 본질이 있음.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고질적인 ‘갑’의 횡포가 만연해 있고, 이것이 주범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수수방관하며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저임금 노동자를 괴롭혀도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는 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해결될 수 없음.

이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제도 안착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개정안 부칙으로 정부 각 부처가 2018년 8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가칭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을 제안함.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부칙 제2조)]

- 2018년 8월 31일까지 국회 보고, 하반기 국회 입법화 -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방안
- 공공부문 입찰계약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방안
- 반값 가맹수수료를 포함한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방안

② 법무부장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반값 임대료 실현 방안

③ 기획재정부장관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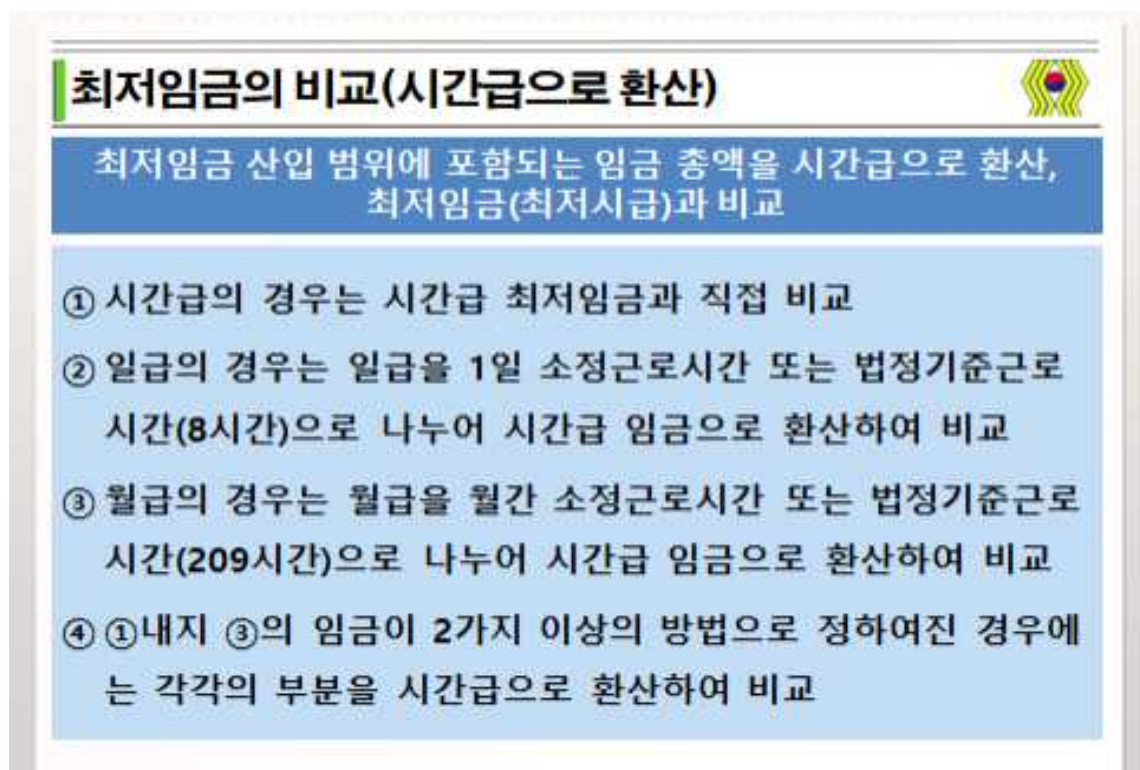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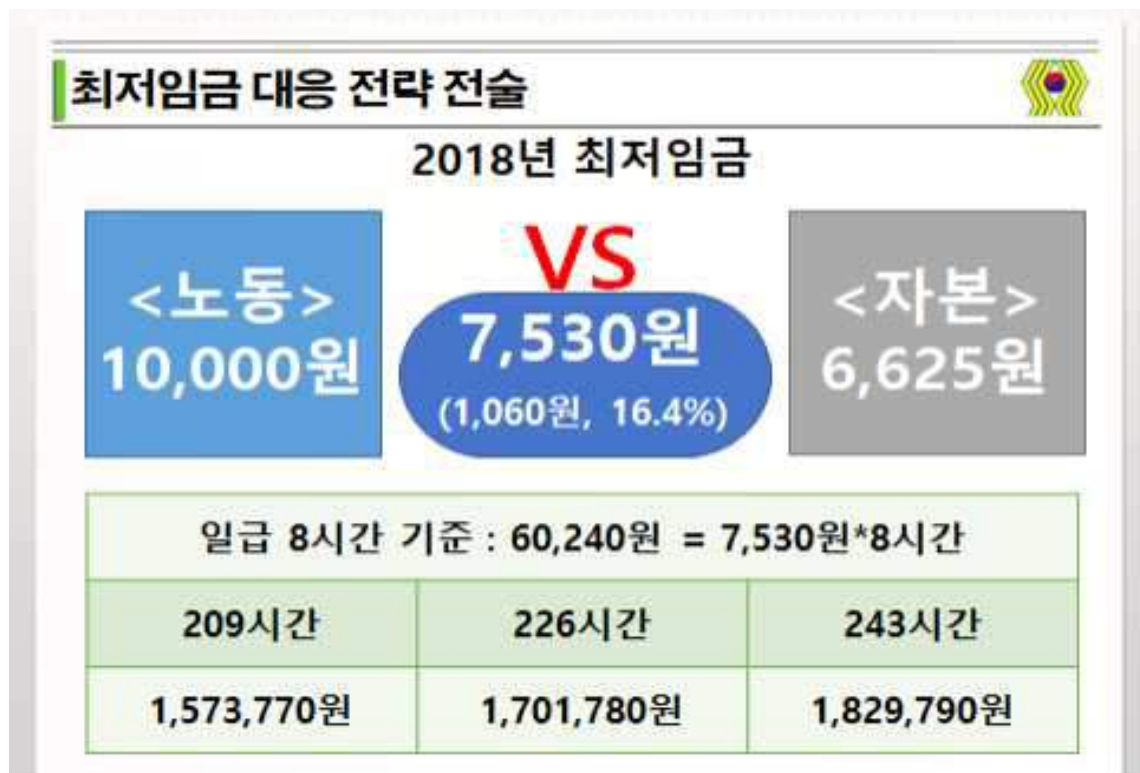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1% 카드수수료) 및 적용대상 확대 방안

⑤ 고용노동부장관

-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방안

나. 지역순회 간담회(2017년 하반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근로기준
법상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 ①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②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③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시행규칙 별표2)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농돌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①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②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④ 일직·숙직수당 ⑤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시행규칙 별표1)



<공통요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 수당 판단기준>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달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지급 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 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별지수당·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사례 1



- ✓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최저임금 산입여부 사례 2



- ✓ 전체근로자에게 매월 식비 10만원 지급, 운전자에게
톤수에 따라 5만원에서 10만원의 차량관리비 지급,
식비와 차량관리비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식비는 생활보조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산입하지 않음.
차량관리비는 차량운전자라는 운전근로자에 한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동 금품이 직무적 성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해당
(임금복지과-2356, 2010.12.15)

최저임금 산입여부 사례 3



- ✓ 연간 300%의 상여금을 2개월마다 50%씩 지급하던
것을 특수작업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매월 25%에
해당하는 16만원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 여부?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이와 달리,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변경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하였다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됨은 물론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모두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8, 2008-01-18)

최저임금 산입여부 사례 4



- ✓ 기본급 20만원, 식대 10만원
판매수당 80만원(판매실적에 따라 변동)을 지급,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 (임금정책과-501, 2004-02-14)

최저임금 산입여부 사례 5



- ✓ 생산직 근로자에게 복지수당 명목으로
1년 이내 1만원, 1년이 경과하면 3만원을 지급,
통상임금에 포함기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복지수당을 비록 통상임금에 포함기로 하고 있더라도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생계비보조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 (임금 32240-7146, 1989-5-17))

최저임금 산입여부 사례 6



✓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상여금을 연간 단위로 정하는 등(연 800%)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17, 2015-12-14)

최저임금 주지 지급 의무



<사용자는 주지 의무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최저임금액
-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 대상근로자의 범위
- ✓ 효력발생 연월일

<최저임금 지급 의무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
-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무효,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됨

최저임금 관련 사측 요구 예상



소정근로시간 조정

- 소정근로시간 축소
226시간 / 243시간 → 209시간

임금조정

- 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 상여금 기본급화
- 복리후생 급여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전환

최저임금 관련 사측 요구 예상 1



- ① 소정근로시간 축소 및 유급처리임금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전환

사례> 소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 기본급 : 일급 50,000원
- 최저임금 산입 임금: 근속수당 5만원, 직책수당 5만원, 생산장려수당 10만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

$= 50,000 \text{원} \div 8 \text{시간}$
 $+ (50,000 + 50,000 + 100,000 \text{원}) \div 243 \text{시간}$
 $= 6,250 \text{원} + 823 \text{원}$
 $= 7,073 \text{원} \quad (6,470 \text{원} < 7,073 \text{원} < 7,530 \text{원})$
 *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아님
 * 2018년 최저임금 위반

(243시간 → 209시간, 토요일무급)
 $50,000 \times 7 \text{일} = 350,000 \text{원}$
 $350,000 \div 6 \text{월} \div 8 \text{시간} = 7,292 \text{원}$
 $(50,000 + 50,000 + 100,000) \div 209 = 957 \text{원}$
 $7,292 \text{원} + 957 \text{원} = 8,249 \text{원}$
 $(6,470 \text{원} < 7,530 \text{원} < 8,249 \text{원})$

최저임금 관련 사측 요구 예상 2



② 상여금 산정 방식 변경

사례1> 연간 기본급 기준 750% 상여금 지급, 짝수월 100%, 설·추석·하계휴가 각 50%
 ⇒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산입 하지 아니함

사례2> 연간 기본급 기준 750% 상여금 지급, 매월 50%, 설·추석·하계휴가 각 50%
 ⇒ 매월 지급하나 산정주기가 연간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함

예> 단체협약 제00조(상여금)

-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매월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설·추석, 하계휴가일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최저임금 관련 사측 요구 예상 3



③ 상여금 기본급화

- 사례> 소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 기본급 : 시급 6,250원, 상여금 기본급 기준 짝수월에 100% 지급 (1,518,750)×600%
 - 최저임금 산입 임금: 근속수당 5만원, 직책수당 5만원, 생산장려수당 10만원
 - 상여금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

= 50,000원 ÷ 8시간
 + (50,000 + 50,000 + 100,000원) ÷ 243시간
 = 6,250원 + 823원
 = 7,073원 (6,470원 < 7,073원 < 7,530원)
 *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아님
 * 2018년 최저임금 위반

(상여금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

1,518,750 × 200% ÷ 16 ÷ 243시간
 = 781원

* 7,073원 + 781원 = 7,854원
 (6,470원 < 7,530원 < 7,854원)

12개월로 나눌 경우, 1,042원
 7,073원 + 1,042원 = 8,115원

최저임금 관련 사측 요구 예상 4



❗ 복리후생 급여 최저임금 산입 임금으로 전환

사례> 소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 243시간

- 기본급 : 일급 50,000원 (시급 6,250원 = 50,000원 ÷ 8시간)
- 최저임금 산입 임금 : 근속수당 5만원, 직책수당 5만원, 생산장려수당 10만원
- 최저임금 미산입임금 : 가족수당 5만원, 급식비 8만원, 교통비 10만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

= 50,000원 ÷ 8시간
 + (50,000 + 50,000 + 100,000원) ÷ 243시간
 = 6,250원 + 823원
 = 7,073원 (6,470원 < 7,073원 < 7,530원)
 *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아님
 * 2018년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

(50,000 + 50,000 + 100,000 + 50,000 + 80,000 + 100,000원) ÷ 243시간
 = 6,250원 + 1,770원
 = 8,020원 (6,470원 < 7,530원 < 8,020원)
 *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아님
 * 2018년 최저임금 위반 아님

최저임금 제도의 변경 예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 5인 이상 기업 임금 정책급여 78.3%,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15.5% 부가급여 6.2%, 전체 임금의 20%가 최저임금에서 제외



김영주 신임고용노동부 장관, 8월11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이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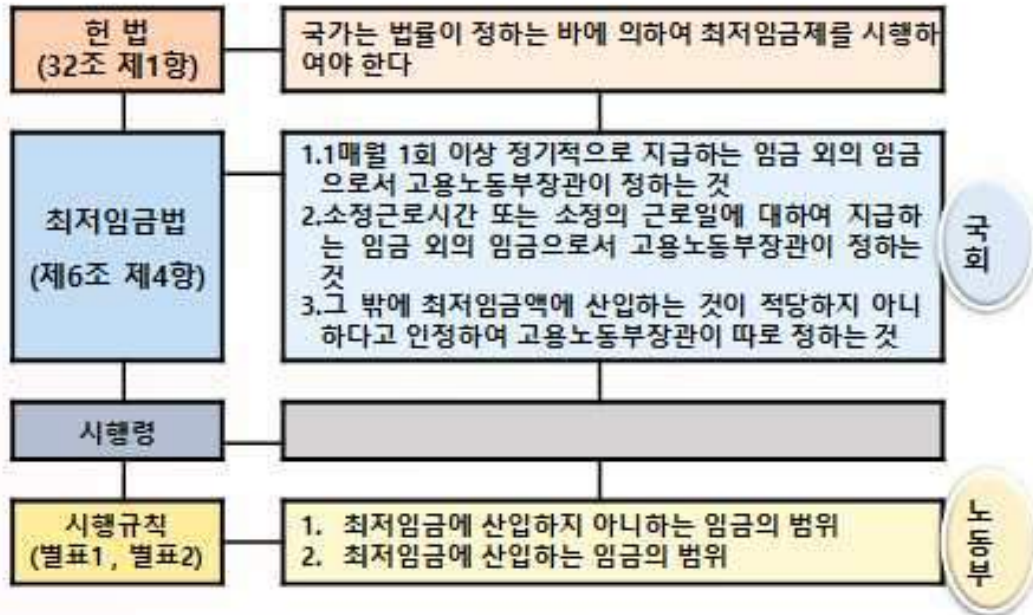


최저임금위원회, 연내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꾸려 산입 범위 개편을 논의



김유선 노사연 선임연구위원, '소득 하위 20% 노동자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거의 못받고 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저소득 계층에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다'

최저임금 제도의 변경 예상



최저임금 단위노조 교섭전략





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1) 경과

- 2010.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 (노사정위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
- 2012.4. 휴일노동의 연장노동 포함, 탄력적노동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 관련 공익위원안 도출(노사정위 실근로시간단축위)
-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선당시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으며 △휴일노동의 초과노동시간 산입,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을 정책수단으로 제시
- 2013. 한국노총, 민주노총 장시간노동과 교대제 개선을 2013년 주요 투쟁과제로 결정
- 2014.2. 환노위 노사정 소위 구성, 대표단회의(3회), 대표교섭단회의(5회), 지원단회의(6회) 진행
- 2015.9. 노사정 합의 직후 새누리당 노동시간 단축 개악 안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박근혜 정부안) 발의
- 2016.1.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 2016. 20대 국회에 여·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2017. 대선 후보들 노동시간 및 휴게, 휴일 관련 입장 표명
- 2017.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협약 체결
- 2017.11.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 협의안 도출 및 표결 시도
- 한국노총, ‘국회 환노위는 노동시간 관련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성명발표
- 양대노총·정의당 이정미 대표, 근기법 개악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 2018.1.18.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사건:대법원 2011다112391)
- 2018.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공휴일 민간확대 법안 통과

2)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비 고
노동시간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가능 * 1주가 7일임을 명시
	시행시기	300인 이상:2018.7.1. 50~300인 미만:2020.1.1. 5~50인 미만:2021.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특별 연장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부터 2022.까지 노사합의로 8시간을 추가연장 허용	* 주당 60시간까지 가능
휴일 노동	가산수당 (할증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지급	* 현행과 동일
	시행시기	공포후 즉시 시행	
유급 휴일	내 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함.	
	시행시기	300인 이상:2020.1.1. 30~300인 미만:2021.1.1. 5~30인 미만:2022.1.1.	
노동시간 특례	대상업종	5개 업종(육상운송(택시, 기차 등), 수상운송(여객선, 화물선 등), 항공운송(여객기, 화물기 등), 기타운송(택배 등), 보건업(병원 등) 유지, 21개 업종 제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업 제외
	시행시기	2018.7.1.	21개 특례제외 업종 (2018. 7.1.~2019. 7.1. 주68시간)
	보완장치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 보장	* 시행시기:2018.9.1.

3) 근기법 개정 평가 및 한국노총의 입장

가) 긍정적 의의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민간사업장 적용은 의미 있음
: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다수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 운송업, 보건업을 제외한 특례업종 폐지도 긍정적임.
- 특례업종에 남게 된 5개 유지업종에 대해서도 11시간 이상 연속휴식권 보장 등은 진전된 내용임.

나) 문제점

- 주52제의 단계적 도입과 함께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불인정
: 최근 압도적 법원 판결의 입장과도 배치 (서울고법 2010나71280, 2012.11.9.
등 다수 판례 입장과 배치: 현행도 주52시간제, 휴일-연장근로 시 중복할증 인정)
- 상반기 판결을 앞둔 휴일-연장근로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정적 영향
- 노동시간 규제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5인 미만 미적용, 노동시간 양극화
현상 심화
-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준비
(연속적 장시간노동, 임금삭감 우려)
-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및 정부 지원대책 등 누락

다) 한국노총의 입장 및 대응방향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과 공휴일을 확대 적용되어야 함
- 국회와 정부,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대책 등 보완대책 수립필요
- 노동시간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상관없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
체의 종전 근거법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촉구 활동 전개

라)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

-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주44시간→주40시간) 임금수준(임금총액)의 저하가 없도
록 해야 함(ILO협약 47호, 1935년).
- 특근-연장 노동시간 단축은 노사부담 원칙(특근 수당 감소-생산량 감소), 중소기업-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대책 필요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기타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비용과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의 지원대책 발표 예정
*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 실노동시간단축 시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월
80만원, 최대2년간) +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액 보존(월 10~40만원) → 지원대
상, 지원수준 확대 예정
- 정부지원 대책 활용(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신규고용 인건비 + 기존 노동자 임금
보전 지원제도 활용), 노사상생 부담(생산성 향상 + 임금보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 통상임금 인상효과를 실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실질임금의 보존과 연계
하는 노조의 임금협상 전략이 요구됨.

4) 금속노련 대응자료(지역순회 교육자료)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조관련 연맹 대응

휴일근로 연장근로포함 (주52시간 상한제) 시행과 파장 & 대응

➢ 3가지 中 하나로 올해 안에 결론

④ 근로기준법 개정, ② 대법원 판결, ③ 행정해석 폐기. 변경

❖ 한국노총 정책본부와 제조업 관련 산별연맹의 대응팀 구성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현재 제53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근기 68207-2855, 2000. 9. 19)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중소기업 현실 등
고려해 보완
여야 합의 도출되지 않으면
행정해석
폐기 검토할 수 밖에...

실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OECD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실질임금 현황
2015년 OECD 회원국 34개국* 기준,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
단위: 시간
OECD 평균 1,766

순위	국가	시간
1	멕시코	2,204
2	한국	2,113
3	그리스	2,042
4	일본	1,988
5	폴란드	1,953
6	아이슬란드	1,880
7	포르투갈	1,868
8	이스라엘	1,858
9	에스토니아	1,852
10	아일랜드	1,820
11	미국	1,790
12	일본	1,719
13	영국	1,674
14	프랑스	1,682
15	독일	1,371

연간 평균 실질임금
구매력평가기준, 단위: 달러
OECD 평균 41,253

순위	국가	달러
1	룩셈부르크	60,369
2	미국	58,714
3	스위스	58,389
4	노르웨이	50,908
5	네덜란드	50,670
6	호주	50,167
7	덴마크	50,024
8	아이슬란드	49,953
9	캐나다	47,843
10	벨기에	47,702
11	독일	44,925
12	영국	41,384
13	프랑스	41,252
14	인도	35,790
15	한국	33,110

한국인 취업자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2위

2124시간 (한국인 8개월 일한 시간)

1770시간 (OECD 평균)

1729시간 (일본)

1371시간 (독일)

한국 1.2배 OECD

자료: OECD, 그래픽: 이경희 modakid@naver.co.kr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구조



근로시간 실태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
(평균 41.5시간 근로)
1050만명

주 52시간 이상
근로자
107만명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조사 결과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현행 규정과 정부 개정안 비교

현행 규정

- 최대 주 68시간 근로 가능(법정 40+연장 12+휴일 16)
- 휴일·연장 가산 수당 중복 적용 규정 불명확

정부 개정안

- 최대 주 52시간(법정 40+연장 12)
-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 노사 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연장 근로 허용(2023년까지)
-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시 100%로 명시

➤ 금속노련은 전체 사업장의 37%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

실노동시간 단축 쟁점(휴일 중복계산 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생략)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이하 생략)

1주일은 몇 일?

5일

노동부

40+12+16+@

7일

노동자

40+12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855, 2000.9.19)
(근기 01254-11483, 1990.8.17) (근기 1455, 1981.6.19) (사노 139, 1954.10.2)

기존 대법원 판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인정(대법 90다6545, 1991.3.22)

최근 법원판결 경향

- △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이 상당하다**(대구고법 2011나4408, 2012.5.31)
- △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서울고법 2010나50290, 2012.11.9, 서울고법 2010나71280, 2012.11.9. 등)
- △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로시간에 해당**(대구지법 2012나 61504, 2013.9.4)

실노동시간 단축



7일

주40시간(100%)

연장근로 12시간(150%)

52

휴일근로 12시간(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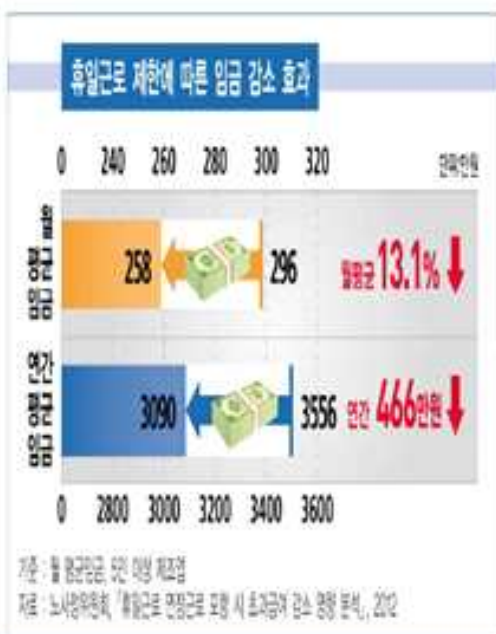
시간단축법안 여야 입장



• 1주일의 정의 :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전면시행 • (단계적시행, 3단계) • 300인(1년후), 50인(2년), 5인(3년)	시행시기	• 1,000인, 300인, 100인 등 5단계 • (단계적 시행, 3단계) • 300인(1년후), 50인(3년), 5인(5년)
• 불허	특별연장 근로	• 연장근로 12시간 → 20시간 연장 • 총 60시간까지 허용(4년간)
• 100%합증 인정(50%+50%)	휴일중복 합증	• 불허 • 중복되도 50%만 합증(현행대로)
• 처벌유예(연벌) • 52시간법제 확인(68시간제 위법)	위법처벌	• 시행전일까지 1주는 5일 • 52시간제 항설(68시간법제 인정)
• 신규 채용없는 시간단축 사업장에 도 지원금	임금감소 방지대책	• 없음
• 없음	기타	• 탄력적근로시간제 확대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논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추가 부담

인원 보충에 따른 직접 노동비용	9조4000억원
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	2조7000억원
임금상승분	1754억원
총 비용	12조3000억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 추가 인원: 26만6000명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휴일근로 제한 시 우려되는 악영향

(단위: %, 복수응답)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51.7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인력난 가중	34.0
생산시설 해외이전·해외생산 비중 확대	2.0

3. 양대노총 제조연대 활동 보고

가. 양대노총 제조연대 개요



2002년 제조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제 도입)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로 출범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의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 노동계약 저지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제2기 제조공투본 재가동



2017년 6월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의 활동을 계승하여 재벌개혁, 제조업 부활을 위한 공동대응을 위해 상설 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

1) 제조연대 회의체계

공동대표자 (공동대표자회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신환섭 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회)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금속노조	엄강민 부위원장
		화학노련	이육일 사무처장
		화학섬유연맹	임영국 사무처장
집행위원 (집행위 실무회의)	간사	금속노조	송보석 정책국장
		금속노련	최장윤 정책국장
		금속노련	곽상욱 정책부장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김학진 정책국장
		화학노련	이승용 정책부장

2) 활동 경과(2017/2018)

일 자	내 용	비 고
2017.02.23	8차 대표자회의 - 양대노총 제조연대로 명칭 변경 - 제조공투본 백서 발간 및 기록동영상 제작 결의	화학노련
03.23	양대노총 제조연대 1차 실무회의	금속노조
04.13	양대노총 제조연대 1차 집행위원회	화학노련
04.14	제조연대 대선후보 정책질의서 발송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05.12 ~05.13	제조연대 공동워크숍 - 상반기 사업계획 논의	보령 웨스트피아
05.17	양대노총 제조연대 2차 실무회의	금속노조
05.24	제조공투본 평가 집담회	화학노련
05.24	재벌개혁입법 국회 공청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6.05	양대노총 제조연대 3차 실무회의	화학노련
06.21	양대노총 제조연대 4차 실무회의	화학노련
06.28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식 및 기념 토론회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활동백서 발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07.26	제조연대 2차 집행위원회	화학노련
11.22	제조연대 5차 실무회의	금속노련
12.06	제조연대 3차 집행위원회	화학노련
12.21	제조연대 1차 대표자회의	화학노련
2018.01.11	제조연대 4차 집행위원회	금속노조
01.11	제조연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내부워크숍	금속노조
01.29	제조연대 2차 대표자회의	국회 의원회관
01.29	제조연대/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국회 의원회관
02.01	제조연대 신년기자회견 및 제조노동자대회	국회 앞
02.08	제조연대/국회의원 보좌진 실무회의	한국노총 6층

3) 주요활동

가) 제조연대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개최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28일(수) 1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 출범식 취지

- 한시적 공투체인 제조공투본의 활동과 투쟁을 되짚어보고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함.
- 제조연대 출범을 통해 상설적 연대체로의 한 단계 발전을 공식화하고 제조업 노동조합 연대 사업의 수위와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제조연대는 출범식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동한 제조업 부활 협의구조 구축 △최저임금 1만원·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등 노동기본권 강화 △산별노조 제도개선 △지역별 교류협력 강화를 5대 핵심 사업으로 지정.
- 제조연대출범식을 맞이해 제조공투본 활동백서를 발간하고 출범 기념 토론회를 추진 함.

○ 참석자

- 양태노총 제조연대 대표자 및 집행위원
- 민주노총 김옥동 부위원장,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 이용득, 강병원, 어기구, 김경협, 윤종오 국회의원
- 양태노총 제조연대 소속 조합원 100여명

○ 토론회 개최 결과

- “4차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이문호 워크인 소장과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의 주제 발제
- 토론회에서는 제조연대가 제안한 제조산업협의회 같은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각 나라 중에서도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 사례 등

소개

- 독일 정부는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춘 산업4.0과 기술혁신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연구하는 노동4.0을 결합해 추진. 2015년 3월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의 미래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 중. 독일 연방경제부장관과 독일 금속노조 위원장, 독일 산업연맹 회장이 참여하는 고위급회담에서 협의체 전체 방향을 결정. 5개 실무그룹(분과)마다 노사 대표가 공동분과장을 맡고 있음
- 이문호 소장은 "독일처럼 사회적 대화와 경영참여가 활성화된 곳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적응력과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다"며 "양대 노총이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나 올해 2월 정세균 국회의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제조연대가 긍정적인 성명을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 이소장은 "중앙이나 업종별 사회적 대화와 함께 사업장 차원의 경영참여도 중요하다"고 주장. 이 소장은 "기술혁신은 빠르는데 노사 간 정보공유와 사전협의를 안 되면서 노조가 무조건 거부하거나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같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
- 김성혁 금속노조 연구원장은 "노조는 눈앞의 임단협 중심 경제주의에서 벗어나 '더 많은 민주화, 더 좋은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토론
-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디지털화가 노동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 대화와 공동정책 개발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며 "8월에 출범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노조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산업·업종별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주제발표를 통해 송영섭 원장은 특별법은 노사정이 함께 제조산업 발전과 고용창출·고용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업발전기금 조성이나 외국인투자를 정상화하는 내용 등 법률안 주요내용 소개
- 또한 "산업발전법이 있긴 하지만 경쟁력 강화 시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방안이 부재하다"며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지원하거나 생계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없는 데다, 외투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

도 없어 기술 먹튀나 대량해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사항 표명

- 송 원장은 "노사가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조산업협의체 구성,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기금 지원, 외투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
- 토론회에는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김종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박기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부장이 토론자로 참여

○ 제조연대 출범식 및 토론회 진행 순서

구 분	내 용	비고
1부,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식(14시~14시 50분)		진행 : 이육일 (화학노련사무처장)
민중의례	임을 위한 행진곡	
내외빈 소개		
백서 발간	제조공투본 백서 발간 취지 및 활동 보고	
제조공투본 활동 영상 상영		
제조연대 대표자 등 소개	공동대표 인사 및 공동집행위원장 소개	
축사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 이용득, 강병원, 어기구, 김경협, 윤종오 국회의원	
제조연대 출범 선언문 낭독	4개조직 대표자	
폐회	구호 제창	
2부, 기념 토론회(15시 00분~17시 20분) 4차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		좌장 : 이원보 (한노사연 이사장)
발제1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30분) - 워크인 소장 이문호	
발제2	제조산업발전법(20분) -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지정토론	한국노동연구원(조성재 박사)	
	노동부(김종호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한국노총(황선자 한국노총 연구원)	
	민주노총(김성혁 금속노조 연구원장)	
	조선노연(박기수 현대중공업지부 정책부장)	
질의 응답(플로어 토론)		
폐회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식 (14시~)

- 양대노총제조공투본 백서 발간 보고 및 활동보고영상 상영
-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선언문 낭독 등

기념 토론회 (15시~17시 20분)

4차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

발제1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워크인 소장 이문호

발제2

제조산업발전법 금속노조 법률원장 송영섭

지정 토론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박사, 고용노동부 조충현 노사관계정책과장, 한국노총 황선자 연구원, 제조연대 김성혁 연구원장, 조선노련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28일(수) 14시~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후원 한겨레신문사, 매일노동뉴스

양대노총제조연대
노동과 세계

(금속노련 / 금속노조 / 화학노련 / 화학섬유연맹)



나. 제조발전 특별법 입법발의 결과

1) 입법발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10시~ , 국회 정론관
- 주 최 : 김종훈 의원실, 양대노총제조연대
- 참 가 자 : 김종훈 의원, 양대노총제조연대(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상구 위원장, 화섬연맹 임영국 사무처장)
- 진행순서(사회 : 임영국 화섬연맹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인사말(김종훈 국회의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 회견문 낭독(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기자회견문>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제조업 발전 특별법 발의에 즈음하여,

지난 몇 십년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제조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출과 성장에 기여한 것도 제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도 확실히 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민경제를 지탱해오던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은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들의 진입에 따른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고용불안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전략의 귀결인 제조업 공동화 등이 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의 여러 정부들이 이른바 "넛-크랙커론"에 따라 제조업을 경시하고 서비스를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편 것이 제조업 약화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기술의 일본과 비용의 중국에 끼여 앞으

로 가망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들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정부들은 지식기반 경제, 금융서비스 중심 경제, 창조 경제 등 이러저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서비스 산업 중시 정책을 통해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이 분야에 몰아주었는데, 그 때문에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산업 고유의 논리가 아니라 금융논리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제 제조 기업의 운명은 산업 발전이라는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채권단의 이해에 바탕을 둔 자금 회수 논리가 지배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조업이 비틀거리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고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앞으로 뭘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담론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은 서비스업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때 거기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발전 없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제조업을 튼튼히 발전시켜야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뭔가 새로운 것에서 찾기보다 기존의 것을 살리고 발전시키는 데서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한 길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이 더욱 탄탄하게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의 역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이에 김종훈 의원, 심상정 의원, 이정미 의원, 윤종오 의원, 김종대 의원, 추혜선 의원, 정춘숙 의원, 정성호 의원, 박주민 의원, 노회찬 의원, 윤소하 의원과 그리고 양대노총은 뜻을 모아 제조업 발전 특별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셋째,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게도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끝>.

2017년 9월 13일

김종훈 국회의원, 양대노총제조연대

2) 제조업발전특별법 추진 현황

○ 9월 19일 입법 발의

○ 발의의원 명단

[2009483]제조업발전특별법안(김종훈의원 등 11인)

김종훈(민중당/金鍾勳) 김종대(정의당/金鍾大) 노회찬(정의당/魯會燦)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심상정(정의당/沈相正)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종오(민중당/尹鍾五)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추혜선(정의당/秋惠仙)

○ 11월 20일 소관 상임위 법안 상정

-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동시 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법률안 검토보고서 제출

가) 제안이유

○ 「산업발전법」은 제조업 및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시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현장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의 진작과 기업의 투자·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국인투자 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철수 등으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 한편, 긴급자금이 필요한 제조산업 기업이나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아울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 ○ 이에 「산업발전법」이 담고 있지 못하는 제조산업협의회 등의 구성,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 고용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한 기금 및 세제 지원,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조산업협의회 및 부문별 업종협의회 등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조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 제조산업협의회 내에 관련 중앙행정기관, 부문별 사용자단체 및 사용자협회, 기업, 연합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각 부문별 업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
- 제조산업협의회는 국내투자확대 및 고용보호,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투자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문별 업종협의회는 해당 업종과 관련한 산업발전 및 고용보호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2) 대규모 구조조정 시 노사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의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회적협의기구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협의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정리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제조업발전과 고용보호를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의 조성 및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발전기금을 국내총생산의 3% 내의 범위에서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투자확대, 고용창출, 고용보호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활동 지원,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의 재취업 현황 등을 조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마련 및 심사절차 강화

- 단기투자이익을 위한 무리한 구조조정과 고율배당, 유상감자 등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성 저해 위험이 있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2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각 제한사유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산업협의체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외국인투자가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산업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한 내용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다. 제조연대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1) 개요

- 일시/장소 : 2018. 01. 29(월) 16시 / 국회 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장
- 참석자

참석자 명단	
양대노총 제조연대	민주노총
	➢ 금속노조(김호규 위원장, 엄강민 부위원장, 송보석 정책국장)
	➢ 화섬연맹(신환섭 위원장, 임영국 사무처장, 김학진 정책국장)
	한국노총
	➢ 금속노련(김만재 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최장윤 정책국장)
	➢ 화학노련(김동명 위원장, 이육일 사무처장, 이승용 정책부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송옥주, 이기구, 홍의락, 박용진 국회의원
	정의당 : 이정미 대표
	민중당 : 김종훈 대표

2)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비고
16:00~16:10	참석자 소개	
16:10~16:25	인사말	
	- 제조연대 김동명 공동위원장 - 참석 국회의원	
16:25~16:35	제조연대 소개 및 제조업발전 특별법 제정안 설명 (김종훈 의원, 김만재 위원장)	
	-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안 설명 (김호규 위원장)	
16:30~16:50	질의 응답 및 토론	
16:00~16:10	마무리 발언 (신환섭 위원장)	
16:50	기념 촬영 및 만찬장 이동 (의원회관 식당)	

3) 논의 결과

- (1)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의 개악을 막는 제조연대 투쟁을 지지하며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함.
- (2) 제조연대와 국회의원단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지지하고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제조업협의구조(제조산업협의회)가 우선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3) 제조연대와 국회의원단은 향후 제조업 발전과 재벌개혁, 중요한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제조연대 대표단-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함.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제조연대 실무 집행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실무협의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고 1차 협의를 2월 8일 진행하기로 함.<끝>.



라. 양대노총 제조연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개최

1) 취지

-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제도의 취지 훼손을 반대하는 제조노동자의 의지 표명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업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제조업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2108년 사업방향과 사업계획을 대내외에 선포

2) 개요

- 일 시 및 장소 : 2018년 2월 1일(목) 14시~ , 국회 앞
- 대회명

근기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내 용
 - 2월 임시국회 개회시점에 맞추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개악 저지
 - 제조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 기타 제조업 현안 쟁취 결의
- 참가 목표
 - 총 300여명
- 진행순서

구분	내용	담당	비고
1부 기자회견(사회 : 이육일 화학노련 사무처장)			
14:00~14:2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 인사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	
	- 질의 응답	사회자	
2부 결의대회(사회 :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			
14:25~14:30	문화공연	금속노련 율동패	
14:30~14:35	개회 선언 및 노동의례	사회자	
14:35~14:40	공동대표자 및 참석단위 소개	사회자	
14:40~14:50	양대노총 제조연대 투쟁 동영상 상영	사회자	
14:50~15:00	격려사 및 연대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국회의원	
14:50~15:00	현장투쟁발언 -최저임금 등 피해사례 증언 발언	금속노조 레이테크	
15:00~15:20	제조연대 2018 투쟁 선언문 낭독	공동대표자 4인	
15:25~15:35	상징의식		
거리행진(국회앞->자유한국당->민주당) ; 진행(화섬연맹 이재준 조직국장)			
15:35~16:15	자유한국당 규탄사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마무리 발언(민주당사 앞)	임영국 화섬연맹 사무처장	
*민주당사 요구안 전달(이육일 사무처장, 공동간사)			



4. 대외협력활동

가. 대선 정책질의

양대노총 제조연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
노총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02-2670-9555 fax.02-2679-3714

제 조 연 대 제 3 호 2017. 04. 14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정책본부장/정책위의장
제 목 제조업 발전 방안 관련 대선후보 정책 질의

1. 귀 당과 대통령 후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화학노련의 4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제조업 노동조합의 상설연대체입니다
3. 제조업 부활과 발전, 제조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귀 당과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4. 금번 정책질의서는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각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제조업 노동자들의 선택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제조연대 정책질의

나. 제출시한 : 2017. 4. 21(월)

다. 제출방법 : 이메일(fkmtu04@gmail.com)

* 문의 및 연락 : 최강을 금속노련 정책국장(010-6264-9874), 송보석 금속노조 사무차장(010-5551-2617)

- 붙임 : 1.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정책질의서 1부,
2. 제조업발전 특별법 제정안 1부. 끝.

양대노총 제조연대

금속노련/금속노조/화학노련/화학섬유연맹

직인
생략

수신처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제조업 발전을 위한 대선 정책질의서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화학노련의 4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제조업노동조합의 상설연대체입니다

금번 정책질의서는 한국 제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각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제조업 노동자들의 선택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문1

- 최근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제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수출주도성장이라는 한국식 성장모델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귀 후보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제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 한국에서는 노동을 배제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선진국들과 달리 노사 공동결정제나 사회적 합의기구가 부재하고,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양대노총 제조연대에서는 제조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가칭)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제조산업에 대한 주요 사업정책 방향을 논의,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귀 후보께서는 (가칭)제조산업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명 '원샷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제조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로서 지속가능한 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구조조정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약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귀 후보께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의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약기구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시여부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을 만들어서 약 8,000억 달러(약 88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및 보존 등에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 이 예산 규모는 미국 GDP의 5.5%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제조업발전, 고용보호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을 GDP의 3% 가량(약 40~50조원)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대해 귀 후보께서는 어떠한 판단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 하이디스와 쌍용자동차에서는 기술유출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였고, 일본 자본인 한국산연은 현재 공장폐쇄 및 전 조합원 정리해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 외국투자기업을 통해 국내기술유출 및 무분별한 자본철수로 인한 국내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 이에 제조업 분야의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사전심사, 사후감독을 통해 국내기술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는 법,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6

- 제조연대에서는 위에 질의했던 한국사회에서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첨과 같이 가칭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연대의 요구에 대해서 귀 후보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금속노련 대선의제 제출

1) 제조업발전 특별법 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제조업의 위기

- 한국 제조업의 실적악화 및 경쟁력 약화
-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정부의 제조업 천대(무시)정책
- ※ 지난 정권은 ‘제조업은 구조조정 대상,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기조 강조

○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

-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 노동을 배제하는 정부와 경영자
- 상시적 고용불안

나)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

○ 사회적 대화기구(제조산업협의체) 구성

- 제조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노동조합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토록 함
- 고용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예방과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 제조산업 강화와 발전,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제조산업발전기금’ 조성

- 제조업발전, 고용보호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을 국내총생산의 3% 가량(약 40~50조원 가량) 조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위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외국인 투자심사 절차의 강화

- 외국자본의 먹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다) 실현방안

-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양대노총 제조연대로 명칭 변경)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법안 내용을 조율 중
 - ※ 법률안은 별도 제출

라) 기대효과

- 제조업의 강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 경제위기 극복에 절실한 소득중심 경제 실현에 기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대응 가능

다. 금속노련 통일위원회 구성

1) 개 요

○ 남북 노동자 교류사업 추진

- 최근 평창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민감한 정치, 군사적 대화 노동부문을 포함한 민간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 예상
- 한국노총은 올해 남북교류사업으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평양, 금강산, 개성 방문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 금속노련은 강령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남북교류사업 및 통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 통일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장 인준

- 한국노총의 통일위원장 선출 요청(노총대협 제36호 ‘각 회원조합, 지역본부별 통일위원장 선출 요청’)에 따라 금속노련 통일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금속노련의 통일위원장을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김해광 연맹 상임부위원장 임명.

○ 지역본부 통일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

소속	단위노조/직위	이름	비고
서울지역본부	롯데알미늄 위원장	오성원	
안산시흥지역본부	비츠로(지역본부 사무국장)	강상욱	
부산지역본부	대한제강 위원장	윤각열	
경남지역본부	한국코오베용접 위원장	주종일	
전북지역본부	대유신소재 위원장	김학송	
포항지역본부	의장	정상준	
충북지역본부	보그워너티에스 위원장	이상용	
대전지역본부	알루코 위원장	진현주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2018년 2월 2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 한다) 선언과 강령 제2호에 따라 평화통일의 조속한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금속노련 통일위원회’ 라 하고 약칭은 통일위원회로 한다.

제3조【구성】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20인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연맹 상임임원 1인
2. 각 지역본부가 추천하는 1인
3. 연맹 위원장이 추천하는 가맹노조 대표자 및 간부 약간명

제4조【목적 및 사업】 통일위원회는 노동자의 통일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및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적 사회 제 세력과 연대하여 민족의 화해, 교류협력을 추구하며, 나아가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업을 추진한다.

1. 남북 금속노동자의 교류협력방안 수립 시행
2. 민족자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수립 시행
3.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폐 투쟁
4. 남북교류 협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공유화 사업(토론 및 교육사업 등) 수립 시행
5. 통일과 남북교류 관련 사회단체 연대, 각종 행사 기획 실행
6. 기타 통일 관련 각종 정책개발 등 관련 사업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 통일위원장이 소집한다.

1. 노련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통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임면】 통일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위원장은 금속노련 위원장이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통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대외활동을 위해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금속노련 위원장이 임면한다.
3. 임명직 통일위원은 금속노련 통일사업에 대한 공로가 높은 간부로 하여 통일위원장의 제청으로 금속노련 위원장이 임면한다.
4. 위원회 간사는 금속노련 통일담당 간부로 한다.

제7조 【의무】 통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한국노총, 금속노련 통일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동등하게 발언할 권리

제8조 【재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금속노련에 책정된 사업경비로 충당하며,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 결의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규칙제정】 위원회는 본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례】 이 규정의 미비 된 사항은 규약에 의한다.

제11조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중앙위원회에서 행한다.

제12조 【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토론회 참석

1) 토론문-신노동체제 구축

○ 한국노총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 김해광

2) 7공화국 신 노동체제 구축

○ 노동조합 판 ‘마켓쉐어’, ‘나와바리’ 의식 사라지게 해야

- 산별노조, 초기업단위노조, 지역노조, 일반노조 가입, 단체교섭 보장,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로 기업별 노조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시점
- 한국 노동운동은 꾸준히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제대로 된 산별 교섭이 진행된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음
- 산별교섭이 무력화된 사유 중에 사용자들의 산별노조 무시전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별노조와 교섭에 나설 수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제하는 법제도 전무
※ 노조법에 사용자단체 개념규정만 존재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음
- 산업별 노조, 지역별 노조 등의 협상 파트너인 ‘사용자단체’구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 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사용자단체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헌법개정안(제33조)에 “사용자는 (산별)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에 적극 응해야 한다. 규정 신설

○ ‘무노조 신화’이대로 둘 것인가? (헌법 제33조 관련)

-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법의 목적사항에 무노조, 반노조 행위에 대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 특히, 글로벌 기업 삼성으로 상징되는 무노조신화, 노동조합에 대한 공개적인 혐

오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 노동조합 설립 방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협박, 강요, 매수 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노동존중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

○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공동결정 보장해야 재벌개혁 가능

- 거수기 이사들로 채워진 기업으로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을 수 없음. 노동자의 대표가 노동조건과 기업의 주요 결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

○ 노동조합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 새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나서는 시점에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대화가 일시적, 단발 퍼포먼스가 아니라 국민통합, 국가발전이라는 전략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 당연
- 또한, 노동자의 삶에 직결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금융,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각종 정부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이어져야 할 것임

3)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는 이익균점권 보장 개헌으로 시작해야

○ 노동자를 자본가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봉건적 인식 깨져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
- 유전무죄, 사법정의 실종 등 분노의 뒷면에는 한국사회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한국의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용인되고 있는 사정이 작용하고 있음
- 노동자가 자본가와 동등하게 사회적 부를 균점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시발점이 될 것

○ 이익균점권 도입은 한국노총의 역사를 바로잡는 과정

- 전진한 대한노총 위원장의 이익균점권 주장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좌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원하청 기업 간 힘의 균형 보장

- 대기업의 이익 독점으로 노동자와 이익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중소기업의 권한을 보장하는 원칙 필요
- 원청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체구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익균점권과 우리 헌법】

(제헌헌법 18조)“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헌법상 명시적 권리로 이익균점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48년 7월 제헌국회가 헌법기초위원회로부터 넘어온 헌법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다. 이보다 한 달 앞선 6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은 노동헌장 청원을 통해 '기업체의 이윤 중에서 최저 30% 이상 50% 이내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애초에 우리 헌법은 노동 3권이 아닌 노동 4권을 명시하고 있었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헌법 제1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함께 이익균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포했다.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기업 이윤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요즘 회자되는 이익공유제나 경제민주화 관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분배정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과정에서 종업원조합(노조)을 우선불하권자로 하고, 3할의 출자권리를 주는 등 '이익균점 3개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이어 53년 노동 3권은 노동법 제정으로 구체화되는 듯했지만 62년 헌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까지 삭제되면서 이익균점권은 노동법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4) 기타 (한국노총 헌법개정의견에 대하여)

○ 헌법 전문 관련

- 전문 개정의견에 4.19. 5.18. 6월 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이 명시되었으나, 7.8.9 노동자대투쟁은 제외되어 있음
- 노동자 대투쟁은 노동자 계층만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한 투쟁임을 명시하는 방안 필요

○ 노동인권 교육, 안전(산업안전) 교육 관련(헌법 제31조 관련)

- 학교 교육에 노동존중 교육, 노동인권 교육이 필수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헌법 개정안에 반영 필요
- 모든 교육기관과,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 의무화 규정 필요

5. 기타 정책 활동

가. 사회적대화 참여활동

1) 일자리위원회 참여현황

○ 일자리위원회(분위원회) : 30명

- 4차회의 ('17.6.21 / 8.8 / 10.18 / 12.12)

○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전문·특별위원회는 BH협의 및 위원 재조정 중 ※ 위원 위촉 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

○ 분과위원회는 분야별(6개) 구성 완료 후 논의 진행 ※ 여성분과는 1월말 1차회의 예정

구 분	위원 수	진행상황	일자리기획단 담당자	비 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15명	2차회의 (‘17.12.1/12.22)	김재선 과장	위원 재조정 중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20명	1차회의 (‘17.12.1)	정동문 사무관	위원 재조정 중
중소벤처 분과위원회	17명	2차회의 (‘17.11.29/12.19)	진수웅 과장	구성 완료
주력전통 분과위원회	16명	2차회의 (‘17.11.30/12.27)	김태우 과장	구성 완료
금융서비스 분과위원회	16명	2차회의 (‘17.11.30/12.28)	이항재 과장	구성 완료
건설 분과위원회	14명	8차회의 (‘17.9.5/9.22/10.13/10.24/11.8/11.23/11.29/12.6)	김계흥 과장	구성 완료
청년 분과위원회	22명	3차회의 (‘17.12.22/‘18.1.5/1.19)	김지용 과장	구성 완료
여성 분과위원회	19명	1월말 1차회의 예정	허윤선 과장 황별이 사무관	구성 완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19명	2차회의 (‘17.12.22/‘18.1.17)	박서용 사무관	위촉 완료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24명	6차회의 (‘17.10.26~‘18.1.18)	하태길 과장	위원 재조정 중

○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소속 / 직위
1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경제학 교수
2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실장
3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4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실장
5	정은미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6	권미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장
7	박지윤	지인디자인(주) 대표이사
8	박선영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9	박선영	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장
10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1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
12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13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14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15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기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
16	모성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
17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18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19	이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0	정일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실장

○ 중소벤처 분과위원회 구성

연번	성명	소속 / 직위
1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이사
2	장혜원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3	박미경	(주)포시에스 대표이사
4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소장
5	임민자	(주)성일이노텍 대표이사
6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7	김종균	중소기업진흥공단 처장
8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9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
10	박정일	한양대학교 교수
11	김성준	남서울대학교 교수
12	김종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IT사무서비스노련 부위원장
13	최장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련 정책국장
14	최정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전실장
15	김학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16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17	박종식	연세대학교 전문연구원

금속노련 제출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안건

① 안건명 :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추진 배경

-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근절은 한국사회의 기업양극화, 노동양극화 해소에 기여
- 산업 전반에 뿌리내린 원하청불공정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의 이익 독점으로 인한 중소기업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음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없이는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기피로 인한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결 어려움

③ 주요 내용

- 일자리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의 연결방안 모색
-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 협력모델 마련
- 성과공유, 이익공유 개념 도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임금.근로조건 향상 방안

④ 기대효과

- 불공정 갑질행위 규제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사회양극화 해소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인재난 해소에 기여
-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강화로 최저임금 인상, 실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 확보

나. 노사정위원회 개편 관련

1)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

가) 명칭(합의)

-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SC)

나) 개편방향(합의)

- 노·사 대표성을 기반으로 참여주체 확대 방안 모색
- 합의를 지향하되, 협의 중심으로 운영
- 노·사 중심성 강화
- 산업(업종), 지역별 대화체제 활성화
- 사무처 전문성 강화

다) 참여주체 확대(미합의)

- (한국노총, 민주노총) 본위원회 참여주체 확대 찬성, 단 기존 노사정 대표와 의결권에 차등 둘 필요
 - (의결 요건) ①(출석한)전체 위원 2/3이상 찬성, ②노사정대표는 각 1/2이상 출석하고, 전원 찬성(①과② 모두 충족)
- (경총)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참여주체 확대시에는 사용자와 입장이 유사한 단체들이 들어와 균형이 맞아야 함
 - * 경총 이동응 전무(2.27.): “(확대대상)참여주체들이 평소 주장하던 바들이 노동계와 유사함. 노동계쪽 입장과 사용자쪽 입장이 동일한 NGO나 조직들이 균형이 맞아야 함”
 - ①의제별·업종별 위원회단에서 참여주체 1확대, 또는 ②청년·여성 등의 문제를 주요 논의 주제로 다루는 방안 제시
- (대한상의) 본위원회 참여주체 확대 반대

○ (노동부) 본위원회 참여주체 확대 찬성, 단 의결권은 동등하게

- (의결 요건) 전체위원 1/2 이상 출석,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

라) 참여주체 확대 범위(미합의)

○ (한국노총) 노동계 3인(비정규직, 여성, 청년), 경영계 3인(중소기업, 하청업체, 소상공인)

* 본위원회 위원을 ‘대표위원’과 ‘본위원’으로 구분하여, ‘대표위원’은 기존 노·사·정·노사정위 8인, ‘본위원’은 추가된 참여주체 6명

마) 공익위원(미합의)

○ (한국노총) 2명 → 4명으로 확대하고, 구성도 학계 → 학계·언론계·시민단체로 확대

○ (경총) 본위원회에서 공익위원 배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본위원회 이외의 회의체에서는 공익위원을 두되, 순차배제 방식을 폐기하고 노사단순 추천 방식으로 위촉

바) 사회적 대화기구의 헌법기구화 및 사무처 독립성 강화(합의)

○ 헌법 개정사항은 논의 범위에서 제외

사) 법 개정 추진 일정(합의)

○ 4.3.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개편방안 합의

○ 합의 내용을 반영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4월 초 국회 제출

2) 의제별 위원회 설치방안

가) 의제 범위(미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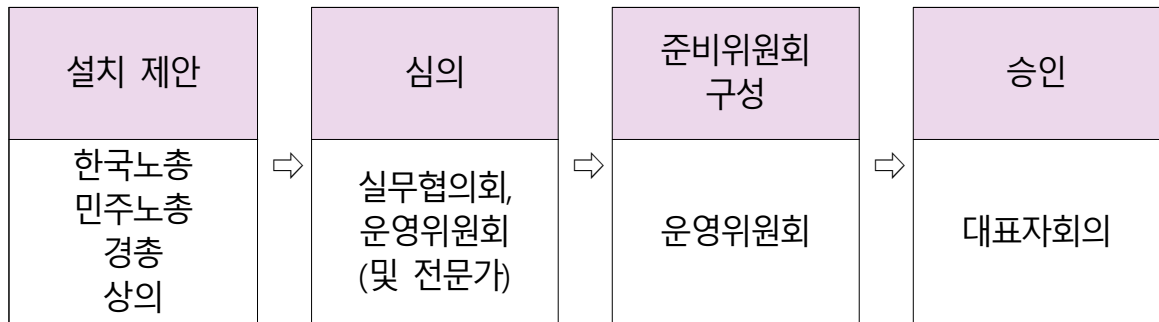
○ (합의) ①경제의 디지털화(4차 산업혁명)와 노동의 미래, ②산업안전, ③사회안전망의 개선

* 의제별 위원회의 명칭은 수식구로 인해 협소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노사정위원회가 제안

- (장기억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노동기본권), 그 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현안

○ (미합의) ④노동기본권, ⑤경제민주화 추가 여부

나) 위원회 설치 절차(합의)



다) 장기억제 논의를 위한 연구회 설치(미합의)

- (경총) 반대(사실상 의제별 위원회와 같음)
- (대한상의) 반대(5개에 이르는 회의체를 다 소화하기 어려움)
- (민주노총) 반대(연구회보다는 바로 의제별 위원회 설치)
- (한국노총) 찬성

라) 운영 방식(미합의)

- 업종별 위원회와 달리 대표자회의 의결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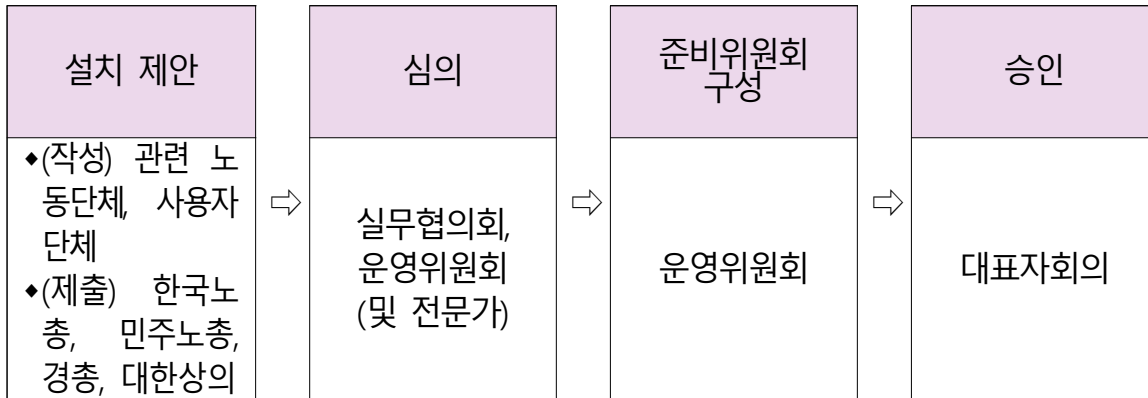
3) 업종별 위원회 설치 방안

가) 업종별 위원회 설치 방향(합의)

- 주요 업종 3~4개를 우선 선정하되, 설치 절차는 유연하게 운영
- 일자리위원회와 역할 분담
-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업종별 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 시작

나) 업종별 위원회 설치 절차(미합의*)

- 절차 유연화·간소화 필요



다) 대상 업종(미합의)

- (한국노총) 제조업, 버스운수업, 해운업
- (민주노총) 미정
- (경총) 해당 업종 기업을 너무 속박하지 않도록 큰 차원에서 논의
- (대한상의)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라) 결정 권한(미합의)

- 업종별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경우 대표자회의 의결 불필요
-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협의회에서 담당

4) 향후 일정 및 기타

- 실무협의회는 매주 수요일 조찬을 원칙으로 개최
- 3.12.(실무협의회) → 3.14.(운영위원회) → 4.3.(대표자회의*)
 - * 3.21.까지만 대표자회의 체제를 운영하자는 한국노총 제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사회적 대화 진행 경과 언론 브리핑 검토

참고1**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문**

2018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조사통계활동

1. 2017년 임금교섭 결과	157
가. 2017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157
나. 2017년 임금교섭 결과	157
2. 자동차업종 원하청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기초조사	158
3. 2018년 임단투 준비활동 (실태조사)	161
가. 개요	161
나. 조사 결과	161
4. 2018년 임단투 지침 발간 및 지역순회	176
가. 2018 임단투 지침	176
나.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180
다. 표준요구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181

평가 및 개선방향

조사통계활동은 현장 조합원 및 노동자들의 상황, 노동운동을 둘러싼 정세 등 객관적 현황파악을 통해 연맹활동의 과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 조직, 교육 등 타부서 활동의 기초가 된다.

2017년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은 2017년 임단투 결과 및 임금을 비롯한 현장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2018년 임단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임단투지침서 발간 · 지침교육 등 가맹노조의 임단투 지원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단위사업장의 교대제 개편요구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단위사업장 임금체계 고민 등 산적한 과제들이 앞에 놓여있는 상황임에 비춰보면 금속연맹의 조사통계활동도 구체적인 사안별로의 조사사업이 일상화 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연맹의 조사통계활동이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동차업종 원하청불공정거래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응답률이 3% 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속노련의 조사통계활동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단위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히 응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현장과 중앙의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1. 2017년 임금교섭 결과

가. 2017년 금속노련 임금인상요구

생계비 충족률 94%	기본급대비 7.7% (140,561원)
생활물가의 인상으로 임금인상의 욕구와 기대심리, 생활임금의 확보와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2017년도 임금인상 요구를 표준생계비의 94% 수준 확보를 목표로 기본급 대비 7.7%(140,561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나. 2017년 임금교섭 결과

○ 2017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률(기본급기준)

- 금속연맹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 7.7%
- 가맹노조 본조기준 447개 노조 중 122개 노조 응답 (응답률 27.29%)
-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은 7.95%이며 임금 인상 타결률 평균은 4.62%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	2017년 임금인상 타결률 평균
7.95%	4.62%

2. 자동차업종 원하청 불공정거래행위 현황 기초조사

- 금속노련은 자동차 부품 사업장의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의 현황을 파악코자 자동차부품업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자동차업종 원하청 불공정거래행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설문지는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선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방법 : 빈칸을 채워주시고, 해당사항에 체크✓ 해 주십시오.

* 사업체 종사자 수					
정규직	계약직	사내하청	사내하청 업체수		
명	명	명	개		

*기본정보					
노조명				조합원 수	명
응답자 직책		성명		연락처	

*사업체 현황				
주요생산품				
3년간 경영상황	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외국자본 비율		%		
귀사의 위치는 완성차 납품거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어디에 해당하니까? (복수응답가능)				
☐ 1차밴더 ☐ 2차밴더 ☐ 3차밴더 ☐ 4차밴더				
거래 원청업체 수		개	거래 하청업체 수	
			개	
원청업체 명 (대표 4사)	1.		2.	
	3.		4.	

*고용 임금 근로시간				
평균근속년수	년	개월	평균연령	세
정규직 신규채용(최근3년)	☐ 증가(명) ☐ 불변 ☐ 감소(명)			
비정규직 신규채용(최근3년) 기간제·사내하청	☐ 증가(명) ☐ 불변 ☐ 감소(명)			
기본급(월)	제수당(월)	상여월할(월)	OT(월)	평균연봉(년)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교대근무 형태 (복수응답가능)	☐ 삼시주간 ☐ 주간연속2교대 ☐ (조 교대)			
연 평균 주당근로시간 (OT포함)				시간

*원청업체와 귀사의 협력구조	
귀사 매출액 중 원청업체로의 납품액의 비중은? (대표 3사)	1. 원청 ()에 매출액 100% 중 ()% 2. 원청 ()에 매출액 100% 중 ()% 3. 원청 ()에 매출액 100% 중 ()%
원청업체 거래시 애로사항	☐ 기술력, 품질문제 ☐ 납품기일 문제 ☐ 납품단가 문제 ☐ 납품대금 지연 문제 ☐ 기타 ()
납품단가 결정방식	☐ 주로 원청업체 의견이 반영되는 편 ☐ 비교적 대등한 협상으로 결정되는 편 ☐ 주로 우리 회사의견이 반영되는 편
원청업체와의 납품단가 결정이 귀사의 임금 및 고용에 주는 영향	☐ 매우 큰편 ☐ 큰편 ☐ 작은 편 ☐ 매우 작은 편

*하청업체와 귀사의 협력구조	
하청업체 거래시 애로사항 (가장중요한 것)	☐ 기술력, 품질문제 ☐ 납품기일 문제 ☐ 납품단가 문제 ☐ 기타 ()
납품단가 결정방식	☐ 주로 우리 회사의견이 반영되는 편 ☐ 비교적 대등한 협상으로 결정되는 편 ☐ 주로 하청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편

*원청업체의 납품단가 인상·인하 현황			
연도	주요원청업체명	인상·인하 총액(혹은 %)	사유
2015	1.	☐ 인상 ☐ 인하	
	2.	☐ 인상 ☐ 인하	
	3.	☐ 인상 ☐ 인하	
2016	1.	☐ 인상 ☐ 인하	
	2.	☐ 인상 ☐ 인하	
	3.	☐ 인상 ☐ 인하	

*하청업체와의 납품단가 인상·인하 현황			
연도	주요하청업체명	인상·인하 총액(혹은 %)	사유
2015	1.	☐ 인상 ☐ 인하	
	2.	☐ 인상 ☐ 인하	
	3.	☐ 인상 ☐ 인하	
2016	1.	☐ 인상 ☐ 인하	
	2.	☐ 인상 ☐ 인하	
	3.	☐ 인상 ☐ 인하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귀 노조가 느끼는 애로사항 써 주십시오.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부 또는 관련부처에 바라는 점 등)

--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지의 답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92개 대상사업장중 실태조사에 응한 사업장의 숫자가 6개(응답률 3.2%) 사업장에 그쳐 의미 있는 조사로 이루어지지 못함.
- 후속적으로 금속노련은 2018년 ‘자동차산업 원하청거래의 실태와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3. 2018년 임단투 준비활동 (실태조사)

가. 개요

1) 조사 목적

- 2018년 임·단투에 임하는 단위노조의 상황 및 의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연맹의 정책근거로 삼기 위해 실시한 조사이다.
- 본 조사는 각 단위노조의 임금과 관련한 일반실태 파악 및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금속연맹은 본 조사를 토대로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 및 임·단투 지침을 결정하는 기초로 활용할 것이다.

2) 조사 기간

- 2017년 12월 19일 ~ 2018년 1월 19일

3) 조사 방식 및 대상

- 금속노련 산하 447개(본조, 2017년 12월 기준)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하였고 설문방식은 자기기입식으로 하였다.

4) 수거율

- 총 분석대상 447개 중 수거된 설문지 122부
- 조직수 대비 27.29%의 수거율

나. 조사 결과

- 총 분석대상 447개 중 수거된 설문지 122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설문응답노조 유형별 분류

가) 설문응답현황 - 지역별 분류

2018년의 경우 지역별로는 경남, 충남 지역본부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조 직수 대비 27.29%의 수거율을 기록해 향후 임단투 지침의 실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역본부별 제출현황				
지역	제출노조	응답률	지역전체노조	제출/전체
서울	4개	3.28%	11개	36.36%
경기	12개	9.48%	56개	21.43%
안산시흥	9개	7.38%	39개	23.08%
인천	7개	5.74%	26개	26.92%
대전	2개	1.64%	5개	40.00%
충남	15개	12.30%	48개	31.25%
충북	8개	6.56%	36개	22.22%
부산	5개	4.10%	30개	16.67%
경남	23개	18.85%	44개	52.27%
울산경주	4개	3.28%	14개	28.57%
대구경북	11개	9.02%	58개	18.97%
구미	4개	3.28%	13개	30.77%
포항	9개	7.38%	29개	31.03%
광주전남	5개	4.10%	25개	20.00%
전북	3개	2.46%	8개	37.50%
강원	1개	0.82%	5개	20.00%
합계	122개	100%	447개	27.29%

※연도별 설문지 수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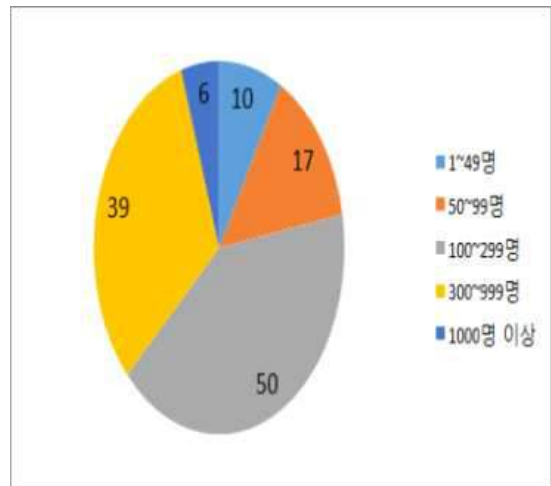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거량	161개	158개	152개	150개	112개	122개

나) 설문응답현황 - 조합규모별

전체 가맹 노조(447개 본조기준) 중 설문에 응한 조합원 규모를 분석해보면, 조합

원 규모 100~999명의 노조가 응답의 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실태 조사는 상대적으로 조합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규모	제출 노조	응답률	전체 노조	제출/전체
1~49명	10개	8.20%	119개	8.40%
50~99명	17개	13.93%	117개	14.53%
100~299명	50개	40.98%	145개	34.48%
300~999명	39개	31.97%	54개	72.22%
1000명 이상	6개	4.92%	12개	50.00%
합계	122개	100%	447개	27.29%



2) 임금 등 노동조건 현황

가) 노동시간 및 근속년수, 연령, 가족규모 현황

주당평균 실노동시간은 2010년대에 들어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정체 중에 있음이 확인되어졌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평균 가족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의 실태조사에서는 3인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주당평균 실노동시간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		평균 가족규모
		남	녀	남	녀	
2017년결과	51.9시간	14.1년	12.2년	42.2세	42.6세	2.95인
2016년결과	49.3시간	13.8년	12.6년	41.6세	43.3세	2.89인
2015년결과	52.4시간	13.6년	12.2년	43.3세	43.1세	2.97인
2014년결과	53.0시간	13.2년	11.5년	41.0세	39.5세	3.15인
2013년결과	51.5시간	12.9년	11.9년	40.5세	43.4세	2.96인
2012년결과	51.3시간	12.7년	11.5년	40.6세	42.0세	2.94인

나) 금속노련 조합원 임금실태(2017년 12월 현재, 단위: 원)

설문에 응답한 122개의 노조 중 116개의 노조가 임금 현황에 답했으며, 기본급은 1,899,446 고정급여는 3,420,589 변동급은 643,481으로 평균 임금 총액은

4,064,070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 (A)	고정 및 기타 수당 (B)	상여월할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1,899,446	358,093	1,163,049	3,420,589	643,481	4,064,070

다) 금속노련 지역별 임금실태 (2017년 12월 현재, 단위: 원)

금속노련 내 지역본부별 임금 수준을 보면 고정급여와 임금총액 모두 울산·경주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응답수	기본급 (A)	고정수당 (B)	상여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16	1,899,446	358,093	1,163,049	3,420,589	643,481	4,064,070
서울	4	2,059,916	187,976	941,815	3,189,707	917,886	4,107,593
경기	12	2,163,177	364,267	944,792	3,472,236	554,405	4,026,641
안산시흥	9	1,898,296	116,342	1,032,260	3,046,897	548,510	3,595,407
인천	6	1,905,114	208,193	,870,061	2,983,367	450,076	3,433,443
대전	2	1,943,463	200,000	1,202,625	3,346,088	0	3,346,088
충남	15	1,807,115	350,244	1,277,880	3,435,238	792,282	4,227,521
충북	7	1,794,886	282,214	1,066,856	3,143,956	976,730	4,120,686
부산	5	1,939,740	234,194	1,424,764	3,598,699	390,300	3,988,999
경남	20	1,908,742	298,406	1,271,675	3,478,823	625,477	4,104,301
울산경주	4	2,067,810	391,208	1,412,361	3,871,380	776,924	4,648,304
대구경북	10	1,878,703	748,747	1,080,912	3,708,362	700,210	4,408,571
구미	4	1,796,361	461,800	1,307,667	3,565,827	779,250	4,345,077
포항	9	1,762,114	553,895	1,210,214	3,526,223	548,720	4,074,943
광주전남	5	1,734,089	497,413	1,052,993	3,284,495	493,622	3,778,117
전북	3	1,981,369	223,636	1,383,669	3,588,674	955,534	4,544,209
강원	1	1,473,973	198,772	859,818	2,532,563	0	2,532,563

라) 금속노련 규모별 임금실태 (2017년 12월 현재,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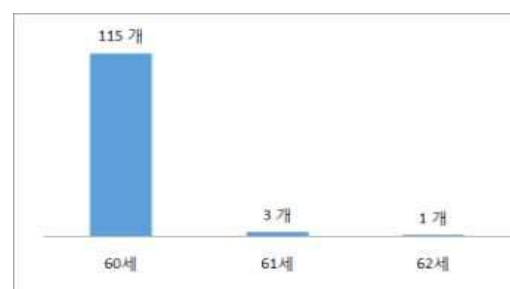
조합 규모별 임금 수준을 보면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고정급여와 임금총액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규모와 임금총액의 일정한 형태로 정의 비례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	응답수	기본급 (A)	고정수당 (B)	상여 (C)	고정급여 (A+B+C)	변동급 (D)	임금총액 (A+B+C+D)
전체	116	1,899,446	358,093	1,163,049	3,420,589	643,481	4,064,070
1~49명	9	1,866,988	307,893	857,389	3,032,270	477,919	3,510,189
50~99명	17	1,647,246	481,109	1,053,472	3,181,827	514,633	3,696,459
100~299명	48	1,937,722	305,523	1,173,658	3,416,903	624,819	4,041,722
300~999명	37	1,934,004	355,618	1,229,805	3,519,427	787,939	4,307,366
1000명 이상	5	2,192,182	562,521	1,609,559	4,364,261	489,754	4,854,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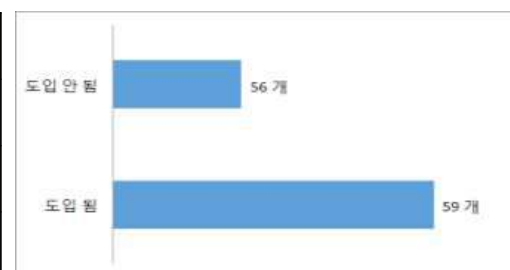
마) 사업장 별 정년현황 및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119개의 응답 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년 평균은 60.04세이며 중위값은 60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여부에 대한 115개 사업장 중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이 44.11%, 도입이 안 된 사업장이 55.89%로 나타났다.

정년	제출노조	응답률	정년현황	
60세	115개	96.60%	제출노조	119개
61세	3개	2.50%	평균	60.04세
62세	1개	0.80%	중위값	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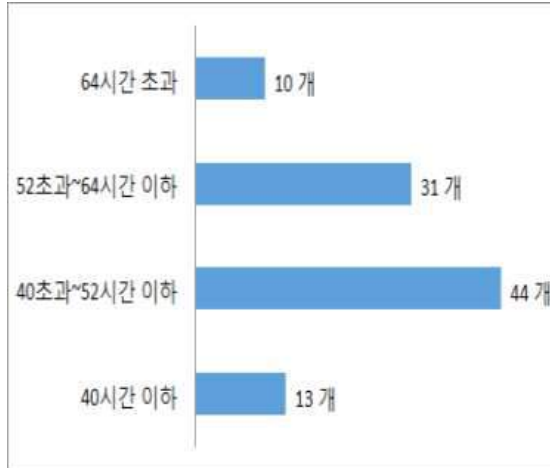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도입 됨	59개	51.30%
도입 안 됨	56개	48.70%
합 계	115개	100%



바) 주당평균실노동시간

주당평균 실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본 결과 42%에 달하는 노동조합에서 현행법상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한도인 52시간을 넘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40시간이하	13개	13.27%
40초과~52시간이하	44개	44.90%
52초과~64시간이하	31개	31.63%
64시간초과	10개	10.20%
합계	98개	100%



사) 근무 형태

교대 근무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118개의 사업장이 답변했고, 주간통상근무만 한다고 응답한 곳이 28개로 23.73%였다. 반면 조합원이 일부라도 교대근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노조가 90개로 76.27%였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2조2교대	44개	39.64%
3조2교대	13개	11.71%
3조3교대	18개	16.22%
4조2교대	6개	5.41%
4조 3교대	17개	15.32%
주간연속 2교대제	13개	11.71%
합계	111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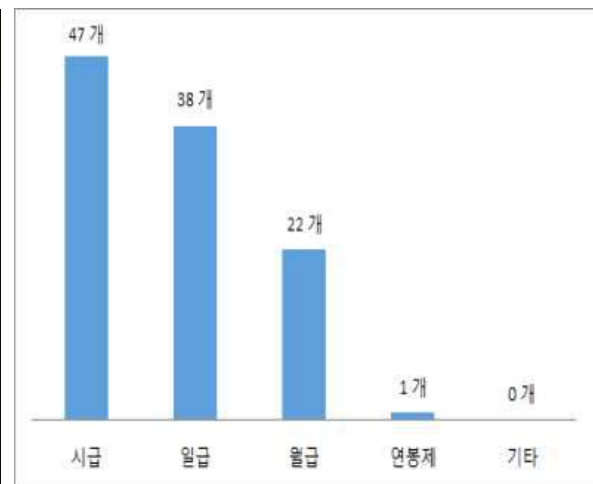
조합원의 교대근무 실태를 보면, 2조 2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44개(39.64%)로 가장 높았으며, 3조 3교대가 18개(16.22%), 4조 3교대가 17개(15.32%), 3조 2교대가 13개(11.71%), 주간연속 2교대제가 13개(1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3) 2017년도 임금교섭 현황

가) 임금지급형태

응답에 응한 108개 사업장 중 시급제가 43.52%(47개), 일급제가 35.19%(38개)로 대다수의 사업장이 시급제와 일급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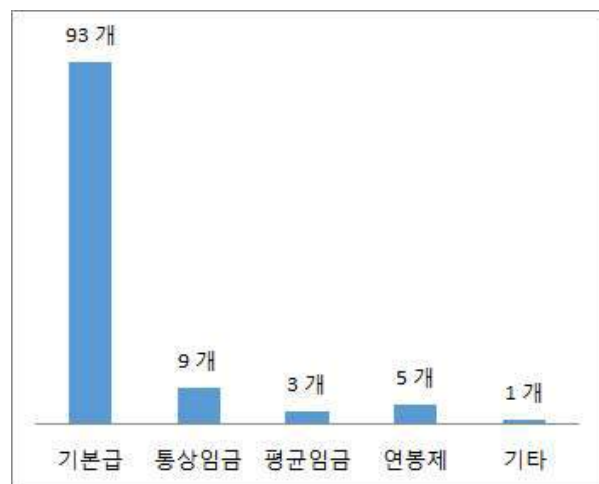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시급	47개	43.52%
일급	38개	35.19%
월급	22개	20.37%
연봉제	1개	0.93%
합계	108개	100%



나) 2017년 임금요구기준

임금인상 요구 시 기준임금은 기본급(83.78%)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기본급	93개	83.78%
통상임금	9개	8.11%
평균임금	3개	2.70%
연봉제	5개	4.50%
기타	1개	0.90%
합계	111개	100%



다) 2017년 단위사업장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률(기본급기준)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 평균은 7.95%이며 임금 인상 타결률 평균은 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임금인상 요구율 책정 시 근거지표

금속노련 소속 가맹노조가 임금인상 요구율을 책정함에 있어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임단투지침(25.63%)”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 현황(22.01%)”,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18.11%)을 중요한 근거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근거지표	중요도1	응답률 (%)	중요도2	응답률 (%)	중요도3	응답률 (%)	복수응 답	응답률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및 임단투지침	47	39.17	22	18.33	23	19.33	92	25.63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	4	3.33	14	11.67	23	19.33	41	11.42
회사의 영업이익 등 재정수지현황	28	23.33	33	27.50	18	15.13	79	22.01
동종업계 임금수준 및 요구율	4	3.33	13	10.83	16	13.45	33	9.19
조합원의 여론수렴 요구율	26	21.67	27	22.50	12	10.08	65	18.11
최저임금인상률	9	7.50 %	10	8.33 %	19	15.97	38	10.58
지역 내 임금수준 및 요구율	2	1.67	1	0.83	7	5.88	10	2.79
기타	0	0.00	0	0.00	1	0.84	1	0.28
합계	120개	100%	120개	100%	119개	100%	359개	100%

4) 2018년 임단투 전망

가) 2018년 임단투에서 단위노조의 역점사항

2018년도 단위노조 임단투 역점을 묻는 설문에는 “임금인상”,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고용안정화제도 마련(구조조정 대응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 순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2018년 단위노조 역점사항	중요도 1	응답률 (%)	중요도 2	응답률 (%)	중요도 3	응답률 (%)	복수응 답	응답률 (%)
통상임금 범위 확대	11	9.57	18	15.65	7	6.25	36	10.53
임금 인상	76	66.09	16	13.91	10	8.93	102	29.82
임금체계 변경(성과연봉제 도입 등) 대응	2	1.74	5	4.35	10	8.93	17	4.97
고용안정화제도 마련(구조조정 대응 등)	10	8.70	18	15.65	12	10.71	40	11.70
각종복지후생제도 도입및향상	3	2.61	32	27.83	19	16.96	54	15.79
노동시간단축또는근로형태대변경	8	6.96	7	6.09	12	10.71	27	7.89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 마련		0.00	1	0.87	5	4.46	6	1.75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 교섭권 확립	1	0.87	2	1.74	2	1.79	5	1.46
비정규직정규직화및근로조건개선	3	2.61	2	1.74	6	5.36	11	3.2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00	3	2.61	13	11.61	16	4.68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00	1	0.87	2	1.79	3	0.88
모성보호관련(산전산후휴가,육아휴직,보육시설 등)		0.00		0.00		0.00	0	0.00
경영성과에따른각종성과배분제도마련,경영참가	1	0.87	9	7.83	13	11.61	23	6.73
기타		0.00	1	0.87	1	0.89	2	0.58
합계	115	100	115	100	112	100	1	100

나) 2018년 금속노련(한국노총)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사안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활동해야할 사안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악저지(근로시간, 중복할중)’의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와 더불어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 ‘고용안정, 구조조정 대책마련’,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에 대한 요구들이 확인됨.

2018년 노총·연맹 역점사항	중요 도1	응답률 (%)	중요 도2	응답률 (%)	중요도 3	응답률 (%)	복수응 답	응답률 (%)
근로기준법 개악저지(근로시간, 중복할증)	57	46.72	24	21.05	7	6.03	88	25.00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	18	14.75	25	21.93	10	8.62	53	15.06
실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25	20.49	33	28.95	18	15.52	76	21.59
고용안정, 구조조정대책 마련(정리해고 요건강화)	5	4.10	13	11.40	10	8.62	28	7.95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	3	2.46	5	4.39	17	14.66	25	7.10
노동 가치 존중 헌법 개정	4	3.28	5	4.39	3	2.59	12	3.41
ILO 핵심 협약비준	1	0.82		0.00	1	0.86	2	0.57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및 조직대응책	1	0.82	1	0.88	3	2.59	5	1.42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00	2	1.75	11	9.48	13	3.69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00		0.00	1	0.86	1	0.28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1	0.82		0.00	5	4.31	6	1.70
최저임금법 인상	7	5.74	3	2.63	14	12.07	24	6.82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0.00		0.00	1	0.86	1	0.28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0.00	2	1.75	6	5.17	8	2.2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0.00	1	0.88	9	7.76	10	2.84
기타		0.00		0.00		0.00	0	0.00
합계	122	100	114		116	100	352	100

다) 임금교섭 요구안 작성시기 및 교섭요구

금속노련 응답노조 중 과반의 조직이 2018년 요구안을 3월~4월(50%)에 작성해서 4월~5월(50.44%)에 교섭요구에 들어갈 예정으로 나타났다.

월	요구안 작성시기		교섭 요구시기	
	제출노조	응답률	제출노조	응답률
1 월	3개	2.63%	4개	3.54%
2 월	16개	14.04%	1개	0.88%
3 월	30개	26.32%	16개	14.16%
4 월	27개	23.68%	30개	26.55%
5 월	18개	15.79%	27개	23.89%
6 월	6개	5.26%	17개	15.04%
7 월	4개	3.51%	6개	5.31%
8 월	2개	1.75%	3개	2.65%
9 월			1개	0.88%
10 월	3개	2.63%	4개	3.54%
11 월	5개	4.39%	2개	1.77%
12 월			2개	1.77%
전 체	114개	100%	113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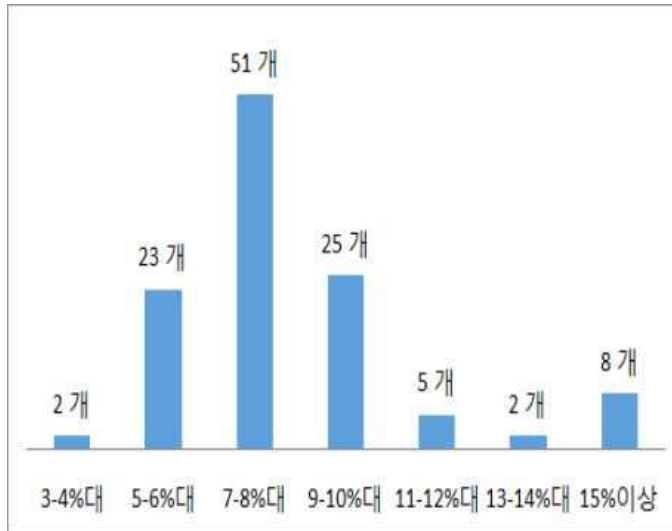
2018년 금속노련 가맹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예상)율은 평균 8.19%이며 평균 요구(예상)액은 147,04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임금인상요구예상율(%)					임금인상요구예상액(원)				
년 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8	2017	2016	2015	2014
응 답 수	89개	71개	102개	104개	106개	67개	60개	144개	86개	88개
임금인상 요구율(액) 평균	8.19	6.71	7.25	7.53	7.9	147,045	126,725	123,817	135,630	115,503

라) 2018년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률 지침 수준

2018년 가맹노조에서 요구하는 금속노련(한국노총)이 제시할 임금인상률 지침의 수준은 “7~8%대”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9~10%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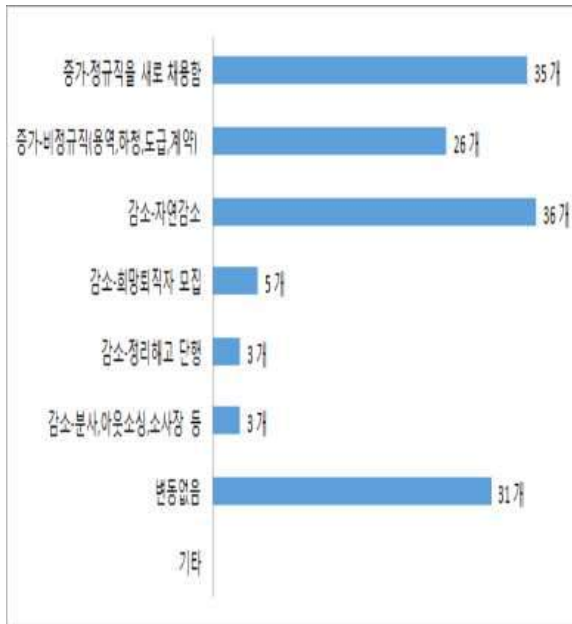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3-4%대	2개	1.72%
5-6%대	23개	19.83%
7-8%대	51개	43.97%
9-10%대	25개	21.55%
11-12%대	5개	4.31%
13-14%대	2개	1.72%
15%이상	8개	6.90%
합계	116개	100%



5) 경영상황 및 고용현황

가) 2017년 사업장내 고용변화

구분	복수 응답	응답률
증가-정규직을 새로 채용함	35개	25.18%
증가-비정규직(용역, 하청, 도급, 계약)	26개	18.71%
감소-자연감소	36개	25.90%
감소-희망퇴직자 모집	5개	3.60%
감소-정리해고 단행	3개	2.16%
감소-분사·아웃소싱·소사장 등	3개	2.16%
변동없음	31개	22.30%
합계	139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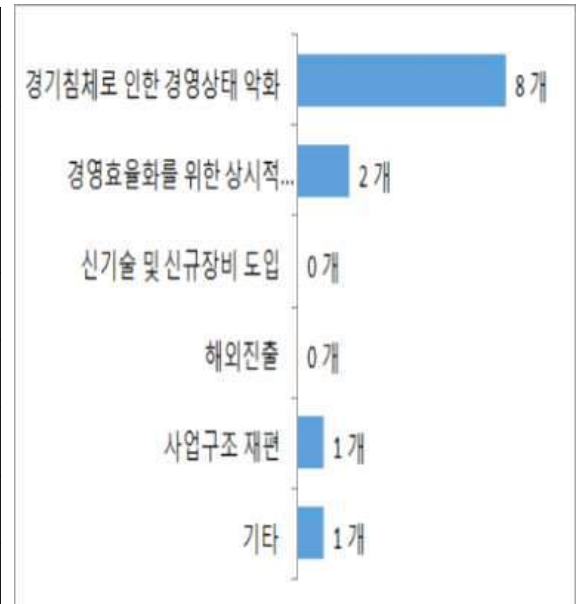
나) 2017년 사업장 구조조정 유형

구분	복수응답	응답률(%)
정리해고	3개	6.25%
명예·희망퇴직	6개	12.50%
유·무급휴직	5개	10.42%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1개	2.08%
신규채용중단	8개	16.67%
계열사 전직 및 배치전환	2개	4.17%
휴업	2개	4.17%
기간제 계약해지, 간접고용전환	3개	6.25%
파견·하청·용역중단	1개	2.08%
노동시간 및 조업시간 단축	9개	18.75%
임금동결	4개	8.33%
복리후생비 지급 중단	3개	6.25%
상여금, 수당 등 반납	1개	2.08%
합계	48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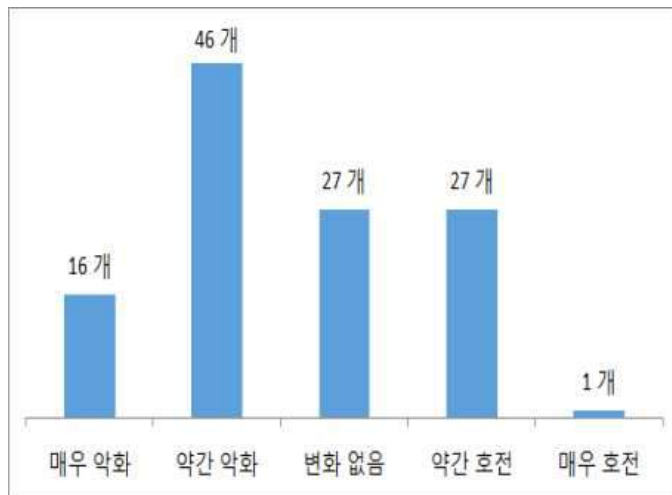
다) 2017년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희망퇴직) 사유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8개	66.67%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2개	16.67%
신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	-	0%
해외진출	-	0%
사업구조 재편	1개	8.33%
기타	1개	8.33%
합계	12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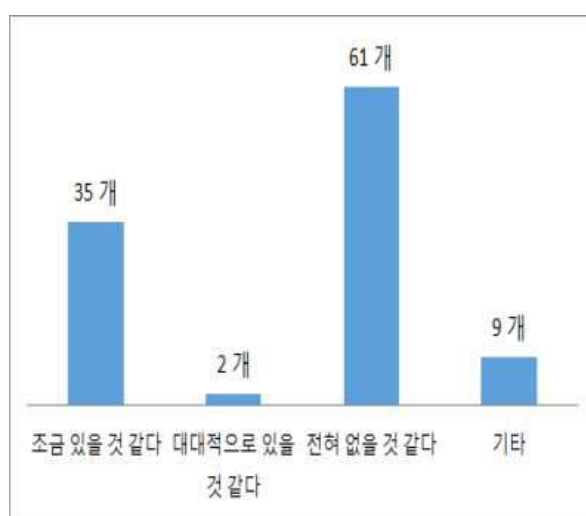
라) 2018년 사업장 경영상태 예상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
매우 악화	16개	13.68%
약간 악화	46개	39.32%
변화 없음	27개	23.08%
약간 호전	27개	23.08%
매우 호전	1개	0.85%
합계	117개	100%



마) 2018년 사업장 구조조정 예상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조금 있을 것 같다	35개	32.71%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다	2개	1.87%
전혀 없을 것 같다	61개	57.01%
기타	9개	8.41%
합계	107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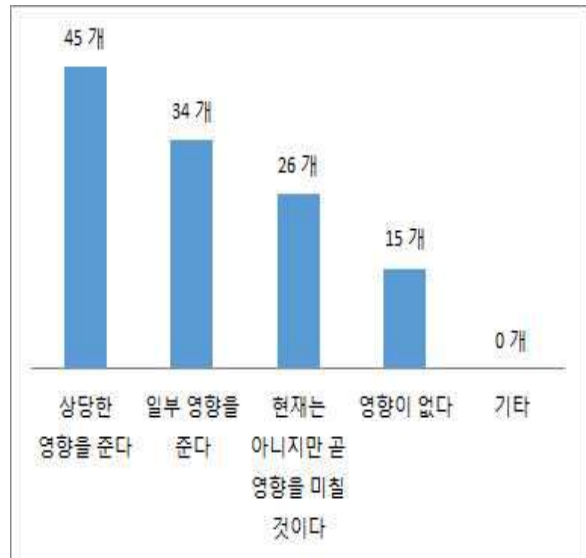


6) 기타

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장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장 임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영향을 준다가 65.83%, 전혀 영향이 없다가 12.50%, 곧 영향을 줄 것 같다가 21.67%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업장 79개(65.8%) 중에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위반되는 조합원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60개였다.

구분	제출노조	응답률(%)
상당한 영향을 준다.	45개	37.50%
일부 영향을 준다.	34개	28.33%
현재는 아니지만 곧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개	21.67%
영향이 없다	15개	12.50%
기타	0개	0.00%
합계	120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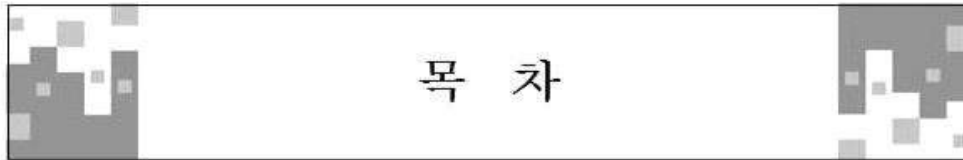
나)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를 위한 사용자의 요구 유형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사용자한 사용자의 요구를 묻는 질문에는 41.60%가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8.40%가 “상여금의 산정 지급기준을 1개월 단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분	복수응답	응답률(%)
소정근로시간수 축소(243,226→209)	14개	11.20%
휴일, 연장 등 근로시간의 축소	16개	12.80%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	52개	41.60%
상여금의 산정 지급기준을 1개월 단위로 변경	23개	18.40%
식비, 교통비 등 수당의 기본급화	2개	1.60%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보존수당 지급	14개	11.20%
기타	4개	3.20%
합계	125개	100%

4. 2018년 임단투 지침 발간 및 지역순회

가. 2018 임단투 지침



제1장 2018년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I. 2018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 2018년 정세전망	3
2. 2018년 금속산업(제조업)전망	10
3. 2018년 한국노총의 방향과 과제	27

II.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

1. 2017년 임·단투 평가와 2018년 전망	32
2. 201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41

제2장 2018년 금속노련 목표와 임금인상 지침

I. 2018년 임단투 목표와 요구	53
II. 2018년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분석	60
III. 2018년 금속노련 임금인상 요구안 및 산출개요	75

제3장 2018년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교섭쟁점 및 지침

I.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확산 및 노동자의 대표성 강화

1. 개요	85
-------------	----

2. 한국노총 정책요구 및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	86
3. 노동존중 문화의 현장확산을 위한 정책 및 실천과제	93

II.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연대전략

1. 개요	123
2. 실노동시간단축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와 쟁점	131
3. 실노동시간의 단축 실현 및 일자리나누기	140
4.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156

III. 최저임금 탈법행위 근절 및 제도개선 대책

1. 개요	168
2. 현황 및 문제점	168
3.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탈법행위 유형과 법위반 여부	170
4.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정치권 동향	176
5. 한국노총 대응지침	181

제4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I. 구조조정 대응과 고용안정 쟁취

1. 개요	186
2. 구조조정 정세 및 전망	186
3.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부대책	192
4.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의 대응목표 및 방향	196
5. 고용안정위원회 상시화 및 논의대상 단체협약에 명시	197
6.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200
7. 고용안정협약 모범사례	212
<참고자료1 : 기업 구조조정 양상과 노동조합 대응매뉴얼>	216
<참고자료2 : 기업 희생절차와 노동조합의 대응매뉴얼>	244

II.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연대교섭

1. 취지 및 방향	261
2. 비정규직 현황 및 관련정책	262
3. 비정규직 연대지침	275
4. 비정규직 연대 조직화 방침	308
5. 2018년 조직화의 핵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지침’	315

III. 임금체계 변화움직임에 따른 대응

1. 개요	320
2. 임금체계 개편 방향	323
3. 직무급에 대한 이해	333
4.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방안	340
5. 통상임금 판례 동향	347

IV. 60세이상 실질적인 정년보장 및 고령자 고용대책

1. 개요	361
2.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정책 방안	362
3. 정년60세 의무화법	366
4.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369
5. 국민연금 수급연령 연장논의와 정년연장	383
6. 한국노총 단체협약 지침	387

V. 퇴직연금 다시 살펴보기

1. 퇴직급여 제도의 이해	393
2. 한국노총 산하조직의 퇴직연금 운영실태	406

VI. 노동자 건강권 보장

1. 개요	418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 보장	419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425
4.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439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강화	443

6.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445
-----------------------	-----

VII.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1. 개요	455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456
3. 모성보호 및 여성노동권 강화	461
4. 부모의 돌봄권과 일생활 균형의 실현	469
5. 직장내 성희롱 예방활동의 강화	478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보장	484

VII. 4차 산업혁명과 노동조합의 대응

1. 4차 산업혁명과 노동세계의 변화	487
2. 한국사회와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대응 현황	490
3. 새로운 기술혁신에 대한 국제노동운동의 대응	498
4. 노동조합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	500

IX.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1. 노동조합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필요성	506
2.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수준	508
3.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사업 및 노조참여 현황	510
4. 노동조합 참여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527
5. 노동조합 직업능력개발 참여 한국노총 지침	532

<부록>

최근 주요판례 및 시사점	541
2018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562
노동통계	577

나.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 2018 금속노련 상반기 임단투 지역순회

- 2018년 임단투 지침 설명
- 2018년 중요 현안 및 활동 보고
- 금속노련 위원장 간담회 및 질의응답

○ 지역순회 일정

일 시	지역본부	장소
3월 08일(목) 15:30	대전	대전노총 회의실
3월 09일(금) 10:00	충북	충북노총 회의실
3월 09일(금) 15:00	경기	경기노총 회의실
3월 12일(월) 15:30	포항	포항지부 회의실
3월 13일(화) 10:30	울산.경주	울산노총 회의실
3월 13일(화) 15:30	경남	경남노총 회의실
3월 14일(수) 15:00	광주.전남	광주노총 회의실
3월 15일(목) 10:30	전북	세아베스틸 노조
3월 15일(목) 16:00	서울	군산 오스카호텔
3월 19일(월) 16:00	구미	구미지부 회의실
3월 20일(화) 10:30	강원	원주지부 회의실
3월 21일(수) 16:00	인천	원주 산내들 펜션
3월 28일(수) 15:30	대구.경북	대구노총 회의실
3월 29일(목) 10:30	부산	부산노총 회의실
4월 03일(화) 15:30	안산.시흥	대부도
4월 05일(목) 15:30	충남	충남노총 회의실

다. 표준요구서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

- 2018년 단위노조의 임단투 지원의 일환으로 표준요구서를 작성하여 금속노련 홈페이지에 게시

2018년도 임단투 요구안

차 례

1. 전문
2. 2018년도 요구안
3. 임금인상 요구안 결정의 근거
4. 결의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0000노동조합

총무활동

1. 회의활동	185
가. 2017년도 정기대의원대회	185
나. 중앙위원 회의	211
2.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216
가. 취지	216
나. 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216

1. 회의활동

가. 2017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대회개최일시 : 2017년 5월 23일 13:30
- 대회개최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번지)
- 참 석 자 : 재적대의원 728 명중 546 명 참석
- 결 의 사 항

안 건	결 의 사 항
가. 2016년도 사업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나. 회계감사보고 및 2016년도 결산보고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다. 임원보선 건 (부위원장&사무처장)	- 총 투표 465명 중 찬성 267 반대 189 무효 9 : 선출됨
라. 연맹 중앙위원 / 노총(파견대 의원,선거인)선출 건	- 총 투표 465명 중 찬성 458 반대 7 무효 0 : 선출됨
마.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건	- 총 투표 464명 중 찬성 458 반대 6 무효 0 : 선출됨
바. 2017년도 예산 수립 건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사. 기타토의	- 원안통과 (회의자료 참조)

1) 선출 현황

- 임 원(부위원장.사무처장) 보선 명단

부위원장	서울지역본부	김해광
부위원장	구미지역본부	배준호
부위원장	포항지역본부 의장	천정근
부위원장	SK하이닉스청주	강국모
부위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류재선
부위원장	풍산	이준덕
사무처장	부천지역	김준영

○ 2017년 중앙위원 명단

번호	직위	소속	성명	구분
1	중앙위원	LG전자	이상걸	
2	중앙위원	LG전자	최귀연	여
3	중앙위원	롯데알미늄	이병규	
4	중앙위원	신한일전기	김송훈	
5	중앙위원	LGDisplay	채근욱	
6	중앙위원	LGDisplay	손수지	여
7	중앙위원	스태츠칩팩코리아	허원	
8	중앙위원	이젠텍	심일순	여
9	중앙위원	린나이코리아	김제곤	
10	중앙위원	동부인천스틸	김수호	
11	중앙위원	삼보오토	강영석	
12	중앙위원	PN풍년	장영기	
13	중앙위원	서진산업	김진업	
14	중앙위원	동양철관	양시준	
15	중앙위원	에디언트코리아	이창수	
16	중앙위원	대한전선	강진연	
17	중앙위원	두올아산	정난홍	여
18	중앙위원	현대모비스	박태우	
19	중앙위원	한라스택폴	강현민	
20	중앙위원	한국보그워너T/S	이상용	
21	중앙위원	한국보그워너T/S	김귀녀	여
22	중앙위원	대한제강	윤각열	
23	중앙위원	YK스틸	박대엽	
24	중앙위원	부산주공	안병철	
25	중앙위원	세방전지	손승일	

번호	직위	소속	성명	구분
26	중앙위원	STX중공업	장세명	
27	중앙위원	경남본부	김은겸	
28	중앙위원	LS니꼬동제련	박성걸	
29	중앙위원	평화오일셀	이상윤	
30	중앙위원	화신	김해용	
31	중앙위원	평화정공	허도영	
32	중앙위원	경창정공	김기표	
33	중앙위원	영신정공	장복이	
34	중앙위원	세아특수강	박순덕	
35	중앙위원	대유글로벌	김학송	
중앙위원 후보 명단				
후보		KC코트렐	전상근	서울
후보		에이엔피	원철식	경기
후보		우일정밀	양승조	인천
후보		비츠로테크	강상욱	안산.시흥
후보		남선기공	윤익병	대전
후보		인팩	최중진	충남
후보		우지막코리아	이종필	충북
후보		태광	정광호	부산
후보		센트랄	조유환	경남
후보		동국실업	문부근	울산.경주
후보		대리정밀	방상훈	대구.경북
후보		노틸러스효성	정동민	구미
후보		현대종합금속	김동일	포항
후보		대유에이텍	정관	광주.전남
후보		LS엠트론	왕윤상	전북
후보		오토리브	권재수	강원

○ 노총 파견대의원 명단

번 호	조 직 명	직위	성명	성별
1	LG전자	위원장	배상호	남
2	LG전자	부위원장	김 영	남
3	LG전자	부위원장	윤영식	남
4	LG전자	부위원장	김태훈	남
5	LG전자	부위원장	유정종	남
6	LG전자	부위원장	이상걸	남
7	LG전자	부위원장	김해광	남
8	LG전자	여성부장	최귀연	여
9	LG전자	총무국장	김성규	남
10	LG전자	조합원	황성관	남
11	롯데알미늄	위원장	이병규	남
12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위원장	김용안	남
13	LGDisplay	위원장	권동섭	남
14	LGDisplay	부위원장	채근옥	남
15	LGDisplay	사무국장	정진영	남
16	LGDisplay	사무장	손동락	남
17	LGDisplay	대의원	이민규	남
18	LGDisplay	대의원	신민찬	남
19	LGDisplay	기획부장	정상식	남
20	LGDisplay	조직부장	문현진	남
21	LGDisplay	총무부장	정선재	남
22	LGDisplay	대의원	박성현	남
23	LGDisplay	대의원	한대수	남
24	LGDisplay	기획부장	김영태	남
25	LGDisplay	총무부장	정규웅	남
26	LGDisplay	대의원	김은실	여
27	LGDisplay	여성부장	손수지	여
28	LGDisplay	여성부장	이가현	여
29	LGDisplay	대의원	이미정	여
30	LGDisplay	여성부장	김소희	여
31	LGDisplay	여성차장	안성현	여
32	SK하이닉스이천	위원장	허정우	남

번 호	조 직 명	직위	성명	성별
33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이명근	남
34	SK하이닉스이천	사무국장	이인용	남
35	SK하이닉스이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남
36	SK하이닉스이천	노총이천지역지부의장	정상영	남
37	SK하이닉스이천	노총경기본부부의장	박태석	남
38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여
39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재숙	여
40	에이엔피	금속경기본부의장	김길섭	남
41	동희정공	노총 화성지역지부의장	김덕수	남
42	한국키스톤발부	위원장	박명규	남
43	리 한	위원장	민한기	남
44	신한일전기	노총부천지역지부의장	박종현	남
45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여
46	세진전자	부위원장	지성임	여
47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윤동현	남
48	스태츠칩팩코리아	경기노총의장	허 원	남
49	동국제강	위원장	박상규	남
50	핸즈코퍼레이션	위원장	최 철	남
51	린나이코리아	위원장	김제곤	남
52	신한테크노일반	위원장	조명선	남
53	동부인천스틸	위원장	김수호	남
54	일진전기	위원장	방운제	남
55	삼보오토	위원장	강영석	남
56	대덕GDS	위원장	김광호	남
57	비츠로테크	위원장	강상욱	남
58	대덕전자	위원장	허일욱	남
59	대동모델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여
60	두원공조	위원장	정덕순	남
61	두올아산	위원장	정란홍	여
62	대한전선	위원장	강진연	남
63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정성진	남
64	애디언트코리아	위원장	이창수	남
65	오스템	위원장	두병비	남
66	SK하이닉스청주	위원장	강국모	남

번 호	조 직 명	직위	성명	성별
67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	김영삼	남
68	SK하이닉스청주	정책실장	이승의	남
69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주연	여
70	SK하이닉스청주	회계감사위원	우미선	여
71	매그나칩반도체	위원장	조항수	남
72	현대모비스	위원장	박태우	남
73	충북지역본부	의장	이해관	남
74	두산전자	위원장	윤영훈	남
75	우지막코리아	위원장	이종필	남
76	한국보그워너TS	위원장	이상용	남
77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김귀녀	여
78	대선조선	부산지역본부의장	황대선	남
79	대한제강	위원장	윤각열	남
80	YK스틸	위원장	박대엽	남
81	성우하이텍	위원장	김근수	남
82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원장	류재선	남
83	한국항공우주산업	대외협력실장	손정우	남
84	세아창원특수강	위원장	이상철	남
85	한국철강	위원장	김희봉	남
86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위원장	이희기	남
87	알코닉코리아	위원장	지상천	남
88	두원중공업	위원장	정진용	남
89	에스텍	위원장	김성종	남
90	스타리온성철	위원장	남원섭	남
91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여
92	풍산	위원장	이준덕	남
93	노벨리스코리아울산	위원장	성용만	남
94	고려아연	위원장	조대형	남
95	LS니꼬동제련	위원장	박성걸	남
96	한국파워트레인	위원장	김수환	남
97	에스엘	위원장	박철규	남
98	평화정공	위원장	허도영	남
99	평화산업	위원장	신석곤	남
100	이수페타시스	위원장	이기남	남

번 호	조 직 명	직위	성명	성별
101	평화발레오	위원장	김동준	남
102	평화오일썰	위원장	이상윤	남
103	화신	위원장	김해용	남
104	에스엘	위원장	김나영	여
105	평화오일썰	위원장	김영옥	여
106	LG이노텍	위원장	김동의	남
107	LG이노텍	사무처장	정현주	남
108	LG이노텍	부지부장	최세리	여
109	LG이노텍	사무국장	조현순	남
110	LG실트론	위원장	한창욱	남
111	노벨리스코리아	위원장	권국진	남
112	클레스트라하우저만	위원장	이문희	남
113	영신정공	위원장	장복이	남
114	현대종합금속	위원장	김동일	남
115	TCC한진	위원장	정상준	남
116	현대성우캐스팅	위원장	정천균	남
117	동부대우민주	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	최정열	남
118	세아베스틸	위원장	김태완	남
119	대유글로벌	위원장	김학송	남
120	LG전자	금속노련수석부위원장	정일진	남
121	오스템	충남노총의장	고석희	남
122	삼성제침	경북노총의장	권오탁	남
123	충남금속일반	노총아산지역지부의장	강흥진	남
124	동부제철	노총서부지역지부의장	김우하	남
125	화신	노총영천지역지부의장	윤승오	남
126	한일전기	강원지역본부의장	석승희	남
127	두산전자	노총김천지역지부의장	정갑성	남
128	세일공업	노총서부지역지부의장	조경옥	남
129	머큐리	인천노총의장	김영국	남
130	쌍신정보통신	노총충남중부지역지부의장	정명식	남
131	풍산FNS	노총충남서부지역지부의장	최용웅	남
132	매그나칩반도체	구미본부의장	배준호	남
133	동화기업	포항본부의장	천정근	남
134	삼성공업	인천본부의장	오인상	남

번 호	조 직 명	직위	성명	성별
135	진합	대전본부의장	이남철	남
136	노벨리스코리아울산	울경본부의장	남재환	남
후보1	LG전자	평택1사무국장	김기학	남
후보2	LG전자	평택2사무국장	이용선	남
후보3	LG전자	청주/인천지부 사무국장	이종태	남
후보4	LGDisplay	대의원	김양원	남
후보5	LGDisplay	대의원	윤정남	남
후보6	LGDisplay	대의원	정성연	여
후보7	LGDisplay	대의원	박지은	여
후보8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이현희	여
후보9	엘에스엠트론	위원장	왕윤상	남
후보10	LS니꼬동제련	사무국장	김우진	남
후보11	에넥스	위원장	정운석	남
후보12	우지막코리아	총무부장	김정숙	여
후보13	부산주공	위원장	안병철	남
후보14	동국실업	위원장	문부근	남
후보15	세아제강	위원장	이종욱	남
후보16	세아특수강	위원장	박순덕	남
후보17	노틸러스효성	위원장	정동민	남
후보18	영풍석포제련소	위원장	강철희	남
후보19	PN풍년	위원장	장영기	남
후보20	SP일레맥	위원장	황경숙	여
후보21	희성금속	위원장	이재성	남
후보22	대한제당	위원장	조주희	남
후보23	세방전지	위원장	손승일	남
후보24	LS산전	조직국장	육미숙	여
후보25	덴소일렉트로닉스	위원장	김종국	남
후보26	덴소일렉트로닉스	부위원장	신윤자	여
후보27	SK하이닉스이천	문화실장	이영숙	여
후보28	이젠텍	사무국장	심일순	여

○ 노총 파견선거인단 명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1	LG전자	위원장	배상호	남
2	LG전자	사무처장	이상걸	남
3	LG전자	대외협력담당	김해광	남
4	LG전자	평택1지부장	김 영	남
5	LG전자	평택2지부장	윤영식	남
6	LG전자	청주/인천지부장	김태훈	남
7	LG전자	구미지부장	유정종	남
8	LG전자	창원1지부장	임채현	남
9	LG전자	창원2지부장	하영규	남
10	LG전자	부위원장	정일진	남
11	LG전자	총무국장	김성규	남
12	LG전자	평택1사무국장	김기학	남
13	LG전자	평택2사무국장	이용선	남
14	LG전자	청주/인천사무국장	이종태	남
15	LG전자	구미사무국장	조봉래	남
16	LG전자	창원1사무국장	김진성	남
17	LG전자	창원2사무국장	김창옥	남
18	LG전자	회계감사	곽동국	남
19	LG전자	회계감사	강신갑	남
20	LG전자	회계감사	홍경우	남
21	LG전자	회계감사	김용문	남
22	LG전자	기획부장	정문식	남
23	LG전자	문화체육부장	변성환	남
24	LG전자	법규부장	이수민	남
25	LG전자	총무부장	윤창렬	남
26	LG전자	후생부장	이규철	남
27	LG전자	조직부장	김원준	남
28	LG전자	교육선전부장	김수천	남
29	LG전자	조사통계부장	전대성	남
30	LG전자	산재대책부장	박주상	남
31	LG전자	USR부장	이성기	남
32	LG전자	쟁의부장	김도환	남
33	LG전자	여성부장	최귀연	여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34	LG전자	평택1여성부장	정슬비	여
35	LG전자	청주/인천여성부장	조은란	여
36	LG전자	구미여성부장	공순식	여
37	LG전자	창원1여성부장	석희주	여
38	LG전자	창원2여성부장	안희숙	여
39	롯데알미늄	위원장	이병규	남
40	롯데알미늄	서울부위원장	임윤빈	남
41	롯데알미늄	사무국장	채희원	남
42	OTIS엘리베이터	위원장	이창호	남
43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위원장	김용안	남
44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위원장	조승구	남
45	LGDisplay	위원장	권동섭	남
46	LGDisplay	부위원장	채근욱	남
47	LGDisplay	사무국장	정진영	남
48	LGDisplay	사무장	손동락	남
49	LGDisplay	대의원	이민규	남
50	LGDisplay	대의원	신민찬	남
51	LGDisplay	대의원	이준희	남
52	LGDisplay	대의원	김양원	남
53	LGDisplay	대의원	윤정남	남
54	LGDisplay	대의원	함현석	남
55	LGDisplay	대의원	배한영	남
56	LGDisplay	대의원	김태영	남
57	LGDisplay	대의원	김성남	남
58	LGDisplay	대의원	손성익	남
59	LGDisplay	대의원	이종우	남
60	LGDisplay	대의원	한건택	남
61	LGDisplay	대의원	강병열	남
62	LGDisplay	대의원	김두종	남
63	LGDisplay	대의원	이무영	남
64	LGDisplay	대의원	김범기	남
65	LGDisplay	대의원	김동은	남
66	LGDisplay	대의원	박현원	남
67	LGDisplay	대의원	이세원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68	LGDisplay	기획부장	정상식	남
69	LGDisplay	조직부장	문현진	남
70	LGDisplay	총무부장	정선재	남
71	LGDisplay	대의원	박성현	남
72	LGDisplay	대의원	한대수	남
73	LGDisplay	대의원	이호준	남
74	LGDisplay	대의원	권성훈	남
75	LGDisplay	대의원	김성기	남
76	LGDisplay	대의원	한성욱	남
77	LGDisplay	대의원	태원식	남
78	LGDisplay	대의원	정현근	남
79	LGDisplay	대의원	이병준	남
80	LGDisplay	대의원	배기철	남
81	LGDisplay	대의원	곽재수	남
82	LGDisplay	대의원	이병직	남
83	LGDisplay	대의원	장동휘	남
84	LGDisplay	대의원	홍승환	남
85	LGDisplay	대의원	김경동	남
86	LGDisplay	대의원	김용운	남
87	LGDisplay	대의원	홍성욱	남
88	LGDisplay	대의원	윤종연	남
89	LGDisplay	대의원	권영준	남
90	LGDisplay	대의원	김경동	남
91	LGDisplay	대의원	박재성	남
92	LGDisplay	대의원	장진욱	남
93	LGDisplay	대의원	박제을	남
94	LGDisplay	대의원	정재호	남
95	LGDisplay	대의원	이진우	남
96	LGDisplay	기획부장	김영태	남
97	LGDisplay	총무부장	정규웅	남
98	LGDisplay	조직부장	조동수	남
99	LGDisplay	대의원	김은주	여
100	LGDisplay	대의원	김은실	여
101	LGDisplay	대의원	정성연	여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102	LGDisplay	대의원	정초영	여
103	LGDisplay	대의원	박지은	여
104	LGDisplay	대의원	김소연	여
105	LGDisplay	대의원	윤숙경	여
106	LGDisplay	대의원	김혜인	여
107	LGDisplay	여성부장	손수지	여
108	LGDisplay	여성부장	이가현	여
109	LGDisplay	여성차장	박별이	여
110	LGDisplay	여성차장	윤세연	여
111	LGDisplay	여성차장	윤아름	여
112	LGDisplay	여성차장	허희전	여
113	LGDisplay	여성차장	강소영	여
114	LGDisplay	대의원	이미정	여
115	LGDisplay	대의원	이은진	여
116	LGDisplay	대의원	오지수	여
117	LGDisplay	여성부장	김소희	여
118	LGDisplay	여성차장	안성현	여
119	LGDisplay	여성차장	김단비	여
120	LGDisplay	여성차장	조은성	여
121	LGDisplay	여성차장	정선혜	여
122	SK하이닉스이천	위원장	허정우	남
123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이명근	남
124	SK하이닉스이천	사무국장	이인용	남
125	SK하이닉스이천	지원실장	손철호	남
126	SK하이닉스이천	정책실장	한명욱	남
127	SK하이닉스이천	조직실장	김상호	남
128	SK하이닉스이천	홍보실장	나운현	남
129	SK하이닉스이천	복지실장	오경환	남
130	SK하이닉스이천	회계감사	원종원	남
131	SK하이닉스이천	회계감사	이장호	남
132	SK하이닉스이천	회계감사	조태석	남
133	SK하이닉스이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남
134	SK하이닉스이천	노총이천지역지부의장	정상영	남
135	SK하이닉스이천	노총경기본부부의장	박태석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136	SK하이닉스이천	지원부장	이병주	남
137	SK하이닉스이천	조사통계부장	박용순	남
138	SK하이닉스이천	안전부장	김찬균	남
139	SK하이닉스이천	영상기획부장	조현제	남
140	SK하이닉스이천	노사대책부장	신종민	남
141	SK하이닉스이천	기숙사지원차장	김태민	남
142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여
143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김재숙	여
144	SK하이닉스이천	문화실장	이영숙	여
145	SK하이닉스이천	운영차장	최보라	여
146	SK하이닉스이천	교육차장	주현자	여
147	SK하이닉스이천	교육차장	이진경	여
148	SK하이닉스이천	쟁의차장	이순미	여
149	SK하이닉스이천	쟁의차장	이경선	여
150	SK하이닉스이천	홍보차장	전혜은	여
151	SK하이닉스이천	편집차장	남기문	여
152	SK하이닉스이천	복지차장	최미진	여
153	SK하이닉스이천	후생차장	이상순	여
154	SK하이닉스이천	기숙사지원부장	서미정	여
155	SK하이닉스이천	여성차장	이은희	여
156	현대엘리베이터	위원장	손만철	남
157	현대엘리베이터	부위원장	박범돈	남
158	현대엘리베이터	부위원장	조상현	남
159	서진캠	위원장	이의형	남
160	프라코	위원장	김기연	남
161	신한일전기	위원장	김송훈	남
162	신한일전기	조직부위원장	심화택	남
163	일진제강	위원장	이주행	남
164	일진제강	사무국장	김영민	남
165	이화다이아몬드	위원장	한정호	남
166	SK하이이엔지	자문위원	김남진	남
167	에이엔피	경기본부의장	김길섭	남
168	삼영전자	위원장	김경호	남
169	테크팩솔루션	위원장	정수환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170	대동도어	위원장	안영철	남
171	삼아알미늄	위원장	조용범	남
172	대신기계	위원장	강호석	남
173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위원장	진선율	남
174	동희정공	노총화성지부의장	김덕수	남
175	파주전기초자	위원장	오유진	남
176	니콘코리아	위원장	한상진	남
177	리 한	위원장	민한기	남
178	한국키스톤발부	위원장	박명규	남
179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여
180	세진전자	부위원장	지성임	여
181	이젠텍	사무국장	심일순	여
182	리한	대의원	오숙경	여
183	리한	대의원	김복녀	여
184	스태츠칩팩코리아	위원장	윤동현	남
185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한오석	남
186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이현희	여
187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박명근	남
188	스태츠칩팩코리아	사무국장	신진호	남
189	스태츠칩팩코리아	문화부장	이기화	여
190	스태츠칩팩코리아	경기노총의장	허원	남
191	동국제강	위원장	박상규	남
192	동국제강	지부장	박성균	남
193	동국제강	지부장	김성곤	남
194	동국제강	부위원장	이강춘	남
195	동국제강	사무국장	서용선	남
196	핸즈코퍼레이션	위원장	최철	남
197	핸즈코퍼레이션	부위원장	박충희	남
198	핸즈코퍼레이션	사무국장	최정열	남
199	신한테크노일반	위원장	조명선	남
200	신한테크노일반	수석부위원장	차학수	남
201	린나이코리아	위원장	김제곤	남
202	린나이코리아	수석부위원장	안무순	남
203	동부인천스틸	위원장	김수호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204	동부인천스틸	사무국장	황상순	남
205	대동하이렉스	위원장	류성룡	남
206	대동시스템	위원장	김정운	남
207	머큐리	위원장	김영국	남
208	삼양감속기	위원장	최인석	남
209	청우하이드로	위원장	이명선	남
210	삼성공업	위원장	오인상	남
211	삼성공업	회계감사	강혜숙	여
212	태양금속	위원장	황명찬	남
213	태양금속	사무국장	임용제	남
214	대덕전자	위원장	허일욱	남
215	대덕전자	사무국장	문성호	남
216	동서기공	위원장	임동훈	남
217	남양공업	위원장	조제현	남
218	남양공업	사무국장	정승현	남
219	포스코대우안산	위원장	정교태	남
220	에스엘라이팅안산	위원장	김삼두	남
221	서진산업	위원장	김진업	남
222	대덕GDS	위원장	김광호	남
223	이수엑사보드	위원장	정정호	남
224	아이아	위원장	김광섭	남
225	에스엘미러텍	위원장	김종훈	남
226	일진전기	위원장	방운제	남
227	삼보오토	위원장	강영석	남
228	영흥철강(진)	위원장	박용국	남
229	PN풍년	위원장	장영기	남
230	우진공업	위원장	김영철	남
231	서진오토모티브	위원장	김진연	남
232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여
233	비츠로테크	위원장	강상욱	남
234	진영공업	위원장	지해갑	남
235	진합	위원장	이남철	남
236	남선기공	위원장	윤익병	남
237	애디언트코리아	위원장	이창수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238	애디언트코리아	사무장	정민영	남
239	오스텀	위원장	두병비	남
240	대한전선	위원장	강진연	남
241	대한전선	지부장	정지래	남
242	동희오토협력업체	위원장	정성진	남
243	동희오토협력업체	수석부위원장	김광민	남
244	휴스틸	위원장	노승규	남
245	동원금속아산공장	위원장	강춘호	남
246	두원공조	위원장	정덕순	남
247	동부제철	위원장	김우하	남
248	SL서봉	위원장	김기문	남
249	신원	위원장	전성복	남
250	새론오토모티브	위원장	장재성	남
251	아산성우하이텍	위원장	임갑병	남
252	경신전선	위원장	채준병	남
253	LS메탈	위원장	김병석	남
254	인지AMT	위원장	나명구	남
255	코리아휠	위원장	유인규	남
256	MEMC KOREA	위원장	임철승	남
257	풍산FNS	위원장	최용웅	남
258	우영산업	위원장	김정국	남
259	두올아산	위원장	정란홍	여
260	두올아산	사무장	문양희	여
261	SK하이닉스청주	위원장	강국모	남
262	SK하이닉스청주	사무국장	김영삼	남
263	SK하이닉스청주	정책실장	이승의	남
264	SK하이닉스청주	교육부장	이종열	남
265	SK하이닉스청주	조사통계부장	박철균	남
266	SK하이닉스청주	홍보실장	맹정재	남
267	SK하이닉스청주	홍보부장	박성제	남
268	SK하이닉스청주	복지실장	백경환	남
269	SK하이닉스청주	복지부장	정수현	남
270	SK하이닉스청주	총무부장	경두현	남
271	SK하이닉스청주	조직실장	문학성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272	SK하이닉스청주	체육부장	김선익	남
273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주연	여
274	SK하이닉스청주	조사통계차장	정은미	여
275	SK하이닉스청주	기숙사지원부장	최리진	여
276	SK하이닉스청주	여성부장	백서은	여
277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김미희	여
278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오선희	여
279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이주미	여
280	SK하이닉스청주	여성차장	이혜나	여
281	매그나칩반도체	위원장	조항수	남
282	매그나칩반도체	부위원장	심재범	남
283	매그나칩반도체	지부장	배준호	남
284	매그나칩반도체	여성부장	김미영	여
285	매그나칩반도체	후생복지부장	변수진	여
286	현대모비스	위원장	박태우	남
287	현대모비스	수석부위원장	김길현	남
288	현대모비스	부위원장	모경임	여
289	현대모비스	지부장	남순건	남
290	두산전자	위원장	윤영훈	남
291	두산전자	김천지부장	정갑성	남
292	에스엠알코리아	위원장	박대철	남
293	LS산전	위원장	홍문기	남
294	현대성우메탈	위원장	엄기호	남
295	한국야금	위원장	왕용호	남
296	삼동	위원장	안교신	남
297	한국보그워너TS	위원장	이상용	남
298	삼화전기	위원장	박종훈	남
299	국제종합기계	위원장	정재연	남
300	선일다이파스	위원장	조경탁	남
301	극동전선	위원장	박재희	남
302	에넥스	위원장	정운석	남
303	넥상스코리아	위원장	최경천	남
304	우지마크코리아	위원장	이종필	남
305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김귀녀	여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306	선일다이파스	여성부장	이상영	여
307	대한제강	위원장	윤각열	남
308	대한제강	사무국장	부운덕	남
309	YK Steel	위원장	박대엽	남
310	YK Steel	부위원장	문형석	남
311	부산주공	위원장	안병철	남
312	성우하이텍	위원장	김근수	남
313	태광	위원장	정광호	남
314	대선조선	부산지역본부의장	황대선	남
315	오리엔탈정공	위원장	정영수	남
316	성광벤드	위원장	조용석	남
317	강남	위원장	황태연	남
318	한국주철관	위원장	박정철	남
319	대창단조	위원장	유강술	남
320	태광후지킨	위원장	하두호	남
321	한국항공우주산업	위원장	류재선	남
322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이재호	남
323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위원장	이창호	남
324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국장	김민곤	남
325	한국항공우주산업	총무실장	한용주	남
326	한국항공우주산업	정책기획실장	안영만	남
327	한국항공우주산업	복지후생실장	이동규	남
328	한국항공우주산업	선전실장	김규훈	남
329	한국항공우주산업	조직3부장	김가현	여
330	세플러코리아	지부장	신동관	남
331	세플러코리아	부위원장	김상갑	남
332	세플러코리아	사무국장	전광배	남
333	세아창원특수강	위원장	이상철	남
334	세아창원특수강	사무국장	위성준	남
335	세아창원특수강	조직부장	김성수	남
336	세아창원특수강	홍보부장	손정구	남
337	세방전지	위원장	손승일	남
338	세방전지	지부장	차종표	남
339	스타리온성철	위원장	남원섭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340	스타리온성철	대의원	강문일	남
341	한국철강	위원장	김회봉	남
342	한국철강	부위원장	심귀봉	남
343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위원장	이희기	남
344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수석부위원장	정원출	남
345	유니크	위원장	허영복	남
346	유니크	사무국장	김현진	여
347	GMB코리아	위원장	유재현	남
348	GMB코리아	부위원장	문경규	남
349	두원중공업	위원장	정진용	남
350	두원중공업	사무국장	오삼석	남
351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위원장	김종국	남
352	에스텍	위원장	김성종	남
353	세일공업	위원장	조경옥	남
354	대명공업	위원장	김용식	남
355	영흥철강	위원장	김병천	남
356	삼성공조	위원장	변기섭	남
357	풍산홀딩스	위원장	감규상	남
358	알코닉코리아	위원장	지상천	남
359	세원셀론텍	위원장	김성수	남
360	삼우금속	위원장	차재런	남
361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여
362	삼성공조	위원장	권금자	여
363	풍산	위원장	이준덕	남
364	풍산	안강지부장	안효진	남
365	풍산	울산지부장	신재관	남
366	풍산	부산지부장	박동원	남
367	풍산	여성1국장	정영숙	여
368	LS-Nikko동제련	위원장	박성걸	남
369	LS-Nikko동제련	사무국장	김우진	남
370	노벨리스코리아울산공장	위원장	성용만	남
371	노벨리스코리아울산공장	사무국장	전구영	남
372	고려아연	위원장	조대형	남
373	고려아연	부위원장	최재영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374	DIC	위원장	허문근	남
375	DIC	사무국장	박찬기	남
376	동희산업	위원장	노현돈	남
377	대경기계기술	위원장	최용수	남
378	명화공업	위원장	노경택	남
379	조선선재온산공장	위원장	김영진	남
380	에스엘	위원장	박칠규	남
381	에스엘	여성부장	김나영	여
382	에스엘	여성부장	박태석	여
383	이수페타시스	위원장	이기남	남
384	이수페타시스	부위원장	강대성	남
385	이수페타시스	사무국장	손태진	남
386	평화발레오	위원장	김동준	남
387	평화발레오	부위원장	백인찬	남
388	평화발레오	사무국장	이근제	남
389	평화산업	위원장	신석곤	남
390	평화산업	수석부위원장	임복재	남
391	한국파워트레인	위원장	김수환	남
392	한국파워트레인	부위원장	이동호	남
393	평화오일썰	위원장	이상윤	남
394	경창산업	위원장	김성호	남
395	남선알미늄	사무국장	강호덕	남
396	평화정공	위원장	허도영	남
397	화신	위원장	김해용	남
398	남양금속	위원장	이상기	남
399	KBWS	위원장	이선희	남
400	삼성제침	위원장	권오탁	남
401	타이코AMP	위원장	박기성	남
402	평화기공	위원장	박병선	남
403	영진	위원장	권태훈	남
404	KDS	위원장	전희곤	남
405	에스엘라이팅	위원장	김채민	남
406	모토닉	위원장	김상권	남
407	THN	위원장	정한근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408	금융기계	위원장	이상만	남
409	신영	위원장	이종덕	남
410	세원물산	위원장	손광희	남
411	대철	위원장	황성원	남
412	일지테크	위원장	나영섭	남
413	대한소결금속	위원장	김효선	남
414	삼익THK	위원장	박기호	남
415	경창정공	위원장	김기표	남
416	대철	조합원	남금자	여
417	대철	조합원	임순옥	여
418	경창정공	조합원	이미경	여
419	경창정공	조합원	박경란	여
420	LG이노텍	위원장	김동의	남
421	LG이노텍	지부장	안병일	남
422	LG이노텍	지부장	감동현	남
423	LG이노텍	지부장	김하장	남
424	LG이노텍	지부장	장대식	남
425	LG이노텍	사무처장	정현주	남
426	LG이노텍	부지부장	최세리	여
427	LG이노텍	여성부장	송현주	여
428	LG이노텍	부지부장	류윤기	남
429	LG이노텍	회계감사	이덕용	남
430	LG이노텍	회계감사	김대성	남
431	LG이노텍	사무국장	조현순	남
432	LG이노텍	여성부장	이선희	여
433	LG이노텍	사무국장	김영지	남
434	LG이노텍	사무국장	한상진	남
435	LG이노텍	사무국장	이중일	남
436	LG실트론	위원장	한창욱	남
437	LG실트론	부위원장	옥윤수	남
438	LG실트론	사무국장	김현수	남
439	LG실트론	총무실장	김용덕	남
440	LG실트론	총무차장	문유미	여
441	노벨리스크리아	위원장	권국진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442	영풍석포제련소	위원장	강철희	남
443	노틸러스효성	위원장	정동민	남
444	존슨컨트롤즈델코배터리	위원장	김상희	남
445	클레스트라하우저만	위원장	이문희	남
446	LIG넥스원	위원장	임종성	남
447	NVH.KOREA	위원장	정대석	남
448	영신정공	위원장	장복이	남
449	현대종합금속	위원장	김동일	남
450	TCC한진	위원장	정상준	남
451	현대성우캐스팅	위원장	정천균	남
452	세아제강	위원장	이종욱	남
453	세아특수강	위원장	박순덕	남
454	동일 합금철	위원장	공재청	남
455	한금	위원장	이성용	남
456	에어릭스	위원장	최호창	남
457	DK동신	위원장	황영수	남
458	선화이엔지	위원장	진선일	남
459	동화기업	위원장	천정근	남
460	아진카인텍	위원장	권병욱	남
461	동부대우민주	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	최정열	남
462	한국알프스	위원장	신정훈	남
463	한국신광전자	위원장	이주행	남
464	대유에이텍	위원장	정관	남
465	한국차량	위원장	모수환	남
466	세아베스틸	위원장	김태완	남
467	세아베스틸	수석부위원장	진인석	남
468	세아베스틸	사무국장	염성곤	남
469	세아베스틸	조직실장	서현승	남
470	세아베스틸	산안실장	양석원	남
471	엘에스엠트론	위원장	왕윤상	남
472	엘에스엠트론	사무국장	김영무	남
473	엘에스엠트론	기획실장	이재익	남
474	대유글로벌	위원장	김학송	남
475	오토리브	위원장	권재수	남

번호	조직명	직위	성명	성별
476	한일전기	위원장	석승희	남
477	오스템	노총충남본부의장	고석희	남
478	신한일전기	노총부천지역지부의장	박종현	남
479	화신	노총영천지역지부의장	윤승오	남
480	LS산전	충북본부의장	이해관	남
481	노벨리스크리아울산공장	울경본부의장	남재환	남
482	충남금속일반	노총아산지역지부의장	강흥진	남
후보1	LG전자	평택1 부지부장	박대석	남
후보2	LG전자	평택1 부지부장	신태교	남
후보3	LG전자	평택2 부지부장	이진호	남
후보4	LG전자	조합원	황성관	남
후보5	LGDisplay	대의원	허일선	남
후보6	LGDisplay	대의원	최두호	남
후보7	LGDisplay	대의원	이현석	남
후보8	LGDisplay	여성차장	김재희	여
후보9	LGDisplay	대의원	황종영	남
후보10	LGDisplay	대의원	김종현	남
후보11	LGDisplay	대의원	이승호	남
후보12	LGDisplay	여성차장	민현정	여
후보13	LS-Nikko동제련	부위원장	김용우	남
후보14	LS-Nikko동제련	부위원장	한상욱	남
후보15	인지컨트롤스	위원장	정찬이	남
후보16	우지막코리아	총무부장	김정숙	여
후보17	동희정공	위원장	추진호	남
후보18	동국실업	위원장	문부근	남
후보19	장원	위원장	김영곤	남
후보20	PCM	위원장	서영신	남
후보21	태평양금속	위원장	김수문	남
후보22	노벨리스크리아	위원장	권국진	남
후보23	신화실업	위원장	최형한	남
후보24	SP일레맥	위원장	황경숙	여
후보25	우일정밀	위원장	양승조	남
후보26	서연탐메탈	위원장	박득률	남
후보27	대성사	위원장	이권언	남

결 의 문

2천만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광장의 정치를 통하여 불통불법 박근혜정권 및 적폐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여 노동존중사회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노동탄압으로 일관해왔던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에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금속노련 대의원 일동은 50만 제조노동자와 함께, 2천만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7년 금속노련의 임단투 지침에 따라 생계비에 기초한 생활 임금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 철폐, 통상임금 정상화, 임금손실 없는 정년연장 등 금속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법 2대지침 폐기와 노동기본권 확보로 노동존중사회 건설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차별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근절, 최저임금1만원쟁취 등의 경제민주화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양대노총 제조연대의 투쟁계획에 따라 제조산업발전법을 쟁취하고 재벌체제의 청산을 위하여 재벌개혁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17년 5월 23일

2017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일동

2) 표창자명단

○ 노총 위원장 표창자

순번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2017-387	넥상스코리아	위원장	최 경 천	충북
388	영 진	“	권 태 훈	대구.경북
389	화천기공	“	이 종 옥	광주.전남
390	고려용접봉	“	김 휘 종	부산
391	디젠스	“	김 창 규	충남
392	STX엔진	“	성 형 준	경기
393	서진산업경주지부	지부장	김 진 동	울산.경주
394	세아베스틸	조합원	임 영 희	전북
395	신화실업	위원장	최 형 한	안산.시흥
396	에스텍	“	김 성 종	경남

○ 공로패

성 명	소 속	비 고
장 세 종	불보건설기계코리아	(前)서울본부 의장
서 성 목	LG전자구미지부	(前)구미지역본부 의장
김 성 수		(前)부위원장검사무처장

○ 감사패

성 명	소 속	비 고
김 순 호		선배

○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서울지역본부

○ 연맹 위원장 표창자

순번	조직명	직위	성명	비고
1	2017-157	야마하뮤직코리아	위원장	신우철
2	158	가온전선	위원장	전정일
3	159	이젠텍	사무국장	“
4	160	비츠로테크	위원장	강상욱
5	161	후지테크코리아	위원장	김영철
6	162	남선기공	조합원	주학준
7	163	한국하니웰	위원장	김상규
8	164	에넥스	위원장	정운석
9	165	동양제강	회계감사	박노태
10	166	대명공업	위원장	김용식
11	167	국일인토티	위원장	조정식
12	168	아세아텍	위원장	권영동
13	169	노틸러스효성	조합원	김갑철
14	170	세아제강	위원장	이종욱
15	171	대경기계기술	위원장	정태수
16	172	세아베스틸	조합원	유점배
17	173	토다이수	조합원	김영일
18	174	LGDisplay	대의원	이준희
19	175	“	“	한대수
20	176	“	“	김은실
21	177	SK하이닉스청주	기숙사지원부장	최리진
22	178	“	교육부장	이종열
23	179	매그나칩반도체	문화체육부장	박상현
24	180	LG실트론	조직부장	도상오
25	181	LG전자	쟁의부장	김도환
26	182	“	여성부장	최귀연
27	183	“	조직부장	김원준
28	184	동국제강	정책부위원장	이강춘
29	185	LG이노텍	여성부장	송현주
30	186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무국장	김민곤
31	187	스태츠칩팩코리아	부위원장	박명근
32	188	세아베스틸	조합원	이종출
33	189	세아창원특수강	“	김성수
34	190	SK하이닉스이천	운영차장	남준현
35	191	“	편집차장	남기문
36	192	“	여성차장	이은희
37	193	풍산	대의원	김상국
38	19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여성본부장	김영미

나. 중앙위원 회의

1) 제181차 중앙위원 회의

- 개최일시: 2017년 5월 16일(화) 13:30
- 개최장소: 한국노총 대회의실
- 참석인원: 재적인원 75명중 참석인원 45명

가) 안건

○ 토의사항

1. 정기대의원대회 안건 심의

- 회순심의
- 대의원 자격심사건

2017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재적인원이 728명으로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표창자 확정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에 관한 건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2) 제182차 중앙위원회의

- 개최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15:30
- 개최장소 : 한국노총 13층
- 참석인원 : 재적인원 73명중 참석인원 50명

가) 안 건

○ 보고사항

1. 제조연대 활동 보고
 - 1) 양대노총 제조연대
 - 2) 한국노총 제조연대
2. 2018년도 상반기 교육계획
3. 한국노총 비정규 연대 기금 모금 건
4. 중앙 노정협의 진행 보고

○ 토의사항

1. 가예산승인(2018년 4월 - 5월)의 건
 -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2. 2018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한 건
 - 2017년 5월 23일(화) 확정 결의하다.
3. 2018년도 임단투지침(안)확정 건
 - 2018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생계비 충족률 93.5%, 기본급 대비 9.6% 181,884원으로 임금 요구안을 결정하다.
4. 2018년 상반기 지역순회 일정 건
 -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5.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구성 건
 -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6. 예산 목간 전용의 건
 - 회의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결의하다.

○ 기타토의

3) 지역본부 사무국장회의

- 개최일시: 2017년 7월 12일(수) 13:00
- 개최장소: 금속노련 대전지역본부 회의실
- 토의사항
 - 제9회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개최 관련 건
 - 현안문제토의

4) 회계감사 수검

가) 2016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수검

- 1) 일 시 : [노련회계감사]2017년 4월 26일(화) 11시
[공인회계사 감사]2017년 4월 25일(월) 11시 / 1회(년)
-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 3) 내 용 : 2016회계연도 하반기(2016.10.1-2017.3.31)회계집행내역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수검하다.
회계감사위원 : 강호석(대신기계),김삼두(에스엘라이텍),이재성(희성금속)
황성원(대철),김나리(LGDisplay)

나) 2017회계연도 상반기 회계감사 수검

- 1)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11시
- 2) 장 소 : 우리노련 회의실
- 3) 내 용 : 2017회계연도 상반기(2017.4.1-2017.9.31)회계집행내역 내역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다.
회계감사위원 : 강호석(대신기계),김삼두(에스엘라이텍),이재성(희성금속)
황성원(대철),김나리(LGDisplay)

5) 주요행사 및 지원 사업

가) 주요행사 집행

(1) 금속노련 창립 55주년 기념식

- 목 적 : 2017년 금속노련 창립 55주년 기념 금속노련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노동운동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최일시 : 2017년 8월 25일 11:00
- 개최장소 : 산삼골(여의도백화점 7층)
- 참 석 자 : 역대 금속노련 위원장님 외 선배님

(2) 금속노련 사무처 워크숍

- 목 적 : 금속노련 노동정책과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적 역량 집중 및 단결과 화합을 위함

- 개최일시 : 2018년 3월 22일-23일(1박2일)
- 개최장소 : 델피노리조트 회의실
- 참 석 자 : 금속노련 임원 및 사무처 전원

(3)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 실시

○ 개요 및 목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반 질병 및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 및 환경을 보호·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
-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건강상 이상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지속적 진찰 및 상담 등 의학적 검진 시행
- 과도한 업무 및 긴장상태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

○ 검진일정 : 2017년 6월 - 8월 중 본인 선택

○ 검진대상 : 2인(본인 및 배우자)

○ 검진기관: 한국의료재단(여의도 IFC)

(4) 제9회 전국대표자 체육대회

- 목 적 : 금속노동자의 단결 및 가맹노조 대표자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함
- 개최일시 : 2017년 9월 7일 -8일 (1박 2일)
- 개최장소 : 한국노총 여주중앙교육원 운동장
- 참 석 자 : 금속노련 가맹노조 대표자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시상현황

종합우승	희망팀	준우승	단결팀
종목별우승	축구-연대팀, 족구-희망팀, 야구윷놀이-희망팀 줄다리기-희망팀 이어달리기- 단결팀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협찬현황

[협찬금 및 협찬물품]

금속노련 전지역본부, A.F.T, GMB코리아, KR모터스, LGDisplay, LG전자, LS-Nikko동제련, OTIS엘리베이터, PN풍년, SK하이닉스, SK하이이엔지, YK Steel, 귀뚜라미범양냉방, 남선, 넥상스코리아, 니콘코리아, 대경기계기술, 대동도어, 대동시스템, 대동하이렉스, 대림통상, 대성썬텍에너지스, 대원전선, 대한전선,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도루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동부인천스틸, 두올아산, 두원중공업, 롯데알미늄, 리한, 린나이코리아, 매그나칩반도체, 머큐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공조, 삼아알미늄, 삼양감속기, 삼익THK, 새론오토모티브, 서진산업, 세방전지,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원셀론텍, 세원정공, 세일공업, 스타리온성철, 스태츠칩팩코리아, 신원, 신한일전기, 신한테크노일반, 심팩, 양산금속대표자, 에스엘계열사일동, 에스엘미러텍,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영진, 영풍석포제련소, 우영산업, 우지막코리아, 유니크, 인알파코리아, 청우하이드로, 캄스, 코리아휠, 타이코AMP, 태양금속, 테크팩솔루션, 평화발레오, 평화산업, 평화정공, 풍산, 풍산홀딩스, 프라코,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국철강, 한국특수전지, 한국파워트레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라스택폴, 한일전기, 해강알로이, 한스코퍼레이션, 현대모비스, 희성금속

[후원해주신 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주한미군노동조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노총 시흥지역지부,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금속개혁연대, 금속노련 전선협의회, 노사발전재단

2. 노총장학재단 및 금속노련 장학금 배정지급

가. 취지

한국노총 장학재단에서 금속노련에 배정된 2017학년도 장학금 30,020,000원을 수령하여 가맹노조의 맹비 납부 실적에 따라 배정하였다.

또한 금속노련 장학금을 2009년도부터 신설하여 장학금 20,000,000원을 산하 조직의 조합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신입생 포함)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당해 조직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선정하여 배정하였다.

나. 연도별 장학금 수혜 내역

연도별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한국노총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 내역					
2007	76	2/방통대1	2	81	83,990,000
2008	76	방통대1	1	83	85,340,000
2009	63	2/방통대1	2	68	71,000,000
2010	59	방통대1	2	62	67,060,000
2011	50	2	2	54	62,000,000
2012	43	3/방통대1	2	49	55,400,000
2013	41	1	1	43	46,000,000
2014	27	2/방통대1	1	31	34,400,000
2015	28	1		29	29,660,000
2016	28	1		29	30,020,000
2017	30	1		28	30,020,000
금속노련 장학금 수혜 내역					
연도별	고	대학(2년)	대학(4년)	수혜자계	지급총액
2014	40				20,000,000
2015	40				20,000,000
2016	40				20,000,000
2017	40				20,000,000

조직 활동

1. 조직현황	219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219
나. 지부현황	243
다. 신규조직 현황	244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245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247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47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248
2. 2018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49
3. 투쟁사업장 현황	253

평가 및 개선방향

2017년 또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한해였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우리의 힘으로 탄핵하고 문재인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 정권을 창출하였지만, 여전히 척박하고 처참한 노동현실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와 현장에서 처절하게 싸웠다. 늘 그랬듯 우리 노동자들 앞에 놓인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켄코어 노동자들의 천막투쟁이 그랬고, 성암산업 노동자들의 식발투쟁이 그랬고, SNNC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투쟁이 그랬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정비 작업 중 허무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4명의 TCC한진 동지들을 떠나보내면서, 언제까지 우리들은 일터로 나설 때마다 가슴 한 구석에 유서를 써놓아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우리 금속노련에게 남겨진 숙제가 많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2018년은 2016년 국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노동혁명의 불꽃을 점화하는 해다. 우리 금속노련에게는 20만 금속노련 조직화의 원년이기도 하다. 며칠 전 삼성전자서비스가 외주업체 소속 약 8,000명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동조합이 2명의 열사를 하늘로 보내고 쟁취한 값진 승리의 결실이기에, 마음속으로나마 진심어린 축하를 보낸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또한 전국 일반노조 설립 및 공격적 조직화 사업을 통해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화의 최적기인 만큼, 정권 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조직강화 및 확대를 통해 노동기본권 확보, 노동조합 할 권리 쟁취,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금속노련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1. 조직현황

가.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서울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 12. 28.

②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 가 57 노동복지회관 405

③ 전화번호 : 02)2676 4823 FAX : 02)2676 4824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해광	LG전자	2017.12.19
부의장	김용안	대우전자서비스	2017.12.19
사무국장	전상	K-MEC	2017.12.19
회계감사	조승구	볼보건설기계	2017.12.19

⑤ 서울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MEC	20160212	전상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22 신관 9층
KC코트렐	19990609	최경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1
LG전자	19630530	배상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10길 22
OTIS엘리베이터	19870727	이창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별관2층
농협사료	20170206	홍헌표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대경기계기술서울	20150320	이종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동부대우전자서비스	19981229	김용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233
롯데알미늄	19760407	오성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01 2층
볼보건설기계코리아	20000803	조승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0 볼보빌딩 6층
아마하뮤직코리아	20140901	신우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11층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20160401	김진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0 제1별관 3층

2) 경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2. 9. 27

②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7층)

③ 전화번호 : (031) 233-3580/1 FAX 번호 : (031) 233-3586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길섭	에이엔피	2015.11.24.
부의장	정상영	SK하이닉스	2015.11.24.
부의장	윤복현	세진전자	2015.11.24.
부의장	박명규	한국키스톤발부	2015.11.24.
부의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2015.11.24.
부의장	허정우	SK하이닉스	2015.11.24.
부의장	성형준	STX엔진	2015.11.24.
부의장	강호석	대신기계	2015.11.24.
부의장	박태석	SK하이닉스	2015.11.24.
부의장	김영	LG전자 평택1지부	2015.11.24.
부의장	권동섭	LG디스플레이	2015.11.24.
회계감사	원철식	에이엔피	2015.11.24.
회계감사	박종현	신한일전기	2015.11.24.
사무국장	민한기	리한	2015.11.24.

⑤ 경기지역본부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SE코리아	19881219	곽노용	경기 파주시 산업단지길 76
JMI	19970120	송해광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8길 15-20
LGDisplay	19990101	권동섭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A1동
SK하이닉스이천	19870814	허정우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닉스	20080319	박이순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SK하이이엔지	20010618	정상종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STX엔진	20011205	성형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288
가온전선	19890124	전정일	경기 군포시 엘에스로45번길 120
경동산업	19881213	이석현	경기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601번길 51
니콘코리아	20031210	한상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124번길 2
대동도어	19890221	안영철	인천 연수구 첨단대로124번길 64
대신기계	20070601	강호석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711-78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화성	19680128	유성준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5길 9
도루코	19750520	이용식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50
동화프라임	19870814	박운병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528-2
동희정공	20000619	박노용	경기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720-1
로얄&컴퍼니	19870727	문성식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리한	20070601	민한기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25 마도산업단지 2B1L
베올리아워터코리아	20050408	노용성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부천시역	19880706	김덕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근로자복지관3층
삼기오토모티브	19781013	김용태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268번길 147
삼아알미늄	19890315	조용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
삼영전자	19880828	김경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7
삼화전자공업	19941121	김진옥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215
서진캠	20030705	정지덕	경기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31 어연한산지방공단내 2B-5L
성문전자	19910103	차현택	경기 평택시 세교산단로 61
성안기계	19890515	심규성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33
세아FS	19870719	서민형	경기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9
세진전자	19950727	윤복현	경기 오산시 가장로 494
신한일전기	19740518	김송훈	경기 부천시 소사구 중동로 22
썬코어	19880511	김주훈	경기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360번길 148-103
썬터온	19930310	조성철	경기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155
에이엔피	19870902	원철식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300
우주엔비텍	20030401	임재용	경기 부천시 오정구 별말로 122
이젠텍	20001205	박정근	경기 평택시 산단로 255
이큐글로벌	20011207	남종태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이화다이하몬드	19880312	한정호	경기 오산시 남부대로 374
인알파코리아	20101021	박원제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39
일진전기	19870816	안명호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17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일진전기전선사업부	20171115	지남용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64
일진제강	19870829	이주행	경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905-80
전기초자코리아	20171012	박영호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11 603동 1104호
제이케이퍼니처	20140306	김윤수	경기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596
코리아에프티열린광장	20160115	김주승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섬바위길23
코모스	20020308	노민기	경기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 842-1
테크팩솔루션	19880404	정수환	경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885-16
파주전기초자	20110519	오유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95-35
파카코리아	19930401	최원규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1길 23
프라코	19880714	김기연	경기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679-24
필코전자	19870826	정덕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70
하나모듈	20020216	변주현	경기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07
한국기가포톤	20130405	유온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12 넥사이언 리더스타워 8층
한국체인	19870826	김호인	경기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7-11
한국키스톤발부	19880709	박명규	경기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56
해강알로이	20141219	임병욱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로 70
핸즈식스	20170501	윤영인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12
현대엘리베이터	19870814	김종우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1

3) 인천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1. 2.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75(구월동)

③ 전화번호 : (032) 437 8505 FAX : (032) 437 8504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오인상	삼성공업	2018.4.30
지도위원	김영국	머큐리	2018.4.30
지도위원	안경봉	서울엔지니어링	2018.4.30
상임부의장	김제곤	린나이코리아	2018.4.30
부의장	문재식	심팩	2018.4.30

부의장	박상규	동국제강	2018.4.30
부의장	김영철	후지테크코리아	2018.4.30
부의장	조주희	대한제당	2018.4.30
부의장	윤동현	스태츠칩팩코리아	2018.4.30
사무국장	류성룡	대동하이렉스	2018.4.30
회계감사	김수호	동부인천스틸	2018.4.30
회계감사	최인석	삼양감속기	2018.4.30

⑤ 인천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F.T	20020506	정운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95
대동시스템	19890711	김정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19
대동하이렉스	20030806	류성룡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78번길 43
대한제당	19690602	조주희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동국제강	19890220	박상규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15
동보	19870910	홍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646
동부인천스틸	19660429	김수호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789
다이후쿠코리아	20170407	김희종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8
린나이코리아	19890316	김제곤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77번길 48
머큐리	20001117	김영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삼성공업	19870810	오인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391
삼양감속기	20020715	최인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44
서연탑메탈	19880806	박득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40
서울엔지니어링	19870824	안경봉	인천광역시 남구 방축로 332
스태츠칩팩코리아	19980701	윤동현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191
신한다이아몬드공업	20120703	조명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375
심팩	19870818	문재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1
심팩인더스트리	20080704	강광식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24
심팩주물	20180208	박정승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64
우일정밀	19870824	양승조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89번길 5
인켈	19870919	하재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93
청우하이드로	19880510	고기선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166
한국지엠사무직	20160419	김현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일튜브	19930517	전영성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 17
핸즈코퍼레이션	20140401	최철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854
후지테크코리아	19870827	김영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51
희성금속	19870823	안병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17

4) 안산.시흥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7. 12. 16.

② 소재지 : 안산시 선부3동 1076-9 근로자복지관 3층

③ 전화번호 : (031) 410 8601 FAX : (031) 401 860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방운제	일 진 전 기	2016.02.02
부의장	허일욱	대 덕 전 자	2018.01.30
부의장	지해갑	진 영 공 업	2016.02.02
상임고문	김광호	대 덕 전 자	2016.02.02
상임고문	강영석	삼 보 오 토	2016.02.02
상임고문	윤석진	광 명 전 기	2016.02.02
자문위원	유원기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	2016.02.02
자문위원	장영기	PN풍년	2016.02.02
자문위원	정교태	포스코대우	2016.02.02
자문위원	이정환	흥진정공	2016.02.02
자문위원	김삼두	SL라이팅(안산)	2016.02.02
회계감사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2016.02.02
회계감사	황명찬	태양금속	2016.02.02.
사무국장	강상욱	비츠로	2016.02.02

⑤ 안산.시흥지역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PN풍년	19860831	장영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620
S.P일레맥	19891026	황경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정공길 2-15
TRW	19870107	강한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27
광명전기	19870815	윤석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교세라캐넥터	19990429	김진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16
남양공업	19950328	조제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50
대덕GDS	19871212	김광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3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대덕전자	19871228	허일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27
대동모벨시스템	20020426	한명선	경기도 시흥시 변영로 105
대풍공업	19780223	김동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96
동부전자소재	20170106	박용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56
동서기공	19890424	임동훈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52
동희산기	19910522	이흥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53
릭실Korea	19870822	노석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5
비츠로	19900821	강상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327
삼보오토	19880629	강영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195
서진산업	19760226	김진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6 (정왕동)
서진오토모티브	19910125	김진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13 (정왕동)
선도전기	19890306	김보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86
선창ITS		최준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118
세플러안산유한회사	19950513	강일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179
신화실업	19880502	최형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31
아이아	19890113	김광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87
에스엘라이팅안산	19880324	김삼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5
에스엘미러텍	20060928	김종훈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130
엔피씨몰텍	19950513	하신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289
영흥철강진	19880418	정영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54
우진공업	19890513	김영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8
위스코	19881018	이귀조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133-14
위어인터내셔널	20170809	김재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51
유텍솔루션	20091103	박권구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205
이수엑사보드	20150213	정정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274
일진전기(반월)	19870822	방운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21
진영공업	20061011	지해갑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80 (정왕동)
태양금속	19760526	황명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포레시아베기콘트롤시스템코리아	20030619	유원기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4길 11
포스코대우(안산)	20090930	정교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235
한샘	19800401	이성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변영2로 144

5) 대전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30.

②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4 번지

③ 전화번호 : (042) 488 9057 FAX : (042) 488 9058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이남철	(주)진합	2015.07.01
사무국장	윤익병	(주)남선기공	2015.07.01

⑤ 대전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남선기공	19740221	윤익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17
삼양패키징단위	20140331	박성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17번길 47
세아이앤티	19870107	정제종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67번길 40
알루코	19670306	진현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19번길 31
진합	19880126	이남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42

6) 충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5.06.01

② 소재지 :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근로복지회관 2층

③ 전화번호 : (041) 565 8001 FAX : (041) 565 900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덕순	두원공조	2016.05.26
수석부의장	양시준	동양철관	2016.05.26
부의장	이창수	애디언트코리아	2016.05.26
지도위원	강흥진	금속일반	2016.05.26

지도위원	고석희	오스템	2016.05.26
지도위원	최용웅	풍산FNS	2016.05.26
사무국장	강진연	대한전선	2016.05.26
회계감사	전성복	신원	2016.05.26
회계감사	정종명	오텍	2016.05.26

⑤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KB오토시스	19870915	강주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528-24
LS메탈	19551015	김병석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MEMCKOREA	19960327	임철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854
SL라이팅천안	19990429	김기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50
경신전선	19890910	채준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567
귀뚜라미범양냉방	19770804	김성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로 850
대륙제관	19870828	전해영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202번길 17
대양금속	20060220	민성기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계촌리)
대원전선	19870801	허 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92
대한전선	19720615	강진연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대호만로 870
덴스코리아오토모티브 흥성	19890308	박종화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구성남로 386
동부제철	19660429	김우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동양철관	19870826	양시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
동원금속아산공장	19970409	강춘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288-7
동일알루미늄	19950727	문상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60
동희오토협력업체	20110321	정성진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신당1로 105-1
두올아산	19990704	정난홍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11
두원공조	19870810	정덕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43
디젠스	19970414	김창규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 288-7
삼신	19870729	김학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138-11
새론오토모티브	19951016	장재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5길 133
새화신	20020314	김영일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68
서연오토비전노동조합	20150112	오제현	충남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2길 45
세명테크	20171204	노남진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91
승일	20121226	김지영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1길 10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승일테크	20180104	이승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85
신원	20010903	전성복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448
쌍신전자통신	19780426	정명식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507
아산성우하이텍	20051110	임갑병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613
애디언트코리아	19950925	이창수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로 45
오스텍	19970123	두병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739
오텍	20050914	정종명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1033-36
우영산업	19870829	김정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8길 1 (차암동)
인지AMT	20100420	나명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인팩	19890420	최중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6길 47 (업성동)
인팩혼시스템	19960812	이성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1길 7
전진CSM	19950508	윤정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365
지코	19870912	박인용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충남지역금속일반	20110720	강흥진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415번길 34
캐논코리아	19940626	최용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변영로 100 (불당동)
코리아신예	19890923	심만식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924
코리아휠	20000721	유인규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길 165
태성전장	20060315	박현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0
페더럴모굴	19710513	김길중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442-16
풍산FNS	20021111	최용웅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3
혜인	19870727	진지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5로 23 (차암동)
환영철강	19950117	이방섭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보덕포로 587
휴스틸	19800508	강경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131

7) 충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8. 12. 31.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

③ 전화번호 : (043) 267 1418 FAX : (043) 266 5088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장	이해관	LS산전	2016.1.29
지도위원	왕용호	한국야금	2016.1.29
부의장	윤영훈	두산전자	2017.1.20
부의장	강국모	SK하이닉스	2017.1.20
부의장	안교신	삼동	2018.1.30
부의장	정재연	국제종합기계	2018.1.30
부의장	엄기호	현대성우메탈	2018.1.30
사무국장	박대철	에스엠알코리아	2018.1.30
회계감사	손관수	백조씽크	2018.1.30
회계감사	박태우	현대모비스	2018.1.30

⑤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AND전자저울	19890222	박남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석로 191
LS산전	19870727	홍문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SK하이닉스청주	19900209	강국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갑을메탈	20061011	김광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소산단로 66
국제종합기계	19740201	정재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
극동전선	19870822	반영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금화소재	20151005	김근란	충북 충주시 주덕읍 중원산업로 158
넥상스코리아	19780219	최경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50
대림통상	19870813	이영득	충북 증평군 증평읍 증평산단로 23
대성썰틱에너지시스	19890419	이재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55-72
동성금속	19910309	손현식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산공단길 74
두산전자	19881015	윤영훈	충북 증평군 증평읍 두산로 40
로알테크	20041203	전태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매그나칩반도체	19870727	김영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215
백조씽크	19850218	손관수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353
삼동	19960809	안교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816-41
삼화전기	19900131	박종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 3
서울전선	20090917	조병선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새미실길45번길 98-12
선일다이파스	19880618	조경탁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14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성은	20130804	민경운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329
에넥스	19870810	김동용	충북 영동군 향간면 에넥스로 37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19871112	박대철	충북 청원군 옥산면 과학산업1로 170 오창과학단지 4-9블럭
에스피텍	20021202	최용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1로 38
엔텍	20110701	황을준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101
우지막코리아	20051125	김종하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67번길 5
인지컨트롤스	20091224	정찬이	충북 옥천군 이월면 이월농공로 70
일본전산리드코리아	20180222	이선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6번길 67
전진중공업	20100112	이석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64
지앤피	19870903	서진성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448 (목행동)
한국보그워너티에스	20010521	이상용	충북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251번길 19
한국야금	19910204	왕용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5
한국캠브리지필터	19900216	유호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86
한라스택폴	20081001	강현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101
한미전선	20130630	서지웅	충북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2028-37
헨켈코리아	20130620	연병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298
현대모비스	20000401	박태우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2길 95
현대성우메탈	20030211	엄기호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344 (용탄동)

8) 부산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29.

②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근로자종합복지관 6층

③ 전화번호 : (051) 861 4613 FAX : (051) 853 8770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	선출일자
의 장	황대선	대선조선	2010.02.02
지도위원	강진호	동국제강 부산지부	2002.12.13
지도위원	박병용	대창단조	1993.04.07
부의장	안병철	부산주공	2003.11.01
부의장	김근수	성우하이텍	1997.07.12

부의장	추진호	동희정공	1996.09.02
부의장	박대엽	YK스틸	2013.10.18
부의장	윤각열	대한제강	2016.02.01
부의장	윤성원	동국제강 신평지부	2003.12.08
부의장	정영수	오리엔탈정공	2009.09.04
부의장	황태연	강남	2006.01.01
부의장	문창수	대선조선	2008.03.01
사무국장	이재섭	부산주공	2008.01.23
회계감사	김휘중	고려용접봉	2015.02.14
회계감사	하두호	태광후지킨	2010.08.25
회계감사	하만옥	태양금속	2005.04.01

⑤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PSMC	20110819	원광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4길 16
SKF코리아	20070115	이상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183
TK-FUJIKIN	20080205	하두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1로88번길 7
YK Steel	19800226	박대엽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
강남	19780319	황태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로16번길 71
고려용접봉	19840617	김휘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63번길 70
대동스프링	20110101	옥용학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9
대선조선	19681203	하영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254
대창단조	19750510	박창혁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57
대창솔루션	19930831	이종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387-22
대한제강	19890420	윤각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69
동양제강	19870814	박영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147
동화엔텍	19870910	김영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1로63번길 20
동희정공	19870901	추진호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1길 41
부산선박목의장	19930325	이종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50번길 20
부산주공	19880420	안병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1길 54
삼공사	19870213	류국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17로 135
성광벤드	19751119	주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62로 26
성우하이텍	19880707	김근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오리엔탈정공	19900217	정영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6
제일전기	19770319	서종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55
태광	19760602	박근수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117-12
태양금속	19960523	하만옥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40 (장림동)
태원니들	19890406	조재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469번길 76
풍산홀딩스동래	20031116	신선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프라이그파이스트	20100930	허성택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7로 19
한국선재	19890508	강대후	부산광역시사상구새벽로45번길35
한국주철관	19800419	박정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525
한일스틸	19890718	정석금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48번길 53

9) 경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9일

②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81 노동복지회관4층

③ 전화번호 : (055) 284 4021 FAX : (055) 287 505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이상철	세아창원특수강	2017.03.02.
부의장	하영규	LG전자 창원2지부	2017.03.02.
부의장	심문보	한국정상화성	2017.03.02.
부의장	류재선	한국항공우주산업	2017.03.02.
부의장	김성종	에스텍	2017.03.02.
부의장	감규상	풍산홀딩스	2017.03.02.
부의장	손승일	세방전지	2017.03.02.
사무국장	김은겸	금속연맹경남본부	2017.03.02.
회계감사	김회봉	한국철강	2017.03.02.
회계감사	최영식	상농전선	2017.03.02.
회계감사	김대용	대동기어	2017.03.02.

⑤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GMB코리아	19881115	유재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18
KR모터스	19830326	백차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NEK	19960325	장원혁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서3길 18
STX중공업	19870810	장세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 (
고려용접봉(창원)	20180209	문경록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 (성주동)
고려특수선재	19870321	금명록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43 (유산동)
대동기어	19830424	김대용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42
대동정비	19891004	백운효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154 (상대동)
대명공업	19881124	김희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384
대성사	19760330	이권언	경상남도 양산시 대동로 53 (어곡동)
대신금속	19961126	김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346번길 10
대영소결금속	20080702	김남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13
대흥R&T	20171226	권정식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436번길 70-25
대흥산업	20061018	이동우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731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19890308	이희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630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19800515	김종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첨단산업로 3
두원중공업	19800114	정진용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해창길 20-7
삼성공조	19850404	변기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우KJS텍	20050115	김승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328
삼우금속	19800607	차재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53
삼한	19870813	윤삼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84
상농전선	19780828	최영식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6-1
세방전지	19760728	손승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22
세아창원특수강	19990730	이상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세원셀론텍	19881102	김성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1
세일공업	19880414	김길수	경남 진주시 대곡면 대화로 92
세플러코리아	19630225	전광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동로 90 (내동)
스타리온성철	20040625	남원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알코닉코리아	20020324	최해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48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에스텍	20040317	김성종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9길 22
영흥철강	20100511	김병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93
유니크	19880716	허영복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179번길 90
케이지이에프	20000322	유만봉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50
풍산홀딩스	19870811	감규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70
하나	20161108	김승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29
한국경남태양유전 통영공장	19870822	최경식	경상남도 통영시 서송정길 32
한국정상화성	19880704	심문보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5길 100
한국제강		조용갑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한국중천	19870811	최해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26
한국철강	19870810	김희봉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
한국코오베용접	20000617	주종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단지로 97
한국특수전지	20050310	황상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80
한국특수형강	20130118	홍연국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98
한국항공우주산업	20030922	류재선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일제관	19870817	박한규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1
한전금속	20180306	김지영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25

10) 울산.경주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9.09.01.

② 소재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 7

③ 전화번호 : (052) 276 5880 FAX : (052) 274 9631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남재환	노벨리스코리아울산	2015.12.02.
부의장겸 사무국장	문부근	동국실업	2016.01.13.
회계감사	박성걸	LS-Nikko동제련	2016.01.13.
회계감사	최용수	대경기계기술	2016.01.13

⑤ 울산경주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DIC	19850607	허문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8
KUM	20171205	장기현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농공길 17
LS-Nikko동제련	19830321	박성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148
NVH.KOREA	20010515	정대석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안길 44
고려아연	19771015	조대형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
국일인토틸	20030515	조정식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탑결길 17
대경기계기술	20080101	최용수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대주코레스	20141021	권대우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84-64
동국실업	19960628	문부근	울산광역시 북구 효자로 133 (연암동)
동희산업	19870812	노현돈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675 (황성동)
마이테크	20080221	장길용	울산광역시 남구 남도로 110 (여천동)
명화공업	19991115	노경택	울산광역시 남구 사평로 211 (부곡동)
영풍기계	20170228	유상업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길 165
울산알루미늄	19780803	허진구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393 (여천동)
조선선재온산공장	20020306	김영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 34-13
풍산	19870725	이준덕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11) 대구.경북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1. 1. 10.

②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③ 전화 번호 : (053) 570 7071 FAX : (053) 570 707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수환	한국파워트레인	2017.02.16
수석부의장	박철규	에스엘	2017.02.16
지도위원	신석곤	평화산업	2017.02.16
지도위원	김동준	평화발레오	2017.02.16
지도위원	권오탁	삼성제침	2017.02.16

부의장	권태훈	영진	2017.02.16
부의장	김기표	경창정공	2017.02.16
부의장	김세흥	삼익정공	2017.02.16
부의장	김해용	화신	2017.02.16
부의장	이기남	이수페타시스	2017.02.16
부의장겸사무국장	황성원	대철	2017.02.16
회계감사	배광수	구영테크	2017.02.16.
회계감사	이상기	남양금속	2017.02.16.

⑤ 대구·경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AST	20071204	윤재욱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2길 182
HSL일렉트로닉스	20050831	이종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
KBWS	20151215	이선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3길 10
THN	19890227	김태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71길 43
건화트렐러보그	20020223	김태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5길 33
경창산업	19850720	김성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5길 6 (월암동)
경창정공	19880909	김기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58 (장동)
구영테크	20070117	배광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9길 119
금융기계	19900324	이상만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57
남선	20030425	손성호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효령공단길 14-5
남선알미늄	19680825	최화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남양금속	19881109	이상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20
대리정밀	19880714	방상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117길 2
대철	19700226	황성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36안길 5
대한소결금속	19881021	김효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43
대호에이엘	20021002	남기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동원파이프	19890315	김정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길 28 (이현동)
모토닉	19871021	김상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30 (신당동)
산도브레이크	19910410	윤장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438
산도테크	19910410	남영찬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1길 7
삼성제침	19910527	권오탁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56
삼익THK	19870818	박기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163 (월암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삼익정공	19890816	김세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39
상신정공	20131024	신 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71-9
성진포머	20170331	이상식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9 (호산동)
세명기업	19750619	조인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20
세왕금속	19870827	양명선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1길 209
세원물산	19870828	손광희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도남동)
세원이엔아이	20011026	예병진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53 (도남동)
세원정공	20011025	이정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4 (신당동)
신영	19841026	박남규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공단길 39 (본촌동)
아세아텍	19870615	권영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96길 11
아진산업	19810721	김경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171
에스엘	19680618	박철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6로 77
에스엘라이팅	19910410	김채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 (검단동)
에스엠텍	20130803	김성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240
영진	19851115	권태훈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53 (채신동)
이수페타시스	19890420	이기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53길 36
일지테크	19890201	나영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50
전우정밀	20140421	박종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 24
체시스	19920618	최상수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28
카펙발레오	19731130	김수환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호산동)
케이디에스	20030127	서정구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8로26길 35
타이코AMP	19891101	박기성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68
평화CMB	20110413	박영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9
평화ENG	20110531	안병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11
평화기공	20110408	박병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95
평화발레오	19890128	김동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36 (장동)
평화산업	19750410	신석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97
평화오일셀	19781014	이상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1길 42
평화정공	19880920	허도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점단로 392
피엔디티	20140501	윤광열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 92 (채신동)
한국뎃와일러	20141119	박응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5길 26
한국신동공업	19920610	조영혁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87길 16
화신	19880504	김해용	경상북도 영천시 연하공단1길 14 (연하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화신정공	20020425	이광우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96 (도남동)
화신테크	19880429	이희찬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
효림산업	19990409	장병관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전지공단길 22-9

12) 구미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3. 11. 15.

② 소재지 : 구미시 공단동 262 2 번지

③ 전화번호 : (054) 465 3643 FAX : (054) 464 3643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 출 일 자
의장	배준호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	2016.07.13.
부의장	김상일	새로닉스	2016.07.13.
사무국장	정동민	노틸러스효성	2016.07.13.
회계감사	이문희	클레스트라하우저만	2016.07.13

⑤ 구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KEC	20110701	이준한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41 (공단동)
LG이노텍	19870814	김동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LIG넥스원	19870817	신현범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354-25)
SK실트론	19890105	한창욱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132-11
노벨리스코리아	19950715	권국진	경상북도 영주시 적서공단로 23 (적서동)
노틸러스효성	20100805	정동민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15
새로닉스	19740611	김상일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9길 36 (공단동)
엘링크링거	20141001	복명진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10길 23-7
영풍석포제련소	19770131	강철희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
일성기계공업	19820903	손진명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7길 58-27
존슨컨트롤즈델코배터리	19870819	김상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황상동)
클레스트라하우저만	19890224	이문희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0 (황상동)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태평양금속	19880726	김수문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92 (공단동)

13) 포항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91. 11. 23.

②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근로자복지관 204호

③ 전화번호 : (054) 283 3728 FAX : (054) 283 3729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 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정상준	TCC한진	2018.01.17
사무국장	최호창	에어릭스	2018.01.17
회계감사	조영철	대동산업	2018.01.17
회계감사	정춘식	흥화	2018.01.17

⑤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TCC한진	19830402	정상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그린산업	19880701	장호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동로 13-2
대동산업	20090213	조영철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115
대호P&C포항공장	19890701	박규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44 (호동)
동일기업	19880704	이기목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4 (대도동) 3층
동일산업 봉강사업부	20170904	강준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11 (장흥동)
동일산업 합금철사업부	19960321	공재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12 (장흥동)
동주산업	20061114	김삼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61
동화기업	19890324	김하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25번길 6
디케이동신	20001228	황영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54 (괴동동)
선화이엔지	20090121	진선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문예로 100 3층
성원제강	20000430	김관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 206 (호동)
세아제강	19740311	이종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136 (장흥동)
세아특수강	19890321	박순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장흥동)
썬라이트	20040821	남현진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83-12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아진카인텍	20111128	권병욱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갯벌길 148-6
에어릭스	19910130	최호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10
영신정공	19890421	장복이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오야길 156
유일	20000408	이수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62번길 4-1
장원	20070521	김영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985 (해동동)
제일테크노스	19890808	김성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39번길 7
조선선재	19881210	조석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3 (장흥동)
코스틸	19880424	정삼복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35 (호동)
피씨엠	20050127	서영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26 (대도동)
한금	19901205	이성용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산단로 240
현대성우캐스팅	19890610	정천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459 (장흥동)
현대종합금속	19870819	김동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0 (장흥동)
흥화	19870825	정춘식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209 (괴동동)

14) 광주.전남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1980. 12. 30.

②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94-7 임동근로자복지관2층

③ 전화번호 : (062) 381 8581 FAX : (062) 381 8672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최정열	동부대우전자민주	2016.11.01
부의장	이주행	한국신광전자	2016.11.01
사무국장	정관	대우에이텍	2016.11.01
회계감사	이재천	D.S.R제강	2016.11.01
회계감사	김현철	서진산업	2016.11.01

⑤ 광주.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DSR제강	19850617	이재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15
SNNC	20171025	백성완	전남 광양시 중마용소6길 9 (중동)
건우	19960529	조인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240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대경기계기술여수	20120831	정태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43 (월하동)
대우전자	19830402	김광섭	광주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대유에이텍	20001214	정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 40-12
대유홀딩스	20160811	권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길40-15
동부대우전자민주	20110704	노동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59 (장덕동)
부국산업	19881101	김재호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금호동)
서암기계	19990708	김수복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27-15
선우ENG	20171010	신정수	전남 광양시 금호로 396
성암산업	19881123	박옥경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1 (태인동)
세방산업	20060306	박거영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36 (하남동)
세아M&S	20091012	박상복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188 (화치동)
아름기공	19870811	정홍원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8
여수해양	20090311	문상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추길 54
캠스	20020406	김홍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30
코아월드	20131217	장준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코아정밀	20131217	조영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47
포스코엠텍	19890208	이현길	전라남도 광양시 희망길 12-14 (금호동) 제철협력회관 4F B동
포스코플랜텍	20030805	정정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4길 2 (태인동)
한국신광전자	19891127	이주행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1길 32

15) 전북지역본부

- ① 설립년월일 : 1996. 4. 10.
- ②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북동 3601-3
- ③ 전화번호 : (063) 465-4875 FAX : (063) 465-4876
- ④ 임원명단

직위	성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김태완	세아베스틸	2016.08.01.
부의장	박정옥	캐스코	2016.08.01.
사무국장	김학송	대유글로벌	2016.08.01.
회계감사	한근배	두산전자익산지부	2016.08.01.
회계감사	김호연	가온전선전주지부	2016.08.01.

⑤ 전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대우전자부품	19750516	이중찬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2길 3 (망제동)
대유글로벌	19991101	김학송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4로 133
동양정공	20010223	남석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8로 66
세아베스틸	19660506	김태완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22 (소룡동)
아이에스테크	20011202	이석산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06-22 (소룡동)
엘에스엠트론	20080701	어진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86
일진제강민주	20160103	이민영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46
캐스코	20050816	박정옥	전라북도 정읍시 복면 3산단1길 24

16) 강원지역본부

① 설립년월일 : 2003. 2. 20

②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11-6 공업단지 한일전기 내

③ 전화번호 : (033) 744-6658 FAX : (033) 746-4120

④ 임원명단

직위	성 명	소속노동조합명	선출일자
의장	석승희	한일전기	2016.09.
부의장	이종상	토다이수	2015.02.
사무국장	엄태욱	오토리브	2017.10.
회계감사	김영동	신일정밀	2016.01.

⑤ 강원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속초지역	19700126	전용원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201 (교동)
신일정밀	20001213	김영동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82 (입암동)
오토리브	19920315	엄태욱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02
토다이수	19930714	이종상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36
한일전기	19751021	석승희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10 (우산동)

나. 지부현황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LG전자 구미지부	20020202	유정종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77 (공단동)
LG전자 창원1지부	19630505	임채현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 170
LG전자 창원2지부	19880122	하영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84
LG전자 청주지부	19980701	김태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971번길 93
LG전자 평택1지부	19630530	김 영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LG전자 평택2지부	19980123	윤영식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
LGDisplay 구미지부	20050701	채근옥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235
가온전선 전주지부	20050223	김호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귀로 77
세아FS 광주지부	19960322	안태술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126
신한일전기 인천지부		김영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483
테크팩솔루션 광주지부	20140130	김용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736
프라코 아산지부	19980327	염동영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30번길 55
대한제당 울산지부	19900213	형환우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457 (용잠동)
동국제강 당진지부	20120101	김성곤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길 25
동국제강 부산지부	19770212	박성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02 (감만동)
동국제강 신평지부	19901017	윤성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76
동국제강 포항지부	19901017	하상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서진산업 경주지부	20010501	김진동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2산단로90
서진산업 광주지부	19990626	김현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121
서진산업 화성지부	19910710	안광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54
대한전선 기기&시공지부	19760615	정지래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542
대한전선 전선지부	19760615	강진연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대호만로 870
동양철관 충주지부	19910126	황동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415 (
우영산업 광주지부	20160801	공지순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64
휴스틸 대불지부		강병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150
LS산전 천안지부	19870727	이신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4길 56
두산전자 김천지부	20090901	정갑성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83-16
두산전자 익산지부	19870820	한근배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팔봉동)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	19900209	배준호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375
케이유엠충주지부	20171127	이상호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2로 47

조직명	설립일자	대표자	주 소
현대모비스 용인지부	20090301	김순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0번길 17-2
한국주철관 포항지부	19890117	강종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86
세방전지 광주지부	19891216	차종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
세플러코리아 전주지부	19890320	신동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7
한일제관 대전지부	20060817	최진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448번길 50
한일제관 음성지부	19870817	안재근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84
명화공업 안산지부	19970228	백선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5
풍산 동래지부	19881205	박동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30
풍산 안강지부	19870725	안효진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606-10
풍산 울산지부	19870725	신재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94
풍산 특금지부	19870816	박용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157
LG이노텍 광주지부	20040701	감동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26
LG이노텍 구미지부	19870814	김동의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221
LG이노텍 오산지부	19710514	장대식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97 (가수동)
LG이노텍 청주지부	19630530	안병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971번길 93
LG이노텍 파주지부	20090701	김하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휴암로 570
한금 양산지부	19901231	박기원	경상남도 양산시 어실로 89 (유산동)

다. 신규조직 현황

번호	본부	조직명	대표자	설립일자	주 소
1	대경	성진포머스	이상식	2017.04.07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9 (호산동)
2	인천	다이후코리아	김희종	2017.05.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75번길 8
3	경남	한국특수전지	황상문	2017.06.2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80 (성주동)
4	경남	한국제강	조용갑	2017.08.21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유현리, 한국제강(주))
5	경기	헨츠시스	윤영인	2017.08.21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6길 12 (쌍송리)
6	인천	심팩인더스트리	강광식	2017.09.14	인천 서구 건지로 124 (가좌동)
7	안산	위어인터내셔널	김재구	2017.09.18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51
8	광전	선우ENG	신정수	2017.10.13	전남 광양시 금호로 396 (금호동, 보건지원센터)
9	포항	동일산업봉강사업부	강준영	2017.11.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11 (장흥동)
10	광전	SNNC	백성완	2017.11.10	전남 광양시 중마용소6길 9 (중동)
11	경기	일진전기전선사업부	지남용	2017.12.04	경기 화성시 만년로 905-64 (안녕동, 일진산전)
12	충남	대양금속	민성기	2017.12.05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46-8 (계촌리)

13	울경	KUM	장기현	2017.12.05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농공길 17 (양등리, KUM)
14	충남	세명테크	노남진	2017.12.15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91
15	경기	전기초자코리아	박영호	2018.01.29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1675-29
16	충남	승일테크	이승찬	2018.01.29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185
17	충남	서연오토비전	오제현	2018.02.19	충남 당진시 합덕읍 거섬들2길 45
18	경남	고려용접봉	문경록	2018.02.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704 (성주동)
19	울경	대주코레스	권대우	2018.02.23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84-64
20	경남	대흥R&T	권정식	2018.02.26	경남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436번길 70-25
21	경남	한전금속	김지영	2018.03.08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43번길 25 (남양동)
22	인천	심팩주물	박정승	2018.03.08	인천 서구 가좌로 64 (가좌동)

라. 대표자변경 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서울지역				
롯데알미늄	오성원	이병규	17.12	위원장선거
KC코트렐	최경배	전상근	17.12	위원장선거
경기지역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화성	유성준	진선율	18.03.05	정기대회
서진캠	정지덕	이의형	18.04	정기대회
인천지역				
한일튜브	전영성	김근식	17.05.	위원장선거
에이에프티	정운일	전필식	17.05	위원장선거
희성금속	안병섭	이재성	17.08	위원장선거
청우하이드로	고기선	이명선	17.12	위원장선거
심팩인더스트리	강광식	박정승	18.02	위원장선거
안산시흥지역				
영흥철강진	정영규	박용국	18.01.01	정기대회
충남지역				
휴스틸	강경호	노승규	17.12.01	정기대회
충북지역				
극동전선	반영진	박재희	17.08.23	정기총회
매그나칩반도체	김영일	조항수	17.08.01	정기대회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에넥스	김동용	정운석	17.08.10	정기총회
우지막코리아	김종하	이종필	17.11.23	정기총회
부산지역				
대창단조	박창혁	류강술	18.03.30	임시총회
동양제강	박영철	이용식	17.10.27	대의원대회
동화엔텍	김영만	김재술	17.10.27	대의원대회
부산선박목의장	이종용	추판정	18.01.04	대의원대회
성광벤드	주영수	조용석	17.11.10	대의원대회
태광	박근수	정광호	17.11.10	대의원대회
한국주철관	박정철	심상완	17.01.10	대의원대회
경남지역				
알코닉코리아	최해수	지상천	17.11.09	위원장선거
한일제관	박한규	박영갑	17.11.10	위원장선거
세플러코리아	전광배	장준영	17.12.15	위원장선거
대명공업	김희식	김용식	17.11.29	위원장선거
세일공업	김길수	조경옥	17.12.05	위원장선거
울산경주지역				
울산알루미늄	허진구	성용만	180301	정기대회
대구경북지역				
평화ENG	안병규	황명규	17.05	정기총회
세왕금속	양명선	이세형	17.06	임시총회
신영	박남규	이종덕	17.08	정기총회
THN	김태수	정한근	18.01	임시총회
KDS	서정구	전희곤	18.01	임시총회
대호에이엘	남기덕	도명석	18.02	임시총회
포항지역				
동일기업 노동조합	이기목	장문식	18.03	위원장선거
동화기업 노동조합	김하식	천정근	18.01.011	위원장선거
유일 노동조합	이수출	최영태	8.04.01	위원장선거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명	대 표 자		대표자 변경일자	대회 구분
	신	구		
건우	조인관	장경완	17.07.01	위원장선거
포스코엠텍	이현길	이정승	18.02	위원장선거

마. 해산 및 이탈조직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탈퇴일자	이탈사유	조합원수
인천지역				
대우전자	김광섭	2018.01.01	광주전남 이전	200
삼호제강	문명호	2017.05	의무금미납제명	60
충남지역				
한국하니웰	김상규	2017.07	노동조합해산	30
부산지역				
엔에스브이	권무현	2017.11	노동조합해산	73
경남지역				
센트랄	조유환	2017.12	기업노조합병	57
대구경북지역				
대동금속	김홍모	2018.01	한국노총탈퇴(민.노)	75
포항지역				
성광	김수원	2017.06	노동조합해산	23
영일기업	정성훈	2017.12	노동조합해산	180

바. 연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2018.3. 현재)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직체수		477	473	480	466	438	430	486	488	484	483	496
조합원 수	남	81,543	79,134	79,804	80,405	85,758	90,824	96,761	101,008	100,300	102,506	104,329
	여	26,663	24,295	27,093	26,399	22,420	17,556	30,622	26,088	30,460	30,582	30,950
	계	108,206	103,429	106,897	106,804	108,178	108,380	127,383	127,096	128,905	133,044	135,279
조합원증감		-6,713	-4,777	+3,468	-93	1,374	202	19,003	-287	+1,809	+4,139	+2,235
조직체증감		-4	-6	+7	-14	-28	-8	+56	+2	-4	-1	+13

사. 조직확대 우수본부상 수여

단위노조와 연맹의 허리 역할을 하며, 조직확대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본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노동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전국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우수본부상을 수여.

우수본부상 수여기준의 가장 큰 핵심은 신규노조 설립이다. 신규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함으로써 노동조합 본연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1) 지역본부에 수여되는 우수 본부상 평가기준

- 지역본부별 신규가입과 소멸조직수를 통계
- 지역본부별 신규가입조합원과 소멸조직의 조합원 통계
- 신규와 소멸조직 **통계수**에 아래의 점수를 부여
- 3년 통계하여 계산
 - 신규가입후 의무금 납입(5점)
 - 상급단체변경후 가입(5점)
 - 신규가입후 의무금납입 안 함(3점)
 - 재가입(3점)
 - 복수노조로 신규가입(2점)

(2) 연도별 조직 확대 우수본부상 수상내역

년 도	지역본부명	평가점	비 고
2016년	충북	25	
2017년	서울	32	

2. 2018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1) 2018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개요

- 일시: 2018년 2월 28일(화) 13시 30분
-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 홀(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 안건: 2017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7년도 결산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2018년도 예산(안) 심의
2018년 핵심사업과 조직화 사업체계(안) 심의·의결
200만 한국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과 실천(안) 심의·의결
규약 개정(안) 심의·의결
부위원장 선출 심의·의결
중앙위원 선출 심의·의결

2) 대회결과

- 2017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2017년도 결산보고
- 2018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원안통과
-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원안통과
- 2018년 핵심사업과 조직화 사업체계(안) 심의, 원안통과
- 200만 한국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과 실천(안) 심의, 원안통과
- 규약 개정(안) 심의, 원안통과
- 부위원장 선출 심의, 원안통과
- 중앙위원 선출 심의, 원안통과

3) 대회사

한국노총의 희망,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사업과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오늘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않는 애정으로 한국노총 곁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과 노총 선배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이땅에 이천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이 꿈꾸어왔던 위대한 국민 주권의 가치실현과 민주주의 회복, 적폐청산은 해를 넘겨 그 실험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탄핵과 조기대선, 새정부 출범 등 국민승리의 감격을 맛보았지만 한국사회 대전환의 시계는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을 여는 먼동이 트기 전입니다.

2018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난 저울을 교체하여 노사관계에 있어 자본에 쏠린 힘의 균형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 백만 조합원의 힘으로, 대의원 동지들의 투지로, 우리가 꿈꾸어온 노동 존중사회를 노동자의 손으로 만든다는 굳은 결의를 다져야 할 자리가 바로 오늘 대의원대회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노동세상의 신호탄을 힘차게 올립시다.

존경하는 대의원동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맙고 든든합니다.

자랑스런 대의원 동지 여러분!

노조조직률 10%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조직확대와 조직강화는 노동운동과 2018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한국노총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정규직 전환, 중간노조, 미조직, 청년 조직화 등 전략조직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모든 체계를 조직화 사업 수행에 맞추겠습니다.

현장과 산별, 지역의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여 2018년을 200만 한국노총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냅시다.

일주일은 7일이고 휴일노동을 하게되면 일 더하기 일이 이가 되듯이 중복할증 보장은 상식이자,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운수서비스 등에서 장시간노동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노동 시간 특례는 즉각 제외되어야 합니다.

건설노동자 보호 입법 역시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위법, 탈법, 편법 꼼수를 바로잡고, 국민적 요구이자 시

대정신인 최저임금 1만원시대는 반드시 지켜져 노동중심의 임금주도성장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작년 9월에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고, 새해 비로소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어렵사리 트였습니다. 사회적대화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조세, 교육 등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타임오프 개선, 노조할 권리보장 등 의미있고 손쉬운 의제부터 사회적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2019년 4월 임시정부수립 100년, ILO창립 100년에 맞춰 한국사회 대전환과 노동존중사회의 문을 열어내겠습니다.

저성장 고용불안의 시대에 눈앞에 다가온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4.0 위원회’를 만들어 노동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30년이 넘는 낡은 헌법을 촛불시민 정신이 올곧이 담긴 노동헌법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불어 6월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부터 노동존중 지방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은 달라도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노총을 중심으로 통일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노동존중사회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정권을 교체한 한국노총의 저력은 2018년에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의 결의와 실천이 밑알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저 김주영, 1년 전 취임하면서 했던 약속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속으로, 동지들 곁으로 찾아 가겠습니다. 노동의 미래, 노동의 희망을 위해 전진합시다. 동지들이 바로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주영

4) 결의문

촛불 투쟁을 통해 우리의 손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새롭게 시작된 정부의 첫 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2대 지침이 폐기되었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추진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보아나온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는 매우 더디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롭다.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 돌연사가 속출하고,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포항 TCC한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운수노동자, 병원노동자 등 무한노동에 노출된 특례업종도 마찬가지다.

산업의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노동이 없다. 기술진보와 신성장전략으로 막대한 정부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결국 노동의 문제는 우리의 결의와 실천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자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동자의 단결만이 노동자를 살릴 것이다. 노동자의 연대만이 노동조직을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는 뼈에 아로새기는 결의와 결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1만시대 실현과 산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 분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100만 노총의 힘을 집중하여 현장과 산별, 지역, 노총의 조직적 역량을 모아 200만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조직화, 중간노조 가입 확대, 내사업장 노동자 100% 노조가입과 연대교섭, 공동투쟁, 연대기금 조성을 실천하여 노조 조직률15%, 200만 노총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18년 2월 28일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3. 투쟁사업장 현황

가. 썬코어

(1) 노조개요

- 명칭 : 썬코어노동조합
- 대표자명 : 김주훈
- 조합원수 : 19명
- 지역본부 : 경기본부

(2) 주요쟁점

- 썬코어 자구방안 긍정적 검토 및 채권 NPL업체 매각 중지
- 산업은행 주도로 기업회생 진행(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등)
- 노동자 일자리 보존을 위한 자금 지원

(3) 진행상황

- 16.11.03 (주)썬코어 최규선 대표이사 구속 / 구속사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 17.03.27 한국노총, 썬코어노동조합, 약탈경제반대행동 간담회
- 17.04.25 공동설명서 발표 "기업사냥꾼 최규선의 기업 경영권을 박탈하라"
- 17.05/16 최규선 엄벌촉구 기자회견(서울지방법원 앞)
- 17.05.25 최규선과 사우디왕자의 관계규명 촉구 기자회견(사우디대사관 앞)
- 17.05.29 사우디대사 면담(참석 : 한국노총 이성경사무총장,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 썬코어 문봉인위원장)
- 17.06.15 최규선 피해기업 경영전상화 및 노동자 고용생존대책 촉구기자회견 / 국회정론관
- 17.07.07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산업은행 앞 1차 집회
- 17.07.12 최규선대책위 긴급회의(이유 : 썬텍 용역 침탈)
- 17.08.07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최규선 고발 / 서울남부검찰청앞 기자회견

회견

- 17.08.09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산업은행 앞 2차 집회
- 17.08.17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청와대 분수대앞 기자회견 및 호소문 전달
- 17.08.24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산업은행 김명욱 팀장 면담
- 17.08.24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산업은행 앞 수요집회 시작
- 17.10.10 산업은행, 썬코어 채권 매각 결정 통보
- 17.10.18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산업은행 규탄 결의대회 및 천막농성장 설치
- 17.10.23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국회 국감장 앞 산업은행 규탄 피켓시위
- 17.11.02 한국노총 김준영위원장 및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면담 및 썬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 17.11.06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대위,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면담
- 18.01.05 더민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 18.01.17 더민주당 노동위원회 및 이용득의원실 면담
- 18.01.19 항소심, 최규선 징역9년에 벌금10억원을 선고
- 18.02.27 인가적 M&A형 기업회생절차 신청
- 18.03.21 기업회생 개시결정
- 18.04.13 썬코어 생존권 사수투쟁 1차 보고대회 실시 및 천막 철수

(4) 현 상황

- 현재 재고 정리 및 공장 가동을 통한 정상화 추진 중

나. 한국특수형강

(1) 노조개요

- 노조명 : 한국특수형강노동조합
- 대표자 : 홍연국

- 조합원수 : 190명
- 지역본부 : 경남본부

(2) 주요쟁점

- 2017년도 임단협 체결

(3) 진행상황

- 17.06.09 교섭위원 인사 및 실무자 교섭일정 결정, 2017년도 임금요구안 (7.7%) 및 단체협약 갱신안 노측설명, 노측 요구안에 대해 회사측 추후 검토 후 제시하기로 함, 2017년 임단협 성실히 임할 것을 합의
- 17.06.19 임금인상에 대한 회사의 안을 수치로 보여주라 함, 단체협약 제3조 유니온샵 요구, 사측 답변하기 어렵다고 함
- 17.06.28 노조 임금인상 요구, 회사 답변 없음
- 17.07.11 노조 임금인상 요구,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 고려하여 풀자(상여금 기본급화)
- 17.07.14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
- 17.07.26 정인원 총원에 대한 논의
- 17.08.01 노조 비용발생하지 않는 단협안부터 협의하자 요구, 회사의 힘든 상황 설명, 휴가비 합의
- 17.08.09 임금인상 요구와 단협사항 풀어가자, 개개의 요구보다 전체적인 방법을 찾자
- 17.08.11 회사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주장, 노조 보존시간 기본급화 등으로 상여금의 수령 금액 변동없이 상여금 기본급화를 논의 요구
- 17.08.17 노조 군병력수당 및 안전에 대해 문제제기, 회사 재논의 하기로 함
- 17.08.22 노조 임금인상이 우선이며 회사의 안 제시 요구, 회사 현재 자금의 여유가 없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자고 함
- 17.08.31 회사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노조 현시점에서 해결하기 힘들고 단협 신설부분 논의하자고 함
- 17.09.13 회사 임금결정은 회사단독으로 힘들며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최저임금 문제해결을 위해 상여금 시급화를 하였으면 함. 노조 최저임금 해결 자리

가 아니며 임금에 대한 안을 제시 요구

- 17.09.18 회사 최저임금 해결을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로 최저임금을 해결하면서 임금문제 해결 요구, 노조 임금인상이 우선이며 상여금 기본급화는 들어주기 힘들
- 17.09.28 회사 상여금 기본급화가 되어야만 임금인상 고려, 노조 상여금 기본급화는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한 힘들
- 17.10.13 전반적인 임단협 사항 논의
- 17.10.25 노조 임금인상과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회사 상여금 기본급화와 같이 임금인상 논의하고 다른 사항은 계속 논의하자고 함
- 17.01.03 노조 3년의 임금동결로 임금인상이 절실함,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임금인상 만은 힘들
- 17.11.17 회사 연말 변제금액도 준비되지 않아 임금인상만은 어렵고 상여금 기본급화와 같이 해결하자고 주장, 노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상여금 기본급화는 반대하고 있다 상여금 기본급화는 어려움
- 17.11.24 노조 오랜기간 동안 협상한 결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조합은 상부단체에 협상을 위임하겠다고 함, 회사 상여금 기본급화가 선행되면 임금인상을 해줄수 있음
- 17.12.08 임금과 임금성 단협 사항은 후에 하기로 하고 단협사항부터 논의하기로 함, 단협사항 3개항 합의
- 17.12.20 노조 회사측 임금인상안은 있는지 물음, 회사 최저임금 관련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면서 임금 등 논의하자고 함
- 17.12.21 단협사항 2개항 합의, 노사양측 2개항 철회, 2017년 임단협 회사 제시안 철회 함
- 18.01.09 11차 교섭 이후 사측 동향 논의, 사측 부산지방법원 방문 판사 면담 : 판사가 회사 사정 등 소명 요청, 12차 교섭 방식 논의, 단협안 검토 후 임금안 검토, 향후 교섭 전략 논의, 법원 압박에 따른 사측 전략 변경있는지 확인 후 대응
- 18.01.10 회사 단협은 가능하면 임금 관련 일부만 개정하고 임금 협약 논의하고자 하는 의도 가지고 있음, 단협 내용 검토했지만 한 조항도 합의하지 못 함, 노조, 차기 교섭까지 새로운 검토안 제시 요구
- 18.01.17 노조 단협사항 회사측 제시안 물음, 회사 단협 1개항 수용 및 1개항 수

정 제시 함

- 18.01.18 노조 협상의지는 있는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음, 회사 기업회생중에서 임금 및 단협부분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법원에서 조사위원 파견하는데 계속기업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함
- 18.02.13 노조는 기본급 인상, 사측은 상여금 기본급화를 전제로 한 임금 인상 주장, 노사간 주장불일치로 인한 중노위 조정불가로 취하 처리,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0년차 정도까지 임금 차이가 없어지는 바, 호봉조정을 전제로 한 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사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노사간 임금 관련 전반 추가 교섭 후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예정

(4) 향후계획

- 2017년 임단협 체결
- 장세현 사장(오너) 미참석시 조정 신청, 부산지방법원 압박 등 진행

다. SNNC

(1) 노조개요

- 명칭 : SNNC노동조합
- 대표자명 : 백성완
- 조합원수 : 50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본부

(2) 주요쟁점

- 노조 설립에 따른 사측의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 신규 임단협 체결

(3) 진행상황

- 17.10.25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 설립신고 뒤 집행부 압박과 회유 시작, 퇴근 후 집행부 집으로 찾아와 노조 설립 취소하라고 회유, 집 현관문 두드리고 벨 누르고 지속적으로 전화, 부공장장들에게 지시, 조합원들 편한 곳으로 불러서 탈퇴 설득, 부위원장(근무지이탈,근무태만)과 교육부장(허위사실유포) 징계, 교육부장, 26일간 13장의 경위서 제출

- 17.12.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사무국장, 근무지 사무실로 전환배치 및 CCTV 설치 후 감시, 노동조합 소식지 카톡 등으로 홍보하자 다음날부터 근무 시작 전 현장직 핸드폰 수거, 근무지에서 볼 수 없도록 조치
- 17.12.05 2018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 상견례, 노동조합이 교섭원칙과 방향, 우선합의사항 제시, SNNC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교섭 위임, 사측은 SNNC노동조합 집행부가 직접 교섭할 것 요구하며 교섭 해태 중,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광양제철소 제4문과 SNNC 공장 앞 도로에 집회 신고 -> 천막투쟁
- 18.01.03 SNNC 3차조정, 15일간 집중교섭, 집중교섭 기간 동안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타임오프 인정, 나머지 교섭 2인의 교섭위원은 상주근무(09:00~15:00)에 준해서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 취하
- 18.01.09 1차 집중교섭, 단협 제안설명, 사장 및 전무 인사명령, 사측 1/18로 교섭 일정 연기 요청
- 18.01.15 대표이사과 교섭담당 임원교체, 교체 이후 조직적으로 각 반별 개별면담 재실시, 노동조합원 여부 확인 및 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
- 18.01.18 제1차 단체교섭에서 제출한 노조측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측 대응안 제시 및 설명, 노사 양측 요구안에 대해 조문별 교섭
- 18.01.30 지속 교섭하였으나 타임오프 등 중요사안 이견으로 교섭 결렬
- 18.02.05 1차 조정에서 타임오프,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합의
- 18.02.09 1차 합의에서 누락된 체크오프 합의
- 18.02.27~18.03.29 3회차 실무교섭 진행. 미합의 55개항 중 36개 합의
- 18.04.03 교육부장 개인평가 조정 요구. 본 교섭 미합의 55개항 중에서 36개항 합의, 실무교섭 합의 조문 검토, 현 19개 조항 미합의, 향후 교섭 방법 협의
- 18.04.03~04.11 총 3회차 실무교섭
- 18.04.20 미합의 10개항 자회사 수준에서 합의 요구했으나 사측 거부로 조정 신청 예정

(4) 향후계획

- 단체협약 중 미합의 조합 실무교섭
- 연맹 교섭 참석 지원

- 미합의시 조정 신청

라. 성암산업

(1) 노조개요

- 명칭 : 성암산업노동조합
- 대표자명 : 박옥경
- 조합원수 : 150명
- 지역본부 : 광주·전남본부

(2) 주요쟁점

- 임금인상 및 격려금 지급
- 분사없는 100% 고용과 임금 및 복지 보장

(3) 진행상황

- 17.11 노동조합, 사측의 매각 시도 인지
- 17.12.26 사측, 작업권 포스코에 반납
- 17.12.27 임금교섭 결렬선언(교섭기간 11/21~12/27 10차 본교섭)
- 17.12.28 조정신청
- 18.01.04 광주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결렬)
- 18.01.05 쟁의찬반투표(찬성 155명, 반대 27)
- 18.01.08 광주지방노동위원회 2차조정(조정중지결정), 임금 및 격려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격한 의견차
- 18.01.09 야외철야농성장 설치
- 18.01.25 가두행진 및 광양제철소 본부 앞 집회, 식발식
- 18.02.05 성암산업 사측 임금인상 및 격려금 지급 합의, 포스코 분사없는 100% 고용유지 합의

(4) 쟁점사항

- 사측은 작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최종 통보하였음을 조합원들에

게 공지하였으나, 포스코는 상도례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작업권을 종국적으로 포스코에 반납했는지 여부, 성암산업의 자산 등 포스코와의 거래 조건은 무엇인지 등 성암산업 사측과 포스코 양쪽 모두 어떤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사측과 포스코 양측 모두 사업권 반납에 따른 후속절차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성암산업은 도지정 업체로 선정돼 포스코 운송 관련 작업을 하는 포스코 외주사로 2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매출이 3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
- 성암산업은 지난 2015년 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거액을 배당하고, 계열사에 자금 대여, 결국 2016년도 적자 발생
- 또한 퇴직금 78억원을 사외 예치하지 않음이 밝혀짐.
- 이후 성암산업 신준수 회장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
- 이후 작업권을 포스코에 반납하겠다는 의사 전달
- 성암산업 최대주주 신준수 회장은 노동자들을 볼모로 포스코와 모종의 거래를 도모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전 유사사례(부국산업, 영일기업, 성광 등)로 볼 때, 외주회사를 여러 개로 분사하여 용역계약 체결 후 포스코 OB가 낙하산 사장으로 취임할 가능성 농후
- 노동조합은, 기존 성암산업 조합원들 중 일부는 용역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근로조건 추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는 포스코와 외주사 간의 왜곡된 원하청 거래구조에서 기인하는 고질적인 문제임. 거대기업 포스코에 의해 외주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됨. 포스코와 외주사 간의 불공정거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성암산업과 같은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임
- 성암산업 신준수 회장은 78억원의 퇴직금을 적치하고, 임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것
- 포스코는, 성암산업 신준수 회장과 포스코 간 거래의 사실관계를 노동조합에 소상히 밝힐 것
- 포스코는, 성암산업 작업권 반납 이후 포스코의 대책 등을 밝힐 것

- 포스코는, 분사 없는 100% 고용과 임금 및 복지를 보장할 것
- 포스코는, 분사에 의한 용역계약이 아닌 외주회사 계약을 체결할 것

마. 엘링크링거

(1) 노조개요

- 명칭 : 엘링크링거노동조합
- 대표자명 : 복명진
- 조합원수 : 39명
- 지역본부 : 구미본부

(2) 주요쟁점

- 2017년 임단협 체결
- 노동조합 일상 활동 보장

(3) 투쟁계획

- 생산라인 핵심 조합원 우선 부분파업 후 교섭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수위 상향
- 출퇴근 투쟁 및 부분파업 조합원 프로그램 시행

(4) 진행상황

- 17.02.08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7년 임단협을 시작
- 17.05.24 7차 교섭까지 진행되는 동안 사측은 초기에 검토안 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진정성없는 자세로 교섭에 임함
- 17.06.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 결정(조정안 연봉직 월 15만원, 시급직 400원/사측 연봉직 월 11만원, 시급직 380원 제시/노조 거부)
- 17.06.12 공장 앞 천막 설치하고 무기한 천막농성 및 부분파업 돌입
- 17.06.13 교섭에서 사측 부분파업 철회시 성과급 지급안 제시, 노조 거부
- 17.06.15 조합원 교육 진행
- 17.06.16 교섭에서 임금 부분 합의(시급직 450원(호봉 인상분 미포함), 연봉직 11만 5천원, 타결금 25만원), 조합 활동 부분 신설 합의

바. 남양공업

(1) 노조개요

- 명칭 : 남양공업노동조합
- 대표자명 : 조제현
- 조합원수 : 466명
- 지역본부 : 안산시흥본부

(2) 주요쟁점

- 계약직 계약 해지

(3) 진행상황

- 회사 기존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해왔던 관행을 무시하고 일부 직원 계약 해지, 노조는 기존 관행대로 정규직으로 채용 요구했으나 묵살, 회사측은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
- 노조는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위임장 수령 후 차별시정 계획, 금속노련에 법률지원 요청
- 단, 상여금 지급기준 근속 2년 이상자에게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어 차별시정 실익이 없어 보임

(4) 향후계획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명세서 분석 후 차별 시정 지원
- 노조 2017년 임단협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조정
-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법률원의 법률대응 지원 요청

사. 농협사료

(1) 노조개요

- 노조명 : 농협사료노동조합
- 대표자 : 홍헌표

- 조합원수 : 190명
- 지역본부 : 서울본부

(2) 주요쟁점

- 노조는 단체교섭 대표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2017년 9월말까지 조직 확대에 전력
- 금속노련에서 현행 단체협약 적용 여부 및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 기간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서 제출, 법적 정당성 확보
- 서울지노위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문 수령시 즉각 이행 강력 촉구
- NH농협중앙회 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요구

(3) 진행상황

- 17.07.17 금융노조 위원장 및 NH농협지부 위원장 면담 갖고 연대 요청
- 17.07.29 전 조합원 상경 집회 개최 검토
- 17.07.15 노조 간부 교육(경남지사), 주1회 소식지(1쪽), 월 1회 홍보물(4쪽) 발행
- 18.03.17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4) 향후계획

-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을 통한 근로시간 면제 확보
- 노동조합 일상 활동 보장

아. 삼영전자

(1) 노조개요

- 노조명 : 삼영전자노동조합
- 대표자 : 김경호
- 조합원수 : 290명
- 지역본부 : 경기본부

(2) 주요쟁점

- 17.03.31 포승공장 관리그룹장이 조직부장에게 특근 관련 이야기를 제조 그룹장

에게 들었으며 말함

- 이에 조직부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 없다고 이야기 함. 조직부장이 제조그룹장에게 확인 차 전화하였으며, 제조그룹장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없다고 말함. 이 과정에서 조직부장과 제조그룹장이 유선상 말다툼을 함
- 통화 직후 조직부장과 제조그룹장이 만난 자리에서 쌍방 욕설의 말다툼을 함. 이후 조직부장이 제조그룹장에게 사과하고 제조그룹장이 받아들임
- 하지만 관리그룹장이 주도하여 조직부장에게 퇴사를 요구함
- 18.02.02 중식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50%에 육박, 임금피크제는 55세부터 급여 20%를 삭감
- 18.02.09 출근 투쟁
- 18.02.12 최종 노사 입장 조율

(3) 향후계획

- 노조는 정식 징계위원회 개최 요구
- 인사위원회 개최시 대응 논의

(4) 기타사항

- 사측 제조공정에 도급 도입 추진. 실행시 불법파견으로 대응

자. 한국지엠

(1) 노조개요

- 노조명 : 한국지엠사무직노동조합
- 대표자 : 김현남
- 조합원수 : 35
- 지역본부 : 인천본부

(2) 주요쟁점

- 16.04.19 사무직을 조직대상으로 복수노조 설립(80여명)
- 사측에 교섭 요구하고 노조사무실, 타임오프 시간 등을 요구했으나 금속노조 한국GM 지부(14,000여명)와 합의시 제공할겠다는 답변

- 17년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표노조로 확정
- 17년 임금교섭 실시중 단협(2016.7.18.~2018.7.17.) 적용 배제
- 18.01 단체교섭시 요구 사항 전달(타임오프, 노조사무실 등), 불이행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제기
- GM사무노조 단협 적용 이전이라도 노조 활동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급단체에 지원 요청
- 한국GM 철수설에 따른 고용 불안 및 임금 삭감 위험

(3) 향후계획

- 단체교섭 참여 및 타임오프 배분 요청
- GM 철수설에 따른 모니터링 및 대응

차. 핸드코퍼레이션

(1) 노조개요

- 노조명 : 핸드코퍼레이션노동조합
- 대표자 : 최 철
- 조합원수 : 828명
- 지역본부 : 인천본부

(2) 주요쟁점

- 위원장 선거에 전임위원장과 전임수석부위원장 출마, 선거일 새벽에 수석부위원장 출마 포기
- 전임 위원장 단독으로 선거 실시했으나 과반 미달
- 전임 위원장 재출마(규약상 불가, 대의원 추천 있는 경우 가능) 위해 선거 무산 시도 했으나, 현 위원장 출마로 좌절. 57% 득표로 당선
- 전임 위원장 3공장 대의원 출마후 당선, 3공장 대의원 전원 전임 위원장 우호 세력화
- 현 위원장 총회에서 전임위원장 제명 처분(횡령 배임)
- 전임 위원장 제명에 관한 조합원 총회 증거보전 신청

- 전임 위원장 제명건에 소송제기할 경우 형사 고소 예정
- ※ 전임 위원장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금액 -796만원) 인수, 지출결의서 첨부되어 있으나 허위 자료 일부 있음(예, 조합원 간담회 지출결의서, 실제 간담회 미 실시)

(3) 향후계획

- 현 노조 내부에서 조직안정 및 임단투 승리위해 최선의 노력, 필요시 상급단체에 지원 요청하겠다는 의사
- 핸드코퍼레이션 노조, 사측 무노조 사업장 화성공장(핸즈식스)에 물량 몰아줘 이윤 확보, 노조 결성으로 무의미, 사측 핸드식스(화성)에서 부족 물량 보전, 쟁의 무력화 입장
- 핸드식스노조 결성된 만큼 상호 연대하며 공동 투쟁 필요

카. MEMC코리아

(1) 노조개요

- 노조명 : MEMC코리아노동조합
- 대표자 : 임철승
- 조합원수 : 350
- 지역본부 : 충남본부

(2) 주요쟁점

- 2017 임금교섭
- 자문수수료 반환 회계 처리 문제
-

(3) 진행경과

- 16.12.02 글로벌웨이퍼스(대만)가 약 8천억에 선에디슨(미국, 엠이엠씨코리아 본사) 인수 완료
- 17.06.13 1차 교섭
- 17.08.16 16차 교섭. 결렬 선언

- 17.08.17 중식 집회
- 17.08.18 조정 신청 예정
- 18.02.02 로알티 과다 지급으로 인해 한미 국세청간 협의로 반환된 142억의 회계 처리 문제로 회사와 이견 있음(사측은 2009년~2012년 4년간 나눠서 회계 산입 후 남는 1억 2천 돌려준다는 입장, 노조는 불가 입장)
- 이와 관련하여 회계 자료 요청하였지만 사측 제공 거부
- 회계 처리 방법 문의에 대해 회계사간에도 이견 있음(나눠서 산입 가능/반환받는 연도에 산입 가능)
- 그 외 일방적인 반장직 신설(40여명), 관리직의 성희롱 문제 등 있음
- 18.02.19 현재 사측에서 반환금과 반장직 신설 관련 별도의 TF팀 구성하여 논의 하자는 입장 전함
- 18.03.06 임단협 시작에 따라 진행 과정에서 연맹의 지속적인 도움 요청함
- 노조 자동승급 4호봉 인상, 2015년 자동승급 삭감분 2호봉 회복, 기본급 대비 3% 인상, 정액 10만원 인상, 19.01.01.까지 상여 450% 통상임금 산입, 총 기본급 대비 12.51% 인상
- 회사 자동승급 포함 정액 9만원 인상, 최저임금 조정분 추가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집중교섭 실시, 총 기본급 대비 4.1% 인상
- 최저임금 미달하여 조정수당 지급자 116명(정규직 33명, 계약직 69명, 수습직 14명)
- 1999년~2016년 간 본사(선에디슨)가 860억 투자했지만 그 동안 주주 배당으로 2,200억, 로열티로 886억, 경영자문수수료로 168억 회수해 감
- 사무직, 연구직에게만 스톡옵션 지급해 온 정황이 파악되고 있음
- 매각, 적자 등의 사유로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이 10여 년 간 누적됨
- 2008년 본사와 순채출액 기준 5%이내에서 로알티 지급 합의
- 2009년 적자, 로알티(경영자문수수료) 23억, 재료비 34억(전년비 200%)·노조 로알티 및 재료비 과대 지급으로 고의로 적자 발생시켰다는 의혹, 이를 이유로 구조 조정, 200명 희망퇴직, 임금 20% 삭감, 복지 축소
- 2013년 국세청 감사에서 로알티 과대지급 문제 제기, 미국세청과 협의 142억6천 5백만원 반환,

- 사측 동 금액을 2009년, 2011년까지 보충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2.3%를 성과상여(450명)로 지급하겠다는 입장 피력
- 팀장급 이상(30여명)자에 대한 과도한 스톡 옵션 지급
- 노조 사측의 입장 수용 불가, 과거 경영자료 분석 후 대응
- 노조 사측 단체협약 불이행(반장제 부활관련 노사협의 부실 이행) 제기
- 조합원 성희룡 당사자가 가해자로 뒤빠진 상황에 대한 회사측 문제 제기

(4) 향후계획

- 전문가의 경영자료 분석, 보상 여구
 - 향후 투쟁 효율적 대응을 위한 대응팀 파견 요망
 - 조정을 앞두고 현재 사측과 일정 부분 의견 접근 중임
 - 교섭과 조정을 함께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및 연맹 도움 요청
- 142억 반환 관련 법률 지원

타. 핸즈식스

(1) 노조개요

- 노조명 : 핸즈식스노동조합
- 대표자 : 윤영인
- 조합원수 : 360
- 지역본부 : 경기본부

(2) 진행경과

- 핸즈식스&우암에이스화성지역 노조, 3년 전에 전임 위원장 핸즈식스 방문해서 기다려라, 아무런 변동없어 노조 설립
- 낮은 임금 및 핸즈식스 협력사 우암에이스 직원 퇴사자 많아 노조 설립
- 핸즈식스(190여명)+협력사 우암에이스(200여명) 전체 직원 388명중 340여명 노조 가입
- 우암에이스 입사 후 1년 또는 2년 이후 핸즈식스에 입사하는 구조, 정규직

- 17.07.27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미팅(연맹, 화성, 경기금속)
- 17.09.01 제1차 단체교섭
- 17.09.07 실무협의, 노조측안에 대한 사측 의견 청취
- 17.09.15 제2차 단체교섭
- 17.10.11 노조측 단체교섭 위임 사실 통보
- 17.10.17 노조측 단체교섭 요구(1차)
- 17.10.18 회사측 단체교섭 연기 요청
- 17.10.19 노조측 단체교섭 요구(2차)
- 17.10.27 제3차 단체교섭 (위임1차 교섭), 조합비 체크오프 합의
- 17.11.01 교섭결렬 통보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
- 17.12.22 임금인상 합의(시급 5% 인상, 성과급 70만원 지급)
- 18.01.04 단체협약안 초안 확정 및 대의원 의견 요청
- 18.01.15 교섭위원 대상 단체협약안 설명 및 종합 검토
- 18.03.07 임금교섭 요구안 제출

(3) 향후계획

- 향후 단체협상 진행 관련 모니터링 및 지원

파. 타이코&

(1) 노조개요

- 노조명 : 타이코&노동조합
- 대표자 : 박기성
- 조합원수 : 200명
- 지역본부 : 대구경북본부

(2) 주요쟁점

- 임금협약 체결

(3) 주요경과

- 임금 교섭 진행 중 사측이 성과급 지급 시도(사무직 14% 지급 완료, 생산직 6.6% 노조 반대로 미지급 상태)
- 18.01.08 7차 교섭 진행
- 18.01.09 노조 집행부 연맹 방문
- 18.01.16 노조 방문 상집간부 대상 임단협 현황 파악 및 일정 논의
- 18.02.01 연통상임금 13% 지급 합의, 기본급 정액 75,000원 정률 1.5% 인상 합의

(4) 향후계획

- 전 조합원 대상 교육 진행
- 불법 파견 관련 검토

하. 대영소결금속

(1) 노조개요

- 노조명 : 대영소결금속노동조합
- 대표자 : 김남수
- 조합원수 : 20명
- 지역본부 : 경남본부

(2) 주요쟁점

- 임단협 체결
-

(3) 주요경과

- 17.08.10 : 단체교섭권 연맹 위임
- 17.08.18 : 노동쟁의 조정 신청(위원장 활동 등 합의)
- 18.01.10 : 사측 상여금 기본급화 등 요구
- 18.01.17 : 노조 방문 현재 상황 파악

(4) 향후계획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노조 활동 위축(현재는 완화 상태)
- 사측의 근로조건 저하 시도에 따른 현 상태 유지 전략
- 연맹 위임교섭 진행

거. 일진전기 전선사업부

(1) 노조개요

- 노조명 : 일진전기 전선사업부노동조합
- 대표자 : 지남용
- 조합원수 : 137명
- 지역본부 : 경기본부

(2) 주요쟁점

- 임금단체협약 체결
- 노동조합 활동 보장

(3) 진행경과

- 18.02.07 노사교섭 위원 상견례 실시, 노조측 원만한 교섭을 위한 타임오프 등 제 공 요구, 차기 교섭시 재논의, 주1회 수요일 15시에 교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 시 실무교섭 실시
- 18.02.26 일전전선 노조 규약 개정 후 홍성공장 지부로 조직화 협의, 일전전선 노 조 간부 및 대의원 교육 요청, 주야맞교대 근무특성 고려 휴무
- 18.03.04 1차 교육
- 18.03.11 2차 교육
- 18.03.07 회사 단체협약 비교표 제시, 기존 노조 단체협약과 비교표 추가 정리 후 제시
- 일전전기 근로시간면제 최대 4,000시간 중 중전기(안명호위원장) 1,500시간, 반 월공장(방운재) 1,200시간을 제외한 1,300시간을 2018년 3월 12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선 부여, 기타 교섭위원은 해당 시간 유급 처리

- 타임오프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후 결정
- 노조 내부 위원으로 주 2회 실무교섭 추진

(4) 향후계획

- 3월 중 타결을 위해 노사 모두 각오의 노력 경주, 기존 단협(중전기, 반월)을 참조하여 단체교섭 실시
- 사측, 금속노련에서 3개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시간 논의 후 결정 요구

국제연대활동

1.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275
가. 인더스트리올 여성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275
나. 금속노련 정기대회 해외 노조 초청	276
다. 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	277
라. 대만 ROCMU(중화민국 국제금속총공회) 교육 세미나 ..	277
마.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	278
2. 기타 국제 활동	280
가. 인더스트리올 국제행동 한국연대 주간	280
나. 한국노총 회원조합 국제담당자 워크숍	280

평가 및 개선방향

2017년 6월에는 금속노련-베트남 산업통상노조 교류회의를 베트남에서 개최했다. 양 조직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식교류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7년 정식으로 교류를 진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금속노련은 베트남 산업통상노조와의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노동현황과 노동권 향상 등을 논의하고 국제 연대강화를 힘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2017년 9월에는 ROCMU가 대만 원린현에서 개최하는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다. 교육 세미나에 참석한 금속노련 대표단은 대만의 수정 노동법과 건강보험법, 단결에 관한 법, 직원복지금조례 등 정보가 부족했던 대만의 노동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17년 11월에는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고위급회담에서는 양국의 정세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업종별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금속산업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를 했다.

2018년에는 교류회의 규모를 축소하여 일본 도쿄에서 고위급 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므로, 논의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금속노련이 가맹한 국제통합제조노련 활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경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1. 국제회의 및 해외초청

가. 인더스트리올 여성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7년 4월 26일 ~ 28일
- 장소 : 스위스 제네바
- 참석자 :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금속노련 곽상욱 정책부장

2) 회의 일정

- 4월 26일 (수) 13:30~ 17:30 여성위원회의
- 4월 27일 (목) 09:00~17:30 집행위원회의
- 4월 28일 (금) 09:00~16:00 집행위원회의

3) 방문 목적 및 논의사항

- 목적 :
 - 인더스트리올 조직화와 캠페인에 관한 실행과제를 점검하고 토론을 통해 향후 캠페인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활동 과제 점검.
- 논의사항 :
 - 지역별 업종별 인더스트리올 여성활동 보고, 여성위원회 위임사항, 여성위원회와 인더스트리올 활동을 위한 우선사항, 지역별 연락처, 여성대표와 참가자 40프로 쟁취
 - 집행회의에서 채택된 긴급한 결의채택 업데이트, 인더스트리올 새 사무처구성, 외부 기금 프로젝트, 집행위원회 지역 회의의 간략한 보고, 여성위원회 회의보고, 무역, 산업 정책 및 개발인더스트리올 가맹조직의 투쟁현황, 글로벌 캠페인과 협약에 관한 최신 정보, 행정 및 재정 문제

나. 금속노련 정기대회 해외 노조 초청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7년 5월 23일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참석자
 - 아사누마 일본 JCM 사무처장
 - 후지토미 일본 JCM 사무차장
 - 이와이 일본 JCM 국제부장
 - 우원웨이 대만 ROCMU 부위원장
 - 유푸친 대만 ROCMU 감사
 - 쿠춘취 대만 ROCMU 이사

2) 일정

- 5월22일 월요일
 - 11:30 대만 귀빈 서울도착(인천공항)
 - 18:35 일본 귀빈 서울도착(김포공항)
 - 19:30 저녁식사
- 5월23일 화요일
 - 09:30 호텔출발
 - 11:30 점심식사
 - 12:30 중앙교육원 도착
 - 13:30 대의원대회 참석
 - 15:00 중앙교육원 출발
 - 17:00 호텔도착

- 19:20 환송만찬
- 5월24일 수요일
- 오전 공항을 통해 출국

다. 베트남 산업통상노동교류회의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7년 6월 19일 ~ 23일
- 장소 : 베트남 하노이
- 참석자
 - 정일진 수석부위원장
 - 김해광 서울지역본부의장(현 금속노련 부위원장)
 - 김성수 조직강화본부장
 - 나병호 노사대책부장
 - 박강원 홍보부장
 - 김희봉 한국철강 위원장

2) 회의내용

- 양 국가의 정치 경제 노동현황
- 양 조직 소개
- 정기교류 MOU체결
- 기타토의

라. 대만 ROCMU(중화민국 국제금속총공회) 교육 세미나

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7년 9월 9일 ~ 12일

○ 장소 : 대만 가오슝 및 원린현

○ 참석자 : 김만재 위원장, 정일진 수석부위원장, 박선자 총무실장

나) 회의 일정

○ 9월 9일(토) 가오슝 도착 및 환영만찬

○ 9월 10일(일) 대만 원린현으로 이동

○ 9월 11일(월)~12일(화)

- 세미나(수정노동법, 건강보험법, 단결에 관한 법, 직원복지금 조례)

○ 9월 12일(화) 출국

마. 한일금속노조 정기교류회의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 일시 : 2017년 11월 14일 ~ 16일

○ 장소 : 일본 도쿄

○ 참석자 : 김만재 위원장, 정일진 수석부위원장, 김해광 서울본부의장(현 금속노련 부위원장), 김준영 사무처장, 김성수 사무처장, 남재환 금속노련 울산·경주본부 의장, 전종덕 노사대책실장, 최장윤 정책국장, 정태교 조직부장, 나병호 노사대책부장, 박강원 홍보부장, 강국모 SK하이닉스청주노조 위원장, 허일욱 대덕전자노조 위원장, 김병천 영흥철강노조 위원장, 장영기 PN풍년노조 위원장, 황태연 강남노조 위원장, 최경천 상스코리아노조 위원장, 강진연 대한전선노조 위원장, 허일 대원전선노조 위원장, 문창수 한국노총부산본부 본부장

2) 회의내용

- 양국의 정세와 전망
- 각 업종분과별 현황과 과제

3) 회의 일정

○ 2017년 11월 14일 (화)

- 09:00 한국대표단 1진 김포공항 출국(2진은 12:25출국) 한국대표단 도쿄 하네다 공항 도착 숙소로 이동
- 18:00~21:00 환영만찬

○ 2017년 11월 15일 (수)

- 07:00~09:00 조식(호텔 뷔페)
- 09:00~12:00 한일 금속 고위회의(장소: 일본 도쿄 자동차총련 회의실)
 의제1 : 현재 정치, 경제, 노동정세 및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
 의제2 : 노동시간 단축 동향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12:00~14:00 점심식사
- 14:00~17:00 한일 전기전자 산업분과 회의
 (장소: 일본 도쿄 자동차총련 회의실)
 의제1 : 노사관계
 의제2 : 사회보장
- 14:00~17:00 한일 철강,조선,비철 산업분과 회의
 (장소: 일본 도쿄 자동차총련 회의실)
 의제1 : 철강, 조선, 비철 산업의 현황과 과제
 의제2 : 기타토의
- 14:00~17:00 한일 전선 산업분과 회의(장소: 일본 도쿄 자동차총련 회의실)
 의제1 : 자국경제 동향 · 전선산업 동향 · 노동조건 추이
 의제2 : 기타토의
- 18:00~22:00 환송만찬
- 숙박: 일본 도쿄 시나가와 프린스호텔

○ 2017년 11월 16일 (목)

- 12:25 한국대표단 1진 하네다공항 출국(2진은 12시 20분 출국)

2. 기타 국제 활동

가. 인더스트리올 국제행동 한국연대 주간

1) 개요

○ 일시 : 2017년 7월 17일~21일

○ 목적

- 인더스트리올에 가맹된 전 세계 제조연맹들이 국제행동 한국연대 주간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 일제히 편지를 보내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기획함.

○ 방식 :

- 인더스트리올에서 이번 주 중으로 샘플 편지를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에 보내주면 내용 가감을 통해 확정하고, 이번 주 중에 가맹 노조에 국제연대 한국연대 캠페인 참여 이메일을 발송한다.

2) 행사 내용

- 인더스트리올 본부에서 인더스트리올 가맹 노조에 ILO핵심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한국의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샘플로 만들어서 보내면, 각 조직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위의 요구 서한을 국제연대 주간에 맞춰서 일제히 보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

나. 한국노총 회원조합 국제담당자 워크숍

가)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0일~6월 2일

○ 장소 : 태국

○ 참석자 : 박강원 홍보부장

나) 일정

- 5월 30일(화) 공항출국
- 5월 31일(수) 국제사업 계획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6월 1일(목) ILO 아태지역사무소 간담회
- 6월 2일(금) 입국

다) 방문 목적

- 회원조합 간 국제담당자 20여명은 조직별 국제사업을 공유하고 ILO 아태지역사무소 간담회를 통해 국제기구 및 ILO 핵심협약과 국제노동기준을 이해

법규활동

1. 단위노조 질의회시	285
가. 동부전자소재노동조합	285
나.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285
다. 남양공업노동조합	287
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화성공장노동조합	289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90
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290
3. 각종 행사 참석	292
가.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 참석	292

평가 및 개선방향

가맹노조 질의회시와 관련하여 동부전자소재노조 회사는 기본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한 뒤 220시간으로 나누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적법 여부를 물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산업체로 어느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까지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었을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남양공업노조는 단체협약 제21조 제9호에 따라 회사는 2017. 9. 29. 주간 근무조는 2시간, 야간 근무조는 4시간의 유급휴무를 부여 해야 하는지 여부, 회사가 비조합원에게도 사내복지근로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45조를 위반 하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화성공장노조는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규약이 미비할 경우 상급단체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 각 사안별로 검토 후 회시하였다.

고용노동부에 해석을 요청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적 교류와 법률적 교류를 하였다.

금년에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등에 따른 법률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질의회시와 더불어 사전에 해당이슈와 쟁점판례 및 행적해석 등을 가맹노조에 제공하여 가맹노조의 법률 지식 향상과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1. 단위노조 질의회시

가. 동부전자소재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기본 시급에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한 뒤 220시간으로 나누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적법 여부

2)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시급에 209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있다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 외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22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 근무를 노사 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음.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을 22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1) 질의내용(1) 요약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바, 국가 사업(국방)에 종사하는 설계부서, 생산부서 모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어느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까지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쟁의행위제한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위산업체라 함은 군용으로 제공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일정한 보안요건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정부의 지정을 받은 사업체를 말합니다(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4조).
- 종전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에서는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량, 성능검사, 가스, 열처리, 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 그러므로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일반산업체 근로자와 동일하게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현행법은 주요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 중 일부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만을 규정하였을 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하여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질의내용(2)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었을 경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4)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3조)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임금 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 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행정해석 참조:임금복지과-931, 임금 68207-349 등).

다. 남양공업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① 단체협약 제21조 제9호에 따르면 회사는 2017. 9. 29. 주간 근무조는 2시간, 야간 근무조는 4시간의 유급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 조직의 의견은?
- ② 회사가 비조합원에게도 사내복지근로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4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귀 조직의 의견은?

2) 회시

- ① 회사는 2017. 9. 29. 주간 근무조 및 야간 근무조에 대하여 유급휴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업규칙 4. 2.에 따르면 회사는 추석의 경우 음력 8. 14.부터 동월 17일까지 4일간의 유급휴일을 근로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체협약 제21조 제9호는 추석의 휴일 개시 전일인 음력 8. 13.에 주간 근무조에게는 2시간, 야간 근무조는 4시간의 유급 휴무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올해 음력 8. 13.은 2017. 10. 2.이며, 이 날은 임시공휴일이므로 관련 행정해석에 비추어 볼 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4. 2.에 따라 2017. 10. 2.에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유급휴무를 중복하여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1999. 8.18, 근기 68207-2016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주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일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1989. 5. 10, 해지 01254-6845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 1985. 11. 1, 근기 01254-19875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 간에 두 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② 회사가 비조합원에게 사내복지근로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는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내복지근로기금은 ① 고용상 복리후생제도이며, 근로자의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② 관련법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

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③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도 정규직 직원과 함께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572700,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복지근로기금 적용 제외 참조),

- 조합원만 사내복지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제45조 제1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45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비조합원(조합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을 포함)에게 사내복지근로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화성공장노동조합

1) 질의내용 요약

-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규약이 미비할 경우 상급단체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관련 내용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귀 노조 규약 제35조에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 위촉에 의하여 업무를 대리한다.”는 요지의 규정이 있는 바, 1) 위원장의 유고 또는 위촉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규약의 미비로 인하여 규약의 해석 또는 이행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상급단체의 규약을 반드시 준수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참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더불어 위원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기타 규정의 정함이 없는 사항의 경우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1) 사실관계

- A사에는 하나의 노동조합(이하 '제1노조'라 함)이 조직되어 활동해 오다가, 2017년 2월 새로운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 함)이 설립되었음.
- 제1노조는 2016년 12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연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음.
- 제1노조는 제2노조가 설립되자,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였음.
- 제1노조는 2017년 2월 17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A사는 같은 달 18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제2노조는 2017년 2월 24일 단체교섭 참여 의사를 밝혔음.
- A사는 2017년 2월 27일부터 같은 해 3월 3일까지 5일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제1노조와 제2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제1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음
- A사와 제1노조는 2017년 3월 31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단체협약을 보면,
-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A사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하며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로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매년 갱신 체결기로 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 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 체결 때까지 계속된다.

2) 질의내용

① 단체협약의 적용에 대하여?

- 우리노련의 의견 :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제1노조와 제2노조가 참여하였고, 제1노조가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제2노조에도 적용된다.

② 제1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 우리노련의 의견 : 특정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확보한 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소급적용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단체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제1노조의 교섭대표 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보아야 한다.

3) 회신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노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동 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 10 제1항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 귀 질의와 같이 노사 당사자가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6.1.1부터 2016.12.31까지로 정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6.1.1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인 2017.12.31까지입니다.

3. 각종 행사 참석

가. 한국노총 법규담당자 워크숍 참석

1) 목적

- 2017년 노동자법률구조사업 성과 공유
- 최신 노동판례 학습
- 산별 주요 이슈 사업 공유

2) 일시

- 2017년 12월 26일~12월 28일

3) 장소

- 매종글래드제주

4) 평가

- 노총 법률원 및 산별 법규담당자와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됨
- 일방적 교육이 아닌 토론이 배치되어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됨
- 워크숍을 바탕으로 법규담당자들이 월 1회 정도의 판례 학습 모임을 결의함

산업안전보건 활동

1. 연구 및 조사 활동	295
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안전보건참여 개선활동 사업	295
2. 산업안전보건 교육	299
가.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육	299
나. 산업안전보건 2차 교육	300
3.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302
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교육참여	302
4. 각종 산업안전보건 행사 및 세미나 참석	304
가. 제17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304
나.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위원회 회의	306
다. 안전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안전보건 간담회	307
5. 개정 출퇴근 재해 안내	309

평가 및 개선방향

2017년에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안전보건참여 개선활동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 결과 3~4년의 일정한 주기에 걸쳐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연맹별 세분화 작업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상세한 실태조사 및 전문화된 안전대책 연구를 토록 주제로 설정, 삽입토록 하고 개별 데이터를 축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방대한 직업별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장 더울 때와 추울 때 일정을 잡게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울산이라는 위치상 조합원들이 거리상 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교육이 무사히 잘 진행되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각 교육에 결합하여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함양함과 더불어 안전보건담당자들과의 교류와 연대의 장이 되었다.

또한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견문을 넓혔다.

2018년에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조직,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과 더불어 산업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확대하고자 한다.

1. 연구 및 조사 활동

가. 노동조합의 사업장 안전보건참여 개선활동 사업

1) 목적

-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산업안전교육, 건강검진 등 노사가 함께 참여해야하는 주요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사업주 및 노동자 참여현황의 변화 실태를 조사
- 노동조합의 정례적, 비정례적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우수사례의 취합과 사례 분석을 통해 타 사업장 전파 방안을 마련
- 실태 및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 보급 및 사업장 전파활동 전개

2) 사업추진계획

(1)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기존 단체협약 분석 및 관련 문헌조사

(2) 실태조사

- 실태조사 : 단위노동조합 300부 / 사업장별 개인조사 1,000부
- 대상 선정 :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업종 및 규모별 분석)
- 내용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 참여 현황과 방법, 독자적 산업안전보건활동 등

(3) 심층 면접조사

- 면접조사 대상 : 10개 사업장
- 각 업종별 참여실태 및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

(4) 사업장 매뉴얼 보급 및 사업장 전파활동

-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300부

- 우수사업장 견학 및 교육 : 1회

3) 실태조사지 구성 개요

(1) 실태조사지 본문 2매로 구성

- 설문지는 2013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축약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현황 및 타임오프제 관련 현황 추가
- 설문 매수의 축소로 응답률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삭제 내용

- 일반 현황중 하청관계, 심야노동 여부, 산보위내 실무기구 운영 현황, 명예감독관의 신분, 산재예방을 위한 우선 과제, 작업장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평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견, 산재 잠재성 측면의 취약부문

(3) 추가내용

- 타임오프제도와 산보위 및 명예감독관 활동 현황, 타임오프제도 시행이후의 산안 활동 변화 여부, 타임오프관련 산안활동 임단협 규정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행 현황 및 노조 참여형태

(4) 조사 일정 및 방법

- 배포 : 연맹별 배포
- 수거 : 한국노총으로 팩스 또는 우편 송부
- 조사지 배포 및 수거 (단위 노동조합) : 7. 1~ 9. 30
- 개인별 조사지 배포 및 면접조사 : 9. 1 ~ 10. 31

(5) 참여사업장

- 금속 설문조사 응답 96개 사업장
- 금속 면접조사 4개 사업장(현대모비스, 신한일전기, 대한전선, 삼동)

(6) 결과

- 총 347개 응답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노동시간 항목에서는 주당 52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이 101개로서 약 29.8%의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 근무형태 측면에서는

통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97개로 28.7%를 점유하고 있었다.

- 응답한 설문지를 연맹별로 분류하면 금속노련 96개, 자동차노련 60개, 화학노련 49개, 전택노련 34개, 공공노련/공공연맹 25개, 연합노련 20개 총284개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연맹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에서 공공노련/공공연맹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가 52.2%, 금속노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가 59.4%, 연합노련은 노사협의회로 대체가 40%, 자동차노련은 노사협의회로 대체 58.3%, 전택노련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가 39.4%, 화학노련은 별도로 설치되어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 50.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 연맹별 명예감독관 선임여부는 공공노련/공공연맹은 선임되어있지 않음 64.0%, 금속노련은 선임되어 있음 81.1%, 연합노련은 선임되어있지 않음 47.4%, 자동차노련은 선임되어있음 42.4%, 전택노련은 선임되어있음 51.5%, 화학노련은 선임되어있음 70.8%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 연맹별 산업재해 및 공상처리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공노련/공공연맹은 산재처리가 있다 52.0% 공상처리 없다 66.7%, 금속노련은 산재처리 없다 55.6% 공상처리 있다 72.4%, 연합노련은 산재처리 있다 70.0% 공상처리 없다 60.0%, 자동차노련은 산재처리 있다 62.1% 공상처리 없다 81.4%, 전택노련은 산재처리 없다 78.8% 공상처리 없다 84.0%, 화학노련은 산재처리 없다 57.4% 공상처리 없다 70.3%로 산재처리부분에서는 연합노련이 산재처리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공상처리가 있다는 문항에서는 금속노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연맹별 작업환경은 1점부터 5점 순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우수한 점수 순으로 집계한 결과 전반적인 작업환경은 공공노련/공공연맹이 3.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합노련이 3.16으로 가장 낮았다. 조명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이 4.00점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전택노련이 3.59로 가장 낮았다. 소음수준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이 4.1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금속노련은 2.83으로 가장 낮았다. 먼지부분에서 공공노련/공공연맹이 3.76으로 가장 높았고 연합노련이 2.74로 가장 낮았다. 화학물질 취급에서 전택노련이 4.15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금속노련이 3.29로 가장 낮았다. 중량물운반 및 불안정한 자세나 동작에서 공공노련/공공연맹이 3.92로 가장 높았고 금속노련이 3.06으로 가장 낮았다. 작업장 온도에선 전택노련이 4.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금속노련이 2.8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직무상 스트레스에선 화학노련이 3.16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전택노련이 2.6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심층면접 대상 사업장은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근로자 건강현황을 체크하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한 사업장 7개 기업에서 총 82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각 사업장별 데이터를 입력하여 통계처리 후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 우수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참여제도의 활성화, 노동조합과 연계협력의 실시, CEO의 안전 리더십, 제안제도 및 수칙 지키기 활동 등 많은 노력을 도모하는 반면, 비 우수 사업장의 경우 전담 부서와 추진자가 없었고, 법적 서류 중심의 형식적인 활동 추진, CEO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 저조, 근로자 참여 안전 활동 미흡 등의 결격사항이 있었으며, 이는 업종별, 조합별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초이다. 안전보건활동 관련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 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139개로서 40.5% 이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사항목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도 잘 되고 있다는 비율이 41.8%로 가장 많았다.

2. 산업안전보건 교육

가.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육

(1) 취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고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쟁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련은 안전보건에 대한 일상 활동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2017년도 제1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합니다. 금번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 정 : 2017년 8월 21일(월) ~ 8월 23(수), 2박 3일

(3) 장 소 : 안전보건공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4544)

(4) 참가자 : SK하이닉스청주노조 사무국장외 79명

(5)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8 / 21 (월)	8 / 22 (화)	8 / 23 (수)	
07:00 ~ 08:00		아 침 식 사	아 침 식 사	
08:00 ~ 09:00		교 육 준 비	교 육 준 비	
09:00 ~ 10:00		근골격계질환 및 인력운반작업 관련이론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박현진 교수)	현장산업안전활동사례 (신한일전기노조 김영기 부위원장)	
10:00 ~ 11:00				
11:00 ~ 12:00	교 육 등 록	점 심 식 사	평가 및 종강	
12:00 ~ 13:00	점 심 식 사			
13:00 ~ 14:00	개강식 및 노동정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실습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박현진 교수)		
14:00 ~ 15:00				
15:00 ~ 16:00	노동자와 4차산업혁명 (백승렬 박사)	요통예방운동 및 인력운반작업자세 실습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박현진 교수)		
16:00 ~ 17:00				
17:00 ~ 18:00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실무 (황산하 노무사)	저 녁 식 사		
18:00 ~ 19:00				
19:00 ~	단 결 의 밤			

(6) 평가 및 과제

- 교육 참가생 중 기 참석했던 간부들보다 처음 참석하는 간부들이 많았음.
-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론적 강의와 실습이 함께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음.
-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에어컨 가동을 제어함에 따라 덥다는 불만이 있었음
- 교육 시간이 너무 길고 체육활동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차기 교육에서는 산재관련 교육, 안전 교육, 실습 교육 등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울산이 너무 멀다는 의견이 있었음
- 추후 교육에서는 중간 휴식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과정 구성에 있어 교육생들의 요구를 검토하여 구성함

나. 산업안전보건 2차 교육

(1) 취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행위에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한 해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고 약 2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통계는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고 쟁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속노련은 안전보건에 대한 일상 활동이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화학노련과 공동으로 2017년도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합니다. 금번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 활동가를 양성하고,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정

- 2017년 12월 11일(월) ~ 12월 13(수), 2박 3일

(3) 장소

- 안전보건공단(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1644-4544)

(4) 참가자

- LG디스플레이노조 산업안전부장외 67명

(5)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12 / 11 (월)	12 / 12 (화)	12 / 13 (수)
07:00 ~ 08:00		아 침 식 사	아 침 식 사
08:00 ~ 09:00		교 육 준 비	교 육 준 비
09:00 ~ 10:00		작업환경측정 이론과 사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박해동 연구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 조기홍 본부장)
10:00 ~ 11:00			
11:00 ~ 12:00	교 육 등 록		평가 및 종강
12:00 ~ 13:00	점 심 식 사	점 심 식 사	
13:00 ~ 14:00	개강식 및 조직소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허경화 교수)	
14:00 ~ 15:00	노동정세 (화학노련 심재호 실장)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이완 실습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허경화 교수)	
15:00 ~ 16:00			
16:00 ~ 17:00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실무 (항산하 노무사)		
17:00 ~ 18:00			
18:00 ~	저 녁 식 사	단 결 의 밤	

(6) 평가 및 과제

- 2박 3일 짝 찬 일정으로 산안간부들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계획표에 의해 교육을 실시함.
- 현장에서의 산재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권확보를 해야함을 인지시킴
- 산업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안전문화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 금속과 화학의 현장 산업안전담당 간부들은 같은 제조노동자라는 의식으로 연대와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음
- 교육 이후 연맹과 현장 산업안전간부의 정보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초를 이어가야 함

3.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여

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교육참여

1) 제 1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 6월 2일(금)
- 장소 : 천안상록리조트 그랜드홀
- 참가대상 : 단위 노조 산안간부 및 조합원, 회원조합 산안담당자 등
- 참가인원 : 100여명
- 교육일정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5/31(수)	6/1(목)	6/2(금)
08:00 ~ 09:00		아 침 식 사	
09:00 ~ 10:00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사례 (신한일전기노조 김영기 부위원장)	산업안전보건동향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활동 (한국노총 조기홍 실장)
10:00 ~ 11:00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베스트씨피알 홍석재 과장/ 심폐소생술 강사)	
11:00 ~ 12:00			교육 평가 및 수료식
12:00 ~ 13:00	교육등록, 접수	점 심 식 사	
13:00 ~ 14:00	개강식 및 인사말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개선활동 (대한산업보건협회 박정숙 팀장)	
14:00 ~ 15:00	특강 <4차 산업혁명과 안전보건> (백승렬 공학박사/기술사)		
15:00 ~ 16:00			
16:00 ~ 17:00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관리 (한국산업간호협회 정혜선 회장)	안전보건 토크콘서트 (소릿길 윤미진 대표 한국노총 정영숙 사무처장, 안전보건공단 이충호 본부장)	
17:00 ~ 18:00			
18:00 ~	저 녁 식 사	단 결 의 밤	

2) 제 2차 참여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일시 : 2017년 10월 18일(수) ~ 10월 20일(금)
- 장소 : 비체펠리스 동백홀
- 참가대상 : 단위 노조 산안간부 및 조합원, 회원조합 산안담당자
- 참가인원 : 60명
- 교육일정

시간	1일차 10/18(수)	2일차 10/19(목)	3일차 10/20(금)
08:00 ~ 09:00		아 침 식 사	
09:00 ~ 10:00		4차 산업혁명과 안전보건 (인간공학기술사/ 백승렬 박사)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산업안전보건연 구소/조기홍 본부장)
10:00 ~ 11:00		근골격계질환 예방 교육 (충남근로자건강센터/ 김주한 사무국장)	미디어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11:00 ~ 12:00		교육등록, 접수	교육 평가 및 수료식
12:00 ~ 13:00	점 심 식 사	점 심 식 사	
13:00 ~ 14:00	개강식 및 특강 (한국노총 김명환 부위원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실습 (김주한 사무국장)	
14:00 ~ 15:00	교육참가자 소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베스트씨피알 홍석재 과장/ 심폐소생술강사)	
15:00 ~ 16:00	저자와의 대화 <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최민, 김대호/직업환경전 문의)		
16:00 ~ 17:00	안전문화의 이해와 실천 (한국안전문화진흥원/ 윤석준 박사)	과로성 재해와 산재보상 (법학박사/이희자 공인노무사)	
17:00 ~ 18:00			
18:00 ~	저 녁 식 사	단 결 의 밤	

4. 각종 산업안전보건 행사 및 세미나 참석

가. 제17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1) 목적 및 기본방침

-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을 향상
- 한국노총 및 산하조직의 산인활동 확대와 노동건강권 쟁취를 위한 노조 역량 강화
-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재 근절을 촉구
-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ITUC(국제노총) 가맹 조직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

2) 산재노동자의 날 유래

(1) 국제 산재노동자의 날

- 1993년 태국의 한 장난감 사업체에서 화재사고로 188명의 노동자 사망
-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ICFTU), 유엔 회기중 전세계 각국의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추모의 촛불의식을 올림.

(2)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의 날 :

- 2000. 12월 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 :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명예보상과 권익향상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정부건의 산재희생자위령탑 건립을 이끌어 냄.
- 2001. 4. 28.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 개최, 2017년 현재 17회째를 맞음

3) 제17회 산재노동자의 날 슬로건 및 정책목표

-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
- 일터에서의 모든 근골격계질환 보호하라 !
- 원직복직 법제화하라 !

- 산재인정범위 확대하고 입증책임 전환하라 !
- 살인기업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처벌법 제정하라 !

4)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세부계획

(1)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8일(금) 오전 11시
- 서울 보라매 공원내 산재희생자위령탑

(2) 행사내용

○ 식전행사

- 산재희생자 추모 사진전시회(한국노총, 원진산업재해자협회, 경마장마필관리사 노동조합)
- 문화공연

○ 추모제

- 경과보고 (사무총장)
- 재할격려상 및 정부표창 시상 (위원장 및 고용노동부)
- 산재단체 지원금 전달식 및 산재환자 나눔행사(위원장후원 좋은친구 복지재단)
- 추모사 : 위원장
- 추념사 : 고용노동부, 산재단체 대표
- 산재희생자를 위한 추모의 노래
- 진혼의 행사
- 산업재해의 근절과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
- 헌화 및 분향

○ 참석 범위

-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 임직원, 노동조합 간부
- 산재노동자(산재단체 회원) : 4개단체 300명
- 노동부 및 관련기관 임직원

5) 산재희생자 추모주간 운영

○ 기간: 4월 24일 ~ 4월 29일

○ 추모주간 행사 내용

- 산재희생자 추모 리본 패용
- 현수막 게시
- 회원조합별 추모 행사 개최 또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 참석

나.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위원회 회의

(1) 목적

2017년도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및 ‘2017년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및 외부 안전보건관련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2) 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15:00 12:00

(3) 장소

- 노총 6층 대회의실

(4) 회의내용

- 김명환 상임부위원장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를 비롯하여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우정노동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 등 산재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로사를 비롯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예방 노력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업종별, 초급, 고급과정등의 형태로 세분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하는 등 했으면 한다. 그동안 일반적인 교육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어 기

존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가하였던 교육생의 경우 반복적인 내용에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안전교육도 필요하다.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좋은 아이디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비제조업종 특히 운수업종 경우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보다는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문화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안전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전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교육과 업종에 특화된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 제작한 산재예방포스터 3종 모두가 전체적으로 파란색 계통의 비슷한 느낌이다. 다양한 형태와 느낌의 포스터 제작이 필요하다.

다. 안전문화정착 및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 안전보건 간담회

(1)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9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으며 2천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음. 또한, 이로인한 경제적 손해는 20조원에 이르고 있음.
-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예방사업 추진만으로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해 예방과 특히,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사업주, 노동조합, 안전보건 민간단체 등 안전보건의 사회적 책임주체들의 역할 강화와 협력이 필요함.
- 이에 노사민정 안전보건 책임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논의를 통해 안전보건 의식 향상 및 각 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일시

- 2017년 11월 8일(수) 11:00~14:00

(3) 장소

-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연회장(서울시 중구 정동 3-7)

(4)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평가

- 김명환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송재성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장, 한국경총 임우택 본부장 등 산업재해예방의 사회적책임 주체인 노사민정 단체에서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러졌음
-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후에는 산업재해 예방의 사회적 책임 주체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진행.

5. 개정 출퇴근 재해 안내

1) 산재보험법 개정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18. 1. 1. 자로 개정됨에 따라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게 됨

2) 개정 주요 내용

-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기존에 산재 처리가 가능했던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외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추가됨
- 다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시 경로 이탈과 중단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시행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 예외를 인정함

3)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

가) 1)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나)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
 -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

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주거”(주택 등)와 “취업장소”(회사, 공장 등)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35조제2항에서 정하는 필요 용품 구입, 교육 훈련, 투표, 등하교 지원, 진료, 가족 돌봄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주거

-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 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
- “취업장소”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라)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 ①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②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 ③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마) 출퇴근 경로 이탈 및 중단

- 출퇴근 경로의 “이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이탈·중단의 경우 예외로 인정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구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5) 자동차보험과의 비교

- 자동차보험은 추가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상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큼(재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차이가 큼)
- 사망·장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산재보험이 유리
- 다만,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손해보장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청구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별 확인 필요(자손특약 보험금은 중복지급 제한, 산재보험은 중복지급 허용)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휴업)보상수준 비교 사례

- -노동자 A씨(평균임금:10만원) 출근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로 90일간 요양(진료비 75만원)
*수입감소액(공제 후 금액 기준) : 89,000원(세후 월 267만원÷30)
- 산재보험으로 청구시 : 7,050,000원
- 산재보험급여: 휴업급여*(630만원)+요양급여(75만원)
*휴업급여: 70,000원(평균임금의 70%)× 90일(요양기간) = 630만원
- 자동차보험으로 청구시 : 과실비율별 상이함
- 단독사고 또는 과실율 100% : 0원
- 과실율 80% : 1,591,700원 (=7,958,500원 × 0.2)
- 과실율 20% : 6,366,800원 (=7,958,500원 × 0.8)
※휴업손실액 6,808,500원 (75,650원(수입감소액의 85%)× 90일) + 위자료 40만원(상해등급에 따라 결정) + 진료비 75만원 = 7,958,500원

○ 비교

- 산재보험은 과실여부와 무관히 보상하나 자동차보험은 재해자 과실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자기 과실 비율에 따른 비교 필요

홍보선전활동

1. 홍보사업	315
가. 소식지	315
나. 기타선전활동	316
2.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업무	319
3. 교육	322
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322
나. 금속노련 '글쓰기 끝장내기' 교육	323
4. 부 록	324
가. 소식지	324
나. 임단투 포스터	362
다. 성명서	363
라. 논평	371
마. 보도자료	376
바. 금속노련 활동 동영상	385

평가 및 개선과제

2017년에는 금속노련의 사업과 현장의 최신이슈들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금속노련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발표 타이밍을 놓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속노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등 SNS가 전 세계적 추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홈페이지를 금속노련 소식전달과 방대한 노동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하는 반면에,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활동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내는데 활용하고 있다.

금속노련은 앞으로도 노동조합이 일반 시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설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

금속노련 유튜브에는 금속노련 활동영상과 노동문화 활동 영상을 업로드 했다. 특히 금속노련 공통울동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유튜브가 금속노련을 더욱 강하게 연대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최대 산별조직으로서 노동운동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2,000만 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언론 매체와 건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이 시민들에 가깝게 다가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가입률을 높여 노동운동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 홍보사업

가. 소식지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으로 시작하여, 5월 조기대선, 적폐청산 등으로 바쁜 한해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차에 내외신 특별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노조활성화를 위해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조결성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회사가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본부에서는 사측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금속노련과 지역본부·단위노조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투쟁하는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무력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해 금속노련의 입장을 소식지를 통해 전달했으며,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을 홍보하여 금속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노력했다. (금속소식지 23회 작성, 배포)

○ <소식지 목록>

[제325호]노동조합와해시도 즉각 중단하라!	17-04-07
[제326호]한국노총 대선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전 조합원 총투표 시작	17-04-10
[제327호]한국노총-문재인 후보 정책연대 협약 체결	17-05-02
[제328호]정기대의원대회 성공적인 개최 결의	17-05-17
[제329호]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한 힘 있는 투쟁 결의	17-05-26
[제330호] 기업사냥꾼 최규선을 엄벌하라!	17-06-16
[제331호]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위해 제조산업협의회 구성해야	17-06-26
[제332호] 50만 제조노동자 상설연대체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	17-07-03
[제333호]우리는 일하고 싶다! 산업은행은 책임져라!	17-07-13
[제334호]산업은행은 즉각 쉼코어 정상화에 나서라!	17-08-08
[제335호]주주배당 2,200억 vs 노동자 임금인상 9만원에 분노한다.	17-08-18
[제336호]조직화 사례 및 최저임금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17-08-23

[제337호]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17-09-11
[제338호]힘내라 썬코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17-09-28
[제339호]금속노련, 2017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17-10-23
[제340호]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17-12-13
[제341호]성암산업노동조합 본사 상경투쟁	17-12-21
[제342호] 살인기업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 당장 멈추라	18-01-31
[제343호]양대노총 제조연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개최	18-02-02
[제344호]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자	18-02-07
[제345호]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지역순회 돌입	18-03-08
[제346호]금속노련 2018년 상반기 지역순회	18-03-19
[제347호] 제조연대 제1차 교섭위원 교육 실시	18-03-27

※ 소식지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나. 기타선전활동

1) 임단투 포스터

임단투 포스터는 금속연맹의 총체적 사업과 투쟁을 일목요연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시각적 효과와 핵심 사업으로의 홍보기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사안마다 발행하여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적정 시기에 발마추지 못하여 현안 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제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

※ 임단투 포스터는 부록 별첨

2) 성명서

성명서는 총 8회에 걸쳐 발표했다. 금속노련은 다양한 주제와 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유지하여 사회에 부조리와 노동자 권리 하락에 항상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 <성명서 목록>

[성명서]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의 시작이기를 기대한다!	17-06-26
[성명서]여성과 노동을 비하하는 이언주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17-07-11
[성명서]집배원의 장시간노동, 과로사.돌연사문제 당장 해결하라	17-07-24
[성명서]기업사냥꾼 최규선 석방탄원, 즉각 철회하라	17-08-18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17-11-29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 쿠데타 당장 멈추라!	17-12-12
[성명서]살인기업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 당장 멈추라	18-01-29
[성명서]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가?	18-02-27

※ 성명서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3) 논평

논평은 총 5회에 걸쳐 발표했다.

○ <논평 목록>

[논평]새 정부의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관한 금속노동자의 입장	17-06-21
[논평]현대기아차그룹은 시대의 요구에서 도망치지 말라!	17-06-23
[논평]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17-08-24
[논평]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통과 환영한다,	17-09-22
[논평]노동부의 노동개악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17-09-25

※ 논평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4)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총 8회에 걸쳐 발표했다

○ <보도자료 목록>

[보도자료]'범법자 최규선 강력처벌 촉구 및 사기.배임.횡령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17-08-08
[보도자료]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정상화촉구 기자회견 개최	17-08-24

[보도자료]우리는 일하고 싶다!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17-08-30
[보도자료]한국노총위원장.금속노련위원장, 산업은행회장 면담	17-11-01
[보도자료]산업은행은 썬코어를 살려내라!	17-11-08
[보도자료]김영주장관, 금융위위원장에게 썬코어문제 이야기 하겠다	17-12-04
[보도자료]산업은행은 썬코어채권 경매를 철회하고 기업회생 진행하라	17-12-22
[보도자료]우리는 일하고 싶다! 공장으로 돌아가자!	17-12-28

※ 보도자료 상세내용은 부록 별첨

5) 금속노련 활동 영상

금소노련은 지난 1년간의 금속노련 활동 영상을 제작하여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영하고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활동영상을 통해 금속노련은 지난사업년도의 활동과 성과를 재조명하여 연맹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더욱 결속하게 하여 연맹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 자료는 부록별첨

2. 홈페이지 및 SNS 관리 업무

금속연맹은 홈페이지에 금속소식과 노동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외국 단체에 금속노련을 알리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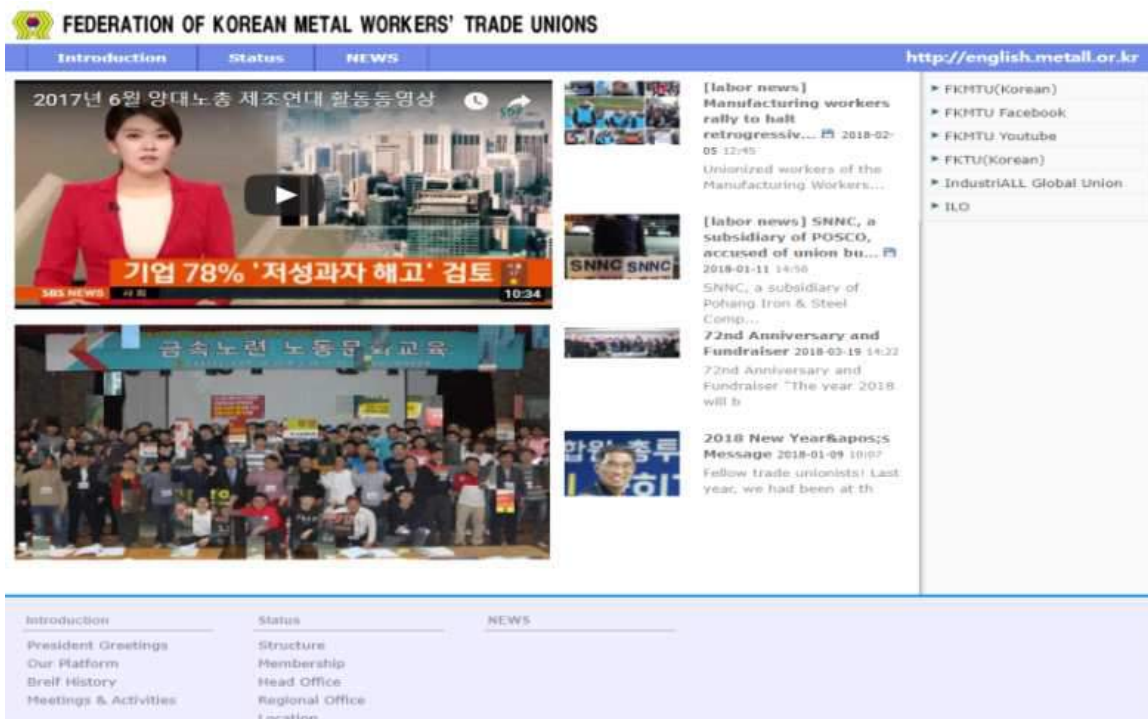
SNS가 정보전달의 주요 매체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금속노련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금속 소식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팬은 270여 명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팬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금속활동영상, 노동문화 활동영상, 금속 공통활동 영상 등을 미디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금속노련 홈페이지>



○ <금속노련 영문 홈페이지>



○ <금속노련 페이스북 페이지>



○ <금속노련 유튜브>



3. 교육

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1) 개요

- 금속노련의 홍보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노동조합 활동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와 조합 활동을 알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홍보선전 활동가 교육 마련

2) 사업개요

- 일시 : 10월 26일(목) ~ 27일(금) < 1박 2일 합숙교육 >
- 장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 수녀원
- 대상 및 인원 : 지역본부, 단위노조 홍보 담당 및 조합간부, 40명

3) 강의 시간표

일자 시간	1일차(10.26)	2일차(10.27)
07:30~08:40		조 식
08:40~09:00		
09:00~10:00	등 록	교육준비
10:00~11:00	중 식(등록 계속)	강의 3) SNS의 효과적 활용 <강사: 최익상 오픈컴즈 대표>
11:00~12:00		
12:00~13:00	안내 및 개강식	
13:00~14:00		
14:00~15:00	강의1) 노동조합 글쓰기 강좌 <강사: 이승립 참여와혁신 기자>	교육 평가 및 마무리
15:00~17:00		
17:00~18:00	강의2) 노동정세와 노동 이슈 <강사: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부장>	
18:00~18:30		
18:30~19:00	저녁식사 및 단결의 밤	
19:00~21:00		

나. 금속노련 ‘글쓰기 끝장내기’ 교육

1) 개요

-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조합원들의 노동자 의식은 물론 참여의식을 높이고 현장 조직력 향상
- 노동조합 홍보담당 일꾼들에게 부서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시킴으로서 홍보활동의 방향을 찾고 실무능력을 배양시킴

2) 사업개요

- 일시 : 2018년 3월 15일(목) 10:00 ~ 17:00
- 장소 : 충남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 대상 : 지역본부, 단위노조 홍보담당자 및 조합원

3) 강의 시간표

시간 \ 일자	교육내용	강사
09:20~10:00	접수 및 개강식	
10:00~12:00	강의1) 글쓰기 이론	매일노동뉴스 기자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강의2) 소식지 및 보도자료	매일노동뉴스 기자
15:00~17:00	강의 3) 주장의 글쓰기(성명서, 논평)	매일노동뉴스 기자

4. 부 록

가. 소식지

**퇴직 박근혜
노동개악 폐기
2017 실패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4월 7일 금 325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성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노총 8층 4호
Tel 02-6277-2000 Fax 02-6277-2011

노동조합 와해시도 즉각 중단하라!

- 농협사료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명령 즉각 철회하라! -



금속노련 농협사료노조(위원장 홍현표)가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직 처분으로 서울 본사 앞 천막투쟁 및 파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3월초 농협사료노조가 금속노련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조핵심간부 9명을 사전 협의절차 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역으로 전보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금속노련은 부당전직된 농협사료노조원들이 원직 복직하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뜻밖에도 2심법원에서 지금까지의 판결을 모두 뒤집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금속노련은 해고된 6명이 원직복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속노련 선전선동 교육 실시

금속노련은 4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2박 3일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7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선전선동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개강사를 시작으로 '노동정세 및 총투표 지침해설, 2017년 노동조합의 활동과 과제, 선전선동 이론, 쟁의프로그램 작성법 및 실습, 단체행동의 법적근거' 등 노동조합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강의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교육에는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조조정 사업장 실태조사

1. 보내실곳 팩스(02-6277-2011), 이메일(giwooksw@naver.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한국노총 804호
2. 기한 2017년 4월 30일(일)까지
3. 문의 객상국 정책부장(02-6277-2004)
4. 참고 설문조사 양식은 금속노련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일진전기 부당해고구제 탄원 서명지, 대법원 제출

금속노련은 금속 조합원 5,419명분의 '일진전기(반월)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탄원 서명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일진전기(반월)노조 조합원 6명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해고를 당했으며, 경기도 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정부 2대지침 분쇄
노동개악 저지
2617 심판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4월 10일월 32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성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노동 8층 4호 Tel 02-6277-2000 Fax 02-6277-2011

한국노동 대선 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전조합원 총투표 시작

- 금속동지들이여, 친노동자 정권수립을 위한 총투표에 동참 합시다! -

한국노동 대선지지후보 선출을 위한 전조합원 총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총투표는 지난 2월 한국노동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권교체, 적폐청산, 친노동자 정권 수립을 위해 전조합원의 총투표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노동 지지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세부적인 지침은 지난 4월 6일(목) 제41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중앙정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총투표 안건은 “사회개혁, 친노동자 정권 수립을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노동 지지후보 결정”이며, 투표 기간은 4월 10일(월)부터 4월 25일(화)까지 16일간이다.

총투표 대상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총 5명이다.

당초 금속노련은 제180차 중앙위원회에서 반노동자정당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를 투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411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중앙정치위원회에서 5명 모두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하며 투표용지를 임의로 변경(투표대상 추가 또는 누락행위)할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한국노동이 제시하는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속동지들께서는 금속노련 제180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반노동자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를 반드시 제외하고 투표하여 친노동자정당 후보가 한국노동 대선지지후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투표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예시된 투표 공고양식을 사용하여 단위사업장별로 (정기,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공고했음을 금속노련에 알린다.
2. 예시된 투표용지 양식으로 단위사업장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각 사업장별로 개표를 진행한다. 또한 그 결과를 자기 사업장에 공고한 후 금속노련에 보고한다.

3. 부득이하게 수기투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모바일 투표업체를 선정하여 모바일투표를 진행하거나, 각 사업장별 홈페이지에 총투표 게시판을 만들어 투표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노동 전조합원 투표결과는 4월 27일 발표되며 5월 1일 노동절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다 득표한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체결한다.

공 고 (예시)

2017년 한국노동 정기대의원대회 결의 및 한국노동 총투표공고에 따라 노조 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안 건 : “ 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노동 지지 후보 결정”에 관한 건
* 금속노련은 제180차 중앙위원 회의에서 <정권교체 민심을 반영하여 반노동자정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후보는 투표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투표일시 : 2017년 월 일 (또는 2017년 월 일 ~ 월 일)
3. 장 소 : 000

2017년 4월 00일

○○○○ 노동조합 위원장 ○○○ (직인)

투표용지 양식(규격은 변경가능)

사회개혁, 친노동자 정권 수립을 위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한국노동 지지 후보 결정

기호	정당	후보	기표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	정의당	심상정 후보	

0000노동조합 위원장 (인)

절
취
선
No.

금속노련의 총투표 관련 사항

1. 문의 및 투표 결과전송 정태교 조직부장 (02-6277-2007), 박스(02-6277-2011)
2. 참고: 총투표관련 세부지침은 홈페이지 (www.metal.or.kr) 소식란에서 다운 가능

정부 2대지침 분쇄
노동개악 저지
2017 심판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5월 2일(화) 32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성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노동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한국노총-문재인 후보 정책연대 협약 체결

- 대선승리로 노동기본권 회복, 노동존중의 새 시대 열자! -



한국노총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중앙위원회 개최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5월 1일(월) 오후 1시 30분 노총회관 13층에서 열린 '한국노총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제20차 중앙위원회'에 참석했다.

1부 행사는 세계노동절 기념식으로 진행됐으며, 금속노련 스태츠허프코리아노조 윤동현 위원장이 모범조합원 표창을 수상했다.

2부 행사로는 제20차 중앙위원회가 개최됐다. 먼저 김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수정권 9년은 노동자들에게는 잃어버린 9년"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선이 정경유착-반노동체계에 종지부를 찍고, 권력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5월 9일 대선까지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문재인 후보와 함께 승리의 길을 열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 출범당시부터 함께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동 존중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며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더 이상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인은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 체결

중앙위원회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노동기본권 회복,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위한 공동 선언도 발표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노동희망본부 설치 및 운영, 전 조직 지지선언 발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천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금속노련 각 조직은 한국노총의 실천방침에 따라 지역별, 사업장별 릴레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과 5월 4일 및 5월 5일에 진행되는 사전투표, 5월 9일에 진행되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한편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던 '노동법 전면개악 촉구 서명'에서 금속노련은 33개 조직 8,055명의 조합원이 서명에 동참했고, 중앙위원회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

- 사전투표 : 2017년 5월 4일(목), 5일(금) 06:00~18:00
- 본투표 : 2017년 5월 9일(화) 06:00~20:00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정부 2대지침 불쇄
노동개악 저지
2617 심판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5월 17일(수) 32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성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노동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정기대의원대회 성공적인 개최 결의

- 181차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 확정, 안건 심의 마쳐 -



금속노련은 5월 1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18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기대의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의 친노동자 정권교체 성공은 금속동지들의 적극적인 투쟁과 노력의 결과였다”고 평가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적극 노력해준 금속노련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불법 2대지침, 단협시정명령, 불공정 하도급 등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금속노련은 당면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봉에 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대의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의원 자격심사 거쳐 728명 명단 확정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5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여주소재 한국노동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와 관련 △회순심의 건△대의원 자격심사 건△표창자 확정 건△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이날 대의원 자격심사를 거쳐 728명의 대의원 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사업 및 예산 심의 소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노동 6층 소회의실에서 “사업 및 예산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

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활동기조 △부서별 사업 평가 및 2017년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201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의 원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중심의 건장한 금속노련이 될 것을 주문했다.

썬코어 노동조합 '최규선 엄벌 촉구' 기자회견

금속노련은 경기도 파주에 소재하는 금속노련 썬코어 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 한국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5월 16일(화)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최대의 사기꾼 최규선’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기업사냥꾼 최규선을 엄벌하여 썬코어 경영 및 자본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것」과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투기자본 철해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일진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금속노련은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 투기자본들이 썬코어 경영에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통해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리전력 있는 사람의 대주주 제한 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썬코어 조합원 30여명은 ‘법일자 최규선 대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7 심판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5월 26일(금) 32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35) 한국노총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한 힘있는 투쟁 결의

- 2017년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5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7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금속노련은 지난 9년간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했고 드디어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며 “새 정부는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와 정경유착을 청산하고 무너진 노동권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새 정부 노동·산업·경제·복지정책에 노조 참여를 당당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선출

금속노련은 이날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선출했다.

보궐선거 결과 김해광(서울지역본부)·배준호(구미지역본부)·천정근(포항지역본부)·강국모(SK하이닉스청주노조)·류재선(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이준덕(풍산노조) 부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이 금속노련 임원으로 선출됐다.

적폐청산과 노동있는 민주주의 실현위한 투쟁 결의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50만 제조노동자와 2천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대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폐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재벌개혁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2017년 사업계획 등 확정

이외에도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 연맹위원장 표창과, 공로상, 감사패, 조직확대 우수 본부상(서울지역본부) 시상, 이어 △2016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 및 2016 회계연도 결산보고 △임원보선 선출 △중앙위원, 노총파견대의원, 노총선거인단 선출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2017년도 예산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박인상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등 많은 선배동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산별연맹 대표자, 지역본부 의장, 이용득 의원,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일본 JCM 및 대만 ROCMU 대표단 등 6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7 임단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6월 16일(금) 33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기업사냥꾼 최규선을 엄벌하라!

- 섀코어 경영정상화 및 노동자 고용 생존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기업사냥꾼 최규선 피해기업 경영정상화 및 노동자 고용 생존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이. 섀텍, 현대 피엔씨, 한국노총, 금속연맹, 약탈경제 반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은 섀코어 노동조합,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이용득의원 등과 함께 15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업사냥꾼 최규선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와 노동자 고용 생존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실한 회사와 최규선과 사기꾼 일당들에 의해 망해갈 때까지 금융감독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고 비판하며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최규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섀코어섀텍의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속노련 12만 동지들은 섀코어와 섀텍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주훈 섀코어 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업사냥꾼 최규선을 엄벌하고 섀코어 경영 및 자본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것」과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투기 자본 철폐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이 철무침미하게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절박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최규선의 부활을 막지 못한 행정당국과 국회의 책임이 크다"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국회와 행정당국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2017 금속노련 노조간부 기본교육 실시

금속노련은 6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2박 3일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017 금속노련 노조간부 기본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노조 간부의 지식함양과 노동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2017년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개최했으며, 총 11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개강사를 시작으로 2017 금속노련 운동방향, 노동조합 간부의 기본자세,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세계 노동역사로 본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활동과 나, 노동조합 실무교육, 노동관계법 등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꼭 필요한 강의들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외주화를 중단하라! 정규직을 채용하라!

- 불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출·퇴근 투쟁 -
금속노련 불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조승구, 이하 “불보건설노조”)이 ‘사측의 일방적인 서비스·영업부문 외주화정책 분쇄와 조합원 고용 안정 쟁취’를 위해 서울 한남동 사옥 앞 출·퇴근 투쟁 및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불보건설노조 조승구 위원장은 “사측은 서비스 부문에 이어서 영업부문 딜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소형·소선화·굴삭기 부문 영업딜러를 구한다는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했고, 정규직 영업사원들은 고객들로부터 제품을 주문받더라도 바로 판매를 못하고 딜러들에게 소개 해줘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보건설노조 이무근 사무국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을 물러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보건설노조는 6월 19일(월), 21일(수) 양일간 서울 한남동 사옥 앞에서 “전국대의원 총집결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창원공장 노조와도 연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엘링크링거노조, 천막농성투쟁 및 부분파업 돌입

구미에 위치한 금속노련 엘링크링거노조(위원장 복명진)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어려움을 겪은 끝에 천막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엘링크링거노조는 지난 2월 8일부터 총 7차례에 걸친 교섭과 수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제시한 인에 대해 검토안 제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참여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결정을 받았으며, 6월 12일 구미 공장 앞 무기한 천막투쟁과 동시에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엘링크링거노조 복명진 위원장은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 뿐 아니라 대의원대회 참석 등 노조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조차 거부했다”며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사측이 보여준 행태를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임단협과는 별개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수당을 축소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엘링크링거노조의 투쟁에는 금속노련 구미지역 본부와 노틸러스효성노조 등이 연대하고 있다.

6월 28일(수), 양대노총제조연대 공식 출범

금속노련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제조공투본이 양대노총제조연대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로 공식 출범한다.

양대노총제조연대는 오는 6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제조공투본을 상설적 연대체인 ‘양대노총제조연대’로의 한 단계 발전을 공식화하는 출범식과 함께 출범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향후, 양대노총제조연대는 핵심사업인 제조업발전특별법을 공론화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동한 제조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구조조정 사회적 대화기구와 노동조합의 산업정책 개입방안 등 연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 1부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식’에는 제조연대의 활동 백서 발간보고와 활동보고영상 상영,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되며, 행사 2부에는 기념토론회가 진행된다.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7 임단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6월 26일(월) 33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준영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6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위해 제조산업협약체 구성해야

- 김만재 위원장, 한국노총-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서 강력히 요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6월 20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4층에서 개최된 '한국노총-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총의 입장과 일자리관련 정책현안 등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만재 위원장은 "제조업 일자리 창출과 100년을 내다보는 제조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조산업협약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자리위원회 내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조 부문 일자리 논의기구 설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산하의 쉼코어 노동자들과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으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구조조정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만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임원진 및 회원조합 대표자 총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이용섭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 참석했다.



금속노련-베트남 산업통상노동 교류회의 개최

- 양국 노동운동 발전과 노동자 권익수호 위해 협력하자 -

금속노련은 지난 6월 19일(월)부터 20일(화)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금속노련-베트남 산업통상노동(VUIT) 교류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의에는 금속노련 정일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 조직본부장, 김해광 서울지역본부의장 등 총 6명이 참석하여 VUIT와의 간담회 및 베트남 단위노동조합 시찰 등을 진행했다.

19일 진행된 VUIT와의 간담회의에서 정일진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26년째 교류하고있고, 해마다 교류의 영역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노동부문에서도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노동운동발전과 노동자 권익수호를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VUIT 리콕홍 위원장은 "양국의 노동환경은 다르지만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한다면 노동자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정세전망과 조직현황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정기적으로 교류회의를 개최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일방적 외주화 추진 중단하라!

금속노련 불보건설기계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조승구, 이하 '불보건설노조')이 '사측의 일방적 외주화 분쇄와 조합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3주차 투쟁에 접어들었다.

불보건설노조는 6월 12일(월)부터 서울 한남동 사옥 앞 출퇴근투쟁과 중식집회를 시작했으며 19일(월)과 21일(수)에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대의원 상경집회를 개최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19일 1차 상경집회 연대사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외주화를 밀어붙이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번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에서는 투쟁과는 별도로 일자리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불보 본사가 위치한 스웨덴 금속노조와 연대하여 사측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 경고했다.

더불어 "13만 금속노동자는 불보노조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강력히 연대하고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불보건설노조 조승구 위원장은 "불보건설노조 조합원 전원은 강하게 투쟁하여 확실히 승리할 수 있다는 열기로 가득찬 상태"라며 "이번 투쟁에 승리하여 사측이 그동안 노조에 보인 안하무인적 행태를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향후 3차 4차에 걸쳐 더욱 크고 강한 집회를 진행할 것이다"며 "사측이 굴복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6월 26일(화) 12시 서울 한남동 사옥 앞에서 전 조합원이 결집하는 3차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



엘링크링거 노조 잠정 합의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어려움을 겪던 금속노련 엘링크링거노조(위원장 복명진)가 천막투쟁과 부분파업투쟁 끝에 임단협에 합의했다.

엘링크링거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임금 상승을 비롯하여 조합활동 및 교육활동 보장, 직무 전환된 조합원 3명에 대한 연봉제 적용 등을 쟁취했다.

엘링크링거노조는 총 7차례에 걸친 교섭과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6월 12일부터 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금속노련과 금속노련 구미지역본부, 지역단위노조 등은 엘링크링거노조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연대해왔다.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식 및 기념토론회

1.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14시
2.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3. 행사: 1부 양대노총제조연대 출범식(양대노총 제조공부본 백서 발간 보고 및 활동보고 영상 상영), 2부 기념토론회(4차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

금속노련 여성간부 교육 개최

1. 일시: 2017년 7월 5일(수)~7일(금), 2박3일
2. 장소: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86-4 ☎ 02-333-6227)
3. 대상: 노동조합 여성간부 및 조합원
4. 교육참가비: 3만원
5. 교육내용: 한국노총 여성활동방향,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4차산업혁명과 노동운동,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탐방, 여성관련 영화, 노동관계법
6.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 으로 6월 30일(금)까지 신청서를 발송바람
7. 문의: 김영미 여성본부장(02-6277-2006)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7 임단투 승리!

금속 소식지



2017년 7월 4일(화) 332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김만재 편집인 : 김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50만 제조노동자 상설연대체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 - 재벌대기업 중심에서 노동이 중심되는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자!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50만 제조노동자 상설연대체인 ‘양대노총 제조연대’ 출범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금속노련을 포함하여 한국노총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연맹 총 4개 조직은 6월 28일(수) 한국노총 8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공동투쟁체를 한 단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대노총 제조연대’로 출범한다고 선포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2015년 3월 출범한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3월 11일 출범식 및 제조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4 제조노동자대회, 7.22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 공동 현장순회,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개최 등 박근혜와 재벌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업종과 지역, 상급단체를 뛰어넘는 연대의 정신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운동의 새 지평

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의 발전과 부흥,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제조산업협의회’ 구성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조업 정책, 재벌정책,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재벌대기업 중심에서 노동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 제조산업발전특별법·재벌개혁 입법 ▲ 4차 산업혁명과 연동한 제조업 부활 협의구조 구축 ▲ 최저임금 1만원 쟁취·실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 산별노조 운동 강화 ▲ 제조연대 차원의 공동 현장순회 정례화 등을 5대 핵심사업으로 발표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는 양대노총 제조연대 4개 조직 대표자 이외에도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옥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김경협, 강병원, 어기구, 무소속 윤종오의원 등 내외빈과 제조연대 조합원동지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제조연대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

출범식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산업, 그리고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념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이원보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을 좌장으로하여 두 개의 발제와 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1)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문호 소장(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다.

이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한국경제 및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의존 산업구조,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등 이라 규정한 후,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 노동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등을 제시했다.

발제(2)에서는 송영섭 원장(금속노조 법률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산업발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한국제조업의 문제점과 결부하여 설명한 후 제조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상호토론 시간에는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속에서 한국의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4차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노사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김성혁 원장(금속노조 연구원), 황선자 선임연구위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조성재 박사(한국노동연구원), 김종호 사무관(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박기수 정책부장(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한 참석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서는 제조산업발전법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고, 대기업 갑질 근절하자!

금속노련은 6월 29일(목)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한국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금속노련과 한국노총 간부 및 조합원 500여명은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 촉구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2,000만명의 임금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열망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그 동안 대기업들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해 왔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이 탄생하고 노동소득이 양극화된 것”이라며 “금속노련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정부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회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주위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와 함께 행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기고 어제 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렬됐으며 7월 8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금속노련 문화부장(담당자) 워크숍 개최

금속노련은 7월 13일(목)부터 14일(금)까지 1박2일간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제8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를 의제로 금속노련 문화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의: 김영미 정책본부장(02-6277-2005)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쥘코어 경영을 정상화하라! 고용생존권 보장하라!
- 투기자본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7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투기자본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에 참석하여 약탈적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투기자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구제를 위해 발 벗고 나서자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투기자본은 탈법과 불법 행위를 불사하는 반노동, 반사회적인 약탈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챙겨 철수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투기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노동자 경영참여 등 근본적 해법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련 가맹 조직인 쥘코어는 사기꾼 최규선의 먹잇감이 되어 고사직전에 내몰렸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하며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적극개입하여 쥘코어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금속노련 12만 동지들은 쥘코어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보 이사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을 좌장으로하여 김재율 대표(약탈경제반대행동)의 발제와 김주훈 금속노련 쥘코어노조 위원장의 사례발표, 정승일 이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김호열 지부장(사무금속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주훈 쥘코어노조 위원장은 사례 발표에서 “쥘코어 문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쟁에서 승리하여 더 이상 쥘코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공군 고등훈련기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KAI노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류재선 KAI노조 위원장은 7월 4일(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 공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고등훈련기(APT)에 KAI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재선 KAI노조 위원장은 김주영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몇 일전 노동계를 대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박 4일간 미국을 방문하여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텐데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 공군은 차세대 APT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KAI의 훈련기가 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만재 위원장은 “미국 APT 사업은 그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며 공급자로 선정될 경우 3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실의에 빠진 경남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 위원장은 “KAI의 고등훈련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았으며, 차후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항공산업에서 그 핵심이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KAI가 최종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 및 양자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미공군이 한국산 고등훈련기인 T-50A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3]

2017년 임단투 투쟁승리!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존중사회 건설!

금속 소식지



2017년 7월 13일(목) 33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김만재 편집인: 김준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Tel)02-6277-2000 Fax)02-6277-2011

우리는 일하고 싶다! 산업은행은 책임져라!

- 켄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과 켄코어노조(위원장 김주훈)가 산업은행에 사기꾼 최규선의 경영권 박탈과 켄코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오후 2시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켄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서 “희대의 사기꾼 최규선은 켄코어를 인수한지 2년도 안되서 건설했던 기업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며 “심지어는 형집행 기간 중에도 옥중 경영을 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이 중단되어 병원에 있을 때에도 경영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방관만 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적극 나서서 최규선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켄코어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격려사에서 “선량한 노동자들이 사기꾼 최규선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어 고용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이미 켄코어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했다”면서 “더이상 모른척 방관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켄코어 경영에 적극 개입하여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국책은행으로서의 미망

한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13만 금속동지들은 끈끈한 연대와 단결로 켄코어노조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날 대회에 참가한 금속노련, 켄코어노조, 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조, 명화공업노조, 한국노총 조직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단, 경기서북부지부 등 총 100명의 동지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채권자 산업은행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과 켄코어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련, 이연주 의원의 정계은퇴 촉구 성명서 발표
- 노동혐오와 여성비하 하는 자, 국회의원 자격 없다 -

금속노련은 11일(화) 국민의당 이연주 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행위가 노동혐오와 여성차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연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그냥 밟히는 아줌마들, 미친 놈들로 비하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직업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직업 멸시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외를 보듬는 정치를 표방하는 이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부끄러움을 알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해야 하며, 국민의당에서는 이의원을 최고 수위로 징계하라” 촉구했다.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큐알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금속노련, 여성간부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금속노련은 2017년 7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금속노련 여성간부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금속노련 노동조합 여성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금속노련 여성간부의 능력향상 뿐만 아니라 여성간부들 간의 소통을 위한 자리”라며 “교육에 참석한 동지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의견을 교환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신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금속노련은 여성 조합원의 참여 확대와 여성 활동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노동조합 내의 여성활동 활성화와 건강한 조직 문화형성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최미영 한국노총 부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허은영 연세대 젠더연구소 연구원의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4차산업과 노조운동(경기도 교육연구원·서울시립대 진숙경 겸임교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탐방, 노동관계법(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장진영 변호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허은영 연세대 젠더연구소 교수는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이나 성희롱 문제는 남녀 간의 성인지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성에 관해서 남녀 간의 정확한 시각 차이를 이해한다면 건전한 소통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에 참가한 한 여성간부는 “여성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한국노총 내에서도 사실상 찾기 어렵다”면서 “금속노련이 실시하는 여성

간부 특화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알고 싶었지만 다가가기 어려웠던 주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속노련은 여성노동자와 여성간부를 위한 강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像(상)서울건립 모금운동

- 지옥섬 군함도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

한국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서울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제시대에 강제로 끌려가 억울하게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일제강제동원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 교토에 위치한 ‘단바망간기념관’에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像>을 건립했으며, 올해는 서울에 건립을 추진 중이다.

모금에 참여한 동지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서울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및 추진위원으로 등록되며 서울에 건립될 노동자상 주변에 참여자 이름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다.

금속 동지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

▶공동대표참가비: 30만원/추진위원참가비:10만원

▶문의: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02-6277-0076)

▶입금계좌: 수협, 416-01-00130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입금시 반드시 신청서와 동일한 조직명 기재 요망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노동자 합동추모행사 참가요청

1.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23일(수) ~ 25일(금) / 일본 단바, 마이즈루 등
2. 모집기간: 2017년 7월 18일(화) 15시까지 /
3. 참가신청서 제출(금속노련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다운가능)
4. 모집인원: 한국노총 전체 20명 선착순 모집
5. 참가비: 1,100,000원 (입금처: 수협, 416-01-00123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6. 접수처: 팩스02-6277-0077/전자우편 goodnews@inochong.org (입금시 반드시[조직명]기재)
7. 문의: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02-6277-0071)

「금속 소식지」는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취!
2017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17년 8월 9일(수) 제33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amtu

산업은행은 즉각 켜코어 정상화에 나서라!

- 켜코어 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 및 최규선 경영일선 축출 촉구 결의대회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과 켜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금속노련/한국노총/켄코어 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는 8월 9일(수) 15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켄코어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 및 최규선 경영 일선 축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최규선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기자본과 함께 켄코어에 들어왔다”며 “40년간 건설하게 운영되던 회사가 최규선의 농간으로 불과 1년만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고 선량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켄코어 노동자들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앞과 국회 앞에서 우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 얼마 전에는 검찰에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규선을 고발하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산업은행이 켄코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최규선은 켄코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일터에서 쫓겨



나고 내몰리는 와중에도 어떠한 법적·물리적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옥중 경영을 일삼고 있다”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규선과 그 일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고 추가 범죄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 해당하는 만큼 켄코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13만 금속동지들이 켄코어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등이 연대사와 투쟁사를 통해 향후 켄코어노조의 투쟁에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부 의장은 산업은행장에게 ▲최규선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할 것 ▲켄코어의 자율협약, 기업회생 신청 등을 추진할 것 ▲켄코어 노동자의 고용생존 유지를 위한 방안 강구할 것 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생취!
2017 입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17년 8월 9일(수) 제33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mtklu

산업은행은 즉각 켄코어 정상화에 나서라!

- 켄코어 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 및 최규선 경영일선 축출 촉구 결의대회 -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과 켄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금속노련/한국노총/켄코어 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는 8월 9일(수) 15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켄코어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 및 최규선 경영 일선 축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최규선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기자본과 함께 켄코어에 들어왔다”며 “40년간 건설하게 운영되던 회사가 최규선의 농간으로 불과 1년만에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고 선량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켄코어 노동자들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채권자인 산업은행 앞과 국회 앞에서 우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왔고, 얼마 전에는 검찰에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규선을 고발하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산업은행이 켄코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만 하는 때”라고 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최규선은 켄코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일터에서 쫓겨



나고 내몰리는 와중에도 어떠한 법적·물리적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옥중 경영을 일삼고 있다”면서 검찰과 금융당국은 최규선과 그 일당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고 추가 범죄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 해당하는 만큼 켄코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13만 금속동지들이 켄코어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등이 연대사와 투쟁사를 통해 향후 켄코어노조의 투쟁에 연대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부 의장은 산업은행장에게 ▲최규선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할 것 ▲켄코어의 자율협약, 기업화생 신청 등을 추진할 것 ▲켄코어 노동자의 고용생존 유지를 위한 방안 강구할 것 등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썬코어 공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썬코어 고용생존권 공동대책위원회(금속노련/한국노총/썬코어노조/약탈경제반대행동)는 8월 17일(목) 1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썬코어 고용생존권 보장 및 경영정상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 김주훈 썬코어노조 위원장과 조합원 동지, 한국노총 백대진 조직본부장, 약탈경제반대행동 김재율 공동대표와 홍성준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썬코어 노동자들의 절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추창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존에 있던 썬코어의 일자리는 기업사냥꾼 최규선에 의해 유린당한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썬코어는 오일레스 베어링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썬코어 노동자들 또한 이 분야의 숙련공들”이라면서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강소기업의 기술력마저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썬코어 노동자의 고용생존권 보장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썬코어 노조 위원장은 “최규선이 대표로 취임한지 2년만에 기업사냥꾼들의 탐욕과 불법행위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형 종합 공급업체가 망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수 십년을 회사



에 헌신했던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하루 아침에 길 거리에 나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관련당국은 썬코어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다시는 최규선 같은 기업사냥꾼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철저한 감시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주훈 썬코어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썬코어 노동자들의 호소문’과 ‘썬코어 노동자 고용생존권 및 경영정상화 촉구! 투쟁경과 및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K-MEC(미쓰비시 엘리베이터)노조 현판식 개최

금속노련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노조(위원장 전상, 이하 ‘미쓰비시 노조’)가 설립 1년 반 만인 8월 17일(목), 서울 여의도 노조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미쓰비시 노조는 기존에 이미 2개의 노조가 존재한 가운데 2016년 2월 10일 설립했으나 조직화에 전념하여 초기 4명의 조합원을 330명까지 늘려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 또한 2017년 입단협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어 건강한 노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판식에는 정일진 금속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성수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나병호 금속노련 노사대책부장, 김해광 금속노련 서울지역본부 의장, 이병규 롯데알미늄노조 위원장, 조승구 볼보건설기계코리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격려와 축하인사를 보냈다.



최강자노련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생략!
2017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17년 8월 23일(수) 제33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팩스:02-6277-2011

조직화 사례 및 최저임금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 노조 조직화 활성화는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 -



금속노련은 8월 22일(화) 한국노총 대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조직화 사례 및 최저임금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채되어있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고 최저임금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노동자 10%만 노조에 가입한 조직률이 낮은 국가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90%를 조직화할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오늘 발표할 조직화 사례와 조직활성화 방안이 현장의 조직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저임금 상승 결정으로인해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내년도 교섭을 걱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금속노련이 설명하는 최저임금 실무와 대응방안이 각 조직이 고민하는 바를 상당부분 해결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속노련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13만 금속노동자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조직활성화 관련 주제에서는 한국노동사회 연구소의 노광표 소장과 이주환 연구위원, 이상범 객원연구위원이 ‘산업별 조직화 현황 및 추세’와 ‘조직화 사례 및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노광표 소장은 “노조 조직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조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조직활동가 양성교육, 노동상담센터 설립, 튼튼한 재정확보 등 조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종덕 금속노련 노사대책 실장이 최저임금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으며, 사측과의 교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금속노련은 2017년 8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2박 3일간 울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2017년 제1차 제조연대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심있는 조합간부 및 동지 등 총 100여명 참석했다.

교육은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노동정세 강의를 시작으로 배승렬 박사의 ‘노동자와 4차 산업혁명, 산재보상실무(황산하 노무사), 근골격계질환예방 이론 및 실습(박현진 교수), 현장 산업안전 활동사례(김영기 신한일전기 부위원장)로 진행됐다.

특히 김준영 사무처장은 “최근에 산재가 비정규직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속노련은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재취!
2017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7년 9월 14일(목) 제33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fortku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제조노동자답게! 단결과 연대로 힘차게 전진하자! -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강화를 위한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전국대표자 체육대회가 금속노련 단위노조 위원장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7일과 8일 양일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체육대회 개막식에는 금속노련 단위노조대표자, 지역본부의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산별 위원장, 금속노련 선배님 등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조직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전국에서 참석한 모든 대표자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금속동지들의 연대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노동개혁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왔던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노동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장시간 노동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되어 현장에서는 또다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연맹은 최저임금 인상이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장시간노동, 통상임금 문제의 면죄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만재 위원장은 제조산업의 부흥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조산업협의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속노련은 양대노총 제조연대를 중심으로 정부에 이 사항을 공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식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체육대회는 7일(목) 축구와 족구 예선전을 시작으로 8일(금)까지 축구, 족구, 줄다리기, 야구윷놀이, 이어달리기 5종목을 겨뤘다.

화합, 희망, 단결, 연대팀은 우승기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그 결과 희망팀(대구·경북, 구미, 포항, 광주·전남, 전북)이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시상현황

종합우승	희망팀	준우승	단결팀
종목별우승	축구-연대팀, 족구-희망팀, 야구윷놀이-희망팀, 줄다리기-희망팀, 이어달리기-단결팀		

제8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함께 열려

금속노련은 9월 7일(목) 오후4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에서 제8회 금속노련 노동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 율동 8팀, 풍물 2팀이 참석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다.

특히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경연대회 참가팀 전체가 무대에 올라가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합창하는 특별 공연이 진행되어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경연대회 결과 율동부문 금상은 ‘불나비’를 공연한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우리가 차지했으며, 풍물부문 금상은 ‘반격’을 공연한 SK하이닉스 청주 하울림이 차지했다.

제9회 금속노련 위원장기 대표자 체육대회 협찬현황

[협찬금 및 협찬물품]

금속노련 전지역본부, A.F.T, GMB코리아, KR모티스, LCDisplay, LG전자, LS-Nikko동제련, OTIS엘리베이터, PN중년, SK하이닉스, SK하이엔지, YK Seel, 귀뚜라미법양냉면, 남성, 넥스트코리아, 니콘코리아, 대경기계기술, 대동도어, 대동시스템, 대동하이텍스, 대림동상, 대성텍에너시스, 대원전선, 대한전선,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창원, 덴소코리아엘렉트로닉스, 도우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동부연철스틸, 두원아산, 두원중공업, 롯데일미늄, 리한, 린나이코리아, 메그나칩반도체, 미큐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성공조, 삼아일미늄, 삼양강속기, 삼익THK, 세론오토모티브, 서전산업, 세방전지, 세아메스틸, 세아강원특수강, 세원셀론텔, 세원정공, 세일공업, 스타리온성철, 스테츠칩코리아, 신원, 신한일전기, 신한테크노엔비, 심택, 양산금속대표자, 에스엘계열사들, 에스엘미러텍, 에스엘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영진, 영종석포제련소, 우영산업, 우지막코리아, 유니크, 인일과코리아, 청우하이드로, 캡스, 코리아월, 타이코AMP, 태양금속, 테크솔루션, 평화발레오, 평화산업, 평화정공, 종산, 종산홀딩스, 프리코,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국철강, 한국특수전지, 한국파워트레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라스텍폴, 한일전기, 해강알로이, 쉐즈코퍼레이션, 현대모비스, 희성금속

[후원해주신 곳]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IT사무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섬유유동노동조합연맹,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연한노동조합연맹,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주한미군노동조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본부, 한국노총 시흥지역본부, 한국노총 여천여주지역본부, 한국노총 장항문화재단, 금속개혁연대, 금속노련 전선협의회, 노사발전재단

많은 분들의 협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시상현황

율동 부문	금 상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우리
	은 상	대동하이텍스 은혼
	동 상	신한일전기 신천지
풍물 부문	장려상	세론오토모티브 날개, 세아메스틸 불꽃, 스테츠칩코리아 화살, SK하이닉스청주 하울, SK하이닉스이천 신화강조
	금 상	SK하이닉스 청주 하울림
	은 상	SK하이닉스 이천 천공소리



더많은 정보는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산업발전특별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 제조업 부활을 위한 사회의 역량을 모아가자 -

양대노총 제조연대(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이하 ‘제조연대’)는 9월 13일(수)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제조업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발전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네 명의 양대노총 제조연대 위원장과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이 함께 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몇십년 동안 제조업은 국민경제를 떠받치는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는 중국 등의 후발국들의 진입과 고용불안·소득양극화에 따른 내수·투자의 침체, 금융서비스 중심 성장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서비스산업 중시 정책으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이제는 제조기업의 운명이 산업발전이 아니라 채권단의 자금회수가 먼저라는 논리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이 튼튼해야 서비스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조업의 부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기적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 정의당 노회찬·심상정·이정미·김종대·윤소하·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정성호·박주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다.

채권단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에 나서라!

- 켄코어 노조 산업은행 앞 집회 개최 -

금속노련 켄코어노조(위원장 김주훈)가 9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산업은행 앞에서 ‘켄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켄코어 제품을 사용했던 거래처들이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가의 일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켄코어의 제품을 원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모른체하지 말고 켄코어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켄코어를 살리기 위해 투쟁한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아직도 방관만 하고 있다”며 “금속노련은 켄코어 문제를 국정감사 의제로 정식 제안하여 관련 사건을 철저히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켄코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금속노련의 13만 동지들은 산업은행이 방관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며, 켄코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적극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명화공업노조, 남양공업노조, 켄코어노조, 화학노련 울촌화학노조, 삼미화학노조 등 50여명의 동지가 함께 연대했다.



이강산노련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취!
2017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7년 9월 28일(목) 제338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판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팩스:02-6277-2011

힘내라 켄코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 금속노련, 켄코어 경영정상화 집회에서 투쟁기금 전달 -



금속노련은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켄코어 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련 정일진 수석부위원장과 금속노련 본부,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중앙투쟁선봉대, 문계순 보조출연자노조, 금속노련 한국보그워너티에스노조, 남양공업노조, 명화공업노조, 불보코리아노조, 이수엑사보드노조, 나콘코리아노조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연대의 뜻을 보냈다.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건설한 중소기업인 켄코어가 기업사냥꾼 한명 때문에 문을 닫게 생겼다”며 “산업은행은 내 일이 아닌 듯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켄코어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추석이 코 앞이지만 켄코어 동지들은 수개월 치 월급을 받지 못해 빚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며 당당히 승리하여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진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켄코어 동

지들이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지치기는 커녕 승리를 위한 의지가 더 커지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켄코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이슈화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선량한 노동자들을 울린자들을 단죄하고 켄코어 공장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13만 금속 동지들은 켄코어 투쟁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속노련이 모금한 투쟁기금을 켄코어노조에게 전달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누가 켄코어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는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기꾼 최규선에게 대출까지 해주고 건설한 회사를 경영 불능에 이르게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계순 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은 투쟁 발언에서 “노동자가 연대하면 어떠한 자본과 권력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산업은행은 알아야한다”면서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산업은행은 주채권자로서 지금이라도 켄코어 정상화에 힘을 보태라”고 밝혔다.

집회가 끝난 후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 최장운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산업은행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켄코어 투쟁기금 모금에 함께해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MEMC코리아, K-MEC, GMB코리아, LS산전,
SK하이닉스이천, SL미러텍, TRW, 갑을메탈,
교세라캐릭터, 남양공업, 넥상스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니콘코리아, 대동모벨시스템, 대동하이텍,
대풍공업, 대한제강, 대흥산업, 도루코, 두원중공업,
런나이코리아, 명화공업 안산지부, 불보건설기계코리아,
비츠로, 삼동, 삼아알미늄, 삼양삼속기, 삼양전자,
서연타입탈, 선일다이파스, 성암산업, 세아제강,
세아특수강, 세일공업, 스테츠칩팩코리아, 신한테크노일반,
아이아, 알코아코리아, 애디언트코리아, 에이엔피,
영진, 오스텍,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우지막코리아,
유니크, 이수엑시보드, 이젠텍, 일진전기(반월),
코리아휠, 코스틸, 타이코AMP, 태양금속, 테크팩솔루션,
평화빌레오, 풍산FNS, 풍산홀딩스,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국과워트레인, 한라스텍폴, 한미전선, 한즈코퍼레이션,
현대모비스, 화신테크, 금속노련(경기본부, 구미본
부, 대전본부, 안산시흥본부, 인천본부, 충북본부,
사무처)

노동부 2대 지침 폐기

금속노련은 9월 25일,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위해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노동부의
양대 지침(‘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폐기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
표했다.

논평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양대지침 폐기 결
정을 환영한다” 밝히고, “이번 양대지침 폐기를 시
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노동적
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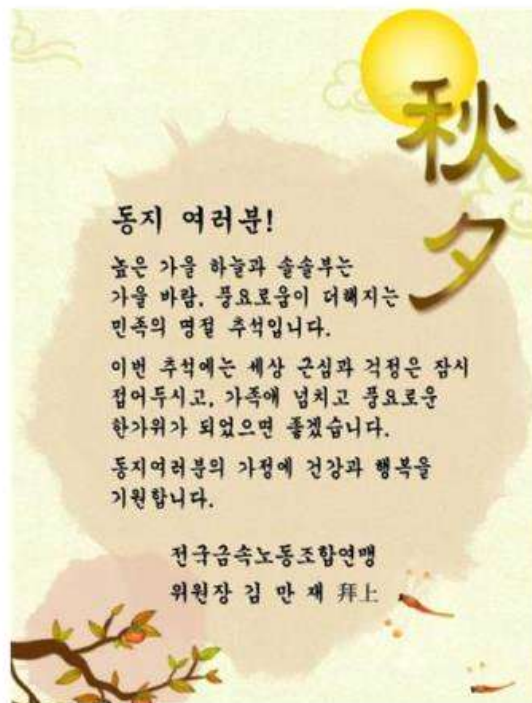
또한, “양대 노동개악 지침에 이어 노사자율교
섭을 침해하는 단협시정 명령과 휴일근로 연장근
로 관련 지침 등 불법적인 지침들도 폐기되어야 한
다”고 언급한 후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등 노동조합을 할 권
리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대지침을 폐기했다고 곧바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과 노동존중
공약 실현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
했다. 11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27일(금), 1박2일
2. 장소: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86-4 ☎ 02-333-6227)
3. 대상: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4. 교육참가비: 3만원
5. 교육내용: 노동조합 글쓰기, 노동정책과 노동이슈,
SNS활용
6.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으로 10월 20일(금)
까지 신청서를 발송바람
7. 문의: 박강원 홍보부장(02-6277-2009)



이강사노련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7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7년 10월 24일(화) 제33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총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kmtu

금속노련, 2017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 노동조합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 대응하자 -



2017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금속노련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가 힘차게 진행 중이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10월 13일(금) 경남 본부를 시작으로 24일(화) 현재까지 경남, 울산경주, 광주전남, 구미, 부산 총 6개 지역본부와 간담회를 완료했으며 11월말 마무리를 위해 진군하고 있다.

연맹은 이번 순회 간담회에서 2017년도 조직현황과 하반기 투쟁계획, 양대노총 제조연대활동 등 설명하고 최저임금 대응 전략전술, 노동시간 단축관련 대응방안, 제조산업발전특별법제정(안) 등을 전달한다.

김만재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해서 제조현장에서 이뤄지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장시간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금속노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전 2018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 결정되어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금속노련이 대응전

략전술을 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대노총 제조연대는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 ‘제조산업협의회구성’과 ‘제조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동지들의 많은 관심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금속노련은 투쟁사업장에 적극 연대지원하고 어려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11월 18일 서울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금속동지들이 적극 결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종덕 노사대책실장은 최저임금 단위노조 교섭전술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 요구 ▲통상임금 및 복지 확대 ▲임금구성 체계 개편 및 단순화 등을 보고했다. 또한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등 최저임금 관련 쟁점을 설명하며 향후 금속노련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운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현황과 실노동시간 단축관련 연맹의 대응을 설명하고 양대노총 제조연대활동, 제조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등을 보고했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금속노련 여성노동자 건강권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금속노련은 2017년 10월 24일(화) 구미 근로자 문화센터 별관에서 ‘여성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일일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금속노련 노동조합 여성간부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근골격계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준비한 교육”이라며 “교육이 여성노동자의 건강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의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을 시작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한미연·강병구 경북북부근로자건강센터), 여성간부의 자세와 역할(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재현 상임활동가는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교육에서 “노동자에게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의미하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건강은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간부들의 건강과 조합원 건강을 위해 주변을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교육에서 한미연 센터장은 “장시간근로와 열악한 근로환경이 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가장 큰 원인에 해당한다”며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여성간부들은 “사업장이나 타교육에서 접하기 어려운 강의를 듣게되어 좋았다”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

정책협약 관철과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11.18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 일시: 2017년 11월 18일(토) 13시
2. 장소: 서울역 광장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개최

1. 일시: 2017년 10월 26일(목)~27일(금), 1박2일
2. 장소: 서울 마리스타 수녀원 교육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86-4 ☎ 02-333-6227)
3. 대상: 노동조합 홍보담당자
4. 교육참가비: 3만원
5. 교육내용: 노동조합 글쓰기, 노동정세와 노동이슈, SNS활용
6. 보내실 곳: 팩스 02-6277-2011으로 신청서 발송
7. 문의: 박강원 홍보부장(02-6277-2009)

금속노련 '노동조합 전산실무' 교육 개최

1. 일시: 2017년 11월 20일(월)~22일(수), 2박3일
2. 장소: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3. 대상: 노동조합 실무 담당자 및 관심있는 조합원
4. 교육참가비: 3만원
5. 교육내용: 정세 및 노동현안, 노동조합과 노동문화, 재무제표의 이해 및 회계실무(엑셀활용), 회계프로그램 실습, 노동조합 실무 프로그램, 단위노조 홍보실무, 선전선동 실무
6. 준비물: 엑셀이 가능한 노트북 1대, 노조예산서 사본, 노조금전출납부(원장) 사본, 회사재무제표(준비가 가능하면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7. 보내실 곳: 이메일(giwooksw@naver.com) 또는 팩스 02-6277-2011으로 신청서 발송
8. 문의: 박상욱 정책부장(02-6277-2004)

2017년도 단체교섭 실태조사

1. 목적: 2017년 단체교섭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함
2. 보내실 곳: 1) 팩스(02-6277-2011)
2) 이메일(giwooksw@naver.com)
3. 문의: 박상욱 정책부장(02-6277-2004)
4. 참고: 설문조사 양식은 금속노련 홈페이지 자료실 공문에서 다운 가능

최강노련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7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7년 12월 13일(수) 제340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판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총연맹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kimtu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 가자 -



금속노련은 12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 제2차 산업안전 보건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단위노조 간부 및 조합원 40명이 참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0만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고 약 2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등 안전보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속노련은 노동조합 산재예방활동 강화와 더 좋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매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심재호 화학노련 정책실장의 노동정세 강의를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실무(황산하 노무사), 작업환경측정 이론과 사례(박해동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연구원), 직무스트레스와 건강(허경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이완 실습(허경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조기홍 한국노총 본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해동 연구원은 ‘작업환경측정 이론과 사례’에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강도는 낮추는 것, 아프면 쉬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작업장 내 환경시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무관심과 올바른 작업환경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참석자 분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병들고 다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작업장 내 환경시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무관심과 올바른 작업환경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참석자 분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병들고 다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산업은행은 썩어채권 경매를 중단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썩어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은 12월 12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의 썩어채권 경매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늘 집회에는 썩어노조 동지들과 금속노련 사무처 동지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김주훈 썩어노조 위원장은 “유암코라는 자산관리업체가 썩어채권을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유암코 지분의 상당부분을 산업은행이 행사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썩어채권 경매를 철회하고 썩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산업은행은 사기꾼 최규선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주고 썩어가 망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단결하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산업은행에게 보여주자”고 밝혔다.

집회가 종료된 후, 썩어노조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재로 성사되지 못했다.

금속 구미지역본부 의장에 배준호 현의장 재선출

금속노련 구미지역본부는 지난 12월 7일(목) 지역본부 정기대회에서 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단독

입후보한 배준호 동지를 의장으로 재선출했다.

배준호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금속노련 구미지역 동지들의 선택을 고맙게 생각하며 동지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배준호 의장은 현재 매그나칩반도체 구미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구미지역본부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금속노련/화학노련 공동성명〉 근로기준법 개악 쿠데타 당장 멈춰라!

홍영표 위원장의 독선, 독주는

대통령의 노동존중 공약·정책에 정면 위반

홍영표 위원장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노동계에 대한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가 이처럼 손쉽게 뒤집어지는 상황을 우리 노동진영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오히려,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원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 중복할증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국회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축소와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길 바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중복할증 논의는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최강자 노련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취!
2017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7년 12월 21일(목) 제341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총연맹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메일:efl@kmtu

성암산업노동조합 본사 상경투쟁

- 신준수 성암산업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손떼고 당장 떠나라 -



전남 광양에 위치한 금속노련 성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이 20일(수)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성암산업 본사 앞 상경투쟁을 벌였다.

이번 집회에는 성암산업노조 동지 140명과 금속노련 사무처 및 쉐코어노조 동지 40여명 등 180여명이 함께했다.

성암산업은 포스코단지 내 운송 작업을 하는 협력사로 2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매출은 300억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회사는 최근 2년동안 적자에도 불구하고 수 십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퇴직금을 사외예치 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박옥경 성암산업노조 위원장은 “신준수 성암산업 회장은 2015년 회사가 적자임에도 15억을 배당했고 2016년에는 계열사에 26억원을 빌려주기까지 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신회장은 얼마전 지분 60%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노

조에 일방적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법에따라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해야함에도 78억원이나 예치하지 않았고, 30년이 다된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일을 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신회장은 지금 즉시 퇴직금 전액을 예치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하며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취하면서 노동의 대가는 무시하는 회사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암산업노조가 승리할 될 때까지 금속노련이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준수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부재로 성사되지 못했고 박옥경 성암산업노조 위원장과 3명이 회사 관계자와 만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산업은행은 켄코어 채권경매를 철회하고 기업회생 진행하라
-켄코어노조, 고용생존권 쟁취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요집회-**

금속노련 켄코어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은 12월 20일(수) 오전 11시 여의도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의 켄코어 채권경매 철회와 켄코어 경영정상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켄코어 동지들과 금속노련 소속조직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켄코어노조는 산업은행에게 켄코어 경영에 적극 개입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오히려 채권을 유압코라는 자산관리업체에 경매를 통해 매각하려고 한다”면서 “산업은행은 건실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켄코어노동자들이 느끼는 생존권 위협을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유압코가 켄코어 채권을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유압코 지분의 상당부분을 산업은행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채권경매를 철회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산업은행은 최규선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켄코어를 망할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금속노련과 함께 연대하고 강하게 단결하여 노동자들이 뭉치면 어떠한 투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산업은행에 보여주

자”고 말했다.

집회가 종료된 후 참가자 전원은 금속노련 성암산업노조가 오후 1시 성암산업 강남 본사 앞에서 개최하는 ‘성암산업 신준수 회장 규탄 및 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집회에 연대했다.

**금속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켄코어노동자 고용생존권 쟁취 및
산업은행 규탄 결의대회**

일시 : 12월 27일(수) 15시~16시

장소 : 산업은행 본점 앞(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14)

참석요청 : 금속노련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동지 등

채권경매 반식화하고
생존권 사수!



이 기사를 보신다면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1월 31일(수) 제342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kmtu

살인기업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 당장 멈추라

- 포스코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지난 1월 25일 오후4시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협력업체인 금속노련 소속 TOC한진 노동자 4명이 냉각기 교체작업 중 질소 유출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포항에 위치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하고 “포스코는 사고가 날때마다 말뿐인 안전대책을 내놓았다”며 “사고의 책임이 포스코에 있는 만큼 포스코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전권을 위임받은 포스코의 임원이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견된다면 금속노련은 지옥까지 쫓아가서 포스코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련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TOC한진노조가 참여하는 사고대책위원회 구성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며 위협의 외주화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에 정부가 행동에 나서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제조연대-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금속노련과 양대노총제조연대는 1월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양대노총제조연대-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대노총제조연대 대표자 4명과 강병원, 김중훈, 박용진, 송옥주, 이정미 의원이 참석하여 제조산업특별법, 실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상인범위 등의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만재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설명한 후 참석한 의원들에게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지난 25일 TOC한진 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포스코 희생자 TOC한진노조 조합원 추모운동

1. 기간: 1월 30일~ 사건 해결시까지
2. 참여방법: 추모리본달기, 1조직 1근조 현수막 걸기, 노총 포항지역지부 합동분향소 분향
3. 세부 지침: 금속노련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4. 준비물: 갈판, 핫팩
5.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근기법 개악저지!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제조발전특별법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1. 일시: 2018년 2월 1일(목) 14시
2. 장소: 국회 앞 국민은행
3. 문의: 나병호 노사대책부장 (02-6277-2006)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8년 2월 2일(금) 제343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총연맹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fortku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촉구! 양대노동총제조연대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개최



금속노련을 포함한 양대노동총제조연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이하 '제조연대')는 2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제조연대 핵심 간부 500여명은 '휴일노동 중북할증수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얼마전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

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최임위 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자기 멋대로 조정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인데 자본의 논리를 동원해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제조연대는 회견문에서 ▲1월 25일 포스코참사로 인해 TCC한진 노동자 4명이 희생된 사고에 대한 진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상 규명과 포스코의 죽음의 외주화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마련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업 발전특별법(제조업 살리기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논의에 적극 나설 것 ▲휴일근로 중 복합중수당 폐지와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인정하는 근기법개악 논의를 중단할 것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최저임금 산업법 위헌대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제조연대는 근기법 개악시도와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저지하기위해 총 2단계의 투쟁 준비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는 선전 홍보전에 주력하여 ‘제조업 갑질 11개 운영, 방충토론 등을 통한 국민과의 직접소통, 국회 및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정부와 여당이 개악안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2단계 전면투쟁으로 변환하여 ‘제조연대 투쟁본부 체계 전환, 확대간부 파업과 상경투쟁, 2만명 규모의 전국제조노동자대회 개최’ 등 2대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제조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중국에는 양대노총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3월 말경에 양대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추진을 제안했다.

결의대회에서 총력투쟁 결의하고 2018년 투쟁계획 발표

이어진 결의대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석하여 근기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악 추진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기법 개악에 반대한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일 때 그 소신은 어디 가고 집권여당 되니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며 “일주일일이 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장관까지 사과한 상황에서 이제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기법 개악,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부분 축소, 휴일노동 중복합중 폐기 법안에 대해 양대노총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기법과 최저임금 개악시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결의대회 마지막에는 근로기준법 2대 개악안 저지를 위한 상징의식과 2018년도 투쟁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제조연대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리행진을 이어나갔으며 민주당사에는 이날 결의대회 내용을 담은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일정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금속노련 노동문화교육	3/28~30	경기도 화성 하내수련원	금속노련
제조연대 경영분석교육	3/12~14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	3/15	미정	금속노련
제조연대 교섭위원교육 1차	3/19~21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제조연대 교섭위원교육 2차	4/2~4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4/8~11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제조연대 법률학교	4/16~18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6월 중	미정	금속노련
제조연대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정	울산 안전보건공단	제조연대

※ 교육생 모집은 추후 발송 예정임.

※ 문의 : 광상옥 정책부장 (02-6277-2004)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비정규 연대기금 모금 운동

- 1.모금기간: 2018년 3월말 까지
 - 2.모금액 및 방식: 각 조직과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모금으로 자율결정 금액을 일시납 또는 분납
 - 3.모금계좌: 농협 1197-01-010305(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4.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 ※ 임금시, 반드시 [조직명] 기재 바랍니다.

2018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1.일시: 2018년 2월 28일(수) 13시 30분
- 2.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
- 3.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2월 4~5일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8년 2월 8일(목) 제34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령안·김만재 편집안·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fmtu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자

- 포스코 참사로 희생된 4명의 TCC한진노조 동지들 위령제 개최 -



금속노련 TCC한진노조는 2월 6일(화)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위령제를 열고, 지난달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냉각기 교체작업 중 희생된 4명의 TCC한진 동지들의 넋을 위로했다.

정상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의장은 “작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먼저가신 4명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이라며 “돈 보다는 안전, 사람 목숨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령제에 참석한 TCC한진노조 조합원들과 금속노련 포항지역 대표자, 정천관 한국노총 포항지역본부 의장 등 400여명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SNNC노조 핵심간부 징계 철회 및 노조활동보장 합의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SNNC노조 간부 3명이 금속노련과 SNNC노조의 적극적 투쟁 끝에 징계철회와 원직복귀를 쟁취했다.

SNNC는 전남 광양에 위치하여 페로니켈을 생산·판매하는 포스코 계열사로,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를 결성하자 회사는 부위원장과 교육부장을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계하고, 조직부장을 기존과는 다른 업무로 보직을 변경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진정하고,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금속노련과 광주전남지역본부는 SNNC노조 투쟁 지원에 적극 나선 끝에 2월 5일 전남지노위에 서 징계 철회와 보직 변경자에 대한 원직복귀를 합의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노조 사무실과 비품 등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2월 20일부터 주1회 포스코 그룹사에 준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1. 금속노련 제182차 중앙위원회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15시
- 장소: 한국노총 13층

2. 2018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13시 30분
-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쟁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과 도전



2018년 2월 8일(목) 제344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판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페이스북:efkimtu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자

- 포스코 참사로 희생된 4명의 TCC한진노조 동지들 위령제 개최 -



금속노련 TCC한진노조는 2월 6일(화)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위령제를 열고, 지난달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냉각기 교체작업 중 희생된 4명의 TCC한진 동지들의 넋을 위로했다.

정상준 금속노련 포항지역본부 의장은 “작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먼저가신 4명의 동지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일 것”이라며 “돈 보다는 안전, 사람 목숨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련은 동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령제에 참석한 TCC한진노조 조합원들과 금속노련 포항지역 대표자, 정천균 한국노총 포항지역지부 의장 등 400여명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먼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SNNC노조 핵심간부 징계 철회 및 노조활동보장 합의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SNNC노조 간부 3명이 금속노련과 SNNC노조의 적극적인 투쟁 끝에 징계철회와 원직복귀를 쟁취했다.

SNNC는 전남 광양에 위치하여 페로니켈을 생산·판매하는 포스코 계열사로, 지난해 10월 노조를 결성했다. 노조를 결성하자 회사는 부위원장과 교육부장을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계하고, 조직부장을 기존과는 다른 업무로 보직을 변경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여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진정하고,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해위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금속노련과 광주전남지역본부는 SNNC노조 투쟁 지원에 적극 나선 끝에 2월 5일 전남지노위에서 징계 철회와 보직 변경자에 대한 원직복귀를 합의했다. 또한 노조활동을 위한 근로시간연계를 허용하고 노조 사무실과 비품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며, 2월 20일부터 주1회 포스코 그룹사에 준하여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

1. 금속노련 제182차 중앙위원회

- 일시: 2018년 2월 27일(화) 15시
- 장소: 한국노총 13층

2. 2018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 일시: 2018년 2월 28일(수) 13시 30분
- 장소: 한국교총 컨벤션홀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희망과 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5월 15일(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는 5월 15일(화) 13시 30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4월 6일(금) 맹비납부를 마감하고, 5월 3일(목) 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금속노련 임원 선거 준비를 위해 선관위 위원5명을 위촉했다.

또한 김해광 상임부위원장을 금속노련 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각 지역본부에서 추천한 20여명을 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속노련 지역순회 간담회 일정

일시	지역본부	장소
3월 08일(목) 15:30	대전	대전노총 회의실
3월 09일(금) 10:00	충북	충북노총 회의실
3월 09일(금) 15:00	경기	경기노총 회의실
3월 12일(월) 15:30	포항	포항지부 회의실
3월 13일(화) 10:30	울산·경주	울산노총 회의실
3월 13일(화) 15:30	경남	경남노총 회의실
3월 14일(수) 15:00	광주·전남	광주노총 회의실
3월 15일(목) 10:30	전북	세아베스틸 노조 사무실
3월 15일(목) 16:00	서울	전북 군산
3월 19일(월) 16:00	구미	구미지부 회의실
3월 20일(화) 10:30	강원	원주지부 회의실
3월 21일(수) 16:00	인천	미정
3월 28일(수) 15:30	대구·경북	대구노총 회의실
3월 29일(목) 10:30	부산	부산노총 회의실
4월 03일(화) 15:30	안산·시흥	대부도
4월 05일(목) 15:30	충남	충남노총 회의실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한국노총은 2월 28일(금) 오후 1시 30분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규약개정, 200만 한국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과 실천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자들은 200만 한국노총 조직화를 위한 특별결문을 채택하고,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결의했다.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라

김만재 위원장은 3월 7일(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등 차별철폐’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여성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성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며 “여성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해 제10차 개정헌법에 성평등 정신을 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조 위원장,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등은 한목소리로 △ 성평등 개헌 △ 여성의 저임금 문제 및 최저임금 개악 저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마련 대책 등 근본대책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경영분석교육	3/12-14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글쓰기 교육	3/15	한국노총아산지부	금속노련
교섭위원교육 1차	3/19-21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노동문화교육	3/28-30	하내수련원	금속노련
교섭위원교육 2차	4/2-4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 문의: 과상욱 정책부장 (02-6277-2004)

이 기사를 보신다면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제정!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8년 3월 20일(화) 제346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민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동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메이시북/ellamtu

금속노련 2018년 상반기 지역순회

- 성공적인 임단협이 되도록 전진 또 전진 하자! -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금속노련 상반기 지역순회가 힘차게 진행 중이다.

김민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3월 8일 대전본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6개 지역본부 중에서 대전, 충북, 경기, 포항, 울산·경주, 경남, 광주·전남, 전북, 서울, 구미 10개 지역본부와의 간담회를 완료했다.

금속노련은 이번 순회를 통해 2018년 금속노련 목표와 임금인상 지침, 교섭 쟁점 및 지침, 단체교섭 쟁점과 대책, 정세전망 등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민재 위원장은 현장순회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금속노련이 마련한 전략 전술을 활용한다면 2018년 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순회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여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제조연대 경영분석 교육/금속노련 글쓰기 하루교육 성황리 종료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 경영분석교육'과 금속노련 글쓰기 하루교육'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영분석교육(3월 12일~14일, 참석:90여명, 장소: 노충중앙교육원)과 글쓰기교육(3월 15일, 참석:25명, 장소:아산 근로자복지관)에 참석한 조합원 동지들은 교육이 종료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강의를 경청했다.

교육은 정세전망, 2018 제조연대 임금지침 교육, 재무제표 분석 및 실습(이상 '경영분석교육'), 소식지쓰기, 보도자료 및 주장의 글쓰기(이상 '글쓰기교육') 등 노조활동에 필수적인 강의로 진행됐다.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LS엠트론 매각저지 상경투쟁

- 경영진은 밀실매각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



금속노련 LS엠트론노동조합(위원장 어진호)은 16일(금) 오후 안양에 위치한 LS엠트론 공장 앞에서 '사측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공장 매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동지와 LS엠트론노조 조합원동지 등 총220명이 함께했다.

LS엠트론은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10여년 전 LS전선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만 분리하여 설립됐다. 조합원들은 회사를 살려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여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어진호 LS엠트론노조 위원장은 "안양과 인동에 있는 공장을 매각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사측은 일방적인 공장매각을 중단하고 조합원에게 즉각 사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돈이 되는 것은 모두 취하면서 노동의 대가는 무시하는 회사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LS엠트론 노조가 승리할 때까지 금속노련이 끝까지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월1회 개최하는 노정협의회에서 LS엠트론 문제를 의제로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중

- 금속노련, 현재까지 51개 조직, 9백8십9만3천원 모금 -

금속노련은 지난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와 회원조합대표자회의, 2월 제182차 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서 의결 한 비정규직과 영세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을 진행 중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활동이 진행되어야한다.

※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금속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1. 기간: ~2018년 3월말
 2. 조성방안: 각 노조 조합원 1인당 1천원(1억원 목표)
 3. 모금계좌: 농협 1197-01-01030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4.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 ※ 입금시 반드시 [조직명] 기재 요망

금속노련 지역순회 이후 일정

일 시	지역본부	장소
3월 20일(화) 10:30	강원	원주지부 회의실
3월 21일(수) 16:00	인천	원주시 내들펜션
3월 28일(수) 15:30	대구.경북	대구노총 회의실
3월 29일(목) 10:30	부산	부산노총 회의실
4월 03일(화) 15:30	안산.시흥	안산시 계부도 일대펜션
4월 05일(목) 15:30	충남	충남노총 회의실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노동문화교육	3/28~30	하내수련원	금속노련
교섭위원교육 2차	4/2~4	노총중앙교육원	계조연대
선전선동교육	4/9~11	노총중앙교육원	계조연대
법률학교	4/16~18	노총중앙교육원	계조연대

※ 문의: 과상욱 정책부장 (02-6277-2004)

이와같은 내용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적폐 청산!
제조산업발전법 정취!
2018 임단투 승리!
노동존중사회 건설!

희망나도전



2018년 3월 27일(화) 제347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김만재 편집인:김준영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8층 4호 T)02-6277-2000 F)02-6277-2011 팩스:02-6277-2011

제조연대 제1차 교섭위원 교육 실시

-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조합 반드시 흥한다! -



2018년 제조연대(금속노련, 화학노련) 교섭위원 1차 교육이 3월 19일(월)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금속노련 조합원 140명과 화학노련 조합원 60명 등 총 20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했다.

제조연대는 이번 교육에서 ▲노동정세와 단체협약 해설 ▲노동조합의 정세와 과제 ▲2018년 임금지침 해설 ▲단체교섭의 법률 쟁점해설 ▲단체교섭에 임하는 전략과 전술 ▲단체교섭 요구안 작성법 ▲사례로 살펴보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성공적인 단체교섭을 위해 노동조합 간부가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김만재 위원장은 개강사를 통해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조합은 회사와의 교섭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동조합이 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노동조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내 8개의 제조노동조합 연맹(금속노련, 화학노련, 섬유유용노련, 식품노련, 광산노련, 출판노련, 고무산업노련)이 뭉쳐 한국노총

제조연대로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제조노동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이에 대해 동지들의 지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썬코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회생법원은 3월 21일 썬코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썬코어경영은 3개월간 법정관리인이 맡게되며, 법정관리인은 회사를 살릴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게된다.

썬코어는 베어링 업계에서 1위를 유지하였으나 최규선과 투기자본이 들어온지 불과 2년만인 지난해 5월 공장가동을 멈췄다.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이 썬코어를 살리는데 무관심했지만, 금속노련과 썬코어노조의 적극적인 투쟁 끝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아냈다.

향후, 금속노련은 썬코어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 금속노련, 현재까지 101개조직, 19,774,000원 모금 -

1. 조성방안: 각 노조 조합원 1인당 1천원(1억원 목표)

2. 모금계좌: 농협 1197-01-010305

(예금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3. 문의: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 입금시 반드시 [조직명] 기재 요망

금속노련 상반기 교육 안내

교육명	일시	장소	주관
교섭위원교육 2차	4/2-4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선전선동교육	4/9-11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법률학교	4/16-18	노총중앙교육원	제조연대

※ 문의: 과상숙 정책부장 (02-6277-2004)

희망나도전은 상단 우측의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나. 임단투 포스터

전진 또 전진

도약하는 제조노동자!!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승리의 기운으로
중단 없는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해
제조노동자의 단결로 힘차게 도약하자!!

노동조합 역량강화	소득성장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존중사회 건설
- 지속적 조직력대 강화 - 제조업에 활동 강화 - 교육사업 확대 - 연립과 수를 강화 - 자립스런 노동조합 건설	- 임금인상 9.6% 쟁취 -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 확보 - 임금저하 없는 일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 4차산업혁명 대비와 일일의 일자리 창출	-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확대 - 비정규직 정규직화 확대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정책 수립 - 제조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 노동법 전면 재개정 - 불공정 원하청 관계 근절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광산노련/금속노련/영유유동노련
식품산업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다. 성명서

성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의 시작이기를 기대한다 !**

- 공정위의 현대기아차그룹 ‘납품단가후려치기’ 검찰고발을 환영하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대차기아차그룹 ‘납품단가후려치기’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고발을 환영한다.

공정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최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온 부당하도급대금결정과 자신이 부담해야 할 완성차 등의 고객 클레임 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여 불법적으로 대금을 공제한 현대위아(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최대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단 현대위아(주)만의 문제이겠는가? 이미 자동차 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던 불법적 불공정거래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재벌대기업들의 높은 영업이익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이고 땀이다. 하청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언제나 4%를 넘지 못하게 불법적인 단가인하압력을 통해서 묶어놓고, 완성차 재벌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영위해왔다.

그로인한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고 기업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재벌대기업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착취와 불공정의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로의 전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이러한 조치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 갑질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만연해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뿌리를 뽑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속노련은 재벌공화국을 넘어 제조현장의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로 전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 길을 문재인 정부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2017. 06. 26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여성과 노동을 비하하는 이언주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 노동혐오주의자 이언주가 국회의원을 하는 자체가 불합리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헌법으로 보장된 학교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나쁜 사람, 미친 놈들”로 매도한 이언주의 발언을 규탄한다.

또한,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급식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직업에 대한 멸시를 스스로없이 내뱉는 국회의원을 용납할 수 없다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란 형국에 관련 내용을 보도한 SBS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뽐뽐함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금속노련은 노동과 여성을 천대하면서 가중스럽게도 “소외를 보듬는 정치”를 표방하는 이언주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당장 이언주에 대한 최고의 징계에 나서야 한다.

다만, 부끄러움을 안다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금속노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13만 금속노동자와 함께 이언주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이다

2017. 07. 1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기업사냥꾼 최규선 석방탄원, 즉각 철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13만 조합원들은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장 권노갑,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국정원 전 해외차장 라종일, 유종근 전 전라북도 도지사, 재향군인회 회장이며 전 합참의장 김진호 등이 최규선의 석방을 법원에 탄원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김대중 정권 당시의 실세들이 당시 최대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의 석방을 탄원했다는 사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든다.

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월1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되는 날이었으며, 동시에 켄코어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최규선의 죄상을 알리고 정부당국의 조속한 개입을 호소한 날이었다. 켄코어 노동자들의 피 끓는 절규에 메아리처럼 돌아온 답이 ‘최규선 석방 탄원’이란 말인가?

‘유아이에너지, 현대피앤씨, 켄코어, 켄텍, 도담시스템즈’, 최규선과 투기자본들로 인해 도산했거나,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이다. 최규선은 현재 400억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5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켄코어노동자들은 지난 몇 개월간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최규선의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매일 국회 정문 앞과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켄코어 노동자 고용생존권 및 경영정상화를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 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최규선을 배임·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럼에도 최규선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믿는 구석’이 있는지 여전히 켄코어, 켄텍, 도담시스템즈의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구명활동하고 있으며, 옥중 경영을 일삼고 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최규선의 그 ‘믿는 구석’이었던 말인가?

국민들은 반칙과 차별이 아니라 누구나 규칙을 지키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건실한 중소기업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기업사냥꾼 최규선이 합당한 죄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곧 ‘정의로운 나라’의 시작일 것이다.

기업사냥꾼 최규선의 석방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즉각 이를 철회하고, 피해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켄코어 노동자들은 위 인사들이 ‘최규선 석방 탄원’을 철회할 때까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법원은 13만 철의 노동자의 눈동자가 최규선의 재판을 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7. 8. 1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만재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 일부 여당 의원의 노동개악 참여를 규탄한다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불법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강요당해왔던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처사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포함한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약을 믿고 지지표를 행사한 수많은 노동자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다.

환노위 3당 간사의 합의대로라면 장시간 노동 근절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군다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용자들이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방식을 유지할 것이 뻔하다. 오히려 더 높은 휴일근로 할증률이 장시간 노동 해소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금속노련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연이은 노동개악 발언과 행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13만 금속노동자와 500만 제조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최전두에서 투쟁해왔다.

부디,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1. 2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금속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화학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2호 02)6277-1234, FAX 02)6277-1235 <http://www.fkcu.or.kr>

근로기준법 개악 쿠데타 당장 멈추라!

— 홍영표 위원장의 독선, 독주는 대통령의 노동존중 공약 정책에 정면 위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동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의 독선과 아집에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악을 이미 대세인 양, 청와대의 의지인 양 호도하고 있다.

홍영표 위원장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노동계에 대한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가 이처럼 손쉽게 뒤집어지는 상황을 우리 노동진영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오히려, 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원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 중복할증 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은 국회가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축소와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먼저 처리하길 바란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중복할증 논의는 내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12. 1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살인기업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 당장 멈추라

- 지옥까지라도 쫓아가서 포스코의 책임을 묻겠다 -

1월 25일 오후 4시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어 하청업체인 TCC한진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역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현재까지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냉각탑과 연결된 칠러설비에서 물과 질소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하는 충전재인 '폴리'를 교체하러 들어갔다 질소가스에 노출되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포항제철소에서는 무려 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포스코는 사고 때마다 안전사고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포스코의 안전관리 자체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죽음의 외주화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필수로 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둘러싸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해 철저하게 해당 당사자를 찾아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포스코의 책임을 덜어보려는 작태에 대해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다

금속노련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첫째,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합동사고조사위원회' 혹은 사고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유족과 고인을 대신하여 TCC한진 노동조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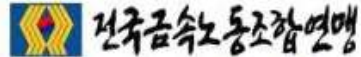
참여를 요구한다. 둘째, 포스코는 유족들에게 진실하고 즉각적인 사과에 나서야 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은 임원이 직접 성실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금속노련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포스코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경찰 등의 원인규명 노력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및 사고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특히 죽음의 외주화와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방치하고 있는 법제도 개선과 산재사고 다발기업의 처벌을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18. 1. 29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가?

—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제고해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2월 27일 새벽을 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개악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위법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다. 또한, 휴일 중복할증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부의 횡포이다.

금속노련은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대화의 초입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신뢰 훼손 행위가 자행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게 기대했던 노동존중 사회가 이처럼 손쉽게 배신당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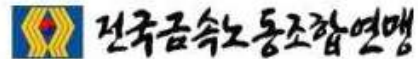
이에, 우리 연맹은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노정대화 참여를 제고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28일 개최되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근기법 개악안 저지투쟁을 결의하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8. 02.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라. 논평

논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새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금속노동자의 입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문재인 정부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절차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노동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미 폐기수순에 들어간 공공부문 해고연봉제는 물론이고 △더 쉬운해고, △더낮은 임금, △더많은 비정규직, △ 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 지침 등 행정지침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또한 현장은 전임자 임금 문제의 노사자율 회복 등 노동자 개인과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조속 추진을 위한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금속노련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싸고 인사청문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여야간의 대치 상황에 유감을 표시한다. 더이상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신임 장관 후보자가 촛불정신과 노동존중의 노동정책 집행에 적합한 인사라고 한다면 노동자와 국민을 믿고 임명절차에 소신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조대엽 후보자 역시, 평소 주장한 바대로 노동자와 국민의 염원을 바로 직시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신념과,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금속노련은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해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해결,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1900만 노동자는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새로운 노동존중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

2017. 06. 2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논평**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현대기아차그룹은 시대의 요구에서 도망치지 말라!****-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에 관한 논쟁을 지켜보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제안에 대하여 현대기아차그룹이 사회적 교섭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 금속노련의 다수 가맹노조사업장 역시 현대기아차그룹의 하청업체로써 원청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단가인하압력 등의 불공정 거래에 신음해 왔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높은 영업이익에는 수백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은 이러한 기업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를 해소해가는 사회적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쉽게 나설 수 없던 하청업체 사용자들과 노동자들도 그 길에 동참해 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양극화라는 병에 걸렸다.

재벌대기업과 영세중소기업의 격차, 원청과 하청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이러한 불평등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사회갈등과 차별 그리고 고용불안을 유발시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수천만의 촛불이 이미 말해주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사회·평등한 사회를 향한 민중들의 뜨거운 열망이었다. 또한 문재인 신정부는 일자리 위원회를 통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 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더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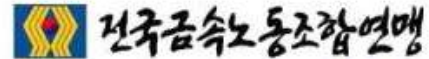
시대적 요구인 사회양극화 극복이라는 화두 앞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를 불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교섭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일부 언론을 앞세워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제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흙탕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명분으로 삼고 있는 기금조성 재원에 관련된 논의 또한 교섭테이블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면 될 일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더 이상 언론의 뒤에 숨어서 대화를 거부하는 비겁한 재벌의 모습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대화공간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또한 기대한다.

우리노련 또한 새로운 노동존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사회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보장,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 나갈 것이다.

2017. 06. 2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논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

- 성역 없는 엄정수사를 진행하되 조속한 경영정상화 시급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방산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성역 없는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시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되는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함은 자명하다.

한편으로는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혔던 것처럼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이자 자주국방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 핵심추진사업이 지연되거나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KAI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회각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KAI의 경영공백상태가 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KAI의 경영공백기가 더욱 장기화될 경우 KAI의 전략 항공 사업들은 좌초될 것이며, 그 영향은 항공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업체와 지역사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와는 별도로 KAI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시급하다. 금속노련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추인 KAI의 새로운 경영진구성과 경영정상화에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그 역할을 기대한다.

2017. 08. 2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논평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기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 휴식권 보장에서 그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논의에 나서야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신입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한다."

단 두출의 법률 개정으로, 이제 신입직원은 최대 12일의 휴가를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의 일수를 다음해에 지급될 15일의 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근기법 개정안은 60조 3항을 삭제하여 입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제는 세계최고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신입직원을 포함한 2천만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방안 논의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7. 09. 2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논평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노동부의 노동계약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한다

-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후퇴한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신호탄 되어야 -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 지침 두 개(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가 9월 25일 드디어 공식 폐기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금속노련은 이번 양대지침 폐기 결정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여 동안의 노동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당장, 양대 노동계약 지침에 이어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단협시정 명령과 휴일근로 연장근로 관련 지침 등 불법적인 지침들도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조전임자 문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사 자율결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등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노동기본권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양대지침을 폐기했다고 곧바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설만큼 노동운동 진영의 상처는 작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계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한다.

노동존중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실천이 먼저이다.

2017. 09. 2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마.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썬코어 노동조합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문의	금속노련 정태교 조직부장(02-6277-2007)
	금속노련 박강원 홍보부장(02-6277-2009)

* 사진은 금속노련 홈페이지(www.metall.or.kr) 금속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최규선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라!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범법자 최규선 강력처벌 촉구 및 사기배임·횡령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7일(월)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기업 사냥꾼, 범법자 최규선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최규선을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주훈 썬코어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규선은 2015년 7월 투기자본을 앞세워 썬코어에 들어와 도담시스템과 썬텍을 인수하며 돌려막기식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했다”면서 “실체도 없는 신사업 추진과 본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법무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하여 40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건실한 회사를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규선은 감옥에 있는 지금도 또다른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최규선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범죄 방지를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위원장은 “오늘 대책위는 최규선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검찰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최규선과 그 일당들을 중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썬코어 문제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기를 사기로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며 "경영과 M&A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와 투기에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경영, M&A, 투자라는 단어가 사기라는 개념과 동일시 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감방 안에서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사기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최규선을 방조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여 최규선을 썬코어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옥중 투쟁은 들어봤어도 옥중 경영은 처음 들어본 단어"라며 "최규선이 다시는 경영에서 손을 대지 못하게하고 피해기업을 정상화하여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오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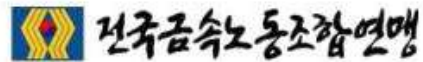
김주훈 썬코어노조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최규선을 사기·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련과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규명하여 피해기업을 경영정상화 시키고 노동자들이 본업에 복귀할 수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 8. 7

썬코어 고용생존권 사수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썬코어 노동조합 / 약탈경제반대행동(무순))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8,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사진 없음
첨부파일 보도자료 매수 : 2매

문의	정책부장	곽상욱	02-6277-2004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방산비리 철저히 수사하되 자주국방 핵심인 항공사업 보호 위해서
정부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나서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하 “KAI노조”)은 8월 24일(목) 오전10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KAI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점을 KAI 전종업원을 대신해서 사파드린다면서 방산비리는 철저히 척결하고 수사해야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미래의 먹거리인 항공우주산업을 위해서는 KAI의 경영정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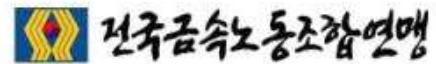
또한 현재 KAI는 여·수신이 동결되어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기관들의 채권회수가 시작됐으며 이러한 위기는 수많은 KAI의 협력업체를 도산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미래 자주국방 핵심이자 먹거리인 항공우주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사태로 인해 미 고등훈련기 사업의 수주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며 ▲미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 ▲MRO사업을 조기 선정하여 정부의 공약이행과 서부 경남발전 계기가 될 수있게 할 것 ▲KFX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줄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과 금속노련 KAI노동조합 등이 함께 했다.

2017. 08. 24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첨부파일 사진2장 매수 : 2매

문의	조직부장	정태교	02-6277-2007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우리는 일하고 싶다!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라!

썬코어노조, 썬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집회 개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썬코어 노동조합은 8월 30일(수) 오전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썬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김주훈 썬코어노조 위원장은 “베어링 업체에서 40년 동안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가 최규선과 투기자본이 썬코어에 들어온지 불과 2년 만에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썬코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썬코어 경영에 적극 개입하여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썬코어의 주채권자이기도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에 속한다”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것은 국책은행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고 말했다.

31년간 썬코어에서 근무했다는 천선옥 조합원은 발언을 통해 “최규선이라는 사기꾼 한명 때문에 천직이라 여기던 일자리도 잃게 생겼고 생존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과 금융당국은 뒷집지고 방관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집회에 참석한 40여명의 썬코어 동지들은 썬코어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피해를 입은 동지들이 본업에 복귀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썬코어 노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썬코어 동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 08. 3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보도자료 매수 : 2매
 첨부파일 사진 개수 : 3개

문의	조직부장	정태교	02-6277-2007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한국노총 위원장 · 금속노련 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면담

쎄코어 채권매각 중지하고 경영정상화 방안 적극 마련하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11월 1일(수)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쎄코어 채권매각 중지'와 '경영정상화'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산업은행 회장과 면담과 동시에 산업은행 앞에서는 쎄코어 채권매각 저지와 고용생존권 쟁취를 위한 수요 집회를 진행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면담결과 보고를 통해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쎄코어 채권매각은 이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선과도 정반대일 뿐아니라 쎄코어 같은 우량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 산업은행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동걸 회장에게 쎄코어 채권매각 절차를 중지하고 산업은행이 적극 나서서 쎄코어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만재 위원장도 면담에서 쎄코어 채권매각은 기술력과 시장점유율, 성장 가능성, 노조 차원의 자구안 마련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금속노련이 쎄코어 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현재 진행 중인 채권매각을 당장 중지하라고 이동걸 회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쎄코어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면담이 진행된 시각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된 쎄코어노조 수요 집회에서 김주훈 위원장은 “업계 국내 1위 쎄코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다”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후 그 빈자리는 외국계 제품들로 채워졌고, 힘들게 이룩한 기술은 사라지게 생겼다”고 분노했다.

이어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은 대기업이 어려울 때는 엄청난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라도 수 조원의 혈세를 쏟아 붓더니 우량 중소기업인 쎄코어는 망하던 말던 돈만 회수하려한다”면서 “산업은행은 기업도산과 노동자들의 생계 파탄 책임을 받

시 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금속노련과 한국노총은 쉼코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극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쉼코어노조 동지 등 100여명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면담결과를 들은 후 쉼코어 채권매각 중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2017. 11. 0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첨부파일 보도자료 매수 : 1매

문의	조직부장	정태교	02-6277-2007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산업은행은 켄코어를 살려내라!

켄코어 채권매각 저지 및 고용생존권 사수를 위한 제5차 연대집회

추운 겨울을 앞두고 켄코어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길바닥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켄코어 노조는 7개월 동안 매주 산업은행 앞에서 켄코어를 살리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켄코어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은 11월 8일(수)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의 켄코어 채권매각 중단과 경영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주훈 켄코어노조 위원장은 "어제가 켄코어 채권을 부실채권업체에 판매하기 위한 입찰 마지막 날이었다"면서 "켄코어노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매각을 저지하고 회사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노조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하지 않다고 말한바 있으며, 10월 23일 국감장에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국책은행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비판했다.

정일진 수석부위원장은 "켄코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그 빈자리는 외국제품으로 채워졌고 총33건의 특허와 등록권들은 사라지게 됐다"면서 "산업은행은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 국책은행임에도 귀찮고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켄코어에서 손을 떼려는 나쁜 생각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속노련은 산업은행의 책임 방기로 켄코어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난다면 응분의 책임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연대사에서 "켄코어 노동자들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몬 주체는 산업은행"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켄코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켄코어노조, 한국노총 투쟁선봉대원 등 100여명은 켄코어 채권매각 중지와 켄코어가 정상화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2017. 11. 0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FAX 02)6277-2011 <http://www.metal.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보도자료 매수 : 1매
첨부파일 사진 매수 : 2장

문의	조직부장	정태교	02-6277-2007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김영주 장관, 금융위 위원장에게 쉐코어 문제 이야기하겠다

쉐코어노조 한국노총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에서 피켓시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쉐코어 문제해결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쉐코어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이 11월 10일(금) 오전 여의도 홍보석에서 열린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에 앞서 쉐코어 채권매각 중단과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으로부터 쉐코어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쉐코어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쉐코어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랐다”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쉐코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쉐코어 동지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쉐코어는 오일레스배어링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달렸으나 2015년 최규선이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 급격하게 수익이 악화됐으며, 지난 4월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최규선은 배임·횡령으로 구속 중이다.

노조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게 경영정상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으나 냉정히 거절했다. 또한 쉐코어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채권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으나 산업은행은 10월초 부터 부실채권 전문업체에 채권매각을 추진 중이다.

(※ 산업은행의 비금융사 94곳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조선비즈 2017.11.09 ‘산업은행, 비금융사 94곳 보유지분 매각…’성공 여부 불투명’기사 참조)

2017. 11. 10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층 4호 02)6277-2000, FAX 02)6277-2011 <http://www.metall.or.kr>

담당부서 금속노련 정책국

첨부파일 보도자료 매수 : 1매

문의	조직부장	정태교	02-6277-2007
	홍보부장	박강원	02-6277-2009

우리는 일하고 싶다! 공장으로 돌아가자!

쎄코어노조, 산업은행 규탄 및 쎄코어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쎄코어노동조합(위원장 김주훈)은 12월 27일(수) 오후3시 여의도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은행의 쎄코어 채권경매 철회와 경영정상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쎄코어 동지들과 금속노련 소속조직,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김주훈 쎄코어노조 위원장은 “쎄코어는 오일레스베어링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중소기업이었지만 2015년 최규선이 대표이사가 된 후 2년만에 경영악화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며 “산업은행은 사기꾼 최규선에게 불법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회사가 망가질 때까지 방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뭐가 두려웠는지 자산 담보가치가 충분한 쎄코어를 부실채권으로 지정하고 유암코에 경매를 통해 넘기려고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를 모두 철회하고 쎄코어 경영을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산업은행이 쎄코어 채권을 유암코에 헐값으로 넘기고 나서 자신들은 이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유암코의 큰 지분을 산업은행이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산업은행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13만 금속노련 동지들은 쎄코어 문제해결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100만 한국노총은 금속노련과 함께 쎄코어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과 쎄코어 채권 매각 저지를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이며 노동자가 단결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산업은행에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산업은행의 나쁜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2017. 12. 2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바. 금속노련 활동 동영상



여성 문화활동

1.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389
가. 금속노련 임원 및 중앙위원선출	389
나.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및 일일교육	390
다.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392
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기타회의	393
마. 기타회의	396
2. 3.8세계여성의 날	398
가. 3.8 세계여성의 기념 기자회견 참석	398
나. 3.8 세계여성의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403
3. 노동문화활동	406
가. 문화패 현황조사	406
나. 문화부장 및 패장 워크숍	407
다. 제 8 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410
라. 노동문화교육	412
마. 공동율동 제작활동	413

1. 조직활동 및 교육활동

가. 금속노련 임원 및 중앙위원선출

1) 여성할당제 시행 의미

한국노총이 2006년 여성할당제를 대의원에 적용하여 시행하였고 본 노련은 2010년 여성할당제 관련 규정을 규약에 포함하였다. 이에 2012년 처음으로 여성할당제 시행되었다. 아직도 여성할당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실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여성할당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씩 인식하는 단계인 것 같다. 좀 더 많은 활동으로 여성할당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해야 할 사항이며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의 참여 확대

노총파견 여성대의원	노총파견 여성중앙위원	금속노련 여성대의원	금속노련 여성중앙위원
19명	4명 (후보1명)	77 명	4명

3) 임원현황

이 름	소속사업장	직책	비 고
윤복현	세진전자	위원장	부위원장
윤자심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
최해경	한국중천	위원장	“
한명선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
김나리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회계감사

4) 중앙위원현황

이 름	소속사업장	직 책	비 고
정난홍	두올아산	위원장	
김귀녀	한국보그워너T/S	사무국장	
심일순	이젠텍	사무국장	
손수지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나. 금속노련 여성간부교육 및 일일교육

1) 여성간부교육

가) 목적

- 여성간부의 효율적인 조직 활동과 사업 강화를 위한 역할 모색
- 여성간부로서 알아야 할 노동운동정세
- 여성동지들의 연대와 네트워크강화를 위함.

나) 일정 및 장소

- 교육일정 : 2017년 7월 5일 - 7일(2 박 3 일)
- 교육장소 : 마리스타 교육원
- 참석인원 : 윤복현 위원장 외 30명

다) 교육내용

- 한국노총의 여성 활동 방향
-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 4차산업과 노동운동
- 전쟁과 여성박물관 탐방
- 노동관계법

라) 기대효과

- 여성간부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 여성간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공유
- 여성간부로서 리더십 진단 및 활동토론
- 제조산업의 위기인 4차산업과 노동운동에 대한 준비

마) 기타의견

- 강사가 하는 교육도 좋았지만 전쟁과 인권박물관 탐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 조합간부하면서 이런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저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은 유효한 교육이었다.
- 좀더 많은 간부들이나 조합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리하여 교육을 받으니 일상활동에서의 관심도 필요함을 느낌
- 연맹교육이 처음이었고 2박 3일동안 함께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단사에서도 끊임없이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에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바) 성과

- 현장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생각하는 계기가 됨.
- 강사의 강의도 좋았지만 위안부 집회와 전쟁과 역사박물관 탐방프로그램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함
- 늘 지방에서 하던 교육을 서울에서 함으로써 색다른 경험
- 여성간부들의 발굴 및 양성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2) 여성일일교육

가) 목적

연맹에서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일일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의 접근성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찾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일정 및 장소

- 교육일정 : 2017년 10월 24일(화) 09:30~17:00
- 교육장소 : 한국노총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별관
- 참석인원 : 정난홍 위원장 외 31명

다) 교육내용

- 여성노동자의 직업건강
-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여성간부의 자세와 역할

라) 기대효과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여성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
- 장시간근로와 고령화가 맞물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및 대책
- 여성간부로서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

다. 한국노총 중앙위원 명단

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비고
1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중앙위원
2	두올아산	위원장	정난홍	중앙위원
3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중앙위원
4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후보

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및 기타회의

1) 정기총회

가) 목적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규정(제9조)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 개최하여 각급조직 여성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 논의
- 노총산하 각급조직 여성대표 참여를 통한 여성노동자의 단결·연대 도모
- 각급조직 여성위원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활성화와 위상 제고
- 노조 내 여성노동자의 조직력 강화를 통한 성평등한 노조활동 및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2) 일정 및 장소

- 일 정 : 2017년 11월 30일(화)
- 장 소 : 한국노총 5층 웨딩여울리
- 참석인원 : 최해경위원외 10명

3) 주요내용

- 2017년 한국노총 여성활동보고
- ITUC 세계여성총회 결과보고
- 2017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구성(임원 및 위원 임명)
- 여성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제언

4) 여성위원회 명단

번호	조 직 명	직 위	성 명	비 고
1	금속노련	여성본부장	김영미	담당자
2	금속노련	총무실장	박선자	담당자
3	세진전자	위원장	윤복현	임원
4	대동모벨시스템	위원장	한명선	임원
5	SK하이닉스이천	부위원장	윤자심	임원
6	한국중천	위원장	최해경	임원
7	LG디스플레이	여성부장	김나리	임원
8	두올아산	위원장	정난홍	추천
9	한국보그윙너T/S	사무국장	김귀녀	추천
10	이젠텍	사무국장	심일순	추천
11	SK하이닉스청주	부위원장	한서연	추천

5) 프로그램

- 등록 및 활동영상 상영
- 오프닝 공연(테너&소프라노 이중창)

○ 1부 : 개회식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 개회사
- 격려사
- 축사
- <공감소통> 알쓸여노(알아두면 쓸모있는 여성노동이야기)
- 홍승은 작가(‘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저자) 등 3~4명 패널

○ 본회의

- 성원보고
- 2016년 여성위원회 총회 결과보고
- 2017년 한국노총 여성 활동 보고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구성
- 여성위원회 임원구성

- 기타토의

○ 폐회

6) 성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제언 채택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절된 사회는 성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여성노동에 대해 행해지는 차별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며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여성노동자는 동등한 대우와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여성노동존중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노동운동의 발전, 사회통합,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자 목표이다.

우리는 여성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조합에서 이행되어야 할 실천적 과제를 제언한다.

제언1. 국회는 고용, 임금,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인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에서 성평등 가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제언2.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여성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성별고용영향평가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언3. 일하는 여성의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녀임금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빈곤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언4. 정부는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위주의 저임금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언5.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충하여 보육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도입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언6.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모성보호협약(제183호)을 조속히 비준하여 관련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언7. 정부와 기업은 일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휴가, 휴직을 보장하여야 하며 가

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남성의 참여를 적극촉진하여야 한다.

제언8. 정부, 기업,노동조합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형태의 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혐오, 성희롱, 심리적 폭력,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언9. 우리는 여성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일자리 위원회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위원회에 적극개입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화 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언10.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운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조직확대'국제 캠페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성조직률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한국노총을 비롯한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조직 확대사업에 적극 매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통하여 여성노동가치가 존중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노동조합에 강력히 제언한다. 우리의 제언이 각 분야에서 관철 될수 있도록 관련의제를 이슈화하고 촉구하는 행동에 모든 여성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17년 11월 30일

2017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참가자 일동

7) 회의결과

- 여성위원회 임원구성 : 세진전자 윤복현 위원장

마. 기타회의

1)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임원 및 담당자 간담회

- 일 시 : 2017년 5월 29일(월)
- 장 소 : 홍보석
- 간담회 내용 :

-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 간부들 간의 밴드운영
- 여성사업 담당자회의 참석범위는 상근간부위주로 참석
- 여성간부회의는 사안에 따라 임원 및 여성사업담당자로 정례화

2) 한국노총 여성간부 워크숍

- 목 적 : 2017년 하반기 여성사업 및 각급조직의 여성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을 통하여 결속력을 높임.
- 일 시 : 2017 년 9월 25~27
- 장 소 : 제주도 오션스위츠호텔
- 주요내용 : 상반기 여성사업과 하반기 사업계획
 - 소통과 단결
 - 특강: 김주영 위원장
- 참석자 : 김영미 본부장

3)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1차회의

- 일 시 : 2017년 10월 26일(목)
- 장 소 : 한국노총 6층회의실
- 안 건 :
 - 한국노총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계획보고
 - 정의기억재단 10억원 국민모금운동보고
 - 2017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계획논의
 - 세계여성폭력추방캠페인 계획논의

2. 제110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가. 3.8 세계여성의 기념 기자회견 참석

1) 취지

- 제110주년 세계여성의날 기념 2018년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여성노동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현안과 이슈를 공론화하고자 함.
- 여성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성평등 개헌을 촉구하고, 여성의 미래가 보장되는 일자리정책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3.8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대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함.
- 한국노총 17만 여성조합원과 일하는 여성의 연대와 단결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여성노동 공약이행, 여성의 저임금 문제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개악 저지,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일 시 : 2018. 3. 7(수) 오전 10시
- 장 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
- 주 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 기자회견 순서

가)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나) 여성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회의 선도적 역할 촉구 발언

다) 성평등 개헌 촉구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주의와 구조화된 차별은 아직 견고하다.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여성과소대표성등 일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이번 개헌에 왜“성평등”이 중요한지 말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헌은 국민주권과 성평등 실현의 교두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 사회에 만연한 성불평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삶, 여성의 몸은 통제당하고 매순간 투쟁 속에 놓이는 게 현실이다

성평등에 대한 국가 목표와 책무를 천명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이번에만아말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핵심과제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me too운동이야 말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수 있다. 그동안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겪은 불평등한 삶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를 헌법에 담아 국가의지를 천명한다면 현재의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 10차 개헌은 성평등 관점과 성평 등 목표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평등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은 여성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드러날 때 가능하며 성공적인 개헌과 성평등 헌법 실현을 위한 여성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에 의한,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성평등 헌법 개정촉구는 남성위주의 정치와 제도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새로운 헌법 개정과정에서 여성당사자로서 더 적극적인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여성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정보공유와 토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성평등 개헌을 위하여 우리 노동계도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할 것이다. - 성평등한 그날까지 파이팅-

라) 여성의 저임금 문제 및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발언 김현중 (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 활약했으면서도 아직도 소외받고,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다. 아직도 남녀불평등의 사회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즉, 불안정한 고용조건, 법정 최저임금 언저리의 저임금, 단순노동의 일자리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저임금 구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

법은 없으며, 평생을 저임금 노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성노동문제는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몫인 것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다.

여성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난감한 것은 안정적인 전문직이든 생산직이든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든 마찬가지이며, 곧 육아는 여성의 몫이기에, 여성들은 일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몇 년씩 쉬게 되면 경력단절로 재 취업하기가 어려워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밖에 없는 것이다.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녀 공동의 몫이고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

올해 1월 1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지탱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지렛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근로시간 줄이기, 정원줄이기, 알바대체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한국 경제구조의 대개혁을 이끌어 내야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개혁할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대변되는 왜곡된 시장논리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최저임금제도, 특히 산입범위를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저임금노동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한다.

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촉구 :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바) 기자회견문 낭독 :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허권 (전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제110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요구 기자회견문]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라

제110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고 있는 2018년 3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성인권은 바닥을 칠 정도로 후퇴되었습니다.

잇을만하면 터지는 사회 고위권력층 성추행·성폭력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지난해 한샘·현대카드 등 직장 내 성희롱 사태가 사회적 망비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판 미투운동이 검찰,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빠르게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만연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명성과 인지도가 높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마저 성폭력 가해자로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추행·성폭력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성추행·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초강수의 대책이 나와 줘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은 물론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범국가적인 성희롱·성폭력 근절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존중과 안전한 고용환경을 구축해 나가는데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ILO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관련된 ILO 협약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녀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렇다 할 시

도가 없었다는 게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997년 한국정부가 ILO 제100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협약을 비준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남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녀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가 고착화되는 문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정규직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정부는 그 수치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임금계층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중장년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포함한 한국노총 노동존중 헌법개정안이 이번 국회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성평등 개헌 요구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로 고용, 임금,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미투운동으로 나타난 성폭력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협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남녀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남녀임금격차를 해결하라.
- 국회는 여성의 더 나은 삶과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을 개정하라
- 최저임금은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이며 정의다.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반대한다.

2018년 3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나. 3.8 세계여성의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1)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년 3월 8일, 14:00

○ 장 소 : 마포구청 대강당

2) 식순

- 개회
- 노동의례
- 여성노동자 상 시상
- 평등상 시상
- 대회사
- 축사
- 내외빈 소개
- 영상상영(변화의 시작, 평등을 위한 도전)
- 여성노동권리선언
- 딸들아 일어나라(다함께)

3) 여성노동자상 수상

- 금속노련 SK하이닉스청주 이해나 문화소통부장

4) 여성노동권리선언

이 세상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에게 자유와 권리의 봄은 쉽게 찾아보지 않았다. 지난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권력은 ‘모든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기본원칙과 작은 불씨의 시작이 세상을 바꿀수 있다는 값진 경험과 교훈을 남겼다. 우리는 110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당당한 권리주체로서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저항하

고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투쟁은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지위와 권리, 평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진정한 성평등 사회의 척도이다.

우리는 제 110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힘찬 연대를 모아 6대 여성권리선언을 외치고자 한다.

▸ 경력단절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속 일할 권리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정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경력단절의 고비를 맞는다. 2017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80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등의 이유에서다. 여전히 가사노동과 육아담당은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고 많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다. 여성도 생계책임자이며 일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직업선택의 권리와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여야 한다.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우리나라는 1997년 ILO 제100호(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보수 협약)기준에 따라 남녀고용평등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남녀의 경제적 불평등은 OECD 회원국중 가장 심하다. 노동의 대가에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수 없다.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명시하고 있다.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그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채용.승진.직업훈련등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거나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된다.

▸ 성희롱.성폭력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성희롱.성폭력 범죄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희롱.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누구나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공공.민간부문 여성관리직 비율

이 OECD 평균(37.1%)보다 3배나 낮은 10.5% 수준이다. 특히 여성임원은 2%에 불과하다. 기업내 고용차별은 여성의 참여와 직장내 승진을 가로막아 여성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 여성이 노동시장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을 할 권리

2015년 기준 노조조직율은 10.2%이다. 이중 여성조직율은 5%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조조직률은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연대를 강화시킨다. 특히 대다수의 여성들이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조직화 전략이 요구된다.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여성세력화를 이루고 여성권리와 노동조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8년 3월 8일

제 110 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18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3. 노동문화활동

가. 문화패 현황조사

1) 목적

사업장내의 문화패 구성과 현황을 조사하여 조직활동에 문화활동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문화패를 구성하고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문화패 구성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 조사결과

번호	노동조합명	문화패명	종류(율동/노래/풍물등)	비 고
1	한국보그워너T/S	한우리	율동	
2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율동	
3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예	풍물	
4	SK하이닉스이천	신화창조	율동	
5	“	천공소리	풍물	
6	새론오토모티브	어울림	풍물	
7	“	날개	율동	
8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풍물	
9	“	하울	율동	
10	명화공업	천지신명	율동	
11	명화공업 안산지부	선포	율동	
12	신한일전기	신천지	율동	
13	대덕GDS	천재일우	풍물	
14	“	가온	율동	
15	세아베스틸	개벽	풍물	
16	“	불꽃	율동	
17	매그나칩반도체	초아	율동	
18	영신정공	서평	풍물	

나. 문화부장 및 패장 워크숍

1) 목적

- 제8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개최에 관한 전반사항을 각 조직 문화담당자들과 논의
- 2017년 금속노련 문화사업 논의
- 단위노조 문화담당자들과의 연대 강화 및 노동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년 7월 13일(목)~14일(금) (1박 2일)
- 장 소 : 충주 수안보파크 호텔

3) 참석자

- 단위노조 문화담당자: SK하이닉스청주 김영삼외 15명

4) 주요내용

가) 노동문화경연대회 경과보고

2005년 1회 울동경연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7회 노동문화경연대회(울동, 풍물, 노래)까지 개최했으며, 2017년 9월 7일 8회 개최 예정. 현재 금속노련 산하에 15개의 문화패가 활동 중임.

나) 제8회 노동문화경연대회 개최 건

- 일시 : 2017년 9월 7일 오후 4시,
- 장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
- 울동, 풍물, 노래 3개 경연부문
- 경연대회 관련 일정
 - 3월 6일 제180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 5월 정기대의원대회때 사업계획 확정

- 6월 12일 단위노조에 경연대회 실시 확정공문발송
- 7월 13일~14일 단위노조 문화담당자(패장) 워크숍 진행
- 워크숍 이후 경연대회 참가자 신청 등 계획서 공문발송
- 8월 16일 참가팀 신청접수 마감 예정
- 9월 7일(목) 대회진행

○ 대회 진행순서 관련 의견

- 과거 경연대회 중간에 있었던 축하공연은 흐름을 끊어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마지막 심사 시간에 위원장의 선창으로 무대에 오르고 경연대회 참가자 전원은 무대에 올라 노동가를 합창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짐. 곡목 선정은 7월 21일(금)까지 문화패들의 추천을 받아 내부 결정 후 알려 주기로 함.
- 초대가수를 부르지 않음으로써 절약된 비용은 경연대회 참가자에게 균등 배분요청.

○ 대회 순서

- 노동의례
- 대회사
- 심사위원소개
- 경연대회
- 심사평
- 축하공연
“함께가자 이길” 위원장 선창후 문화패동지들이 함께 합창
- 발표 및 시상
- 폐회
- 함께 부르는 노래(철의 노동자)

○ 참가팀 유의사항

- 율동패: 5분이내, 3인이상, MR참가자 준비
- 노래패: 5분이내, 3인이상, MR참가자 준비, 민중가요 및 노동가로 한정

- 풍물패: 10분이내, 3인이상, 악기는 각자 준비, 풍물 사물 제한 없음
- 경연순서: 경연 시작 전 각 사업장 위원장 추천
- 시상부문:
 - 각 부문별로 4팀 이상 출전 시 : 금,은,동,장려상,
 - 각 부문별로 4팀미만 출전 시 : 점수로 평가하여 상을 정한다.

○ 기타의견

- 경연대회 영상을 찍다보니 관객석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영상이 잘 찍히지 않는다. 관객석 기본 조명을 조금더 밝게 해주면 좋겠다.

다) 2017년 문화사업에 관한 건

(1) 금속울동 제작에 관한 건

- 3개~4개(철의 노동자, 임을위한 행진곡, 깃발가 등)정도의 대중적 노동가를 정하여 금속울동을 제작하기로 함.
- 울동 제작에 사용할 곡명은 문화패 동지들과 논의를 통해(SNS 등) 정하고 누가 울동을 만들 것이며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제작한 울동 동영상은 금속노련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금속노련 공동 울동패를 조직하여 한국노총 내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금속노련 울동패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
- 금속노련 울동패의 멤버는 8명 정도가 좋을 것 같으며 4조직 정도에서 2명씩 뽑아서 구성한다.

라) 기타토의

- 하반기 문화담당자 워크숍: 제8회 노동문화경연대회 이후 9월 넷째 주에 문화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경연대회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5) 종합평가

- 금속노련 문화담당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음.
- 향후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생각과 정보를 교환할 것임.

- 카톡방 개설 의견도 있었으나 핸드폰을 교환할 경우나 방에서 나갔을 경우 과거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밴드 구성원은 15개 문화패의 문화패장과 문화패 멤버이며, 관련 사업이 있을 때 공지를 통해 업데이트 할 것임.

다. 제 8 회 노동문화 경연대회

1) 취지

가맹노조의 노동문화에 대한 의식고취와 현장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력 강화와 노동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본 노련에서는 노동문화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현장문화패의 활성화가 조직강화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노동문화경연대회가 현장문화패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노동문화경연대회에 많은 사업장이 참여하여 각 조직의 문화패 확대, 유지,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함. 노동문화에 대한 의식고취와 현장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직력 강화에 목적을 둬.

2) 대회에 관한 사항

- 일 시 : 2017년 9월 7일 16:30
- 장 소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대강당(경기 여주)
- 경연부문 : 율동, 노래, 풍물(사물, 풍물)
- 참가단위 : 한 사업장에서 각 종목별 한 팀만 출전가능

3) 참가팀 및 결과

가) 율동부문

번호	노동조합명	팀명	참가곡목	인원	결과
1	한국보그워너티에스	한우리	불나비	7명	금상
2	대동하이렉스	은혼	우리는	11명	은상
3	신한일전기	신천지	세상을 바꾸자	4명	동상
4	SK하이닉스이천	신화창조	돈세상	4명	장려상
5	SK하이닉스청주	하울	파도앞에서	6명	장려상
6	스태츠칩팩코리아	화살	포차+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3명	장려상
7	새론오토모티브	날개	싸워야한다+전선은있다	6명	장려상
8	세아베스틸	불꽃	싸워야한다	4명	장려상

나) 풍물부문

번호	노동조합명	팀명	참가곡목	인원	결과
1	SK하이닉스청주	하울림	반격	12명	금상
2	SK하이닉스이천	천공소리	설장구(휘모리채)	5명	은상

4) 평가

노동문화 경연대회가 벌써 8회를 개최하였다. 비록 시작은 대표자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하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의미 있는 경연대회가 되고 있다. 8회에는 율동팀이 많이 참가한 한해가 되었고 특히 새로운 팀의 출전은 긍정적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율동패를 유지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에 많이 칭찬하면서 율동패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노동문화경연대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 비록 문선대로서 역할이 예전과 다르지만 항상 노동조합이 준비하는 자세로 문화패 유지와 활동에 끊임없이 이어가기를 희망해 본다.

라. 노동문화교육

1) 목적

노동존중사회를 기치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의 시작한 한해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엔 늘 위기와 더불어 현상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로서 좀 더 나은 삶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패의 활동은 가장 큰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노련도 노동문화교육을 통해 문화일꾼들의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하여 끊임 없이 교육을 집행하고 끝나지 않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

2) 교육실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년 3 월 28 일 - 3 월 30 일(2박 3일)
- 장 소 : 하네테마파크

3) 대 상 : 노동문화일꾼 남녀 동지 108명

4) 교육내용

- ① 노동자와 정치(노회찬 국회의원)
- ② 주요노동이슈(한국노총 김형동부원장)
- ③ 공동체 놀이(일하는 아카데미 유정임, 양향옥)
- ④ 몸짓배우기(들꽃)
- ⑤ 노동운동정세(곽상욱부장)

5) 교육평가

- ① 노동정세 및 노동관계법 설명이 좀 더 많았으면 합니다.
- ② 교육장소중에 숙박 장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③ 몸짓배우기중 창작의 재미를 느껴 좋았다.
- ④ 풍물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
- ⑤ 노조간부들이 많으니 노동법률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 공동윙동 제작활동

○ 취지

- 사업장에서 몸짓에 대한 수요와 투쟁준비를 위해 공동윙동을 제작하여 사업장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함.

○ 방법

- 노동문화교육집행과정에 곡목을 선정하여 제작함.

○ 일 시 : 2018 년 3 월 28 일 - 3 월 30 일(2박 3일)

○ 공동윙동 곡목 : 철의노동자, 파업가, 단결투쟁가

○ 배포방법

- 금속노련 홈페이지(metall.or.kr)에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다운받아 활용

○ 이번 제작을 시작으로 좀 더 많은 곡을 확대하도록 할 것임.